

신앙과 학문

Faith & Scholarship

제27권 제1호 (통권 90호) / 2022. 3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1호 (통권 90호), 2022년 3월호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

■ 일반 논문

- 005 해방전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종교지형 연구:
주요인물의 상호관련성 및 '기독교 민족주의' 사상 공유를 중심으로 | 정교진 / 임호정
A study on major Protestant figures and Religious landscape in the northern region
before liberation: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major figures
and the sharing of 'Christian Nationalism' ideology | Kyo Jin Jung / Ho Jung Lim
- 039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 김기흥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s Differentiation in the
Attitude to the Disabled | Ki-Heung Kim
- 067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섭 및 분별의 선교 | 최용성 / 강순규 / 최병학
Mission of Consolidation and Discernment in
Evangelicalism and Ecumenical Missions | Yong Seong Choi / Soon Gyu Kang / Byung Hak Choi
- 089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 김병재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Culture
-Focused on the Humanity of Christ- | ByoungJae Kim
- 121 16세기 후반 기독교 세계의 고난과 구원의 상상: 루터파 항해 이미지 분석 | 오종현
A Study on Imagination of Suffering and Salvation in the Christendom in the
Late 16th Century: Analysis of Lutheran Voyage Images | Jonghyun Oh
- 143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 박안나 / 김 준
A Study on Counseling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 Anna Park / Jun Kim
- 165 교회 상담에서의 정신장애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적용 | 박은호
Application of Biblical Counseling for Mental Disorder in Church Counseling | EunHo Park
- 193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聖地巡禮旅行) 발전방안 모색 | 이웅규 / 김농오 / 이창훈
Searching for The Christian Relics of Evangelist Jun-kyung Moon
Development plan for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
WoongKyu Lee / NongOh Kim / ChangHun Lee

해방전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종교지형 연구: 주요인물의 상호관련성 및 ‘기독교 민족주의’ 사상 공유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jor Protestant figures and Religious landscape
in the northern region before liberation: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major figures
and the sharing of ‘Christian Nationalism’ ideology**

정 교 진 (Kyo Jin Jung)**

임 호 정 (Ho Jung Lim)***

ABSTRACT

It was none other than Protestantism that became the medium of progress against Neo-Confucianism in the northern region after the enlightenment period. The leaders of the major forces in the northern region specifically addressed in this study, such as Ahn Chang-ho, Cho Man-sik, Han Kyung-Chik, Kim Kyo-shin, and Kim Chai-joon, can be referred to as Korean Protestant nationalists. In some respects, “Christian nationalism” can be said to be the common denominator of these Protestant leaders. This ideology has a strong antagonistic character to ‘exclusive nationalism’ based on Neo-Confucianism. Of course, early nationalists like Ahn Chang-ho were under the influence of Neo-Confucianism. However, as they came into contact with Christianity, they grafted nationalism into the Christian faith and advocated “Christian nationalism.”

It is a fact that the “Christian nationalism” established by early Christian nationalists under the influence of conservative theology also had some influence on the Protestant leaders who pursued liberal theology. It appeared as a movement to establish a national identity and capacity-building movement. However, the religious landscape in which they

* 2021년 11월 11일 접수, 12월 12일 최종수정, 12월 22일 게재확정

**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Seoul Theological University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연구교수, 경기도 부천시 호현로 489번길 52(소사본동) 서울신학대학교 백주년기념관 714호, ezekie9191@gmail.com

*** 이화여대 북한학과(Ewha Womans University - North Korean Studies) 박사수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 이화여대 학교, lilydew@daum.net

stood was clearly different, and due to this influence, conservatism and liberalism are still on the opposite side until today in Korean Protestantism. Nevertheless, both early Protestant leaders dreamed the same dream which is self-reconstruction and society-reconstruction, further national-reconstruction, and nation-reconstruction through Personality discipline and capacity-building based on the spirit of 'Christian nationalism' and in a larger category 'nationalism'.

Key words : Fundamentalism, liberalism, Religious landscape, Christian Nationalism, Trans-religious nation, Christian nation, ethnic Christianity, open Christianity

I. 들어가며

1. 문제제기 및 연구목표

월남 개신교인들에 대한 연구는 1990년대부터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그 특징은 대부분 강인철의 논점¹⁾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강정구, 1992; 손영준, 1993; 김귀옥, 1999; 김형정, 2010; 김상태, 2011). 몇 가지 공통적인 주장들이 있는데, 바로 월남 개신교인들이 반공이데올로기로 남북분단을 고착시킨 주체들이라는 것과 이들이 친미보수주의자들로 이승만 정권에 편승했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월남 개신교인들이 해방 후 남쪽으로 월남하는 사태가 발생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남한 사회에는 사회주의적인 풍토가 낫설지 않았다. 역사학자들에 따르면, 1920-30년대 남쪽에서는 이미 '기독교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관심이 일반화되었다고 한다(김홍수, 1992; 강명숙, 1999; 장규식, 2001; 김권정, 2015). 1917년 러시아 혁명과 그 이후 한국에 소개된 사회주의 사상은 1920년대 초의 한국 민족운동과 민중들의 사회의식 진보에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인들은 사회주의 이론에서 처음으로 민족해방과 사회변혁을 위한 이론적 도구를 찾았던 것이다(권진관, 1992:8). 특히 사회주의 세력은 1920-30년대 기독교 배척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기독교와 사상적, 운동적 대립관계를 형성하였다. 교회 안에서도 정치사회 문제를 외면한 '비정치화' 경향의 교회지도자들을 규탄한 기독교청년들 속에서 사회주의 사상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기독교계에 심각한 동요를 불러왔다.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공개적으로 반종교운동을 표명한 것은 1923년 4월 '전조선청년당대회'에서였다. 여기에는 일반 청년단체 이외에도 선천기독교청년회 등 9개의 종교 청년단체가 참가했다(김권정, 2015). 이처럼, 1920년대 초반부터 기독교 안에 사회주의 사상이 보편화되었고,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개신교 안에 팽배해 있었다. 월남 개신교인들이 아니더라도 이미 남쪽지역에서는 사회주의(공산주의)에 대한 경각심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반공의 주체세력으로 월남 개신교인들을 몰아세우는 것은 오류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월남 개신교인들과는 무관하게 해방 후 남쪽지역 교회들도 미군정의 후원 아래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였다. 이러한 정치참여를 통해 적극적인 복음의 확장을 꾀했다. 이는 기독교 국가의 건설이라는 당면 과제와 맞물려 전개되었다.²⁾ 하지만, 남쪽지역에서 한국교회의 정치참여는 주

1) 강인철은 “월남자 그룹이 남한사회 안에서 가장 극단적인 반공주의 세력이었으며, 개신교 월남자들 또한 마찬가지였다. 반공주의는 월남자들과 독재정권을 묶어주는 가장 중요한 이데올로기적 접착제였다”고 했다(강인철, 1992:91-141; 강인철, 2008:145).

2) 정인과 목사가 이끌던 조선민주당, 양주삼 목사가 주도한 기독교동지회, 그리고 박용희 목사가 앞장섰던 사회민주당 등이 결성되거나 결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정당으로 흡수되거나 자진 해체되었다(장규식, 2003:16).

로 기독교단체나 우익정당 참여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기독교단체로는 친미·반공적 성향의 ‘조선기독교남부대회’(1946, 김관식), ‘기독신민회’(1945, 박용희), ‘독립축성기독교중앙회’(1945, 함태영), ‘조선기독교청년동맹’(1945, 김규식), ‘그리스도교연맹’(1947, 함태영) 등이 있다. 한편, 반미·친공적 성향의 단체도 있었는데, 바로 ‘기독교민주동맹’(1947, 김창준)이다.

위의 단체들의 현황만 보더라도, 이미 남한지역의 정치지도자에게 반공사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민주동맹’처럼 반미·친공의 좌익 성향의 단체도 있었음이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월남 개신교인 하면 앞의 기존연구자들처럼, 친미, 반공, 보수(근본주의)로 규정하는 경향이 강한데, 이런 생각은 말 그대로 ‘대략적인 사고’일 뿐이다.(김건우, 2015). 월남 개신교인 유력 세력 가운데도 자유주의 신학의 풍토와 중도적, 반미 성향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표적 세력으로 김교신, 함석헌 등의 <성서조선>(잡지명) 멤버와 간도 용정지역에서 일어난 김재준과 그의 제자(강원용, 문익환, 문동환, 안병무)들의 <한신과 그룹>(후에 붙여짐)이다. 월남 개신교인들을 반공, 보수주의자들로, 남북분단 고착화의 주체들로 평가하는 것은 한경직이 중심이 되는 일부 장로교 보수세력에 대한 연구에만 편중되고 한정되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월남개신교인들이 대부분 친미보수주의자들로 이승만 정권에 편승하여 국가-교회 간 유착관계를 형성시켰다는 견해도 일부 장로교 보수세력에 대한 편중된 연구에서 비롯된다. 월남 개신교인들은 이북지역에서부터 이미 정치활동을 한 인사들이다. 이들은 이승만 정권에 편승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구심적 역할을 하였다. 안창호의 수양동우회와 흥사단은 야권의 주요세력이었다. 따라서 월남 개신교인들이 정치에 편승했다는 주장은 어폐가 있다.

이 같은 오류 검토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해방 전 이북지역(간도 포함)의 대표적인 개신교 지도자들의 정치-종교지형(신학적 성향)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더불어, 지도자간 교차관계 및 상호영향력을 조명함으로 지도자들 간에 공유되었던 기독교 사상이 있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대표적 개신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①안창호 ②조만식 ③한경직 ④김교신 ⑤김재준 등이다. 지도자들 선정하는 데 있어 종교만이 아닌, 정치지형에 속했던 이들로 해방 후의 영향력까지도 고려하였다. 시기순으로 하면 안창호 선생이 가장 앞선다. 안창호 선생은 ‘기독교 민족주의’를 전국적으로 보급시킨 장본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기독교 민족주의’에 대한 이론적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연구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및 배경: '기독교 민족주의' 논의

1) '민족주의' 검토

‘민족주의’는 근대국가 형성의 대표적 이데올로기로 민족의 정체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대중들을 통합하고, 다른 민족과 구별되는 자율적 민족공동체를 구성하는 이념적 운동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포괄하는 주제와 범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방대할 뿐만 아니라 이에 접근하는 학문적 방법론도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보편적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임지현, 1999:21-26).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한 ‘자국중심적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이다. 다른 하나는 제국주의에 희생된 지역들에서 나타난 ‘저항적 민족주의’이다(최영근, 2010:10). 두 번째 유형인 ‘저항적 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와는 조금 다른 성격으로 일제강점기에 나타난 민족주의 대표적 양식이다.³ 민족주의는 한국 근현대사 이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이다. <조선>이라는 전통왕조국가가 일제 식민 지배 과정을 통해 해체되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근대국가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한국을 근대 민족-국가로 재건하고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해방 이후 민족주의는 국가 수립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국가에 정통성과 정당성을 부여하였고 국민을 민족의 이름 아래 수렴하고 통합하여 이끌어가는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 기능하였다(최영근, 2010:12).

손규태는 한국 근대사에서 형성된 민족주의를 ‘성리학적 민족주의’, ‘실학적 민족주의’, ‘동학적 민족주의’, ‘개신교적 민족주의’로 유형화하였다(손규태, 1995). 여기서 ‘성리학적 민족주의’는 ‘배타적 민족주의’를 가리키며 ‘개신교적 민족주의’는 바로 ‘기독교 민족주의’를 가리킨다.

2) '기독교 민족주의' 검토

한국에서 기독교는 근대화 혹은 문명화를 매개하면서 민족주의와 깊숙이 연결되어 한국사회 주류 종교로 자리잡아 나갔고, 한국 민족주의가 일제시기 한국사회에서 보존되고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와 매개가 되었으며, 기독교 복음이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민족주의와 ‘접합’하여 ‘기독교 민족주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독교’와 ‘민족주의’는 서로 대치되는 성격으로 파악 되었다. 수많은 기독교 사상가들은 민족주의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었는데, 개신교 사회과학자인 자크 엘룰(Jacques Ellul)은 민족주의를 우상숭배로까지 간주했다. 자크 마리탱(Jacques Maritain)은 민족은 ‘성스러운

3) 저항적 민족주의’는 일본의 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으로 발전하였고 중앙집권적 국가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이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였다. 일제의 탄압과 통제가운데 파편화되었고, 민족주의 노선 사이의 갈등과 경쟁, 그리고 내적인 에너지와 운동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향과 목표를 지닌 운동으로 다변화되었다.

절대 이기심을 지닌 세속적인 신성'이 되어버렸다고 비판했다. 1,2차 세계대전의 재앙은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민족 국가의 개념 그 자체뿐만 아니라 교회와 민족국가를 동일시하는 것을 책망하도록 부추겼다고 주장을 하였다.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Karl Barth)와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이 운동의 탁월한 지도자들이었다(케네스 웰즈, 2017:13). 이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를 분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하지만, 개화계몽기를 지나 일제강점기 아래 있었던 우리 민음의 선진들은 '기독교'와 '민족주의'를 접합시키고자 하였다.

개화계몽기의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리학(배타적 민족주의 표방)을 배경으로 했던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의 주안점이나 방법 등, 일부 요소를 포함시켰지만, 개신교적 가치관으로의 민족적 정체성 변화를 추구하므로 사대주의와 성리학자 기독교층의 부패한 사리사욕에 반대하였다. 새로운 민족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노선에 따른 상업과 공업의 근대화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케네스 웰즈, 2017:29-30). 그 출발점은 1896년에 세워진 독립협회라 할 수 있다. 협회를 세운 주요인물인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는 성리학 배경 아래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신교 개혁가들로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기르기 전에 내면적, 영적, 윤리적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상을 내세우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가장 우선시하였다. 이 같은 정신은 1920년 당시,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였다. 1922년 4월 4일에서 6일까지 개최된 세계기독교학생청년회(WSCF)에 조선인 대표로 이상재, 김활란, 김릴페, 이대위, 신흥우, 여운홍이 참석했다. 이 대회的主題는 '기독교와 세계개조'였는데, 기독교정신으로 개인을 개조하면 그것이 국가의 개조가 되고 나아가 세계를 개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김광식 외, 2008: 29-45). 한국기독교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기점으로 비정치화, 비역사화되면서 민족주의와 단절되는 측면도 있었지만, 1919년 삼일운동을 기점으로 '기독교 민족주의'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김권정, 2015: 23).⁴ 그 확산과정에 기독교 민족주의는 서로 다른 성격의 담론들을 양산하게 된다.

4) 김권정은 기독교와 민족주의 결합의 조건을 “기독교신앙의 내적 논리가 민족운동의 일반논리와 결합되어 민족운동에 동력이 되었을 때라고 보았다.

II. 해방 전 북한지역의 개신교 생성 및 종교지형

1. 해방 전 남북한 개신교 분포

해방 전인 1941년도 남북한을 합친 개신교 인구는 33만 9천명이었다. 이 가운데 90.5%가 장로교(75.6%)와 감리교(14.8%) 소속이다. 북한지역에서는 두 교파 신자들의 비율이 남한지역보다 더욱 높았다. 당시 북한 개신교 신자는 모두 22만 8천 명으로 이 가운데 장로교(83.8%)와 감리교(10.2%)의 신자가 북한 개신교 인구의 94%를 차지했다. 특히 북한 개신교 신자의 89.2%가 서북지역(평안도, 황해도)에 거주하고 있었다. 서북지역의 경우, 장로교(84.7%)와 감리교(10.9%)에 속한 개신교인의 비율이 무려 95.6%나 되었다(강인철, 1992: 136).

해방 당시 남북한 전체 개신교 신자의 60%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같은 시기 북한 인구의 2.2%)이 북한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5년 사이에 교세가 급속히 증가했으며, 북한 개신교 인구의 35-40%에 해당하는 7-10만 명이 남한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된다(강인철, 2008: 132).

2. 해방 전 북한지역의 개신교 현황 : 근본주의 대 자유주의 대립각

북한지역에서 개신교 활동의 중심은 서북지방이었다. 서북지방은 조선조 내내 차별을 받았던 지역이다. 근대 이후 개신교의 세가 전국에서 가장 강했던 것도 개신교를 조선조 통치이념인 주자학에 대항하는 가치관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김준엽, 2003: 38; 김건우, 2017: 39).⁵ 이 지역에서 개화 계몽기에 개신교가 일찍 수용된 것은 평안도를 중심으로 상공업이 일찍 발달한 배경이 깔려있다. 개화 계몽기 이후 이 지역에서 '진보'의 매개가 된 것이 다름 아닌 개신교였던 것이다.

19세기 말 한국에 진출한 서구 개신교는 교파 교회들로 미국의 남북장로회와 캐나다장로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회가 있다. 한국에 파견한 장로교 계통 4개 선교회와 감리교 계통 2개 선교회에 속한 선교사들은 1892년부터 1909년에 이르기까지 상호간의 과도한 경쟁을 억제하는 조치로써 일련의 '선교지역분할협정'(Agreements on Division of Territory)을 체결하였다. 그 결과 서북지역은 북장로회와 북감리회가 맡았고, 관북지역(함경도) 대부분 및 간도지역은 캐나다장로회가, 관북지역 일부(함경남도 일부)는 남감리회의 관할지역으로 설정되었다(한국기독교사연구회, 1989: 213-218). 이에 따라, 서북지역은 한국 장로교의 핵심 근거지가 되었고 일제 강점기 내내 한국개신교의 서북 주도 양상은 지속되었다(김상태, 1998: 176).

5) 김건우는 조선의 이념인 성리학을 중심에 놓았을 때에는 평안도(서북지역에 포함)가 변방의 가장 낙후한 지역이었지만, 유교적 질서에 반하는 것을 '진보'로 상정하면 오히려 가장 앞선 지역일 가능성이 있었다고 제시함.

195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교회에 대한 선교사들의 지도력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이고 교파주의적인 지역분할은 선교부의 선교정책과 신학노선에 따라 지역 교파 간의 이질성을 심화시키고, 종교권력을 둘러싼 지역 간의 갈등은 항시적이었다. 1920-1930년대에 이런 일들이 전형적으로 발생했다. 장로교의 경우, 한국에 진출한 4개 선교회가 모두 근본주의적 성향의 대단히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기조로 삼고 있었다. 그러나 1925년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감리교, 회중교회 등 다른 캐나다 개신교 교파들과 연합하여 ‘캐나다 연합교회’로 재편되었으며, 이질적인 신학적 지향을 지닌 교파들의 연합과정으로 ‘자유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하게 되었다. 19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캐나다에는 과학과 성서비평이 크게 유행하였다. 결국, 이러한 도전이 기독교 자유주의(기독교의 초자연적인 면을 불신하고 기독교 윤리에 집중하는 경향)의 발전을 가져왔다. 캐나다에서 기독교 자유주의는 20세기까지 계속 성장하였다(기독교대백과사전 제14권, 2002: 1137).

이 무렵부터 캐나다연합교회의 한국 선교회를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보수주의 신학에 젖어 있던 관북지역 장로교 신자들 사이에서 수년 동안 엄청난 혼란과 분규가 이어졌다. 관북지역은 점차 신학적 자유주의를 공공연하게 가르치는 한반도 유일한 지역으로 변해갔다. 캐나다 한국 선교회는 타문화, 타종교들에 대한 관용정책을 펼치므로 한국의 사당, 성황당의 존재 및 그 종교행위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이는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신학을 가진 타 국가 선교사들과는 차별화된 정책이었다(서정민, 2007: 271). 세계 2차 대전 발발로 선교사들의 지배력이 약화 된 1940년에는 일부 관북 출신 한국인 장로교 지도자들이 서울에 자유주의자들이 주도하는 최초의 신학교(조선신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한국 내 최대의 선교단체인 북장로회가 대부분 관할하던 서북지역에서는 이와 정반대의 일이 전개되었다. 수십 년에 걸친 미국 장로교의 근본주의 대 자유주의 대결에서 자유주의자들이 1920년대에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파견된 선교사들의 압도적 다수 세력인 근본주의자들은 자유주의적인 선교사들의 한국 입국을 막는 등 모교회의 이런 변화를 끝내 수용하지 않았다. 조선신학교 등장 이전에 유일한 장로교 신학교이자 서북지역 중심도시인 평양에 소재하고 있던 평양신학교는 근본주의 신학의 공고한 성채로 남아 있었다. 이처럼, 1920-1930년대에 걸쳐 관북의 자유주의와 서북의 근본주의라는 신학적 지형의 분화가 진행되었다.

일제 강점 말기, 조선신학교로 대표되던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식민지 당국의 정책에 대체로 협조적이었다. 오히려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가치들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느꼈을 때, 특히 일제 당국에 의해 신사참배와 궁성요배가 강요되었을 때 이를 ‘우상숭배’로 간주하여 격렬하게 저항하고 탄압을 받았던 이들은 신학적 보수주의자들이었다.

해방 후 1950년대까지도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은 냉전적 반공, 분단체제와 독재적인 기존 정치체

제에 순응하거나 협력하였다. 시대정신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신학적 자유주의자들의 사회 참여는 보수적인 성격을 띠 수도 진보적인 성격을 띠 수도 있었다. 한국의 경우 오랫동안 신학적 자유주의는 보수적 정치참여와 결합하였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신학적 진보주의는 정치적 진보주의와 결합되기 시작했다.

III.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핵심사상

이북지역은 한국개신교의 중심지로서 해방 이전부터 막대한 조직을 갖추고 있었으며 역량을 갖춘 사회의 지도자들을 배출해내었다. 중심이 되었던 지역은 서북지역으로 이 지역 개신교 신자들은 일찍부터 상인층과 민족자본가층, 중농 이상의 농민층에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성향으로 이 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일찍부터 시민의식이 형성될 수 있었다. 1910년 5월 당시, 서북지방의 개신교계 학교는 모두 511개로 이는 개신교계 학교 전체의 78%, 전국의 종교단체 설립학교 중의 64%, 전국 사립학교 총수의 23%에 해당한다(윤경로, 1986: 313).

이북지역의 개신교 주요인물과 그들이 이끌었던 단체는 다음과 같다. ① 안창호의 「수양동우회」 ② 조만식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 ③ 한경직의 「기독교사회민주당」 ④ 김교신의 「성서조선」 그룹 ⑤ 김재준의 「용정기독교모임」(이후, 한신파)이다.

1. 안창호의 '기독교 민족주의'

도산 안창호(1878-1938, 평남 강서)는 개화 계몽기와 일제 강점기에 걸쳐 서북 지식인들의 정신적 지주이면서 조직의 중심이었다. 그는 청일전쟁 당시 1895년 상경하여 구세학당에 들어가 개신교인이 되었다. 1897년에 독립협회에 가입하였고 필대은과 함께 평양에서 관서지부조직을 맡게 되었다. 이때 평양지회 결성식이 열린 평양의 쾌재정에서 감사 조민희와 수백의 군중이 모인 가운데 18 조목의 쾌재와 18 조목의 부재를 들어 정부와 관리를 비판하고 민중의 각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1898년에는 서울 종로에서 이상재, 윤치호, 이승만 등과 만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1899년에는 강서군 동진면 화암리에 강서지방 최초의 근대학교인 점진학교를 설립하였다. 1902년 도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하여 교포들의 권익보호와 생활향상을 위한 한인공동협회를 만들었다.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1906년 귀국, 10월에 계몽운동을 위해 박은식, 김병희, 신석하, 정운복, 이갑, 유동설, 노백린 등 평안도, 황해도 출신 인사들과 함께 평

양에 「서우학회」를 세웠다(서정민, 2007: 39).

1907년에는 윤치호, 양기탁, 신채호, 이동녕, 이동휘(1906, 한북흥학회), 이승훈과 함께 항일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 만들어 《대한매일신보》를 기관지로 하여 새로운 근대국가 건설을 꾀하였다. 평양에는 대성학교를 설립하여 청년학우회를 조직, 민족지도자 양성에 힘썼다.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 청년학우회가 해체되자 1913년 「홍사단」을 조직하였다.

1919년 3·1운동 직후 상하이로 가서 임시정부 조직에 참여, 내무총장, 국무총리 대리 등을 역임하며 《독립신문》을 창간하였다. 1921년 임시정부의 내부분열로 1924년 미국으로 건너가 홍사단 조직을 강화하였다. 안창호를 중심으로 한 미국 홍사단은 로스엔젤러스(LA)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지역의 한인 및 유학생들이 그 일원이 되었다. 한편, 하와이나 미국 동부지역에서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기호세력이 그 세가 강했다. 미국의 홍사단을 거점으로 그 세력이 집결되어 있던 안창호 세력은 3.1운동 이후 운동의 확대를 위한 한국인 다수가 거주하고 있는 국내 홍사단 조직결성을 모색하였다(김건우, 2017: 42). 그래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 1926년에 홍사단 계열의 개량주의적 민족운동단체인 「수양동우회」를 조직하였다. 이 단체는 1922년 2월 서울에서 조직된 ‘수양동맹회’와 1922년 7월 평양에서 조직된 ‘동우구락부’가 결합한 조직이다. 이때 간부에 선임된 사람들은 김종덕, 박현환, 김윤경, 정인과, 조명식, 이경선, 김태진, 이윤재, 조병옥, 김창세, 정두현, 김여식, 박선, 김성업, 조명식, 김병연, 김동원, 유기준 등이었다(김권정, 2015: 200-201; 정교진, 2018: 196).

이들은 조직의 성격을 도덕적 인격수련과 경제적 실력양성을 위한 비정치적 수양단체로 규정했다. 그 이유는 3·1운동 이후 국내외 변동 속에서 세계가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 존재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실력양성론적 인식이 1920년대 전반 개신교 안에 팽배해 있었기 때문이다. 수양동우회는 크게 네 가지 계열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광수, 김윤경, 이윤재 등의 수양동맹회 계열이다. 두 번째는 조병옥, 주요한으로 대표되는 언론가 계열이다. 세 번째는 교육가 계열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서북지역의 중소자본을 기초로 형성된 중소자본가층 계열이다. 이들은 평안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른바 자립적 중산층으로 불리는 평민층 출신이 조직의 주요 구성원이었다. 서북지역의 학교(대성, 오산, 숭실, 신성, 양실)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학창시절에 안창호, 이승훈, 조만식의 영향을 받았으며 미국유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김권정, 2015: 51).

개신교 교과로는 대부분이 보수적인 장로교 출신이었고 운동 경력에서도 주로 신민회 등 서북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애국계몽운동 계열이었다. 이후 안창호의 해외 홍사단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활동하였다. 1930년대에는 수양동우회의 영향력이 본회가 있는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강력했으며 학력에서도 전문학교 이상 고학력자가 전체 회원의 절반 이상이며 미국 유학 출신은 20명에 이

르는 당시 최고 엘리트를 망라한 '중추계급'의 거점이었다. 당시 평양의 핵심 멤버는 김동원을 비롯하여 송창근, 이정선, 한승곤 외 김봉성, 김성업, 김하현, 박영로, 오정수, 이선행, 장성심, 최능진, 최윤호 등이었다(장규식, 2001; 144-145). 이들은 민족운동의 방략에 있어서 서북지역의 중소자본가의 자본 축적을 바탕으로 한민족자본의 육성을 도모하는 실력양성론을 강조하면서 인격수양과 자아혁신을 통한 민족개조론을 추구하였다. 민족개조론은 안창호의 핵심 사상으로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이 그 바탕에 깔려있다. 안창호와 같은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기독교 민족주의'는 성리학을 배경으로 했던 이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성리학의 주안점이나 방법 등, 일부 요소를 포함시켰지만, 민족국가체제를 세상을 위한 당연하고 타당한 질서로 받아들였고 개신교적 가치들에 맞추어 민족적 정체성이 바뀌기를 소망했다. 그들은 개신교적 영성을 자주와 공공 이타주의로 여겼고 이는 사대주의와 성리학자 기득권층의 부패한 사리사욕에 반대하였다. 새로운 민족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노선에 따른 상업과 공업의 근대화와 더불어 자유민주주의로 체계화되어야 한다고 믿었다(케에스 웰즈, 2017: 29-30). 그 출발점은 1896년에 세워진 독립협회라 할 수 있다. 협회를 세운 주요인물인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로 이들은 성리학 배경 아래 있다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들은 개신교 개혁가들로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기르기 전에 내면적, 영적, 윤리적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상을 내세우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이가 바로 안창호였고 그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단체가 바로 수양동우회였다.

2. 조만식의 '범 종교적 국가'

조만식(1883-1950, 평남 강서)은 안창호와 같은 동향인으로 일제 강점기 평양의 대표적인 개신교 민족주의 지도자였다. 그는 1920년 이래 「평양물산장려회」를 이끌었고 1932년부터는 조선물산장려회 이사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평양 물산장려회가 조선물산장려회와 같이 운동을 추진하였고, 이로써, 조선물산장려회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조만식은 1932년 5월 전국적인 절제운동단체로 창립된 '전조선기독교 절제연합회'에서도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창립임원으로 공동회장이 되었다. 이 단체는 주류, 연초, 아편, 창기, 악질폐습 등의 해악 제거를 목표로 추진했는데 이는 3·1운동 이후 기독교 세력이 추진한 민족·사회운동의 일환이었다. 1930년대 이북의 서북지역에서 기독교계 농촌운동이 적극 추진되었는데, 주요세력은 장로교 농촌부였다. 장로교 농촌운동은 1933년 농촌부의 총무로 부임한 배민수가 그의 동료인 박학전, 유재기, 김성원 등

과 함께 호흡을 맞추면서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했다(배민수, 1994: 347). 이들은 조만식을 중심으로 한 「기독교농촌연구회」를 통해 농촌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모색하였다. 조만식은 1929년 6월이 연구회에 고문으로 선출되어 농촌문제의 연구와 운동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상적인 차원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투영되고 작동되는 새로운 농촌운동을 추진하고자 했다.

조만식은 평소 대동단결을 주장하여 사회주의자들을 포함하려고 했지만, 민족주의를 개량주의라고 비판하며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공산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이 같은 그의 정치적 성향은 해방 후 세워진 「평남건국준비위원회」⁶⁾(이하 평남건준)에서 잘 나타난다. 조만식은 평남 건준의 조직 편성을 김병연과 이주연에 맡겼는데 이주연은 사회주의자였다. 물론, 평남 건준은 개신교인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하지만, 타 종교인(김필현, 지창규)들도 참여했으며, 사회주의자(이주연, 한재덕, 김광진)들도 포함되었음을 보게 된다. 이처럼, 평남 건준은 민족주의자의 주도 아래 좌익인사를 포함시켰다. 이는 조만식이 평남 건준이 비록 민족주의자들이 주도하지만 좌익을 포함하여 범민족적인 성격을 갖기를 원했던 것을 반영해 준다. 또한, 평남 건준의 주요 위원들은 일제 강점기에 실력양성론자들로서 온전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신민회, 3·1운동, 조선물산장려운동, 신간회, 수양동우회사건 등과 관련하여 옥고를 치렀다. 김동원은 신민회와 105인 사건에 연루되었고, 이윤영은 3·1운동에, 조만식과 오윤선, 김병연, 한근조 등은 조선물산장려운동에, 이주연, 홍기주, 지창규는 신간회, 최능진은 수양동우회사건에 각각 관련되어 옥고를 치르거나 어려움을 겪었다. 이윤영과 홍기주는 다 같이 친일 기독교에 반대하여 목사직을 면직당했다. 이후, 이들은 무력으로 일본과 투쟁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고 실력을 양성하여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자는 생각을 가졌다. 그래서 이들은 학교사업, 물산장려운동, 절제운동, 농촌계몽운동, 신사참배 거부운동 등을 주도했었다. 평남 건준을 구성하고 있는 인물들은 민족주의적이며, 기독교적이고, 실력양성을 주장하며,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유지들이었다. 조만식은 좌익과 타 종교를 고려하고, 젊은 사람들도 참여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건준의 인적 구성에서 민족의 총 역량을 집결하려는 노력을 보였던 것이다. 이들 평남 건준 위원들은 조만식이 10월 하순 창당한 「조선민주당」에도 대거 참여하였다. 조선민주당은 11월 3일 평양에서 105인 발기인 이름으로 창당하여 33인의 중앙상무집행위원을 선출했는데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조만식, 오윤선, 이윤영, 최용건, 이종현, 김병현, 우제순, 김익진, 백남홍, 김책, 조종완, 홍기한, 정인숙, 박현숙, 한여사, 오영진, 김규환, 이계환, 윤무준, 박재창, 박승환, 이호빈,

6) 1945년 8월 17일 오후 2시에 평남 건준이 조직되었다. 위원장에는 조만식이, 부위원장은 오윤선, 총무부장은 이주연, 치안 부장에 최능진, 선전부장에 한재덕, 교육부장에 홍기주, 산업부장 홍정모, 재정부장 박승환, 생활부장 이종현, 지방부장 이윤영, 외교부장 정기수, 무임소(민족주의) 김병연, 무임소(법조계) 한근조, 무임소(법조계) 김익진, 무임소(천주교) 김필현, 무임소(유리) 지창규, 여성부장 박현숙, 무임소(의학) 김병서, 무임소(민족주의) 김동원, 무임소(법조계) 노진설, 무임소 김광진 등, 총 21명이었다(박명수, 2015: 34-36).

윤장엽, 전영택, 홍기주, 차재익, 전준삼, 박선권, 김병조, 조명식, 고몽헌, 2명 불명. 이들 중, 평남 건준의 위원이 조만식을 비롯해서 오윤선, 이윤영, 김익진, 박현숙, 홍기주 등 여섯 명이 된다(박명수, 2015: 121).

3. 한경직의 '기독교 국가'

한경직(1902-2000, 평남 평원군)은 오산학교(정주, 1916-1919)와 평양숭실대학(1922-1925)을 나와 미국으로 유학,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했다. 1932년 귀국 후 평양숭인상업학교(조만식교장) 교목 겸 교사로 활동했고(김병희, 1982: 36), 1933년 신의주 제2교회에 전도사로 부임, 1934년 목사안수를 받았다. 1945년 9월 18일에 윤하영 목사(신의주제일교회 담임)와 함께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였다. 당명을 '기독교사회민주당'이라고 붙인 데에는 "기독교의 동정이 자본계급보다는 노동편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한경직, 1956: 140). 기독교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의 독재와 자본주의의 빈익빈부익부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민주주의의 수립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개량을 정강으로 하였다. 이 당은 남북한을 통틀어 최초의 기독교 정당으로 '민주주의 정부수립과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개량'을 그 정강으로 삼고, 소박한 기독교 사회윤리 정책의 구현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북한지역 주민들 전체를 포섭하기 위하여 '사회당'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각 지방에 지당을 조직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당세 확장에 힘썼다. 이 당이 조직된 주된 이유는 소련군이 조직한 공산당에 대결하고 그 세력의 확산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북에 진주한 후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소련군이 공산당을 조직하여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는 데서 만들어졌다(허명섭, 2009: 82). 이로 인해, 기독교사회민주당은 공산주의자들의 주 공격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둘 사이에는 빈번한 충돌이 일어났다. 1945년 11월 16일 기독교사회민주당 용암포지부 결성대회에서 있었던 충돌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신의주학생의거'가 일어났고 다수의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윤하영, 한경직 목사 등 중추적인 지도자들이 월남하면서 급속도로 와해되었다.

한경직은 해방 후 서북 기독교 세력이 남한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다. 1945년 10월 월남 후, 12월 2일 일본 천리교 경성교구 본부를 접수하여 베다니전도교회를 설립하였다. 1946년 11월 12일 베다니전도교회를 영락교회로 개명하였다. 한국전쟁 중인 1950년 7월 3일, 대전에서 「기독교구국회」를 출범하여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그는 1946년 '기독교와 정치'라는 설교에서 기독교인들의 적극적인 현실 참여를 촉구하였다. 십자가를 지고서 노동운동도 좋고, 정치운동도 좋다고 했다(한경직, 1956: 27). 해방 후 한국교회는 현실 정치영역의 중심에 뛰어 들었다. 한층 격상된 기독교의 위상과 공산주의 확장에 대한 위기의식, 축적된 인적자원 등을 바탕으로 정치

의 장으로 뛰어 들었다.

아래는 1946년 한경직 목사의 ‘기독교와 정치’ 설교 내용이다.

“오늘의 기독교인은 잠잠합니다. 최선의 정치 이념이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리 퇴영적(退靈的) 뒤로 물러나서 가만히 틀어박히려는 성질이 있는)입니까? 좀더 주도성을 가집시다. 십자가를 가지고 노동운동과 정치운동을 합시다. 전후(戰後)에 각국의 기독교 민주당이 일어나 주도성을 가지고 활발히 움직이는 것을 보시오! 일어나 일합시다!”

“참 신앙을 가지고 정치운동, 사회운동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 교우들은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전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전도는 최대의 정치운동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적 이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전도운동을 개시하여 전 대한 민족의 사상을 기독교 사상으로 순화(馴化)한다면 공의의 나라, 기독교 독립 대한이 속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4. 김교신의 ‘민족적 기독교’

김교신(1901-1945, 함남 함흥)은 정규 사범학교를 나와 생애의 대부분을 교사로서 활동하였으나, 그의 교육활동은 정규 학교의 틀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의 개인적 헌신으로 발행되다시피 한 《성서조선》(1927-1942)과 수련회 활동은 제도교육의 틀을 벗어난 사회교육의 맥락에서 전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교회와 사회에 남다른 가르침과 정신, 민족교육을 보여 준 특별한 인물로 기억되었다. 한국 교회사에서 김교신은 크게 주목되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에 관한 글들은 1970년대부터 활발하게 씌어 졌으며, 특히 김교신전집간행위원회(위원장 노평구)가 『김교신전집』(경지사, 1975)을 처음 간행한 뒤에 관련 연구들이 많이 발표되었다(임희숙, 2005: 252). 김교신은 함경남도 함흥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성장하면서 1918년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하고 1919년 3·1운동에 참여하였다. 이것은 그에게 있어 ‘생애의 전환점’이 되었다.⁷⁾ 1927년 일본 유학에서 귀국하여 함흥영생여자보통학교와 양정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교육활동을 시작했다. 귀국 직후 동인들과 함께 《성서조선》을 발간하였다.

김교신의 사상은 일제하 피지배 민족이 민족적 긍지를 잃지 않고 주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민족의 자긍심은 고유한 역사와 문화전통을 바르게 알고 창조적으로 계승하는 일과 관련이 있고, 민족의 주체성은 외세의 정신적, 물리적 침략으로부터 자주적 독립을 확립하는 일과 연관된다. 이와 같은 목표의식을 갖고 김교신은 지리교사로서 조선 지리와 조선의 역사적 인물을 학습시키는 데 주력하였고, 선교사들의 지배와 미국 기독교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는 민족적 기독교를 정립하

7) ‘생애의 전환점’은 김교신의 동년배인 함석헌의 표현이다(함석헌, 1964: 77).

려고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문화에 대한 김교신의 남다른 관심과 열정은 당시 민족교육을 저지, 말살하려는 일제 식민지 교육 체제와 갈등을 빚고 미국 선교사들의 영향이 지배적이었던 한국 교회의 교권주의와 배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임희숙, 2005: 261). 이로 인해, 김교신은 1930년대 초반 이미 서북지역 장로교회와 평양신학교 쪽의 확실한 '눈엣가시'가 되어있었다. 김교신의 역사의식은 함석헌⁸⁾의 도움을 받아 심화되었고 조선 역사의 섭리사적 의미를 인식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김교신의 비판적 역사의식은 부활 신앙을 통해서 더 정교해진다. 이러한 부활 신앙으로 일제의 가혹한 전시체제 아래서 생존과 민족정신을 위협받는 현실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새 역사의 도래를 예고하였다.

김교신의 사람들로 대표되는 이들은 우선, 함석헌이 있다. 다음은 《성서조선》그룹의 핵심이던 노평구가 있다. 김교신은 말년에 흥남질소비료공장으로 옮긴 후, 교육계 업무를 노평구에게 맡겼다. 그 다음은 류달영이 있다. 류달영은 수원고등농림학교 출신으로 김교신의 수제자이다. 그에게는 농장 관리일을 맡겼다. 김교신의 사람으로 불릴만한 인물들은 장기려가 있다. 장기려는 우치무라 간조의 수제자적인 야나이하라의 평양방문 때(1942) 김교신의 지시로 그 모임을 준비했었다. 당시, 장기려는 평양에서 의사로 활동하고 있었다.

김교신의 기독교 사상은 그의 스승 우치무라 간조⁹⁾의 사상을 그대로 답습했다. 우치무라가 일본식 기독교를 주장했다면, 김교신은 우치무라의 사상과 의식을 그대로 이어서 한국식 기독교를 주장한 것이다. 유학시절, 김교신은 자신과 함께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은 동인 다섯 명(함석헌 포함)과 함께 일본에서 '성서조선연구회'를 조직하였다. 1927년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서도 이 모임은 지속되었다. 그해 7월에 《성서조선》이 창간된 것이다.

5. 김재준의 '개방적 기독교'

김재준(1901-1987, 함북 경흥)은 유소년 시절 유가적 세계관의 환경에 의해 근대적 세계로의 전환을 꾀하지 못하고 있었다. 3·1운동 이후 전국적인 민족독립의 열망이 번져갈 때도 그는 식민지 민족의 운명을 개인의 삶과 연결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었다(김재준, 1983: 37; 고지수, 2016: 51-55).

8) 함석헌은 《성서조선》 제61호부터 제83호에 걸쳐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 역사”라는 글을 연재하면서 자신의 역사관을 펴 렸하였다. 그는 역사는 신의 아가페가 실현되는 무대이며, 인간의 신의 요구에 응답하는 책임감을 갖고서 역사에 참여한다. 조선이 당하는 고난의 역사는 신의 아가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불의의 현실이며, 조선사는 이러한 불의를 극복해야 하는 구 원사로서 세계사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였다(함석헌, 1950: 3-54; 임희숙, 2005: 265).

9) 우치무라 간조는 미국 농학자인 클라크가 세운 샷포르 농학교를 다닐 때 친구의 전도로 기독교인이 되었다. 그후 친구들과 기도모임을 가졌는데, 그 모임은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없는 민주적인 공동체였다. 이러한 새로운 신앙 경험은 우치무라의 기독교 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대학교를 졸업한 1882년, 그는 친구들과 서구식 교회가 아닌 일본식 교회인 샷포르 독립교회를 설립했다. 교회는 5명의 위원들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되었는데, 대부분 사역을 투표로 처리했다. 1884년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하드포드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지만 성직을 특권으로 보아서 성직자 되기를 거부했다.

1920년 송창근과의 만남이 그의 삶의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만우 송창근은 일찍 개화된 기독교 집안에서 성장하였다. 15세에 간도로 건너가 명동중학교에 입학하였으며 이때 이동휘와 인연을 맺게 된다. 송창근은 김재준을 만나 ‘새로운 시대’, ‘민족중흥’ 등을 웅변하고 개인의 삶에 머물렀던 김재준에게 변화의 계기를 이끌어 내었다(김재준, 1985: 20-21; 고지수, 2016: 55). 송창근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지금 3·1운동 이후에 우리 민족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운은 갔다가도 반드시 돌아옵니다. 김선생 같은 유능한 젊은이가 그저 이런데 묻혀 있을 때는 아닙니다. 서울에는 유명하신 백부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정리하고 서울 와서 공부를 다시 하십시오”(김재준, 1985: 39). 김재준의 호인 장공도 송창근이 성 프란체스코의 시 ‘태양의 노래’에서 따와 ‘호’로 선사했다고 한다(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2014: 40).

서울로 상경한 김재준은 1923년까지 서울 YMCA를 통해 기독교청년운동의 공간 안에서 근대적 세계를 섭렵해 나아갔다. 1920년 2월 윤치호의 뒤를 이어 신흥우 총무 체제의 YMCA는 3·1운동 이후 조직 재정비에 나서는 한편 문화론적 개조, 종교의 사회화, 사회복음주의 등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는 개조, 개혁, 중앙공론 등의 잡지를 섭렵하면서 ‘개조’의 흐름과 사회복음주의의 영향, 그리고 반기독교운동에 대한 대응으로서의 기독교 사회주의 등이 시기 YMCA의 시대적 흐름을 함께 수렴해 갔다. 이로 인해, 1920년대 초 개조론적 세계관과 사회주의적 기독교의 범주 안에서 새로운 자아 발견의 계기들을 형성해 나아갔다. 한편, 회심을 경험한 그는 이후, 기독교적 애의 정신, 사회적 실천, 청빈 등 반물질주의(무소유) 정신에 깊이 천착하였다. 특히 인도의 성자 ‘선다 썩(Sundar Singh)’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중심의 영성을 추구했다(이덕주, 2016: 353-354). 이처럼, 김재준은 교리의 중심이 아닌, 삶에 기반을 둔 기독교적 윤리의식에 자신을 조화시키고 있었다.

일본 유학을 통해서는 신학적 자유주의보다 인간적, 사상적 사유에서의 자유에 큰 자원을 제공 받았다. 송창근의 권유로 일본유학에 오른 김재준은 비교적 자유로운 감리교 계통의 아오야마학원에서 공부하게 된다. 김재준은 아오야마학원(청산학원)에 대해 “청산학원이라면 ‘자유’가 연상된다. 학생이고 선생이고 간에 개인자유, 학원자유, 학문자유, 사상자유- 모두가 자유 분위기이다. 물속의 고기 같이 자유 속에 살았던 것이다.”라고 했다(김재준, 1983: 125). 1920년대 청산학원의 분위기는 사회주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었다. 청산학원의 자유 분위기 속에 김재준은 독서모임을 통해 사회주의 이론을 섭렵하기도 했다(고지수, 2016: 65-66). 그러면서, 그는 일본에서 식민지 조건에서 ‘비교적 양심적’(기독교적 개인으로서의 윤리의식)으로 할 수 있는 일로 교회와 교육을 연결한 기독교 교육기관의 설립을 꿈꾸게 된다. 이것은 앞서, YMCA를 통해 얻은 교육을 통한 계몽의식이 기독교 교육기관의 양성이라는 보다 구체화된 목표로 발전된 것이다. 특히, 이 시기 신학 또는 교회에 부정적이었던 것을 볼 때 회심 후, 김재준에게는 인간 조성의 문제가 더 시급하고 중요했다.

미국에 유학 가서는 칼빈의 개혁교회 전통에 신학적 뿌리를 둔 미국 장로교 신학교인 프린스턴신학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에서 공부하면서 그레삼 메이첰(J. Gresham Machen)의 근본주의 신학을 접하고 관련 과목들을 빠짐없이 이수했다. 이로써, 김재준은 양극단의 신학을 거부하는 신학노선을 선택하게 된다(고지수, 2016: 72).¹⁰ 1929년 웨스턴신학교로 편입하면서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신학이 학문적 탐구의 대상으로 자리 잡혔고, 구체적으로는 구약학을 통해 자신의 기독교적 신앙관을 표현할 수 있는 언어와 방편이 마련되었다. 또한 불투명했던 기독교교육이 '신학교육'이라는 방향과 목표로 구체화되었다.

김재준은 1936년 8월부터 간도 용정의 은진중학교(캐나다장로교가 세움)에서 교편을 잡았다. 김재준은 1936년 4월 신사참배 불응으로 평양 보수교계와 마찰을 겪으면서 평양에 머무를 수 없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때, 승전교장인 선교사 마우리(E. M. Mowry) 박사로부터 북간도 용정 은진중학교의 '교목 겸 성경교사' 자리를 제의를 받게 되는데, 이 제의의 원 발신자는 용정의 문재린이었다. 김재준보다 6살 연상인 문재린(문익환의 부)은 이 당시 은진중학교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함경도 출신인 김재준을 평양 밖으로 끌어냄으로써 또 다른 삶의 공간을 제공해 주었다(문동환, 2009: 139). 은진중학교는 은혜와 진리(요1:14)의 앞 자를 딛 것으로 선교사 푸트(W. R. Foote)에 의해 용정촌 예수교서회 2층에서 28명의 아이들과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개교했다(고지수, 2016: 101).

이 당시 간도는 캐나다 선교부의 선교지로서 '자유주의 신학'을 취했다.¹¹ 김재준이 용정으로 간 것도 유학을 통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을 받은 그가 미국 북장로교의 축자영감설, 성경무오류설, 사대적 선교사 의존과 신사참배(1935년 '조선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신사참배 결의)에 불응했기 때문이다. 김재준이 이 당시 가르쳤던 제자들은 강원용, 안병무, 문익환, 문동환, 이상철(김재준의 사위), 장하린, 김영규, 전은진, 남병헌, 김기주, 신영희 등이다.

김재준의 사상과 정신은 철저히 민주주의적이며, 인간평등사상이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를 가르치는 성서적 세계관, 노동의 신성성을 가르치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것이다. 그는 근본주의적이고 교리주의적인 개신교나 교파 중심적 기독교 선교신학을 지양하고 더욱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기독교 신앙과 생활신앙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문화간, 종교간, 교단 간의 화합과 협력을 위해 앞장섰다. 그의 이런 신앙과 신학사상은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

10) 김재준은 아오야마(청산)학원에서 진보적 신학을 접했으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냈고, 프린스턴에서는 보수적인 인사들을 접했으나 근본주의 신학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즉 그는 극단적인 근본주의도, 극단적인 자유주의도 거부했다.

11) 캐나다 선교부의 영향을 받은 대표적 인물들이 김재준과 송창근이었다. 이들은 캐나다 선교지역 출신으로, 일찍이 이동휘 등 '민족주의적 기독교인들'(복음주의적 자유사상)에게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캐나다장로회 선교지역이며 함경도 출신이라는 독특한 인맥을 형성한다. 로버트 그리어슨 선교사를 대표로 한 캐나다 선교사들의 자유로운 신학과 신앙은, 한국 민족운동과 쉽게 연계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주었다. (서정민, 2007: 271-275).

IV. 개신교 지도자 간의 교차적 관계 및 공유된 기독교 사상

1. 개신교 지도자들의 출생지와 신학적 성향 연계

제3장에서 검토한 해방 전, 이북지역의 개신교 주요인물들이 세운 단체들은 그 설립시기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안창호의 수양동우회가 1926년으로 제일 먼저 설립되었고, 한경직의 기독교사회주의당은 1945년으로 가장 늦게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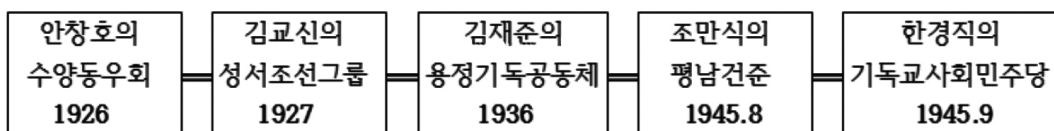


Figure 1. Time of foundation of the organizations which were established by major protestant figures

개신교 지도자들의 출생지를 살펴보면, 안창호(평남 강서), 조만식(평남 강서), 한경직(평남 평원군)은 서북지방출신들이고, 김교신(함남 함흥)과 김재준(함북 경흥)은 관북지방출신들이었다. 제2장에서 서양선교사들의 선교분할지정에 따라, 서북지방은 미북장로회가 관북지방은 캐나다장로회(연합교회)의 전도지역이라고 했다. 서북지방은 근본주의(보수주의)에 관북지방은 자유주의에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 주요세력의 대표자들의 신학적 성향을 볼 때, 출생지의 지리적 영향을 받았음이 어느정도 나타난다. 그 상관관계를 아래와 같이 모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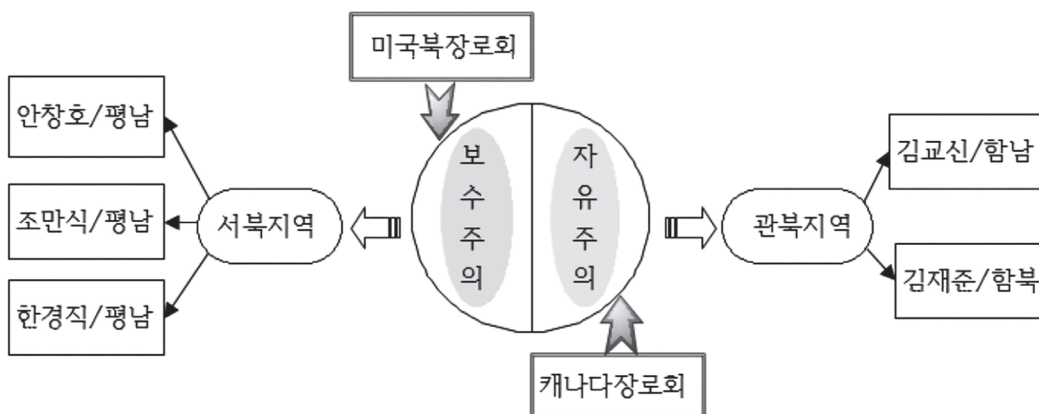


Figure 2. Correlation between birth regions and theological tendencies of major representatives

2. 지도자들의 교차적 관계 및 상호영향력

바로 위의 검토만으로는 이들 지도자들의 정치 종교 성향을 파악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 이들이 상호간의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는지, 교차적 관계를 통해 상호영향력을 주고받은 것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도자들 간의 교차적 관계를 고찰하는 데 있어 그 장소 및 매개자(인물)를 파악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안창호와 조만식의 관계

안창호는 1878년생, 조만식은 1883년생으로 연령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고향이 평남 강서로 같은 동향인이다. 자료를 보면, 두 사람이 일차 조우하는데 있어 그 매개자로 이승훈(1864년생, 평북 정주)을 들 수 있다. 안창호는 미국에서 귀국하여 1907년 이승훈을 비롯한 인사들과 신민회를 결성하였다. 또한, 평양에 대성학교를 설치하여 「청년학우회」를 조직했다.

조만식은 일본 유학을 마치고 1913년에 귀국하여 평안북도 정주에 이승훈이 설립한 오산학교에 교편을 잡은 적이 있다. 이승훈은 1907년 평양에서 안창호의 교육 진흥론 강연을 듣고 감동을 받아 승천재(서당)를 개축하여 강명의숙을 세웠다. 또한, 신민회에 참여하여 재단을 만들어 오산학교를 세웠다. 이 오산학교에 조만식이 교사로 왔던 것이다. 안창호와 조만식의 일차 조우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1907년 안창호의 평양 연설을 조만식도 듣고 매우 감명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당시는 단지 연설자와 청중의 관계였다. 서로 간의 조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두 사람의 교분은 매우 두터웠던 것으로 보인다. 안창호가 1935년 감옥에서 출소할 때 찍은 기념사진 안에 조만식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안창호가 1938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되어 다시금 투옥될 때, 조만식은 여러 차례 문안 인사를 갔다고 한다. 안창호가 죽었을 때, 조만식이 장례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하였다.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성을 통해 조만식이 표방했던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은 안창호로부터 계승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과의 관계

안창호와 조만식은 같은 서북지방의 한경직과는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는가. 세대 차이가 느껴질 만큼 큰 폭의 연령의 차이는 있지만, 한경직은 조만식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될 뿐만 아니라 긴밀한 관계성이 있다. 조만식이 오산학교에 교장으로 있을 때 한경직이 입학(1916-1919)한 것이다. 이 시기에 한경직은 조만식과 이승훈을 통해 민족정신, 인격수양에 대해 큰 영향을 받았다. 한경직은 오산학교에서 3년 동안 철저한 애국애족 정신과 기독교 신앙, 현대 학문과 기술을 배웠다. 특별히

설립자인 남강 이승훈과 그 당시 교장이던 고당 조만식을 통해 민족정신을 배웠고, 평생동안 인생의 큰 스승으로 모셨다고 한다(김은섭 외, 2015: 20). 한경직이 미국 유학을 마치고 1932년 귀국 후 평양숭인상업학교 교목 겸 교사가 되는데, 당시 이 학교 이사장이 조만식이었다.

한경직과 안창호는 간접적인 연계성을 보인다. 그 일차적 매개 역할은 홍기주가 하는데, 홍기주는 안창호가 세운 대성학교 출신으로 마포삼열 선교사(한경직을 전도)가 세운 자작교회에서 운영하는 진광소학교에서 성경, 찬송, 한국역사를 가르쳤다. 이때 한경직이 이 소학교를 입학하게 된다. 홍기주는 조만식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였던 것을 제3장에서 확인했는데, 조만식의 평남건국준비위원회의 교육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홍기주는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감리교 목사가 되었지만, 해방 후에 교회를 떠나 공산주의자가 되었다.

안창호와 한경직의 일차적 조우는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1930년대 안창호와 한경직이 함께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신한풍이 한 언론인터뷰에서 1930년대 장로교 총회 초대 농촌부에서 일했던 김성원이 기술간사로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¹² 한경직도 안창호의 연설을 들으면서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을 함양했던 것으로 보인다.

3) 한경직과 김재준의 관계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은 서북지방출신들로 종교적 지형은 보수주의 성향이 강했다. 그렇다면, 자유주의 성향이 강했던 김교신과, 김재준과는 관계성이 단절되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경직과 김재준은 매우 밀접한 관계성을 갖고 있다. 이 두 사람이 처음 조우하는데, 그 매개역할은 송창근이 한다. 김재준은 1920년 송창근을 만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송창근을 통해 1923년 서울에 오게 되어 YMCA를 접하게 되었고, 그의 권유로 인해, 일본 유학과 미국 유학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그의 정치성향 및 신학사상이 자리 잡게 되었다. 한경직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로 보인다. 그 전에, 한경직과 김재준은 윤치호의 재정적 지원(각각 백원씩)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윤치호는 한국 YMCA 초대총무였고, 이 두 사람은 각각 평양에서(한경직), 서울에서(김재준) YMCA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또한, 한경직이 서울 YMCA 웅변대회에 참석했다는 사실을 볼 때, 이 둘이 충분히 교우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분명한 교분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교 유학시절이다.¹⁴ 송창근을 포함한 이 세

12) 신한풍, ‘수원고농학생들의 항일투쟁’ 《뉴데일리》 2015년 2월 5일자 기사 내용 중.

13) 김재준과 YMCA 관계는 제3장에서 자세히 설명하였다. 한경직은 숭실대학 재학(1922-25) 중 평양 YMCA운동에 참가해 학생들의 신앙을 지도했고 서울에서 열린 YMCA 웅변대회에 참가도 하였다(김은섭 외, 2015: 22).

14) 당시 프린스턴대학교에는 송창근, 김재준, 이규용, 한경직이 함께 수학하고 있었다. ‘우리 한국 학생들은 주일 오후에는 따로 한 방에 모여 성경을 읽고 기도회를 하며 서로 사정을 토로하고 사귀를 가졌다. 이들은 내 일생에 가장 가까운 친구들로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쓴 분들이다’(한경직, 2010: 147-149).

사람은 1928년경 프린스턴신학교에서 함께 수학을 했다. 이 시기 세 사람은 교분이 두터웠다. 송창근은 목회신학, 한경직은 신약과 교회사, 김재준은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한국교회의 미래 '신학교육'을 발전시킬 것을 함께 맹약하기도 했었다(조성기, 2003: 88).

또 다른 경우에서도 김재준의 특이한 성향을 발견할 수 있다. 바로, 평양의 수양동우회와의 관계이다. 김재준은 미국 유학을 마치고 평양에 거주하였다. 그의 평양 생활은 송창근, 한경직과 프린스턴에서의 맹약의 연장선에서 이해될 수 있다. 교회 배경이 없던 김재준에게 교계 중심지 평양은 교회에의 데뷔와도 같은 것이었다(고지수, 2016: 76). 김재준보다 6개월 앞선 1932년 1월에 귀국한 송창근은 같은 해 4월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하고 있으면서 평양신학교 3학년에 편입중이었다. 같은 해 1932년에 귀국한 한경직은 평양승인상업학교에서 성경교사 겸 교목과 숭실대학 채플 강사를 맡고 있었다. 김재준과 같이 함경도 출신에 자유주의적 일본 청산학원 유학을(근본주의보다는 자유주의노선을 따름) 하고 미국 유학 후 평양행이 초행인 송창근이 평양의 가장 대표되는 산정현교회 목회자로 결정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송창근의 흥사단 가입에 있었다. 그는 미국에서 귀국길에 LA에 들러 1931년 9월 하순 김병연의 권유를 받고 흥사단에 입단했다(송우혜, 2008: 106).

1930년대 당시는 수양동우회의 영향력은 본회가 있는 서울보다 평양, 선천, 안악 지회가 더욱 강했으며, 특히 관서지방 기독교계 학교는 수양동우회조직의 유력한 재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었다.¹⁵ 당시, 평양 수양동우회 핵심이던 김동원은 당시 산정현교회 장로이자 당회원이었다. 송창근의 미국에서의 흥사단가입과 귀국 이후의 수양동우회 가입은 그를 산정현교회 목회자로 세운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김재준에게도 다양한 경로로 동우회 측에서 가입의 제의가 왔다고 한다. 김재준의 귀국 강연회도 김동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30년대 평양에서의 김재준은 어떤 결사체에 의탁하지 않는 성향을 보였는데, 이 시기 그는 집단적 관계 맺기보다 개인적 참여 방식을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수양동우회와의 관계성의 단절을 뜻한다. 이로 인해 김재준은 평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한경직이 신의주 제2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면서 김재준은 승인상업학교의 성경교사 및 교목을 겨우 맡게 된다. 송창근과 한경직의 강력한 추천이 있었을 것이다. 김재준이 비록 수양동우회의 가입을 거부했지만, 동우회의 사상, 즉 안창호의 개조론적 인식론과 수양론 등을 받아들여 그의 기독교적 갱신 사상에 도입했다고 한다(고지수, 2016: 81). 1945년 8월에 김재준이 작성한 “기독교의 건국이념”이라는 글 속에도 안창호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적 갱신 사상(기독교 민족주의)의

15) 당시 서울에는 정인파를 비롯하여 백낙준, 이대위, 이용설, 정용도 등이, 평양에서는 김동원을 비롯하여 이경선, 한승곤 외 김봉성, 김성업, 김하현, 박영로, 오정수, 이선행, 장성심, 최능진, 최운호 등, 선천에는 백영엽, 장리욱, 안악에는 김선량, 김용장 등이 동우회원이었다(장규식, 2001: 144-145).

내용들이 다분하게 들어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가장 道德的인 때에 가장 文化的이며 가장 基督敎的인 때에 가장 道德的이라는 事實을 等閑視하여서는 안되겠다.”

“要컨대 가장 基督敎的인 때에 가장 完美한 人格을 成就하여 지는 것이며 거기에 참으로 값있는 文化生活이 생겨나는 것이다. 사람이 高尚하여 지지않는 때 모든 近代 文明은 罪를 助長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아름다운 一般恩寵의 선물이 罪人의 享樂物이 되어 文化自體가 長歎息을 할 것이니 「萬物이 하나님의 子女 나타나기를 渴望하며 歎息한다는 聖經말씀이 이를 말함이다. 이런 意味에서 거룩한 精神文明에 支配되지 않는 物質文明은 狂悖와 耽淪이 되는 것이다.” - “기독교의 건국이념” (7) 문화정책’ 중.

“人間生活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시고 열어주신 幸福의 길 救援의 길이 있나니 그 길을 밝히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祝福이 暢達되어 國家, 民族의 영원한 幸福을 招來하는 그것이 治者, 指導者의 任務일 뿐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 朝鮮도 究極에 있어서 온 宇宙를 創造하시고 統治하시는 하나님의 統治(통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朝鮮國 存在의 理由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榮光과 朝鮮國民의 眞正한 幸福을 위하여 朝鮮國은 存在한 것이다. 온 天下에 그리스도의 福音을 傳하여 하나님 나라가 地上에 臨하여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곧 眞正한 幸福의 길이며 이 일을 爲하여 選拔된 民族이 곧 朝鮮民族이라고 믿는다.”

- “기독교의 건국이념” ‘권위의 소재’ 중

신사참배문제로 1938년 평양신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송창근은 서울에 ‘조선신학교’를 세울 계획을 하고 총독부에 허가를 받는다. 그러나 동우회 사건으로 보석중인 송창근은 총독부의 압력으로 학교설립에서 뒷선으로 물러나고, 김재준이 학교를 맡게 되었다. 후에 한경직이 신의주에서 피난 온 후, 서울에서 재회한 김재준 목사를 도와 교편을 잡고 학교 운영 이사로 활동하게 된다(한경직, 2010:321-322). 프린스턴 이래 동지적인 연대를 계속해 오던 한경직이 송창근 김재준의 조선신학교 측과 결별하게 되는 것은 김재준과 조선신학교의 신학 노선이 문제가 되어 전개된 일련의 한국 장로교계의 정치적 갈등과 관련되어 있다. 김재준은 해방 후 구약개론과 조직신학을 강의하면서 모세 5경도 역사비판학적으로 해석했고 창세기도 문서설을 그대로 소개했던 것이다.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학생 51명이 1947년 4월 18일 대구에서 열린 제 33회 장로회 총회에 김재준의 강의 내용을 필

기한 '노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된 신학 노선상의 갈등은 1952년 4월 29일 제37회 총회에서 김재준을 면직 처분하는 데까지 진행되었다. 이 처분에 대한 반발이 그 이듬해인 1953년 6월 기독교장로회를 출발시킨 것이다. 한경직은 신학노선상 김재준과 길을 달리하게 되었지만, 우정은 간직하고 있었고,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반대운동을 영락교회에서 김재준과 함께 했다.

4) 김교신과 조만식, 한경직, 김재준의 관계

김교신과 이들 세 사람과 교차적 관계 및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활동영역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김교신의 어린시절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가 함경도 함흥 출신으로 어렸을 때 한학을 공부하고 함흥보통학교를 거쳐 함흥농업학교를 졸업한 뒤 18세(1919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는 정도만 파악이 된다. 1920년 동경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1921년에 우치무라 간조(1861-1930, 무교회주의 그리스도교 사상가)를 만나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았다. 영향 정도가 아니라, '한국의 우치무라 간조'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 김교신이 19세였던 1920년 4월 18일에 마쓰다라는 청년의 노방 설교에 깊이 감동을 받고 우시코메구야라이정 홀리네스 교회에 출석하게 된다. 2개월 후에는 시미즈 준조라는 그 교회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그 목사가 교회로부터 목사 지위 박탈당하는 사건을 보고 김교신은 교회를 탈퇴한다. 하숙방에서 홀로 예배를 드리던 김교신은 1921년 1월 16일부터 우치무라의 로마서 강의가 동경 오테정 위생회관에서 시작되자 첫 회부터 열심히 참석하였다. 1927년 3월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할 때까지 만 7년여를 우치무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다(노평구, 2002: 276-279).

김교신을 함석헌(1901-1989, 평북용천)으로 매개하면 조만식과 간접적인 연계로 이어진다. 함석헌은 조만식의 오산학교 교장 마지막 해인 1921년에 오산학교에 입학하였다. 조만식과 함석헌의 조우가 있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함석헌은 조만식의 민족주의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일본 유학에서 귀국(1928년)해서도 모교인 오산학교에서 교편생활을 10년간이나 했다. 1947년에 월남하기까지 그는 이북지역에 머물면서 조만식과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유지되었을 것이다. 해방이 되자 함석헌은 용암포자치위원회위원장, 평북자치위원회 문교부장을 맡았었다. 함석헌을 매개로 하면 조만식과 김교신이 서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함석헌은 한경직과도 연계가 되어진다. 오산학교 선후배 사이일 뿐만 아니라, 두 사람은 용암포에서부터 시작된 '신의주학생의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신의주학생의거 시발점은 한경직이 조직한 「기독교사회민주당」이 각 지방에 지당을 세우는 일환으로 용암포에서 개최된 지당 조직대회 때 소련이 공산당원을 동원하여 대회장을 습격하여 간부 전원을 살해하는데서 비롯되었다. 당시,

함석헌은 용암포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 학생의거 배후인물로 지목되어 체포되어 투옥되었었다. 비록 한경직이 10월에 월남하고, 학생의거가 11월에 발생했지만, 그 전에 한경직과 함석헌의 조우 및 연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도 한경직과 김교신은 직접적인 교류는 안했지만 서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다.

김교신과 김재준의 매개 인물은 안병무라 할 수 있다.¹⁶ 안병무(1922-1996, 평남 안주)는 김재준의 직속 제자로 용정 기독교공동체의 일원이다. 하지만, 김재준보다 함석헌의 신학사상(무교회주의)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은 인물로 평신도교회를 창립하고 목사안수를 받지 않았다. 안병무가 일본 유학을 마치고 서울대 학생이던 시절, 추종했던 인물도 함석헌이다(김건우, 2017: 184-185). 이 당시, 함석헌을 통해 무교회주의의 대표되는 김교신에 대해서도 많은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안병무는 김교신의 《성서조선》의 정신을 계승하기라도 한 듯, 1940년 9월에 『일본제국주의 철해하의 조선』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여 일본의 폭정을 폭로하기도 하였다. 안병무를 통해, 김재준은 함석헌과 김교신에 대한 소식을 접했을 것이다.

이처럼, 해방 전후에 이북지역에서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직·간접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상호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위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모형이 나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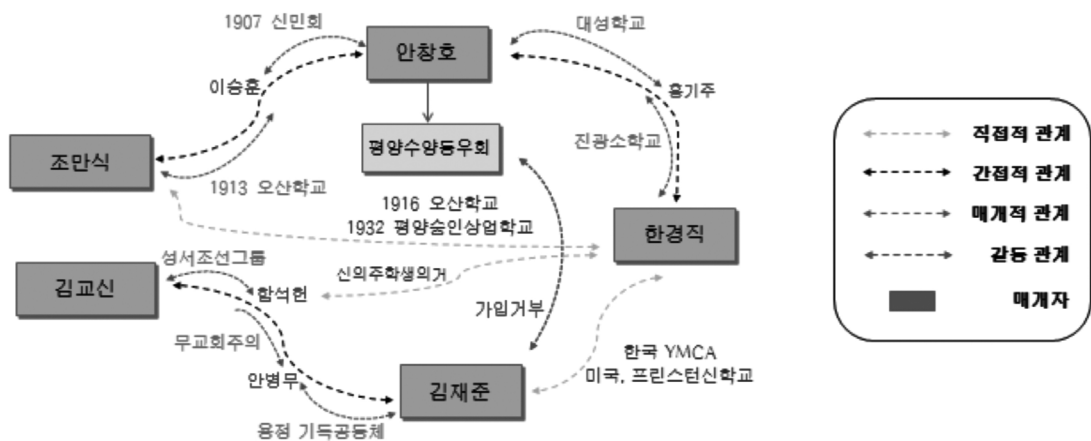


Figure 3. Intersection relations and interactions among the leaders

16) 김재준이 1926년 일본으로 유학을 가고 김교신이 1927년 3월 도교고등사범을 졸업하고 4월 귀국하기 전까지 두 사람은 같은 지역인 도쿄에 거주했다. 두 사람의 조우를 예상해 볼 수 있는데, <김교신선생기념사업회>의 관계자는 두 사람이 만난 기록을 접하지 못했다고 하였다.

V. 나가는 말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룬 이북지역의 개신교 지도자들은 '민족주의' 토대에 개신교를 받아들였다. 한국에서의 '민족주의'는 일제 식민통치를 전후로 발전하였는데, 중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서구 제국주의가 아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며 민족을 국가에 앞서는 지상의 가치로 내세우며 일제의 천황제 국가주의에 대응하였다.

한국 개신교는 근대화 혹은 문명화를 매개하면서 민족주의와 깊숙이 연결되어 한국사회의 주류 종교로 자리잡아 나갔고, 한국 민족주의가 일제시기 한국사회에서 보존되고 기능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와 매개가 되었으며, 개신교 복음이 사회문화적 영역으로 확장될 때 민족주의와 '접합'하여 '기독교 민족주의' 형태로 표출된 것이다.

개화 계몽기 이후 이북지역에서 성리학에 반하는 진보의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개신교였다.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룬 이북지역의 주요세력의 지도자들은 한국개신교 민족주의자들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독교 민족주의'가 이 지도자들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항마적 성격이 강하다. 물론, 안창호와 같은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처음 주창하게 된 것이다. 그 출발점은 1896년에 세워진 독립협회라 할 수 있다. 협회를 세운 주요인물인 서재필, 윤치호, 안창호는 성리학 배경 아래 있다가 기독교인이 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개신교 개혁가들로서, 외부적이고 물질적인 힘을 기르기 전에 내면적, 영적, 윤리적 강화가 먼저 필요하다는 사상을 내세우며, 인간개조 및 인격수양을 가장 우선시했다.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한 이가 바로 안창호였고 그 정신을 기반으로 세워진 단체가 바로 수양동우회였다.

제4장에서 확인한 대로, 안창호의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은 매개자들을 통해 이북지역의 다른 주요세력의 지도자들인 조만식과 한경직뿐만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의 배경 아래 있던 김재준에게까지 그 영향을 끼쳤다. 김교신은 이들보다 더 강한 민족주의 성격을 띤 민족적 기독교를 주창한 만큼, 이들 모두에게는 민족주의 정신이 공통적으로 발현되었던 것이다. 조만식은 경제개조에 앞장서서 '평양물산장려회'를 이끌면서 민족독립을 위한 실력양성론을 주장했다. 한경직은 해방 이후 기독교사회민주당을 조직하면서 기독교 정신에 의한 사회개량을 그 정강으로 삼았다. 김교신은 조만식의 영향을 받은 함석헌에게 역사의식을 수용 심화시켜 역사바로알기를 통한 주체성 확립 및 실력배양운동을 펼쳤다. 김재준 또한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의 거대한 흐름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제3장, 4장에서 검토한 대로, 김재준의 기독교 정신 및 사상은 그의 출생지역인 관북지방의 선

교를 담당했던 캐나다장로회(연합교회) ‘자유주의 신학노선’의 영향 아래 형성되었다. 그의 진보적 의식 또한 이때 배양된 것이다. 이는 출생지의 종교지형이 사상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보여준다. 김재준은 서울 YMCA 경험을 통해서도 기독교 민족주의와 동시에 기독교 사회주의 의식이 자리 잡게 된다. 일본 청산학원에서 공부를 하면서는 민주주의 정신을 체득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통해, 김재준은 문화간, 종교간 화합을 내세우는 개방적 기독교 신앙에 귀착하게 되고 한국교회의 주류인 에큐메니칼 운동의 시원(the origin)이 된다. 그의 제자이면서, 함석헌에 영향을 받았던 안병무는 결국 기독교사회주의의 결정체인 ‘민중신학’을 만들어 냈다.

일본 유학 전에 기독교와는 무관했던 김교신은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의 사상에 도취되어 그 사상을 수용한다. ‘한국의 우치무라 간조’로 불리며 우치무라 간조의 ‘일본식 기독교’ 논리를 그대로 모방하여 ‘한국식 기독교’를 주창하였다. 이는 토착주의 기독교의 한 형태로 무교회주의로 체현된다. 이 모형 또한 이후, 한국개신교의 한 종교지형을 이루었다. 이처럼, 해방전 개신교 자유주의 진영은 이후, 에큐메니칼 운동(종교적다원주의, 민중신학, 기독교사회주의)과 토착주의 기독교(한국식 기독교, 무교회주의)를 양산해 내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보수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구축한 기독교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던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민족의 주체성 확립 및 실력배양운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던 종교지형은 분명하게 달랐고, 이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개신교 안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여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으로, 더 큰 범주로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격수양 및 실력양성을 통한 개인개조 및 사회개조, 더 나아가 민족개조, 국가개조를 동일하게 꿈꾸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인격함양의 개인개조를 통한 사회개량(조) 및 국가개조(남북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는가. 민족교육을 통한 민족정신이 발현되고 이것이 ‘기독교 민족주의’로 승화될 때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에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1. 단행본

- 강명숙 (1999). **일제하 한국기독교인들의 사회경제상**. 서울: 백산 자료원.
- [Kang, M. S. (1999). *The socioeconomic conditions of Korean Christian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eoul: BaekSan Archives.]
- 강정구 (1992). **해방후 월남인의 월남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서울: 풀빛.
- [Kang, J. G. (1992). *A Study on the motivation of defecting and classification of Wolnamin(defector) after Liberation*. Seoul: Grass Green.]
- 고지수 (2016). **김재준과 개신교 민주화운동의 기원**. 서울: 도서출판 선인.
- [Go, J. S. (2016). *Kim Chai-Choon and the origin of protestant democratic movements*. Seoul: SunIn.]
- 국사편찬위원회 (1987). **북한 관계사 자료집(제4권)**. 서울: 탐구당.
-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987). *History of North Korean Relations source book* (Vol.4). Seoul: Tamgudang.]
- 기독교대백과사전 편찬위원회 (2002). **기독교대백과사전(제14권)**. 서울: 기독교문사.
-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Christian Encyclopedia (2002). *Christian Encyclopedia* (Vol.14). Seoul: Korean Christian Literature Press.]
- 김건우 (2017). **대한민국의 설계자들: 학병세대와 한국우익의 기원**. 서울: 느티나무책방.
- [Kim, G. W. (2017). *Designers of Republic of Korea: The origins of the student soldier generation and the Korean right wing*. Seoul: Neutinamu Bookstore.]
- 김광식 외 (2008). **종교계의 민족운동**. 천안 :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Kim, G. S. et al. (2008). *National Movement of Religious Fields*. CheonAn: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Research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 김권정 (2015). **한국기독교 민족운동론과 민족운동**. 서울: 국학자료원.
- [Kim, G. J. (2015). *Korean Christianity national movement theory and the national movement*. Seoul: Korean Studies Institute.]
- 김귀옥 (1999). **월남민의 생활 경험과 정체성**.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Kim, G. O. (1999). *Life experience and Identity of People who came from N.K.*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김명수 (2006). **안병무: 시대와 민중의 증언자**. 서울: 살림

- [Kim, M. S. (2006). *Ahn Byeong-mu: A Witness about the epoch and the people*. Seoul: Salim.]
- 김병희 엮음 (1982). **한경직 목사**. 서울: 규장문화사.
- [Kim, B. H. (1982). *Rev. Kyung Chik Han*. Seoul: Kyujang.]
- 김양선 (1956). **한국기독교해방 십년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교육부.
- [Kim, Y. S. (1956). *History of Korean Christian Liberation Decade*. Seoul: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Education department.]
- 김은섭 외 (2015). **한경직 목사와 한국교회**. 서울: 대한기독서회.
- [Kim, E. S. et al. (2015). *Rev. Kyung Chik Han and Korean Church*.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김재준 (1968). **한 권의 성서: 인간이기에**. 서울: 종로서적.
- [Kim, J. J. (1968). *A Book of Bible: Because of Being human*. Seoul: Jongno Books.]
- 김재준 (1983). **凡庸記**. 서울: 풀빛
- [Kim, J. J. (1983). *Bumyonggi(Biography)*. Seoul: Grass Green.]
- 김재준 (1985). **만우 회상기**.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 [Kim, J. J. (1985). *Memorial of Song Chang-gun*. Seoul: Hanshin University Press.]
- 김준엽 (2003). **장정1: 나의 광복군 시절(상)**. 서울: 나남출판사.
- [Kim, J. Y. (2003). *Jang Jung 1: My Liberation Army Days.(Vol.1)*. Seoul: Nanam Publishing.]
- 김창순 (1990). **북한민주통일운동사: 평안도편**. 서울: 북한연구소.
- [Kim, Ch. S. (1990). *The History of North Korean Democratic Unification Movement: Pyongan Province*. Seoul: North Korea Research Institute.]
- 김홍수 엮음 (1992). **해방 후 북한 교회사**. 서울: 다산글방.
- [Kim, H. S. (1992). *North Korean Church History After Liberation*. Seoul: Dasan Publishing.]
- 김홍수 엮음 (1992). **일제하 한국기독교와 사회주의**.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Kim, H. S. (1992). *Korean Christianity and Social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eoul: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 김홍수 (1999). **한국전쟁과 기복신앙 확산 연구**. 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Kim, H. S. (1999). *A Study on the Korean War's impact and the spread of this-worldly blessing*. Seoul: The Institute for Korean Church History.]
- 노평구 (2002). **김교신 전집: 제2권 신앙론**. 서울: 부키
- [Noh, P. G. (2002). *Kim Kyo-shin complete collection: The second volume. Theory of Faith*. Seoul: Booki.]

- 로버트T. 올리버, 박일영 역. (1990). **대한민국 건국의 비화: 이승만의 한미관계**. 서울: 계명사.
- [Robert T. Oliver (1990). *Syngman Rhee and American involvement in Korea, 1942-1960*. Seoul: Gyemyong Publishing.]
- 문동환 (2009). **자서전: 떠돌이 목자의 노래**. 서울: 삼인.
- [Moon D. H. (2009). *Autobiography: A song of wandering shepherd*. Seoul: Samin.]
- 박명수 (2015). **조만식과 해방후 한국정치**. 서울: 북코리아.
- [Park, M. S.(2015). *Cho, Man-Sik and Korean politics after liberation*. Seoul: Book Korea.]
- 배민수 (1994).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농어촌부.
- [Bae, M. S. (1994). *Who Sha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 Seoul: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General Assembly Rural missionary department.]
- 서정민 (2007). **이동휘와 기독교: 한국사회주의와 기독교 관계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 [Seo, J. M. (2007). *Lee Dong Hwi and Christianity: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Korean Socialism and Christianity*. Seoul: Yonsei University Press.]
- 서중석 (2008).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서울: 역사비평사.
- [Seo, J. S. (2008). *Research on Korean Modern National Movement 2*. Seoul: History Criticism Publishing.]
- 심지연 엮음 (1986). **해방정국논쟁사 1**. 서울: 한울.
- [Shim, J. Y. (1986). *The History of dispute about political situation in Liberation period I*. Seoul: Hanwul.]
- 송우혜 (2008). **벽도 밀면 문이 된다: 송창근 평전**. 생각나눔.
- [Song, W. H. (2008). *The wall becomes the door: Critical biography of Song Chang-gun*. Thought Sharing.]
- 와다 하루키 (2014). **북한 현대사**. 서울: 창비.
- [Wada Haruki (2014). *Modern History of North Korea*. Seoul: Changbi.]
- 윤경로 (1986).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서울: 보성출판사.
- [Yoon, G. R. (1986). *Korean Christianity and the national movement*. Seoul: Bosung Publishing.]
- 이덕주 (1997).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고백**. 서울: 한들.
- [Lee, D. J. (1997). *Confessions of faith from the Korean Christians*. Seoul: Handeul.]
- 이덕주 (2016). **장공 김재준의 신학세계 2**. 서울: 한신대학교 출판부.
- [Lee, D. J. (2016). *The Theory of ChangGong Kim Chai Choon 2*. Seoul: Hanshin University

Press.]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서울: 소나무.

[Lim, J. H. (1999). *Nationalism is rebellion: Beyond the nationalism discourse of Myth and futility*. Seoul: Sonamu(Pine tree).]

장규식 (2001). **일제하 한국기독교민족주의 연구**. 서울: 혜안.

[Jang, G. S. (2001). *A Study on the Korean Christian National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Seoul: HyeAn.]

장규식 (2007). **민중과 함께한 조선의 간디**. 서울: 역사공간.

[Jang, G. S. (2007). *Chosun's Gandhi*. Seoul: History Space.]

장공김재준목사기념사업회 (2014). **장공 김재준의 삶과 신학**. 서울: 한신대학교출판부.

[Rev. Changgong Kim Chai Choon Memorial Program (2014). *The Life and Theory of Chang-gong Kim Chai Choon*. Seoul: Hanshin University Press.]

조성기 (2013). **한경직 평전**. 서울: 김영사.

[Cho, S. G. (2013). *The Critical biography of Rev. Kyung Chik Han*. Seoul: Gimmyoungsa.]

케네스 웰즈 (2017). **새 하나님, 새 민족: 1896-1937년 한국 개신교와 자기개조 민족주의에 대한 고찰**. 서울: 순교자의 소리.

[Kenneth M. Wells (2017). *New God, New Nation: Protestants and Self- Reconstruction Nationalism in Korea 1896-1937*. Seoul: Voice of Martyrs.]

한국기독교역사연구회 (1989). **한국기독교의 역사**. 서울: 기독교문사, 1989.

[The Institutes for Korean Church History (1989).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Seoul: Korean Christian Literature Press.]

한경직 (1956). **기독교와 건국**. 서울: 기문사.

[Han, K. C. (1956). *Christianity and foundation of nation*. Seoul: Korean Christian Literature Press.]

한경직 (2010). **한경직 구술 자서전: 나의 감사**. 두란노.

[Han, K. C. (2010). *Han Kyung-chik oral autobiography: My thanks*. Seoul: Duranno.]

함석헌 (1950). **성서적 입장에서 본 조선역사**. 서울: 삼중당.

[Ham, S. H. (1950). *Chosun History viewing from Biblical Approach*. Seoul: Samjungdang.]

함석헌 (1964).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서울: 삼중당.

[Ham, S. H. (1964). *I'll take this step until I die*. Seoul: Samjungdang.]

허명섭 (2009). **해방 이후 한국교회의 재형성: 1945-1960**. 서울: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Heo, M. S. (2009).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Church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1945-1960. Seoul: Institute for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2. 소논문

강인철 (1992). 월남개신교, 천주교의 뿌리: 해방후 북한에서의 혁명과 기독교. **역사비평**, 19, 91-141.

[Kang, I. C. (1992). Root of Walnam Protestantism and Catholicism: Revolution in North Korea after Liberation and Christianity. *History Criticism*, 19, 91-141.]

강인철 (2008). 남한의 월남 개신교인들: 반공주의와 민주주의에 미친 차별적 영향. **종교문화비평**, 13(13), 131-158.

[Kang, I. C. (2008). The Protestant Wolnamin and Korean Politics: Their Different Influences upon Anti-Communism and Democracy. *The Critical Review of Religion and Culture*, 13(13), 131-158.]

김건우 (2015). 김재준과 '한신' 그룹의 탄생. **주간동아**, 대한민국설계자들15.

[Kim, G. W. (2015). Kim Jae Joon and the birth of group 'HanShin'. *Magazine DongA*. Designers of Republic of Korea No.15.

김권정 (1997). 일제하 사회주의자들의 반기독교운동에 관한 연구. **송실사학**, 10, 195-229.

[Kim, G. J. (1997). Anti-Christian Movement of Socialists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tic Rule. *SOONG SIL SAHAK*, 10, 195-229.]

김상태 (1998). 평안도 기독교 세력과 친미 엘리트의 형성. **역사비평** 45, 171-207.

[Kim, S. T. (1998). Pyongando Christian power and formation of pro-American Elites. *History Criticism*, 45, 171-207.]

박명수 (2017). 이윤영 목사와 해방공간의 반탁·통일운동. **종교개혁 500주년기념 특별 심포지엄 발표집**.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Park, M. S. (2017). Rev. Lee, Yoon-Young and Anti-Trusteeship-Reunification Movement of the Liberation Space. *Announcement of special symposium celebrating the 500th anniversary of the Reformation*.]

손규태 (1990). 기독교와 민족주의. **기독교사상** 34(3), 157-165.

[Son, G. T. (1990).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Christian Thought* 34(3). 157-165.]

양준석 (2017). 해방공간에서의 한반도와 동유럽; 공산화 과정과 기독교 탄압을 중심으로. **동유럽발칸연구**. 41(2), 209-244.

[Yang, J. S. (2017). *Korean Peninsula and Eastern Europe in Liberation Space: Focusing on Communization process and Repression of Christianity*. East European & Balkan Studies Vol. 41, no.3, 209-244.]

- 임희숙 (2005). 김교신의 민족교육과 기독교. **신학사상**, 128, 251-284
- [Lim, H. S. (2005). The National Education and Christianity of Kyo-Shin Kim. *The Quarterly of the Korea Theological Study*, 128, 251-284.]
- 장규식 (2003). 해방직후 기독교사회단체의 동향.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식**, 61, 16-23
- [Jang, G. S. (2003). The trends of Christian social movements after Korean Liberation. *Newspaper of The Institutes for Korean Church History*, 61, 16-23.]
- 정교진 (2018). 해방전후 월남개신교 정치인, 김병연의 애국애족운동 연구. **신앙과 학문**, 23(4), 179-216.
- [Jung, K. J. (2018). A Study on a Patriotic Movement of Kim, Byung-yeon, a Wolnam protestant politician before and after the Liberation. *Faith & Scholarship*. 23(4), 179-216.]
- 최영근 (2010). 동아시아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의 관계: 일제시기 한국기독교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장신논단**. 37집, 9-50.
- [Choi, Y. K. (2010). The relations between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in the East Asia: focusing on the Korean Christianity Nationalism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Vol. 37, 9-50.]
- 최영근 (2017). 근대 한국에서 기독교와 민족주의 관계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04집, 131-174.
- [Choi, Y. K. (2017). A Study on the relations between Christianity and Nationalism in the modern Korea: focusing on the period from the early days of missionary work to the establishment of ROK government. *Korea Journal of Christian Studies*. Vol.0. No.104. 131-174.]

3. 학위논문

- 김현정 (2010). 1945~60년 월남 개신교인의 현실인식과 통일론.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Kim, H. J. (2010). *The perception of reality and opinions on Unification found in 1945-1960 among North Korean Protestant defectors*. Masters Dissertation. Ewha W. University, Seoul, Korea.]
- 박민형 (2001). 8.15 해방직후 남북한의 정치현실에 대한 교회의 역할. 석사학위논문. 기독교신학대학교.
- [Park, M. H. (2001). *Role of Church in both south and north Korean politics after the independence 8.15*. Masters Dissertation.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Seoul, Korea.]
- 손영준 (1993). 월남한 기독교인이 남한 교회와 사회에 미친 영향.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 [Son, Y. J. (1993). *Influence of Wolnam Christian on South Korean Church and Society*. Masters Dissertation. Korea Theological University, Cheonan, Korea.]
- 정주아 (2011). 한국 근대 서북문인의 로컬리티와 보편지향성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Jeong, J. A. (2011). *A study on the locality and cosmopolitanism of modern Korean writers of northwestern origin*.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해방전 이북지역 개신교 주요인물 및 종교지형 연구: 주요인물 상호관련성 및 '기독교 민족주의'사상 공유를 중심으로

A study on major Protestant figures and Religious landscape
in the northern region before liberation:
Focusing on the interrelationship among the major figures
and the sharing of 'Christian Nationalism' ideology

정 교 진 (서울신학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임 호 정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사수료)

논문초록

개화 계몽기 이후 이북지역에서 성리학에 반하는 진보의 매개가 된 것은 다름 아닌 개신교였다. 본 연구가 구체적으로 다룬 이북지역의 주요세력의 지도자들인 안창호, 조만식, 한경직, 김교신, 김재준은 한국개신교 민족주의자들로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기독교 민족주의'가 이들 개신교 지도자들의 공통분모라 할 수 있다. 이 사상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 민족주의'의 대항마 성격이 강하다. 물론, 안창호와 같은 초기 민족주의자들은 성리학의 영향 아래 있었다. 하지만 이들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기독교 신앙에 민족주의를 접목시키며 '기독교 민족주의'를 주창하게 된 것이다.

보수주의 신학의 영향 아래 있던 초기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이 구축한 '기독교 민족주의'는 자유주의 신학을 추구했던 개신교 지도자들에게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민족의 주체성 확립 및 실력배양 운동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들이 서 있던 종교지형은 분명하게 달랐고, 이 영향으로 오늘날 한국개신교 안에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여전히 대척점을 이루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 초기 개신교 지도자들은 '기독교 민족주의' 정신으로, 더 큰 범주로는 '민족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인격수양 및 실력양성을 통한 개인개조 및 사회개조, 더 나아가 민족개조, 국가개조를 동일하게 꿈꾸었던 인물들이었다는 점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성도들에게 인격함양의 개인개조를 통한 사회개조 및 국가개조(남북통일)에 대한 사명감을 심어주고 있는가. 민족교육을 통한 민족정신이 발현되고 이것이 '기독교 민족주의'로 승화될 때 한국교회는 진정으로 한반도 통일에 주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근본주의, 자유주의, 종교지형, 기독교 민족주의, 범 종교적 국가, 기독교 국가, 민족적 기독교, 개방적 기독교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s Differentiation in the Attitude to the Disabled

김기흥 (Ki-Heung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ain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orrect view of the disabled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of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mpletion, in which churches and Christians are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world.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general social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rough an overview of history and recent preceding studies. Next, we examine the records related to the disabled in the Bible, and examine the Christian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through previous studie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e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hristian worldview of the disabled are as follows. First, the modern church and Christians must establish a firm Christian worldview that is clearly distinct from the world. Second, all human beings are valuable, meaningful and dignified beings created in the image of God. Third, the essential identity and sense of mission of the church and of Christians must be recognised. Fourth, the active will of improvement and practical efforts such as reflective Bible interpretation and sermons of theologians and pastors is an important foundation.

Key words: Christian Worldview, Persons with Disabilities, Bible, Attitude, Church

* 2021년 11월 04일 접수, 2022년 1월 28일 최종수정, 1월 28일 게재확정
본 연구는 2021년도 부산교육대학교 연구역량 지원과제로 지원받아 수행되었음.

** 부산교육대학교(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유아교육과 교수, 부산 연제구 교대로 24, koelnkim@bnu.ac.kr

I. 서론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세계인구 약 70억 중 10억 명(약 15%)이 노인성, 만성건강 문제로 장애인이며, 청각, 시각장애, 정신질환, 지체장애 순으로 많다(<https://www.cbmswiss.ch/de>). 또 2020년 보건복지부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260만 명의 등록 장애인(인구의 약 5.1%)이 있고, 지체장애(45.8%), 청각장애(15%), 시각장애(9.6%), 뇌병변(9.5%)의 비율이 가장 높다(<http://www.mohw.go.kr>). 또 교육부(2021)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총 98,154명이며, 지적장애 51,788명(52.8%), 자폐성장애 15, 215명(15.5 %), 지체장애 9,695명(9.9%)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태도(attitude)’란 ‘사회적인 특정대상에 긍정적, 부정적인 평가나 감정적인 자세 및 행동적 경향에 있어서 안정적 체계’를 뜻한다. 이는 행동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며, 상호작용 하는 인지적(지식, 신념), 정의적(감정, 느낌), 행동적(수용, 거부) 요소로 구성된다. 또 태도는 교육이나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경험, 대중매체 등 주변의 학습과정에 의해 통합적으로 형성되고 변화도 기대할 수 있다. 긍정적 태도와 긍정적 행동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태도와 외현적 행동 간의 일관성은 높다고 한다(한국심리학회, 2006: 405-408; Fischer & Wiswede, 2002: 219).

태도이론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반응에서도 중요한 의미와 기능이 있다. 즉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 합리적 지식과 신념, 긍정적 감정, 수용적 행동 준비성의 태도요소는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적 통합 등 정책수립과 실천에 기본 요소이다. 그 의미는 국제사회의 장애 개념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장애(인)는 개인의 의학적, 기능적 면을 강조하는 개인적 모형과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구조적 문제를 강조하며 환경 변화를 촉구하는 사회적 모형이 있다(이선우, 2009: 22-29).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ICIDH-1)는 의료적, 개인적 모형을 중심으로 장애를 세 요소로 나눈다. 손상(impairment)은 신체적 차원의 유전, 사고, 질병으로 심리적, 생리적, 해부학적 구조, 기능에서 손실, 비정상을 말한다. 불능(disability)은 손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생활의 기능제한과 결여이다. 또 사회적 불리(handicap)는 손상과 불능이 사회적 차원인 직업, 교육, 문화 등에서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말한다. 1997년에는 개인적 모형보다는 사회적 모형이 강조된 ICIDH-2가 제시되는데, 이는 손상, 불능, 사회적 불리의 단선적인 관점보다는 상호관련성이 제기됐다. 즉 장애를 손상, 불능, 사회적 불리와 함께 개인 내부적 요인과 외부 환경적 요인 등 복합적 현상으로 보았다(김기흥, 2020: 24). 2001년 세계보건회의(WHA)는 통일된 정의로 기능, 장애와 건강에 대한 국제 분류(ICF)에서 ICIDH-2의 내용은 유지하면서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을 통합하고자 했다. 장애인 질병의 조건은 환경적 요소와 개별적 요소로 구성된 신체적 기능과 구조, 활동과 참여 등 요소 간의

상호작용으로 보았다(이선우, 2009: 41; 전지혜, 2014: 245). 사회적 환경요인의 강조는 장애가 개인적 심신 손상만 아니라, 사회적 인식, 건축물 구조 등 환경적 장벽(barrier)으로도 발생하므로, 사회적 태도와 역할의 의미를 알 수 있다. 또 2006년 장애인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한 ‘장애인권리협약(CRPD)’도 의학과 개인적 입장에서 인권적 차원으로의 사회적 태도 변화를 이끈 패러다임의 대 전환이라 할 것이다.

2019년 5월 5일 ‘장애인 평등을 위한 유럽 시위의 날(European Protest Day for Equality of People with Disabilities)’에서 독일 사민당(SPD) 연방의원 마스트(Mast)는 ‘통합(Inclusion)은 머리(생각)에서 시작 된다’라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그녀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가 장애로 곤란하지만, 사회적 태도가 장애인의 재활이나 통합에 오히려 큰 장벽으로 보았다(<https://www.spd-gengenbach.de>).

역사 속에서 장애인은 늘 존재했고, 그들에 대한 사회적 태도는 각 시대, 국가의 정책에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김기홍, 2020: 165-201). 고대는 멸절의 시대로 당시 인간은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자산으로의 가치에 따라 생사가 결정되었는데, 허약아, 장애아는 유기, 살해, 매매의 대상이었다(김기홍, 2020: 171-172; Beckerath, 1975: 195-197).

중세에도 고대처럼 장애인은 사회의 부정적 태도와 처우의 대상이고, 문학과 예술작품에도 의존적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기독교의 이웃사랑의 교리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보호나 자선의 대상으로 바뀌어 교회, 수도원을 중심으로 구제활동도 시작되었다. 13세기 이탈리아 신학자 아퀴나스(Aquinas)는 자선교리에서 공동의 복지와 가난한 사람을 위한 선행이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 하였다(Lena, 2008: 55-57).

계몽주의 사상은 중세의 종교나 형이상학적인 입장에서 질병과 장애 이해를 자연과학과 의학적 기초에서 합리적, 과학적으로 접근하도록 했다. 또 의사, 교육자, 성직자를 중심으로 특수학교 등 복지시설이 유럽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산업화 시대는 도시화로 전통적 확대가족이 해체되고 장애인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의 특별시설에 수용되었다. 이들은 사회적인 ‘문제거리’로 인식되었고, 많은 장애인들은 예방, 원인규명 및 치료를 위한 실험대상이 되기도 했다(Sierck, 2017: 49).

20세기 초 경제적 호황은 장애인을 노동시장에 통합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는데, 이에 기독교계 장애인 복지 관련 시설들도 의료 활동에 이어 직업재활에까지 관심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장애아에게 처음으로 공공교육권이 있었지만, 이들은 분리된 시설에서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독일 나치시대(1933-1945)의 특수교육과 장애인 복지는 고대에 이어 ‘제2의 멸절 시대’를 맞이했다. 독재 정권은 19세기 다윈(Darwin), 멘델(Mendel), 갈톤(Galton)의 생태계 법칙을 인간사회에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와 인종주의(racism) 이념으로 치환하였다. 당시 일부 신·구 교회가 저항했지

만, 치료, 노동, 학습이 불가능한 수많은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은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인식되어 국가의 강제적 불임시술과 안락사 정책으로 희생되었다(김기홍, 2020: 182-184).

2차 대전 후에는 북유럽의 ‘정상화 원리(principle of normalization)’나 ‘탈수용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 운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분리, 차별적인 사회적 행태에 강한 비판이 일었다. 이는 통합교육의 기초가 되었고, 최근 통합은 인권의 차원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장애인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멸절·자선·보호·교육적 배제·분리교육·통합교육 등의 다양한 사회적 의미를 지닌 존재였다(김기홍, 2020: 84-86).

한편 이러한 역사 속에서 기독교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 면과 실천면에서 양면성을 가진다. 즉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측면과 동시에 ‘신의 형벌’, ‘귀신들린 자’, ‘악마가 바귀놓은 못 생긴 아이(changeling)’ 등 부정적 태도도 있다. 5세기 가톨릭 주교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언어신수설(言語神授說)을 주장하며, 로마서 10장 14절의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에 따라 청각 장애인은 듣고 이해하지 못하므로 믿음을 가질 수 없다고 보았다. 그는 후에 청각장애인의 수어를 보고 이들도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인정하였다. 루터(Luther)나 칼빈(Calvin)의 경우도 추형(醜形)과 기형아를 사탄이 요람에 넣은 ‘영혼 없는 고기 덩어리(chunks of meat)’라고 익사시킬 것을 권했다. 이후 많은 장애인들은 마녀재판으로 화형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건강은 신의 축복이지만 질병과 장애는 죄의 결과로 본다거나 장애인은 귀신이 들렸다고 여기는 등 전통적인 여러 사상들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 형성에 작용하였다(Lane, 1988: 55-60).

우리나라도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가 배타적, 부정적인 면이 매우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그 예로, 몇 년 전 서울의 장애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일이 있었다. 또 전라북도의 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장애인 단체는 건물을 이전하여 거주와 이전의 자유권보장을 통해 안전한 공간에서 주민과 함께 살기를 원했다. 이에 인근주민들은 부동산 가격하락과 원룸 공실 발생 등을 우려하며 이를 반대하며 갈등이 발생하였다(<https://news.joins.com>: <https://www.newspim.com>).

사실 현대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무관심, 편견, 거부 등의 반응들을 보인다. 예를 들어, 장애인 교회나 장애인 부서가 설치·운영되는 교회의 비율은 우리나라의 약 5만여 개의 교회 중에 약 0.5%정도이다(이희철, 2009; 박명우, 2012: 36). 또 교회 내 비장애인 교인에 비해 장애 교인의 수가 매우 적고, 장애인 편의시설의 구비 환경도 열악함을 보더라도 기독교계 내의 장애인에 대한 소극적 태도를 쉽게 알 수 있다(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98-99).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인간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세계관(worldview)에서 출발한다. 세계관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과 자신을 포함한 주변 세계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의 기본이 되는 전제의 틀’을 말한다(전광식, 1998: 17-40). 이런 관점에서 특히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은 특수교육, 장애인 복지 역사에서 인간이해의 획기적 변화를 구현했고, 구교의 까리타스(caritas)나 신교의 디아코니아(diakonia)등을 통해 복지제도의 정립에 공헌했다(Mattner, 2000: 39-42). 하지만 오늘날 교회나 기독교인들조차도 창조-타락-구속-완성을 주축으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적 정체성과 사명감을 등한시한 채 왜곡된 시대정신에 편승한다면,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의 주 대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99; 김기홍, 2020: 33; 김용득, 2007: 85).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역사 속에서 사회적으로 부정적 장애인관에 영향을 준 주요 사건이나 사상을 개관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일반 사회의 태도를 개관하기 위해 관련된 최근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이어서 성경 속에서 장애 관련 기록을 알아보고, 교회 내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성찰적 입장에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된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는데 본 연구의 의의를 두는 바이다.

II.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인 태도 개관

1. 역사 속에서 살펴본 부정적 장애인관 형성의 주요 요인

(1) 고대에서 19세기까지

고대 그리스의 인간관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형성 과정에서 매우 부정적 영향을 끼친 시대이다. 도시국가(polis)인 고대 그리스는 국가 우선주의에 따라 개인은 인격적 존재이기보다는 국가의 자산으로 보아 자산의 가치가 없는 장애인은 ‘식충이’, ‘해충’으로 분류되어 소위 안락사(euthanasia)의 대상이었다. 특히 스파르타는 이상적 인간상을 ‘군인상(軍人像)’으로 정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매우 강조했다. 게다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히포크라테스조차도 장애아 양육과 치료를 적극 반대했는데, 이는 당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지나친 사회적 편견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신체적으로 불완전하면 정신적, 도덕적으로도 결함이 있다고 보았고, 또 이들은 병역의무나 정치, 경제 활동에 참여도 불가능하다고 이해했다. 플라톤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위협적이고, 더 이상 이성과 자율적 도덕 행위가 불가능 한 경우에는 안락사를 지지하였다. 또한 로

마시대는 생존이 허락된 장애인들을 경제적, 유희의 도구로 노예시장에 매매의 대상이 되었다. 특히 아테네인들은 미(美)와 선(善)의 조화를 갈망하며 외모를 매우 중시하여 ‘아름다운 것은 선한 것이다’라는 왜곡된 인간관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는 기형아나 장애인에 대한 강한 사회적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Mattner, 2000: 18-20).

또한 17세기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 베이컨(Bacon)도 고통 중의 사람에게 고통을 덜어주는 안락사가 의사의 의무고, 이것은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에 비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행위로 여겼다. 이는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심리학자 요스트(Jost)가 1895년 ‘죽음의 권리(The right to death)’발표 후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로 이어져 논쟁의 중심이 되었다. 그는 인간 삶의 가치를 두 요소로 보는데, 하나는 당사자가 가진 개인적 기쁨과 고통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적 삶의 사회적 유익과 손해의 총합 관계이다. 지체장애나 정신질환자들이 고통이 더 많고, 사회에 무용한 존재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삶이므로 안락사(조력자살)의 합법화를 찬성했다(Benzenhoefer, 1998: 198-201).

(2) 20세기 이후

장애인에 대한 요스트의 인간관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법학자 빈딩(Binding)과 신경정신과 의사 호헤(Hoche)의 1920년 논문 ‘살 가치가 없는 생명의 멸절 허용(The release of the destruction of life unworthy of life)’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제2의 멸절 시기’인 나치정권의 장애인 멸절정책의 이념적 지침서였다. 또한 히틀러는 다윈(Darwin), 멘델(Mendel), 갈톤(Galton) 등의 진화론자와 유전학자들의 생태계 법칙을 여과 없이 인간사회에 적용하여 인종주의(racism)와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를 정치이념으로 삼았다. 이에 수많은 장애인, 정신질환자들이 노동, 학습,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살 가치가 없는 목숨’으로, 또 유대인, 슬라브족 등은 멸절시켜야 할 ‘열등한 인종’으로 낙인이 찍혀 국가주도의 대학살이 자행되었다(김기홍, 2020: 184-190; Benzenhoefer, 2009: 55-59).

한편 20세기 동물권운동으로 동물의 도덕적 지위를 높인 공리주의 윤리학자 싱어(Singer)의 인간이해, 특히 장애인의 존재의미, 가치와 관련된 인간관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그는 사람을 인격체인 인간(person)과 종(種)인 인간(homo sapiens)으로 구분했다. 즉 전자는 자의식과 자율성을 가진 비장애인이며, 후자는 코마상태 환자, 지적장애의 신생아, 태아 등 소위 비인격체, 생명권이 없는 것으로 보는 ‘단순한 존재’였다. 싱어는 1980년대부터 장애아 등에 대한 낙태, 안락사의 합법화를 주장했는데, 어떤 형태든 삶의 쾌락과 최소한 수준의 자의식도 없고, 육체적 고통만 있는 삶은 존재의 의미가 없다고 보았다. 고통스런 삶보다는 낙태나 안락사를 통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도덕적으로 나쁜 행위가 아니라 주장했다(Maeser, 2008: 20-26).

21세기에 와서 안락사 등 생명윤리 관련 주제를 중심으로 인간의 존재 의미, 가치에 대한 논란과 안락사 합법화 요구는 국제적으로 더욱 확대되었다. 그 한 예로, 2018년 호주의 구달(Goodall, 당시 104세)박사는 난치성 질병이 없음에도 더 이상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여겨 스위스에서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통하여 사망했다. 올해 12월 오스트리아는 연방정부가 발의한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에 의회가 합의하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에 이어 유럽의 여섯 번째 국가가 되었다. 이 조력자살은 의사 2명으로부터 조력 자살 의지가 본인의 결정임을 증명해야 하고, 또 실행 전 12주간의 숙려기간이 주어진다. 다만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거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2주로 단축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조력자살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에 영국, 독일, 프랑스도 조력 자살 허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심지어 스위스에서는 최근 무기수도 안락사를 요구하며 그 대상 범위에 대한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https://news.mt.co.kr>; 김기홍, 2021: 129-130).

더군다나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의 팽창을 통하여 과학기술의 발달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지식정보의 영향력은 결국 앞으로도 사회는 더 유능한 사람만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반면에 사회적 기대나 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경제성, 생산성, 합리성이라는 기준에 의해 그들의 존재 가치와 의미는 계속해서 평가 절하될 위험성에 처해있다. 또한 2000년 8월 미국 칼럼니스트 새파이어(Safire)는 ‘뉴욕 타임스’에 외모지상주의를 의미하는 루키즘(Lookism)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는 외모가 개인의 우열과 성패를 좌우한다고 믿고 지나치게 외모에 집착하는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를 의미한다. 외모지상주의적 인간관 역시 장애인들에게는 부정적 태도 형성에 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욱이 2013년 1월 영국의 시사지인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를 인구 대비 성형수술이 가장 많은 나라로 발표하기도 했다(서재복 외, 2016: 100-102: <https://100.daum.net>).

이처럼 오랜 역사 속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게 한 사건이나 사상의 핵심은 예나 지금이나 결국은 비생산적, 비경제적 또는 비합리적인 무능한 삶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이러한 소위 ‘무기력·무능력한 존재=무의미·무가치한 삶=죽음’이라는 인간관과 함께 지나친 건강·외모지상주의적 사고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부추기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관련 선행 연구 고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의 개괄적인 고찰을 위해 주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에 국내 데이터베이스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원)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거리’ 등 핵심어로 검색했다. 최근의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를 조망하기 위해 2000년 이후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제목이나 내용을 살펴본 후에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결과 중 중복적인 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하여 총 16편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최종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특수교육, 사회복지, 의료 분야에서 대학생을 비롯하여 일반인, 교사와 장애인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1)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먼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태도 조사에서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나 ‘장애아동의 이해’라는 교양과목 수강 대학생과 비수강대학생 그룹간의 비교에서 전체적으로 수강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에 양적, 질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또 수강한 학생들은 수강 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 여기에는 장애인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의 증가, 장애인 접촉 시 긴장, 불안, 창피함 등 정서적 완화, 사회적 거부감의 감소, 장애인 사회통합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일반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이해 관련 과목의 지속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의미한다(양명희, 임은미, 2004: 219- 220; 권미은, 2017: 160-162). 또 이지수(2005: 171)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도조사에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장애인 관련 선행 경험뿐 아니라, 부모나 교사 등 가족, 학교환경의 긍정적 태도가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았다. 한편 배형일, 오원석, 이윤미(2009: 91-97)의 장애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인식연구는 감각장애가 정신장애, 간질 혹은 에이즈에 비해 훨씬 더 선호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각과 청각 장애 등 감각장애는 타인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없으며, 공중도덕과 같은 사회적 규범으로부터 이탈행동을 보이지 않는 반면, 정신장애나 에이즈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보편적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 장애인의 공적 장소활용에 대해서도 감각장애나 지적 장애인보다는 에이즈나 정신장애인의 경우는 타인의 건강이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거의 제한성에 더 강하게 찬성함으로서 이들의 사회적 통합이나 수용 가능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장애유형에 따른 비장애대학생들의 부정적인 태도는 장애에 대한 실제적, 객관적 이해의 부족에서 기인할 수 있기에 장애인해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미숙, 양소현(2015: 11-13)의 예비일반교사의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한 직장에서 장애인과 동료로 일하는 것에는 큰 부담이 없지만, 연애나 결혼에 대해서는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 장애관련 경험, 즉 가족, 친구, 지인 중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나 자원봉사의 경험과 장애 이해 관련 교과목 이수자들은 장애인과의 직장생활, 연애, 결혼 등에 있어서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하여 사회적 거리감이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김정현, 박현옥, 2016: 151; 이신영, 서석진, 한동일, 2019: 40; 이미지, 2020: 368). 여기에서도 장애인과의 사회적 거리감을 줄이고 긍정적 태도 개선을 위해 장애이해교육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통합교육과 행사 등을 통한 장애인과의 의미 있는 경험과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석말숙, 김정미, 유영준(2004: 502-509)의 장애대학생의 사회통합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조사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공공시설의 이용이 장애인에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편의시설이 미비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감 조사에서 일시적인 친목회나 사교모임과는 달리 장애인과의 긴밀한 친구 관계나 여행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즉 장애인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거부적인 행동경향을 보였는데, 각종 편의 시설 등 환경적 요인의 수정 등을 통해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사회적 접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김이순, 최경희, 신유선(2004: 254, 264)은 지적장애아에 대한 인식을 알고자 다양한 연구대상자(장애인복지관 종사자, 주부, 직장인, 중고생, 대학생)를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했다. 여기에는 네 가지 인식유형이 있는데, 인권 동등형은 긍정적인 인식으로 장애인도 나와 동등한 인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는 입장인 반면에, 나머지 무관심형, 지식 부족형, 배타 편견형은 지적 장애아를 무시, 폄하, 차별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올바른 장애인관 정립을 위하여 아동기부터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경험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일반인, 의료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김금순 외(2010: 19, 20-21)에 의하면, 장애인 집단에 비해 일반인과 의료인들이 장애인을 이질적인 존재로 인지하고 있었다. 또한 장애복지서비스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 일반인과 의료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 취업지원으로 응답했다. 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태도 개선을 위해 의료인의 교육과정 수정, 장애 모의 체험 등 접촉경험의 양적, 질적 증대 등 장애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것을 주장했다. 고은과 목홍숙(2013: 131, 145-147)의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10대-60대)의 사회적 거리감 연구에서도 장애인들은 부정적, 거부적인 사회적 존재로 인식되어 있다. 특히 지적장애인은 지체나 감각장애보다 사회적 고정관념으로 일상생활, 동료나 친구, 가족관계에서 공감적 이해 정도가 가장 낮았다. 또 차원의 유형에 따른 사회적 거리감에서도 국가적, 사회적인 관계보다 가족차원, 즉 장애인을 가족으로 수용하는 등 개인적 관계가 가까울수록 거부적인 반응이 더 나타났다.

김용욱, 우정환(2014: 75-79)은 일반교사의 장애인과 통합교육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와 지식의 습득, 장애인과의 접촉 시 거부감, 불안, 긴장 등의 해소를 위한 교사연수 과정이 필요하고, 실제적인 통합학급 담당 경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독일의 크뢰어케스(Cloerkes, 2007: 78, 105)의 연구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전형적인 사회적 반응형태를 ‘응시하고 말하기’, ‘조롱과 놀림’, ‘농담’, ‘차별적인 표현’ 등을 들었다. 특히 인지적, 정신적 영역에서의 장애가 신체적 장애보다, 남자나 나이 든 장애인들이 여성이나 젊은 장애인보다 사회적으로 더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주메레더(Sumereder, 2013: 90-93)는 오스트리아 기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지적장애인에 대한 직업적 통합에 대한 태도를 조사했다. 여기에서 대부분 연구대상자들은 장애인을 무능력한 사람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높았는데, 장애인과 평소 접촉이 잦은 인사담당자들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더 긍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2)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

한편 심층면접을 통해 휠체어 장애인 당사자들이 인식하는 사회적 태도 장벽을 연구한 이정은 외(2020: 161, 180-183)에 따르면, 대부분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대인관계에서 매우 부정적 정서와 행동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장애인과 함께 있거나 관계맺음을 거부하는 행동, 모욕적, 무시하는 언어나 행동, 장애인 권리에 대한 외면, 장애인은 열등하고, 불행하며,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 등의 왜곡된 정서적 요소들이다. 또 휠체어 장애인은 특히 외현적인 장애 특성으로 낙인의 대상이 되어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결함이나 열등함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평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권리가 무시되어 차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원치 않는 도움을 제공하는 것은 온정주의적 차별의 형태이며, 이러한 호의적 차별이나 미묘한 형태의 편견들은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차별적 태도에 속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정책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과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의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 중 자신의 건강상태가 스스로 ‘좋다’고 본 경우는 14.0%인데, 이는 전체 인구의 32.4%에 비해 매우 낮으며, 우울감 경험과 생활에서 스트레스 경험율도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다. 또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없다’고 응답한 장애인 응답자 비율은 36.5%로 2017년 20.1%, 2014년 27.4%에 비해 높지만, 여전히 장애인 당사자들은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강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http://www.mohw.go.kr>).

최근 들어 장애인에 대한 물리적, 지원서비스 등 외현적 환경은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본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내면적 태도는 인지적, 감정적, 행동 경향적

요소 측면에서 여전히 무지나 낙인, 편견, 차별, 거부 등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회적 태도의 저변에는 장애나 장애인을 비정상적으로 여기는 외적 이미지나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들을 비생산적, 비효율적 존재로 보거나, 장애인에 대한 지원, 편의를 특별로 보고 이것이 비장애인에겐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도 있다고 본다(이정은 외, 2020: 180, 182, 183; 박건, 2010: 267). 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특히 장애인 이해교육의 강화와 장애인과의 상호작용 증진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공통적인 우선 과제로 꼽고 있음도 알 수 있다.

III.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계의 태도 개관

1. 성경 속의 장애인 관련 기록을 통해 본 장애인관

성경은 장애에 대해 총 163회 언급하는데, 이는 구약이 약 55%이며, 시각장애(49%), 지체장애(36%), 청각장애(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이계윤, 1996: 55-56). 장애 발생 원인의 이해 정도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 형성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한다. 오늘날 장애는 선천적(염색체, 유전적 요인 등)보다는 사회 병리적 질환, 사고 등 후천적 원인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성경 속의 장애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것은 시대적 맥락이나 성경 해석상 등 매우 난해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성을 염두에 두고 성경 상 기록된 장애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예를 들어, 노인성 장애, 만성질환, 각종 사고나 전쟁, 선천성, 죄의 결과, 귀신들림, 하나님의 섭리 등이다. 그 중에서 특히 장애원인을 죄의 결과나 귀신들림 등으로 보는 종교적 시각은 일반 사회적 관점과는 차이를 보이는 관점이라 할 것이다. 또 이러한 성경 상 기록은 역사적으로 기독교 내적으로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이해와 태도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한 요소라 할 것이다.

우선 장애 원인을 하나님께 대한 범죄·불순종의 결과인 징벌로 보는 인과응보적인 사상이다. 이러한 장애 이해는 구약과 신약(출5:1-3, 레26:15-16, 신28:27-29, 삼하3:29, 삿16:17-21 등)에 자주 언급되어 있다. 특히 성경에서 종종 장애나 질병의 기적적인 치료들이 주로 죄 사함의 선포 후(막2:3-5, 요5:5-14 등)에 일어나 ‘장애=죄의 결과’라는 공식이 많은 문화권의 의식에 오랫동안 내재된 것 같다(Lena, 2008: 55-57). 이 같은 장애인관은 장애를 죄의 대가, 저주의 상징으로 이해함으로써 오늘날까지도 사회 공동체의 참여에 동등한 일원으로서 수용되지 못하고 혐오나 차별, 거부의 대상(레 21:17-23, 마20:30-34, 막10: 46-52, 눅18:35-43 등)으로 인식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다(강영실,

2003: 39).

또한 장애 원인을 귀신들림으로 보는 입장인데, 이는 성경 상 의사소통이나 청각장애(마9:32-33, 막9:17 등), 정신과 질환(막 5:1-20) 등과 관련되어 볼 수 있다. 특히 중세 기독교의 장애인관 중에서는 이들의 일탈행동이나 문제를 사탄의 역사로 곡해하여 마녀사냥으로 수많은 장애인들이 희생되기도 했다.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장애에 대해 의학적인 근거 없는 학대에 가까운 치료법이나 불안감, 거부감 등의 사회적 태도로 인해 심각한 인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김문수, 2009: 52).

이처럼 장애를 단지 죄의 결과, 귀신들림 등의 부정적 장애인관은 결국 교회 및 사회공동체까지 거부, 혐오, 차별, 무시 등의 부정적 태도로 영향력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성경의 부정적 이미지로 보이는 장애인 관련 기록도 단순히 편협하고, 문자주의적 해석으로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의미를 놓친 채 지금까지 그 영향력이 잔존하는 것이다. 이는 당시 문화, 종교적 배경 등을 고려하여 현대사회에서는 신학의 반성적 입장에서 성경적 재해석이 요구된다(김문수, 2009: 51;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122; 이은미, 2013: 219-220; 이준우, 2007: 37-39).

이는 사실 성경 속에는 장애인에 대한 보호, 존중 및 평등의 정신을 더 강조하는 많은 기록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장애인을 약자로 보고 사회적 보호와 사랑의 대상(레19:9-10; 신 27:18; 요13:34-35; 눅10:25-37 등)으로 대하라는 명령을 볼 수 있다. 특히 예수께서는 당시 멸시의 대상이던 많은 환자와 장애인에 대한 존중 속에서 행하신 치유 사역(마 8:2-3, 6-16, 25:40 등)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리고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구원의 대상이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인정(마4:23, 11:5; 눅14:12-24 등)함을 기록하고 있다(전지혜, 2014: 256-257). 더군다나 성경에서 장애의 주체를 하나님 자신으로 밝히시며, 이를 통해 그분의 심오한 섭리나 뜻을 밝히기 위한 방법으로 보는 경우(출4:10-11, 요9:1-3 등)인데, 이는 지금까지 부정적 장애이해와는 전혀 다른 인식이라 할 것이다. 이 관점은 종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거부, 차별 등 부정적인 인식의 대전환을 맞이하는 주요계기가 되었다(강영실, 2003, 39). 그 밖에도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지나친 건강·외모지상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적 태도에 대한 경고(신1:17; 삼상16:7; 약 2:4; 벰전1:17 등)의 말씀도 관찰 할 수 있다.

2. 기독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 선행 연구 고찰

기독교회나 교인들의 장애인 관련 태도를 전체적으로 개관하기 위해 주요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있다. 이에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와 KISS(한국학술정보원)를 바탕으로 ‘교회의 장애인에 태

도’, ‘기독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기독교인의 장애인 인식’ 등을 검색 키워드로 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의 논문들을 통해 최근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조망하고자 했다. 검색된 결과물 중 중복 논문을 제외하고, 본 연구의 목적과 부합하는 13편의 논문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살펴본 선행연구들의 연구대상은 주로 일반교인을 비롯하여 교회 장애인 부서 교사, (예비)목회자 및 장애를 가진 교인 등이었다.

(1)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먼저 한정우, 장옥례(2018: 201-206)는 장애인들과의 통합예배를 경험한 일반 성도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통합예배 시행 초기에는 장애인들에 대한 무관심, 동정심, 불편함, 불안함 등 부정적이고 거부적인 정서적, 행동적 태도요소를 보였다. 그러나 점차 신앙적 입장에서 장애인의 존재나 통합예배의 당위성과 의미를 이해하는 긍정적 인식들이 확연히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예배의 개선을 위해서는 통합예배의 본질적 의미 고취와 장애인식 개선교육, 편의시설의 확충(강영실, 2003: 45, 57), 체계적 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등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어서 김용구(2015: 62-67; 천인준, 2009: 67-70)의 교인들의 장애인 수용태도에서도 장애인 시설 봉사 유경험자, 인식개선교육을 받은 경우, 교회 내 장애인 부서 설치된 경우가 그렇지 않는 집단에 비해 수용태도가 더 높았다. 이에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특히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 습득 및 긴밀한 상호 작용의 경험이 중요하며, 여기에는 교회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당 회원(담임목사와 장로)의 의지와 실천(김요섭, 2007: 177)이 필수 요건임을 알 수 있다.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2012: 106-109, 120-122)의 교회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수치상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애교인을 위한 예배부서 설치에 대해 60%는 반대, 약 32%는 찬성하였다. 이 부서의 설치찬성 이유에 ‘예배에 집중’, ‘상호 소통 곤란’, ‘이질감’, ‘불편함’ 등 근본적인 거부감이 매우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반면에 반대 이유는 ‘장애인도 나와 같은 동등한 사람’(85%)으로 보기 때문이었다. 특히 동일연구에서 장애인들과의 면담 결과에서 자신들은 교회에서 비장애인들로부터 동등한 인격적 존재로 수용되기보다는 차별적, 이질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만식(2009: 54)의 연구에서도 우리나라 교회의 장애인에 대한 시선은 대부분 동정, 자선적, 시혜적 차원의 구제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또 장애인 선교는 선교적 차원이 아니라 봉사나 자선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어서 김기홍(2017: 57-59)은 장애인 부서 교사의 장애인 인식에서 교사들은 통합예배에 대해 장애인들의 돌발행동이나 교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 불안감 등 정서적인 이유로 매우 소극적이었다. 이의 개선을 위해 특히 담임목사의 인식 변화를 강조하였다. 윤경일(2017: 58-60; 김요섭, 2007: 169)은 장애인부서 교사들이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거리감이나 부담감 보다는 장애인에 대

한 실제적인 지도 방법 등 태도의 인지적 요소인 객관적 지식이나 정보 결핍으로 교사교육 프로그램이 요청되었다.

(2) 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한편 박희경(2009: 50-52)의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목회자들의 인식 조사에서 경력 10년 이하나 50대 이하 연령대 및 교회규모 100명 이하의 목회자들이 그 이상의 집단보다 교회학교의 통합교육 관련 인식과 이를 통한 장애인 선교나 지역사회의 이미지 제고에 더 긍정적, 우호적인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교회의 장애학생 편의시설과 장애인 선교프로그램의 부족은 ‘장애인에 대한 일반성도들의 인식부족’과 ‘교회예산의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그리고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목회자의 역할 인식은 ‘목회자로서의 확신과 기도(영성)’와 통합교육 이해증진과 비전제시를 위한 설교 및 교육’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로서 장애인 사역은 목회자 자신의 올바른 장애인관 정립과 더불어 전체 교회를 대상으로 교육과 계몽이 매우 중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또 김종복(2005)은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관심도는 63%가 “약간의 관심이 있다”였고, 그 이유도 “불쌍해서”가 약 80%로 목회현장의 사역자들도 장애인을 단지 동정, 구제의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보였다. 이는 오영환(2007: 50)의 연구에서도 통합예배 실시에서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목회자의 무관심과 일반 교인들의 장애 이해 부족으로 본 바와도 같다. 이어서 장애인에 대한 신학생의 인식을 살펴본 이천수(2005: 73-77)의 연구에 의하면, 대부분의 신학생이 그리스도의 활동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선교사역이 중요했다는 것에 의식적으로는 동의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관련 설교는 거의 하지 않는 등 그들에 대한 관심은 매우 적었다. 또 교회의 장애인 선교, 복지를 활성화 하기 위해 담임 목회자의 인식 전환을 1순위로 지적했고, 또 목회자나 목회자 후보생을 위한 장애인 선교 관련 교과목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안도현, 오세일(2020: 510-518)은 개신교 장애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장애를 신앙과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조사하였다. 먼저 자신의 장애에 대한 종교적 수용과정은 무비판적 수용단계, 성찰적 수용단계 및 주체적 권위회복 단계로 구분하였다. 특히 그들은 교회 내에서 자신들만을 위한 예배모임에 대해 배려보다는 오히려 분리와 차별로의 인식을 강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태도 관련 선행연구에서의 일관적인 공통점은 여전히 기독교계도 역시 장애인에 대한 무지나 불편(안), 거부감 등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인 통합예배나 주일학교의 통합교육, 교회 내 편의 시설 확충 등 교회의 장애인 선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철저한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신학자들

의 균형 잡힌 성경해석을 꼽을 수 있다. 이어서 이를 바탕으로 교회 (예비)목회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인식의 변화로부터 출발하여 교인들에게 지속적인 강론과 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간관의 정립이 요구된다는 사실이다.

IV.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 정립을 위한 시사점 및 결론

본 연구는 기독교계가 세상적인 가치관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에 역사적 개관 및 최근 선행연구를 통한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 태도와 성경 속의 장애인 관련 기록 및 기독교회와 교인들의 장애인 태도 관련 선행연구를 각각 살펴보았다. 지난 역사 속에서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회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실천적 과정에서 기여한 바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개관한 바와 같이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단편적이고 왜곡된 성경 해석이나 강론 등으로 교회나 교인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에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무지, 편견, 거부, 혐오 등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태도 형성에 일조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서 도출된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바른 장애인관 형성을 위한 시사점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장애인관을 위해서는 먼저 세상의 가치관과 엄연히 구별되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의 정립이 가장 기초적인 전제라 할 것이다.

세계관은 자연(샤머니즘, 자연주의), 인간(인본주의), 신(유대교, 이슬람, 기독교) 중심적 세계관으로 각각 구분한다. 또 세계관은 세상과 자신을 이해하는 해석적 열쇠 제공 등 여러 기능을 가지므로 올바른 세계관 확립은 특히 중요하다.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요소는 창조(Creation/Form)-타락(Fall/Deform)-구속(Redemption/Reform)-완성(Consummation/Transform)이다. 창조는 만물의 기원을 자연도태나 적자생존의 법칙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아름답고 존귀하게 빚으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의 지성의(知情意) 영역이 근본적으로 훼손되었고, 이는 세상 전체에까지 악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인간과 다른 만물이 원래의 질서대로 회복되어 결국은 인간의 죄로 뒤틀린 세계는 완전히 새롭게 변화하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라는 의미이다(이승구, 2018: 28-31; 최용준, 2020: 35- 39). 이에 기독교·성경적 세계관은 교회나 교인들이 하나님과 자신 및 세상 만물을 바로 이해하고 판단하며 삶 속에서 일관성 있게 적용하여 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고 나침반이며 기준점인 것이다.

둘째, 모든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을 따라 창조된 존엄하며, 각자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인간관이다. 현대 사상의 일반적인 인간이해 방식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물질적인 요소로 보는 유물론이나 동물적 특성을 강조하는 진화론적 인간관 등이 있다. 역사 속에서 이런 세속적인 인간관은 인간 존재 의미나 가치 여부의 판단은 주로 합리성이나 경제성 관점에서 보았다. 그리고 이런 능력주의적인 사회적 가치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존재 의미나 가치는 대체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의 인간관은 세상 관점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시고, 또 창조과정에서 모든 이들을 상품과 기계처럼 동일하게 만드시지 않고 각자 여러 모양과 특성(마25:14-30; 롬 9:20-22)을 가진 존재로 빚으셨다. 따라서 장애와 비장애를 열등과 우월의 이분법적 이념으로 분리하여 거부나 배척의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전지혜, 2014: 254-256).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애인 존중과 사랑의 마음으로 치유와 구원사역을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뜻(출 4:11; 암 3: 6; 요9:2-3; 롬1:27; 고전1:27-31; 히11:33-34 등)과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눅14:7-24; 갈3:27-28 등)임을 깨닫는 태도가 요구된다(이준우, 2007: 44).

셋째, 교회 및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감 등 교회와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의미를 재인식해야 한다. 현대 사회는 법, 제도, 물리적 환경 등 외적 개선으로 과거에 비해 장애인의 삶이 향상되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저변에 팽배한 건강·외모지상주의를 비롯하여 경제성, 합리성 및 생산성 등의 사회적 기대나 가치 기준에 의해 현실적으로 많은 차별과 편견을 경험하며 살고 있다. 이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현대 교회 내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박종삼, 2000; 이준우, 2007: 32-34).

원래 교회의 어원은 ‘만남’, ‘모임’을 뜻하는 그리스어 에클레시아(ekklesia)이다. 이 용어는 구약(출12:6(이스라엘 회중), 민14:5(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렘26:17 (백성의 온 회중)과 신약에서는 약 117회나 사용되었다(정은배, 2018: 255).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란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로부터 불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된 성도(聖徒, 엡 1:22, 5:23)를 가리킨다. 성경에서의 거룩함은 분리되어 구별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회는 세속적 만남과 모임과는 근본적으로 목적과 사명에서 명확한 차별성을 가진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기간 사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요 통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선교), 각종 질병이나 장애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을 행하신 것이었다(정기철, 2017: 97-100).

만일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마 5:13-16)으로의 본연의 사명이나 역할 등 정체성을 상실한 채 세상의 가치관인 성공, 건강, 출세, 물질을 함께 추구한다면, 교회는 세상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

는 것이다. 이는 교회나 교인들이 현대의 왜곡된 시대정신을 선도적으로 이끌기는커녕 오히려 사회로부터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독교회는 사회의 연약한 자들을 세속주의자들처럼 분리나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통합 속에서 한 소망을 가진 교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하며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강영실, 2003: 42-43; 전지혜, 2014: 257-260).

넷째,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개선을 위하여 또 다른 근본적인 배경 중 하나는 장애인 관련 성경기록에 대한 신(성경)학자들의 반성적 성경해석(김문수, 2009: 51; 박혜전, 김정임, 조영길, 2012: 101; 이은미, 2013: 233-235)과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실천적 노력(김용구, 2015: 65-67; 박희경, 2009: 52)이다. 그 한 예로, 채은하(2020: 52-54)는 현재 우리나라 교회에서 사용하는 공인번역 성경(표준새번역(1993), 공동개정(1999), 새번역(2001), 성경(2005) 등)이나 주석자들 혹은 설교자들의 장애인 관련 명(호)칭을 보더라도 여전히 이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매우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특수교육, 장애인복지에서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눈먼 이’, ‘장님’, ‘귀머거리’, ‘귀먹은 자’, ‘절름발이’, ‘다리 저는 이’, ‘불구자’, ‘병어리’, ‘소경’ 등의 명칭을 기독교계에서는 아직도 사용 중이다. 사실 명칭이란 특정 대상과 현상에 대한 인식구조의 파악과 형성에 중요한 요소인데,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호칭은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사회적 이미지와 차별과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 또 교회의 선교정책에서도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특수선교’라는 명칭으로 구분하여 구제나 자선의 대상으로만 여김으로서 차별과 편견의 태도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강영실, 2003: 41-42; 이은미, 2013: 227).

게다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많은 교회가 장애인 선교의 당위성에 대해 무관심하고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볼 수 있다. 아마도 이는 일반 사회의 주된 가치관인 경제성의 관점에서 장애인들은 교회의 양적 성장에 방해되고, 또한 소모적인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전지혜, 2014: 258). 특히 우리나라의 수직적인 교회의 조직 형태 속에서 (담임)목회자 등 교회 지도자들의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가 교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들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과 실천의지에 따라서 교회 내 장애인부서의 설치에 이어 주일학교의 통합교육과 성인 교인들의 통합예배의 실시여부까지 달려있을 정도로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학대학교(원)의 목회자 양성과정 초기부터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의 편제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장애인관의 정립과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금섭, 배내운, 이민호(2005: 311)에 의하면, 우리나라 목회자 양성대학 총 79개교 중에서 겨우 6개교(약 7.6%)에만 특수교육관련 교과목이 개설되어 우리나라 기독교계의 장애인 선교에 대한 소극적이고 무관심한 현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일반사회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예를 살펴보면, 비록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2009년부터 유·초·중·고의 모든 예비교사들은 ‘특수교육학개론’이 교직소양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아울러 교육부(2021) 자료에 따르면, 많은 난제가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일반학교(특수학급+일반학급)에서의 통합비율은 72.2%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인식개선 교육)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 실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를 더욱 더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결론적으로, 기독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거나 추구하는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엄연히 구별되는 존재이다. 이에 인간, 특히 장애인을 보는 관점도 창조-타락-구속-완성이라는 기독교 세계관적인 인간관을 바탕으로 정립되고,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귀한 존재이며, 각자 다양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은 사회나 교회 공동체의 동등한 일원임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현대 기독교계가 장애인에 대해 개방적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학자들이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에서 성경연구와 해석을 통하여 올바른 인간관으로 정립된 (예비)목회자들을 양성해야 한다. 아울러 현장의 목회자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적인 사명과 역할을 끊임없이 전하고 개방적이고 통합적인 교회 분위기와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무성이 있다. 더 나아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애인 관련 사회 인식의 개선과 국가 정책적 변혁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과 차별적인 시대정신을 이끄는 데 주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한정우, 장옥례, 2018: 204-206).

사실 특수교육-장애인복지-신학과의 융·복합적인 연구 작업이 선행연구의 부족과 더불어 연구자의 성경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상의 역량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실감하는 바이다. 이에 후속 연구로는 성경 상의 장애인 관련 기록에 대한 역사적, 사회적 배경 등을 감안하여 신학자와 특수교육·장애인복지 관련학자 간의 긴밀한 협력적 연구가 요청되는 바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강영실 (2003). 한국교회의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에 관한 기초조사. 한국기독교사회복지실천학회 **교회와 사회복지** 1권, 35-63.
- [Kang, Y. S. (2003). A Study on Basic Survey upon Current State of th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ithin Churches, *Church and Social Welfare*, 1, 35-63]
- 권미은 (2017). '장애아동의 이해' 교과목 수강을 통한 대학생들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변화.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1), 145-167.
- [Kwon, M. E. (2017). University students' Changing Attitudes toward Disabilities During Special Education Cours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6(1), 145-167]
- 고은·목홍숙 (2013). 장애인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거리감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2(4), 127-151.
- [Ko, E. & Mok, H. S. (2013). A Study on Nondisabled People's Sense of Social Distance from the Disabled,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church and Social Welfare*, 52(4), 127-151]
- 교육부 (2021). **2021 특수교육통계**.
- [Ministry of Education (2021). *2021 Special Education Statistics*]
- 김금순·박연환·이범석·김정아 (2010). 장애인에 대한 태도, 장애인과의 접촉경험, 장애정책에 대한 인식-일반인, 의료인, 장애인의 비교-. **재활간호학회지**, 13(1). 13-22.
- [Kim, G. S., Park, Y. H., Lee, B. S. & Kim, J. I. (2010). Comparison of the Attitudes Toward and Contact with Disabled Person among Health Care Professionals, La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13(1), 13-22]
- 김기홍 (2017). 교회 내 장애인 부서의 운영 실태와 통합교육에 대한 담당교사들의 인식. **신앙과 학문**, 22(4), 35-67.
- [Kim, K. H. (2017). The Actual Operation Situation of the Disability Department and the Perception of the Homeroom Teachers on Inclusive Education in the Church. *Faith and Scholarship*, 35-67]
- 김기홍 (2020). **장애아동의 이해와 교육**. 서울: 집문당.
- [Kim, K. H. (2020). *Understanding and education of children with disabilities*. Seoul: Jipmundang]
- 김기홍 (2021). 인간생명의 자기결정(self-determination)에 대한 기독교 세계관적 조명. **신앙과 학문**, 26(2), 113-138.
- [Kim, K. H. (2021). A Christian Worldview Illumination of Self-Determination of Human Life.

- Faith and Scholarship*, 26(2), 113-138]
- 김문수 (2009). 장애인 인권향상을 위한 교회 장애인 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인권복지연구**, 7, 39-61.
- [Kim, M. S. (2009).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plan for the welfare of the disabled in the church for the improvement of the human rights of the disabled. *Human Rights and Welfare Research*, 7, 39-61]
- 김요섭 (2007). 교회장애인 부서 교사들의 의식에 대한 조사. **기독교교육정보**, 16, 157-180.
- [Kim, Y. S. (2007). A Survey on Disability Ministry Department Teachers' Attitudes toward Qualifications, Difficulties and Inclusion.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16, 157-180]
- 김용구 (2015). **기독교인(개신교)의 장애인 수용태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 [Kim, Y. G. (2015). *A Study of Christians' Acceptance Attitude toward the Disabl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Social, Culture & Public Administration & Welfar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Hannam University]
- 김용득 (2007). **한국장애인 복지의 이해**. 서울: 인간과 복지.
- [Kim, Y. D. (2007). *Understanding Korean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Humans and Welfare]
- 김용욱·우정환 (2014). 일반교사의 장애인과 통합교육에 대한 태도 및 관계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5(2), 55-84.
- [Kim, Y. W. & Woo, J. H. (2014). A Study on General Education Teachers' Attitudes and Relationship between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nclusive Education.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15(2), 55-84]
- 김이순·최경희·신유선 (2004). 정신지체아에 대한 인식 유형. **한국모자보건학회지**, 8(2), 251-266.
- [Kim, Y. S., Choi, K. H. & Shin, Y. S. (2004). Analysis on the Attitudes towards the Mental Retarded Children. *The Korean Society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8(2), 251-266]
- 김정현·박현옥 (2016). 정신장애인과 지적장애인에 대한 대학생의 사회적 거리감 및 태도. **지적장애연구**, 18(4), 129-155.
- [Kim, J. H. & Park, H. O. (2016). The Social Distance and Attitudes of Undergraduate Students toward People with Mental Disorder and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4), 129-155]
- 김종복 (2005). **현대사회의 장애인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역할**. 기독교사회복지엑스포 2005 대회 발표 자료.

- [Kim, J. B. (2005). *The reality of the disabled in modern society and the role of the korean church*. Christian Social Welfare Expo 2005 conference presentation material.]
- 박건 (2010). 차별 이해 지평의 확장을 위한 연구. 인정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한 비판적 이론 검토. **민주주의와 인권**, 10(1), 255-292.
- [Park, G. (2010). A Study to Expand the Horizon of Understanding Discrimination. A Review of Critical Theories Focusing on the Recognition Paradigm. *Democracy and Human Rights*, 10(1), 255-292]
- 박명우 (2012). **한국 개신교회의 장애인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단국대학교.
- [Park, M. W. (2012). *A Study on Korean Protestant Churches's Educational Programs for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 박종삼 (2000). **교회 사회봉사 이해와 실천**. 서울: 인간과 복지.
- [Park J. S. (2000). *Understanding and practicing church social service*. Seoul: Humans and Welfare]
- 박혜전·김정임·조영길 (2012). 한국 교회의 장애인식 및 장애수용(장애인 편의시설 포함)에 관한 연구. **신앙과 학문**, 17(10), 97-126.
- [Park, H. J., Kim, J. I. & Cho, Y. G. (2012). A Study on the Disability Awareness and Acceptance of disability(include disabled accommodation status) in the Korean Church. *Faith and Scholarship*, 17(10), 97-126]
- 박희경 (2009). **교회학교 통합교육에 대한 목회자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 [Park, H. K. (2009). *The Perceptions of pastors on Inclusive Education at Church School*.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Major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배형일·오원석·이윤미 (2009). 장애유형에 따른 대학생의 장애인식 연구. **초등특수교육연구**, 11(1), 83-104.
- [Bae, H. L., Oh, W. S. & Lee, Y. M. (2009). A Study on the Disability Perception of College Students according to the Types of Disabilities. *The Journal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11(1), 83-104]
- 서재복·권정숙·김양자·김태호·손충기·신봉섭·유평수·이석열·이호섭·한상훈 (2016). **교사교육론**. 증보개정판. 태영출판사.
- [Seo, J. B., Kwon, J. S., Kim, Y. J., Kim, T. H., Son, C. G., Shin, B. S., Yoo, P. S., Lee, S. Y., Lee, H. S. & Han, S. H. (2016). *Teacher Education Theory*. Supplementary Edition. Taeyoung Publishing]
- 석말숙·김정미·유영준 (2004). 장애대학생의 사회통합을 위한 지역주민의 인식조사연구. **특수교육저널**:

- 이론과 실천**, 5(4), 491-513.
- [Suk, M. S., Kim, J. M. & Yoo, Y. J. (2004). Study on Consciousness of Community Residents for Social Integration of Disabled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4), 491-513]
- 안도현·오세일 (2020). 종교적 의미에 대한 기독교 장애인 신도의 주체적 수용분석. **사회이론**, 483-530.
- [Ahn, D. H. & Oh, S. I. (2020). Study on Disabled Christians' Subjective Privaziation of Religious Meanings. *Korean Journal of Social Theory*, 483-530]
- 양명희·임은미 (2004). '현대사회와 장애인의 이해' 과목 수강이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5(3), 203-223.
- [Yang, M. H. & Lim, E. M. (2004). The effect of taking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Understanding of the Disabled' course on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disabled.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5(3), 203-223]
- 오영환 (2007). **장애인의 통합예배 참여에 대한 일반 기독교인의 인식**.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Oh, Y. H. (2007). *The Recognition of the Non-Handicapped Christians on Unified Worship with the Handicapp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Daegu University]
- 윤경일 (2017). **교회 장애인부 주일학교 교사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태도 연구**. 석사학위 논문.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재활복지학 전공.
- [Yoon, K. I. (2017). *Study on Attitude of Sunday School Teachers for People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Rehabilitation and Welfare, Major in Rehabilitation Welfare, Nazarene University]
- 이계윤 (1996). **장애인선교의 이론과 실제**. 경기도: 한국특수요육연구소 출판부.
- [Lee, G. Y. (1996). *Theory and Practice of Missionary for the Disabled*. Gyeonggido: Korea Special Nursing Research Institute Publishing Department.]
- 이금석·배내운·이민호 (2005). 목회자 양성 대학의 특수교육 관련 교과목 개설 현황 조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6(4), 297-313.
- [Lee, G. S., Bae, N. Y. & Lee, M. H. (2005). A Study on Investigation of Special Education-Related Subjects in Theological University Curriculum. *The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6(4), 297-313]
- 이만식 (2009). 성경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과 장애인을 향한 선한 행위의 진정한 의미. 장로회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교육교회** 377권, 52-57
- [Lee, M. S. (2009). The true meaning of good deed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people

- with disabilities from a biblical perspectiv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Education Church*, 377, 52-57]
- 이미숙·양소현 (2015). 예비일반교사의 장애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태도. *교사교육연구*, 54(1), 1-16.
- [Lee, M. S. & Yang, S. H. (2015). An Analysis of Attitudes of Students in the College of Education Regarding Social Relationships with People with Disabilities, *Teacher Education Research*, 54(1), 1-16]
- 이미지 (2020). 예비교사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통합교육, 관련교과목 수강 경험의 조절효과. *교사교육연구*, 59(3), 357-370.
- [Lee, M. J. (2020). Prospective Teachers'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on Multi-Cultural Acceptance: Moderating Effects of Experience of Inclusive Education and Related Course, *Teacher Education Research*, 59(3), 357-370]
- 이선우 (2009). **장애인 복지의 이론과 실제**. 서울: 집문당.
- [Lee, S. W. (2009). *Theory and practice of welfare for the disabled*. Seoul: Jipmundang]
- 이승구 (2018). **기독교 세계관이란 무엇인가?** 서울: SFC 출판부.
- [Lee, S. G. (2018). *What is a Christian Worlrdview?* Seoul: SFC]
- 이신영·서석진·한동일 (2019).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연구.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8(1), 27-47.
- [Lee, S. Y., Seo, S. J. & Han, D. I. (2019).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abled Persons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 Rehabilitation Science*, 58(1), 27-47]
- 이은미 (2013).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접근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연구. *신학과 선교* 42, 215-246.
- [Lee, E. M. (2013). A Study on Issues and Direction of Christian Approaches to People with Disability. *Theology and Mission* 42, 215-246]
- 이정은·최보라·조미형·이인선·신행익 (2020).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태도장벽. *보건사회연구*, 40(2), 151-192.
- [Lee, J. E., Choi, B. R., Cho, M. Y., Lee, I. S. & Shin, H. I. (2020). Attitudinal Barriers in interpersonal Relations Encountered by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40(2), 151-192]
- 이준우 (2007). 성서적 관점에서 본 장애인 문제의 본질과 교회의 역할. *교회사회사업*, 5, 31-56.
- [Lee, J. W. (2007). Handicap and the Biblical View of the Role of the Church, *Church Social Work*, 5, 31-56]
- 이지수 (2005). 우리나라 대학생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관련요인 연구. *사회복지연구*, 26, 151-176.
- [Lee, J. S. (2005). A Study on Attitudes toward the Person with Disabilities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26, 151-176]

- 이천수 (2005). **장애인에 대한 신학생의 윤리의식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 전공.
- [Lee, C. S. (2005). *Research into Theological Students' Moral Consciousness toward the Differently Abled Person*. Master's Thesis. The United Graduate School of Theology, Major Christian Ethics, Yonsei University]
- 이희철 (2009). 장애인 선교의 단계별 사역방안. **월간고신** 4월호.
- [Lee, H. C. (2009). Step-by-step ministry plan for the disabled person mission. *Monthly Koshin*, 4th. Monthly]
- 전광식 (1998). **학문의 숲길을 걷는 기쁨**. 서울: 도서출판 CUP.
- [Jeon, K. S. (1998). *The joy of walking through the forest of learning*. Seoul: CUP]
- 전지혜 (2014). 장애학적 관점에서의 사회변화와 한국 장애인 선교의 방향. **선교와 신학**, 34, 239-267.
- [Jeon, J. H. (2014). The Social Changes from Disability Studies Perspective and the Mission toward Koreans with Disabilities. *Mission & Theology*, 34, 239-267]
- 정기철 (2017).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예수**. 서울: 쿰란출판사.
- [Jeong, G. C. (2017). *Jesus teaches, preaches, and heals*. Seoul: Qumran Publishing House.]
- 정은배 (2018). 이슬람 공동체 '움마'와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정체성 연구. **복음과 선교**, 41, 233-286.
- [Jung, E. B. (2018). A Study on Identity of Islamic Community 'Ummah' and Christian Community 'The Church', *Gospel & Mission*, 41, 233-286]
- 천인준 (2009). 천주교 장애인부 활동에 따른 일반신자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비교.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3(1), 45-71.
- [Chun, I. J. (2009). Comparing Different Views on Disabled by Catholics due to Presence of Sunday Schools for Disabled. *The Journal of Public Policy & Governance*, 3(1), 45-71]
- 채은하 (2020). 부적절한 장애인 호칭들의 문제와 대안. **장신논단**, 52(2), 37-59.
- [Chai, U. H. (2020). A Study on the Inappropriate Naming of People with Disabilities(PWD) and their Alternatives.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52(2), 37-59]
- 최용준 (2020). **성경적 세계관 강의**. 서울: 도서출판 CUP.
- [Choi, Y. J. (2020). *A Biblical Worldview Lecture*. Seoul: Publishing CUP]
- 한국심리학회 편 (2006). **현대심리학의 이해**. 학문사.
-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6). *Understanding of Modern Psychology*. Hagmunsa.]
- 한정우·장옥례 (2018).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지역사회 통합예배에 대한 비장애성도들의 인식. **신학과 사회**, 32(2), 169-210.
- [Han, J. W. & Jang, O. R. (2018). A Study of Fellow Church Members' Perceptions of Inclusive

-
- Worship with the Disabled. *Theology and Society*, 32(2), 169-210.]
- Beckerath, J. (1975). *Amenemope*. In: Wolfgang H.(Hrsg.): Lexikon der Ägyptologie. Band I, Wiesbaden: Harrassowitz.
- [Beckerath, J. (1975). *Amenemope*. In: Wolfgang, H.(Ed.): Lexicon of Egyptology. Volume I, Wiesbaden: Harrassowitz]
- Benzenhoefer, U. (1998). "Das Recht auf den Tod". Bemerkungen zu einer Schrift von Adolf Jost aus dem Jahre 1895. In: *Recht & Psychiatrie* 16, 198-201.
- [Benzenhoefer, U. (1998). "The right to death". Comments on a paper by Adolf Jost from 1895. In: *Law & Psychiatry* 16, 198-201]
- Benzenhoefer, U. (2009). *Der gute Tod? Geschichte der Euthanasie und Sterbehilfe*. 2. Auflage. Vandenhoeck & Ruprecht.
- [Benzenhoefer, U. (2009). *The good death? History of euthanasia and euthanasia*. 2nd Edition. Vandenhoeck & Ruprecht]
- Cloerkes, G. (2007). *Soziologie der Behinderten*. Eine Einführung. Winter.
- [Cloerkes, G. (2007). *Sociology of the Disabled*. An Introduction. Winter]
- Fischer, L. & Wiswede, G. (2002). *Grundlagen der Sozialpsychologie. 2. ue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age*. Muenchen, Wien: R. Oldenbourg Verlag.
- [Fischer, L. & Wiswede, G. (2002). *Basics of social psychology. 2nd re-vised and enlarged edition*. R. Oldenbourg Publishing]
- Lane, H. (1988). *Mit der Seele hören. Die Geschichte der Taubheit*. München, Wien: Carl Hanser Verlag.
- [Lane, H. (1988). *Hear with the soul. The story of deafness*. Munich, Vienna: Carl Hanser Publishing]
- Lena, K. (2008). *Die Stellung behinderter Menschen im mittelalterlichen Europa*. München: GRIN Verlag.
- [Lena, K. (2008). *The position of disabled people in medieval Europe*. Munich: GRIN Publishing]
- Maeser, S. (2008). *Peter Singers "praktische Ethik"-Die neue Euthanasie- und Eugenik-Debatte. Diplomarbeit*. Fakultät fuer Bildungswissenschaften der Leopold-Franzens-Universität Innsbruck.
- [Maeser, S. (2008). *Peter Singer's "Practical Ethics" - The New Euthanasia and Eugenics Debate. Thesis*. Faculty for Educational Sciences at the Leopold-Franzens-University Inns-
-

bruck]

Mattner, D. (2000). *Behinderte Menschen in der Gesellschaft-Zwischen Ausgrenzung und Integration*. Stuttgart: Kohlhammer.

[Mattner, D. (2000). *Disabled people in society-between exclusion and integration*. Stuttgart: Kohlhammer]

Sierck, U. (2017). *Widerspenstig, eigensinnig, unbequem. Die unbekannte Geschichte behinderter Menschen*. Weinheim, Basel: Beltz Verlag.

[Sierck, U. (2017). *Unruly, stubborn, uncomfortable. The unknown story of disabled people*. Weinheim, Basel: Beltz Publishing]

Sumereder, A. (2013). *Einstellung zur beruflichen Integration von Menschen mit einer intellektuellen Behinderung-Die oesterreichische Situation*. Diplomarbeit. Universitaet Wien

[Sumereder, A. (2013). *Attitude to the occupational integration of people with an intellectual handicap-the Austrian situation*. Thesis. University of Vienna]

뉴스핌. 익산 중증장애인 시설 홍주원 “장애인 거주·이전 자유 보장하라” (2021.7.1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19000570>(2021.7.20.)

[newspim.HongJooWon, a facility for the severely disabled in Iksan, “Guarantee freedom of residence and relocation”(2021.7.19.)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10719000570>(2021.7.20.)]

다음백과 루키즘.<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d1325>(2021.12. 25.)

[Daum Encyclopedia Rookism.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47XXXXd1325>(2021.12.2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1.4.20.).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2021.9.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ess Release (2021.4.20.).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65357(2021.9.2.)]

중앙일보. (2017.9.7.). “제발 학교 짓게 해 주세요” 무릎 꿇은 장애 아동 부모 모욕한 강서구 주민들“. <https://news.joins.com/article/21915919>(2021.07.28.)

[JoongAng Ilbo. (2017.9.7.). “Please let me build a school” Gangseo-gu residents insulting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on their knees”.<https://news.joins.com/article/21915919>(2021.07.28.)]

머니투데이, “너무 아프다”...그들이 스위스로 간 이유는 ‘조력자살’ 때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02610141936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2021.12.25.)

[Money Today, “It hurts so much”...The reason they went to Switzerland was because of ‘assisted suicide’.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_102610141936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2021.12.25.\)](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_102610141936111&out-link=1&ref=https%3A%2F%2Fsearch.daum.net(2021.12.25.))]

SPD (사민당). (2019.5.2.). Europäischer Protesttag zur Gleichstellung von Menschen mit Behinderung|Mast: “Inklusion beginnt in den Köpfen”. [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en/122037-europaeischer-protesttag-zur-gleichstellung-von-menschen-mit-behinderung-mast-inklusion-beginnt-in-den-koepfen/\(2021.8.19.\)](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en/122037-europaeischer-protesttag-zur-gleichstellung-von-menschen-mit-behinderung-mast-inklusion-beginnt-in-den-koepfen/(2021.8.19.)).

[SPD). (2019.5.2.). European day of protest on equalit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Mast: “Inclusion begins in the mind”.[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122037-european-protest-day-for-equality-of-people-with-disabilities-mast-inclusion-begins-in-the-heads\(2021.8.19.\)](https://www.spdgen-genbach.de/meldung/122037-european-protest-day-for-equality-of-people-with-disabilities-mast-inclusion-begins-in-the-heads(2021.8.19.))]

CBM Christoffel Blindenmission. [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kten-und-hintergruende/ueberblick-behinderung-und-cbm-hilfe-weltweit.html\(2021.9.1.\)](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kten-und-hintergruende/ueberblick-behinderung-und-cbm-hilfe-weltweit.html(2021.9.1.))

[CBM Christoffel Mission for the Blind.[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cts-and-backgrounds/overview-disability-and-cbm-help-worldwide.html\(2021.9.1.\)](https://www.cbmswiss.ch/de/was-wir-tun/facts-and-backgrounds/overview-disability-and-cbm-help-worldwide.html(2021.9.1.))]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기독교 세계관적 차별성 탐색

A Study on Christian Worldview's Differentiation in the Attitude to the Disabled

김기홍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창조-타락-구속-완성의 기독교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올바른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주요 시사점을 찾는 데 있다. 이에 먼저 역사의 개관과 최근의 선행연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회적 태도를 알아본다. 이어서 성경 속에서 장애인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고, 또 선행연구를 통하여 기독교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고찰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독교 세계관적 장애인관을 정립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대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세상과 분명히 구분되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을 정립해야 한다. 둘째,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엄한 존재이다. 셋째, 교회 및 기독교인의 본질적인 정체성과 사명감을 재인식해야 한다. 넷째, 신학자와 목회자들의 반성적 성경해석이나 강론 등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실천노력이 중요한 기초이다.

주제어 : 기독교 세계관, 장애인, 성경, 태도, 교회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섭 및 분별의 선교*

Mission of Consolidation and Discernment in Evangelicalism and Ecumenical Missions

최용성 (Yong Seong Choi)**

강순규 (Soon Gyu Kang)***

최병학 (Byung Hak Choi)(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Korean church did not properly perceive the fact that Western church history in the 18th and 19th centuries inevitably led to the ecumenical movement, and it can be said that it still has such a problem. Therefore, in this study, with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ecumenical missions can provide a consensual space for evangelical missions,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ainstream in the existing Korean church, in some respects, and by fusion with each other, they can secure a trading zone while maintaining their own strengths. We would like to explore whether it is possible to prepare a mission direction for hybridization that can be manifested.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flect on and reflect on the historical field of the Korean church, and it is suggested that public theological mediation and bridge-building are required in evangelism and social responsibility. I suggested the need for discernment for effective mission while pursuing the unity of the church.

Key words : evangelical, ecumenical, consilience, mission, discernment

* 2022년 2월 11일 접수, 3월 4일 게재확정

**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sity) 윤리교육과 시간강사,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wascys@hanmail.net

*** 부산대학교(Pusan National University) 사회학과 박사과정 수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isoonstar@daum.net

**** 동아대학교(Dong-A University) 조교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hak-99@hanmail.net

I. 서론

종교개혁 이래 세계교회의 역사는 성장과 함께 분열의 역사를 동시에 경험했다. 유럽에서의 복음주의 부흥운동과 북아메리카에서의 대각성운동의 열매는 19세기를 ‘위대한 선교의 세기’로 만들었지만 그것에 따른 기독교의 확장은 또다른 성찰을 요구하였다. 즉 선교지에서의 초교파적 협력과 통섭(通涉, consilience)적 이해를 요구하게 되었다. 비록 19세기 중엽 이후 다양한 형태의 상호간 협력과 연합활동들이 구체화되었지만 19세기만 하더라도 주제는 다원화되지 못했다. 선교지의 상황(context)을 깊이 만지는 차원과 소통 역량도 한계를 보여주었다. 당시에 서구 중심의 선교는 당연한 것이었다. 미전도 종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없었고, 다만 이방인과 다른 국가에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회심·개종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하여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주된 목적이자 목표였다. 이런 차원에서 당시의 선교는 반제국주의·반유럽중심적 ‘복수문화성(multiculturality)’의 선교학 또는 윤리학을 깊이있게 보여주지는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에든버러 세계선교대회(1910)를 기점으로 하여 20세기의 세계선교 대회는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 선교대회는 19세기 선교와 연합운동을 결산하는 특징을 보였지만, 동시에 20세기 선교 연합운동의 의미있는 출발점이 되었다(A. Ruth & S. C. Niel, 1967: 353-373). 그러나 그 이후 제 3세계로부터 막대한 부의 수탈과 식민주의의 문제, 제1,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서구 기독교계의 자아성찰, 그리고 독재정권의 폭압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는 피선교지의 식민지적 현실과 세상의 상황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어지는 에큐메니칼 진영에서의 각 선교대회는 더욱더 그 시대적 상황을 민감하게 반영하였다. 선교신학도 상황을 중시하는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이런 관점은 성경 본문을 특별하게 우선시하는 복음주의 선교신학과 갈등을 낳았다. 이렇게 세계에 대한 관심이 국제 선교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1928년 예루살렘 국제선교대회의 경우 교회의 상황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보다 구체화되었다(B. Stanley, 2009).

물론 이러한 문제의식을 한국교회는 당시 제대로 가지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서구중심의 선교환경에서 피선교지 국가였고, 선교할 수 있는 여건이 제대로 성숙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체로 보수주의 교회는 교회주의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교회의 경우 개인의 회심과 성화, 심령부흥과 교회 증가,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에 힘쓰고, 해외선교에 있어서도 개교회주의적 선교에 머무르는 경향이 짙었다. 한국교회는 대체로 18세기의 경건주의, 복음주의 각성 운동 그리고 선교활동이 개인의 회심과 성화, 그리고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통을 많이 물려받았다. 19세기의

기독교는 이같은 18세기의 기독교 전통을 이어받아 개교회의 성장을 포함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기독교의 확장을 경험하였다. 우리 한국교회도 이와같은 18-19세기 서양 기독교의 흐름과 맥을 같이 하면서 발전해왔던 것이다.

사실상 한국의 경우 거의 20세기 내내 이런 방식으로 복음전파와 교회성장에 힘썼고, 이것을 해외 선교 활동으로 확장시켜 왔다. 한국의 개신교는 18·19세기의 서구 교회처럼 개인의 회심과 성장, 그리고 개교회의 개척과 성장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선교 초기에 받아들인 19세기 말과 20세기초 미국의 근본주의적 개신교 전통으로 말미암아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의 색깔을 더하면서 선교를 진행하였다. 결국 한국교회는 18·19세기의 서양 교회가 20세기에 들어와서 필연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 선교에 에큐메니칼 선교가 어떤 점에서 통섭적인 공간과 교역지대(trading zone)를 마련할 수 있고, 서로 융합되면서도 각자의 강점과 성찰을 발전할 수 있는 분별력있는 선교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성을 반추, 성찰함이 필요하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통섭 속에서 공공신학적 매개와 다리놓기가 요청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열과 진영논리를 넘어서 통섭을 추구하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분별력 있는 선교가 필요함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섭을 위한 회고와 반성적 성찰

토마스 쿤(T.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응용해 보자면, 세계교회는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컬 진영 간에 선교 패러다임에서 갈등을 보여왔다. 전자는 보수 진영인데, 주로 전도를 강조하지만 부분적 사회참여를 인정하는 패러다임을 강조하였다. 후자의 경우 진보 진영으로서 교회가 가진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강조하고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었다. 전자의 경우 사회참여라는 수단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서구중심의 교회가 주체가 되어 피선교지에 교회를 이식하는 선교의 경향을 보여왔다. 대신에 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선교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는 복음을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넘어서야 된다고 보았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으로, 곧 정치·경제, 사회·문화 속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파송 받았음을 강조하였다. 때문에 후자의 경우 복음전도를 강조하기 보다 공동체들의 인간화나 사회적 약자들의 해방과 같은 사회구조적 개선에 집중하는 관심을

보이기도 하였다(J. Stott, 1992: 338).

그런데 이런 후자의 관점은 역사적으로 볼 때, 1950년대에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개념이 출현하면서 에큐메니칼 선교를 통해 깊이 확장되었다. 1952년 독일 빌링겐(Willingen)에서 열린 선교대회에서 칼 하르텐슈타인(K. Hartenstein)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강조하면서 빠른 속도로 파급되었다. 그 이후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C. Hoekendijk)도 이에 영향을 받게 되었는데, 그가 강조한 것은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이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선교사이기에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관점도 제시하였다. 즉 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이제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심의 선교로 선교 개념이 전환되었는데, 한편으로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J.C. Hoekeendijk, 1967: 38-39). 결과적으로 탈교회화와 교회의 사회참여 사상이 선교에 강화되었고, 종래의 개종을 강조하는 선교는 다소간 후퇴하면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추구하는 진보주의적 입장이 확장되었다. 이러한 선교신학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후 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데이비드 보쉬(D. J Bosch)는 이것에 대해 선교신학 패러다임의 중요한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이 지난 반세기를 지배했다고 말한다(D.J. Bosch, 1991: 389). 이후 세계의 많은 개신교회들은 물론 그리스 정교회도 이러한 패러다임이 크게 확장되었다. 최근에 와서 로마 카톨릭의 경우 축소되기도 했지만 이러한 개념은 로마 가톨릭의 제 2차 바티칸 공의회에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영향을 끼쳤다(D.J. Bosch, 1991: 390-392).

세상이야말로 하나님의 선교현장이며, 하나님의 관심사는 단지 영혼 구원뿐 아니라 전 피조세계를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교회의 선교는 세상 안에서 실천이 가능하며 복음 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이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신학적으로 창조와 구속이 분리되지 않아야 하고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 안에서 통섭되어야 함이 강조되었다. 또한 복음전도가 단지 교회만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되고 종말론적 비전하에서 세계를 변화시키며 구원하시는 하나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포괄하게 되었다(T. Sundermeier, 2005: 234-247).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면서 교회로 인도하는 구령의 사역뿐 아니라 세상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변혁운동, 평화운동, 생태운동 등의 활동들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정의, 생명을 일구시는 분으로 이해되었다.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이해 속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이들을 선교 대상의 좁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고자 하였다. 선교 대상은 하나님의 참된 평화를 향유하지 못하는 모든 피조세계로까지 확대되었다. 때문에 에큐메니칼 신학은 전통적인 선교의 관심 대상을 매우 확대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렇게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사회적 약자들, 가난한 이들, 소외되고 억눌린 자들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 안의 고통받는 모든 피조물들에게까지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는 확대된 관심을 보였다. 또한 요하네스

후켄다이크는 선교의 모든 영역이 이제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하였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선교’를 배제하는 정도까지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려고 하였다(D. Bosch, 1991: 392).

그의 이러한 신학적 경향은 에큐메니칼 대회와 그 신학적 조류에 지속적으로 반영되었다. 이제 선교의 개념에 하나님의 구원행위의 영역이 전 세계 인류의 문제, 인간의 조건을 포함한 것이 되었기에, 선교는 교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종래의 전통적인 선교관을 교회중심적 선교관이라고 비판하면서, 교회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적 활동의 일부분만을 담당한다고 보았다. 심지어 그는 이 세상에 평화를 건설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J. C. Hoekendijk, 1994: 10). 이러한 개념의 극단적 확장성은 옹살라 대회(1968)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 대회에서는 비기독교세계의 상황을 간과하는 복음 중심의 전도에 대해 많은 성찰이 이루어졌다. 더불어 이 땅에서의 ‘살림’ 건설과 유색인종의 해방, 사회사업 등 사회에 대한 책임과 관심을 증폭시켰다(J. Stott, 17). 또한 옹살라 대회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전 영역을 구속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일하신다고 보고, 이 모든 것을 선교로 강조하였다(D. A. McGavran, 1988: 65).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레슬리 뉴비긴(L. Newbigin)과 같은 에큐메니칼 신학자는 옹살라 총회에서의 WCC가 지향하는 길에 이의를 표명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였지만 하나님을 향한 화해를 희생하면서까지 인간화를 강조하는 관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그는 세속주의 선교신학적 관점들이 교회를 위험한 골목,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갈 수 있다고 비판하였다(B. Stanley, 2018: 208-210). 이런 배경 속에서 대안을 모색하던 1974년의 로잔대회는 복음주의적 의미의 하나님의 선교를 표방한 최초의 세계적 규모의 복음주의 대회를 추진하였다. 물론 복음주의의 하나님의 선교는 철저히 교회를 중시한 복음 전파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통한 세상의 섬김 역시 강조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로잔 대회 이후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갈등은 대화로 소통되기도 하고 갈등이 증폭시키기도 하였다. 양측의 선교에 대한 이해가 더욱 양극화되고 소통되지 않음으로 인해, 어떤 경우에는 서로에 대해 민감한 반응과 소모적인 논쟁의 양극화로 치닫기도 하였다.

선교의 강조점을 본문(text)과 상황과의 패러다임적 차이로 보자면, 일반적으로 복음주의 선교신학은 성경의 본문을 중시 여겨서 복음전도를 통해 예수님의 지상명령(Great Commission, 마 28:18-20)을 보다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에큐메니칼 진영은 창조명령(Creation Mandate, 창: 1: 26-28)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대명령(Great Commandment, 마 22:37-40)에 대한 폭넓은 상황을 보다 강조하였다. 때문에 복음주의자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지나친 강조로 말미암아 이웃사랑의 시대적 상황과 변화하는 창조세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였다. 반면에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의 상황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본문에 대한 중요성을 망각하는 차원도 있었다. 전체적으로 에큐메니칼

선교신학은 역사과정 속에서의 컨텍스트에 더욱 민감한 강점을 보여왔다고도 할 수 있다.

초창기 에든버러 대회(1910)의 선교 사역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1, 2차 세계대전 때문에 상당히 무너졌기에, 이런 문제의식은 더욱 심화되었다.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요 국가들이 모두 기독교 국가라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국가들이 제국주의적 충돌로 수많은 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음을 목도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선교 사역이 종교적 제국주의 및 식민주의로 폄하되기도 하였고, 교회보다는 세상이 하나님께서 일하는 현장이라는 관점 대두되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회심과 세례에 이르도록 하는 사역이 비난을 받고, 정의와 개발이 선교 활동의 주요 내용이 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지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제국주의적 전쟁과 착취와 가난, 정의의 훼손과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전면적으로 인식되고 부각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선교에서의 관심도 복음전도는 도외시된 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강조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세계교회협의회(WCC) 읍살라대회(1968)에서 선교의 목표가 ‘복음화’ 대신 ‘인간화’로 대체되면서 극단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이러한 성향은 방콕 세계전도 및 선교대회(CWME)의 주제인 ‘오늘의 구원’과 그 논의에서 절정에 달하게 되었다. 구원의 개념마저 미래적인 개념이 약화되었고, 오늘의 구원과 지금 컨텍스트에서의 구원이 보다 강조되는 경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로잔 세계복음화대회(1974)를 통해 복음주의신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재인식하고 시대적 상황에 대한 중요성을 수용하기에 이른다. 이후 로잔 후속대회와 제 2, 3차 로잔대회를 거치면서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포괄하는 통전적 선교에 대한 복음주의의 방향성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고 공고해지게 되었다. 또한 에큐메니칼 진영 역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의 관계 문제에 대해 고민을 증폭시키면서 복음전도의 강조점 역시 수용하게 되었다. 결국 이런 노력의 과정 가운데서 상황이 성경 본문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성경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두 신학진영의 패러다임간 통섭의 가능성을 높게 만들었다. 로잔 대회는 에큐메니칼 진영의 영향을 받았고, 실제로 반응하면서 사회적 책임 역시 복음 전도 못지않게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책임임을 수용하였다. 이런 수용은 후속 로잔 후속대회는 더욱더 강조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현실의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에서는 이런 성찰들이 발전되지 못하고 분리된 방식으로 적용되거나 진행되는 경향이 있다. 여전히 많은 복음주의 교회들이 복음의 선포를 통한 영혼 구원만을 최우선시하는 반면, 에큐메니칼 진영의 교회들은 민주주의, 정의실현, 인간화, 사회개혁,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철폐 등을 선교의 주요의제로 삼고 관습적으로 진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천명하고 복음전도가 교회사명의 최우선 순위임을 확인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관심(Social Concern)이 전도의 필수적인 부분임을 인정하는 통전적 선교의 개념을 확정했지만 이런 부분

들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실천에 적용하지 못하는 복음주의 교회가 많다고 할 수도 있다. 비록 1989년 마닐라 대회(2차)나 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3차)를 지나면서 치열한 연구와 적용이 있었지만 현실의 복음주의 교회는 이런 부분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어떤 복음주의자들은 오늘날 로잔내부에서 로잔이 처음 강조했던 ‘전도의 우선순위(priority of evangelism)’를 보다 강조하려고 하고 복음전도의 우선성과 긴급성을 보다 강조하기도 한다. 기독교 선교의 양대 축을 이루는 WCC와 복음주의 진영인 로잔이 2천 년대(2010년 케이프타운 대회이래) 이후로 상당히 통섭적 소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애써 간과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복음주의권에서는 공공 신학이 강화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양상이 전개되었다. 이런 공공신학은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 진영의 선교에 통섭화의 가능성을 더욱 확대시키게 되었다. 공공신학이란 용어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공공적 책임의식 속에서 마틴 마티(M. E. Marty)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었고, 에큐메니칼 진영의 과격한 정치신학 및 해방신학으로부터 출현하기도 하였고 복음주의권의 공공신학적 전통에서도 출현하기도 했지만 이런 유형의 모든 신학적 모델은 공통적으로 사사화된 복음보다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성을 지닌다. 사사화된 신앙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복음주의 진영의 몸부림은 1974년 로잔 운동 이후 공공신학으로 더욱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다. 로잔 운동은 후에 복음주의적 공공신학에 의해 더욱 그 성격이 공공신학적 성격을 더해 가지만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런 부분을 간과한 채, 회심과 개종을 기대하며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주의 신학의 차원에 안일하게 머무르는 경향성도 물론 지속되었다(D. B. Forrester, 2004: 6). 한편 WCC 유형의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은 로잔 운동보다 보다 열정적으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논하고 진보적인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은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정도가 순화된 차원에서 진행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전통적 기독교보다는 적극적 방식으로 기독교의 공적 참여를 강조한다. 그러면서 양측의 입장들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두 입장에 대한 섞임과 불명확한 정체성을 추구하기도 하였다. 다만 복음주의 진영의 인습적인 ‘교회 중심적’ 사고와 에큐메니컬 진영의 변하지 않는 진영논리적 ‘형식 논리’는 서로의 소통과 통섭을 더욱 어렵게 하기도 하였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형식 논리는 종종 복음주의를 인습적으로 열등하게 보는 차원이 많았다. 종종 자신들이 가져온 강고한 전통과 계보를 강조하거나 무의식적으로 옹호하기도 하였다. 또한 일반 성도에 호소하거나 회중의 참여가 있다기 보다 정치인들과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과의 협력관계에 치중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복음주의나 에큐메니컬 진영이 모두 개혁교회의 산물임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모두 바울(Paul), 아우구스티누스(A. Augustinus) 같은 중요한 인물의 신학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오늘날의 시대

에서 실천 방식에 따라 진영을 달리하는 경향성을 가지지만 더 깊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한 것이다. 양 진영의 차이는 정서적 거리에서 발생한 것일 수 있으며, ‘제3지대’에서 적절한 교역지대로 만난다면 전혀 거리감 없이 새로운 소통, 즉 통섭의 공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III.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입장의 통섭과 분별력 가지기

1.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성을 반추하고 성찰하기

한국선교는 초창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전도와 교회개척뿐 아니라 교육과 의료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였다. 때문에 한국교회의 복음전도는 사회적 신뢰와 서로 긴밀한 상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만열 교수도 기독교인이 비록 한국인구의 1%도 되지 않았지만,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했고 사회적 신뢰도를 얻었다고 한다. 즉,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복음전도에 열심이였지만 동시에 교회가 한국사회의 바람직한 변화를 선도하면서 신뢰감을 주는 선교를 하였다(이만열, 1996: 158-172). 이것은 복음전도와 교회의 공적 책임은 언제나 함께 가야함을 잘 보여주는 선례이다. 동시에 두 활동은 서로 긴밀한 영향을 갖는 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선례이다. 이러한 선례는 2000년 전의 초대교회 때에도 있었는데, 초대교회는 박해와 다종교 상황에서 소수자의 종교이었지만 당시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았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식민지 시대를 거치면서 한국교회의 경우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의 공적 책임에서 퇴각하는 근본주의적 경향성을 보이기도 하였다. 1920·30년대 강화된 보수주의 신학은 근본주의적 사고 방식에 매이게 되었는데, 이런 경향성은 1980년대까지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창조 질서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기독교인의 책임을 강조하지 못했다. 칼빈주의는 세상 정부 공직자의 책임, 기독교인의 직업윤리와 문화 창조의 삶을 강조하지만, 한국에 들어온 칼빈주의 사상은 미국의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교파 분열, 현실 외면, 극단적 교리주의, 역사의식의 부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세대주의적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개인의 영혼구원과 교회를 세우는 것에 집중했다. 그러한 경향성은 오로지 영혼만을 구원하는 기독교 선교신학을 지속화하기도 했다. 사실 지금도 한국교회의 정신과 생활에 일정 부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국교회가 공공성을 상실하면서 공공신학적 성찰이 필요한 것도 일정 부분 이런 개인주의적 구원 이해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속죄교리나 칭의교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복음의 공공성과 공공신학적 성찰을 상실한 때가 많았다. 한국교회의 선교에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 강조되었다. 때문에 예수님처

럼 사는 것이 간과되는 차원이 많았다. 예수님처럼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삶, 공적 영역에서 책임지는 복음의 공공성이 강조되지 않았다. 브라이언 맥클라렌(B. A. McLaren)이 강조한 것처럼 전통적인 교회에 있어서 복음은 인류 전체와 세상의 공적인 영역에 무관심한 차원이 많았다. 때문에 단지 개인 구원을 위해서만 복음이 의미를 지닌 것으로 오해되기도 하였다(B.A. McLaren, 2011: 51). 그러나 예수의 복음은 사회 현실과 관계없는 개인구원의 복음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과 연관되는 통전적인 복음이다.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현존질서의 유지를 옹호하는 현상유지의 복음의 아니다. 오히려 불의한 사회체제를 변혁시키는 복음의 차원도 가진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본주의 교회들은 사회선교가 절실하게 요청되던 1970-80년대에 대체로 민주화와 정의가 요청되는 사회적 상황과 쟁점들을 외면하거나 도피하였다. 반면에 에큐메니칼 진영은 1970-80년대 용공이란 오해를 받으면서도 민주화와 노동, 인권과 평화, 경제정의 등의 사회적 쟁점들에 민감하였고 책임을 다하고자 하였다.

반면에 복음주의권은 빌리 그래함(B. Graham)식의 종말론적 개인구원 전도대회를 많이 수용하였다. 개인전도 열풍은 오랫동안 한국교회와 선교단체들의 영감을 사로잡았다. 1960년대부터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은 죄많은 이 세상에서 대학생들과 청년들을 구원해 내려고 개인전도에 헌신하였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선교단체들이 1980년대 이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개인전도의 거대한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사회적 변화가 가장 강렬했던 1960년대와 1990년대 사이의 30년 동안 한국교회의 대다수는 사회선교에 무관심하였다.

반면에 한국교회의 소수와 진보진영은 교회 밖의 진보운동과 민주화 충격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세상을 하나의 교회로 보려는 에큐메니칼 관심을 지나치게 강조하였기에 복음주의 교회에서는 그런 입장을 쉽게 다가갈 수 없었다. 물론 개인전도에 치중한 복음주의 선교단체들이 각성하면서 사회선교에 오히려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있었다. 복음주의권도 개인전도나 양육 또는 교회성장을 위한 제자양육과 해외선교로는 신자들의 신앙성숙과 함께 교회의 공공성 및 사회참여에 한계를 가질 수 있음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1987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나 교회개혁운동 등이 시작되었다. 이들은 1980년대 중후반부터 보다 사회적 상황에 반응하면서 복음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원론적인 교회에서 벗어나서 복음의 공공성과 사회참여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그들은 1980년대 중반의 민주화 투쟁 때부터 ‘사회’에 더욱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일반사회가 제기하는 문제에 응답하면서 진지한 사회선교적 관심을 드러내었다.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복음주의자들의 세계선교대회가 채택한 로잔언약은 당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졌고,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74년 로잔선교대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존 스토틀(J. Stott)·로날더 사이더(R. J. Sider) 등은 선교

의 개념을 확장하여 개인전도와 사회정의의 추구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동반자 관계로서 동시에 추구하여야 한다고 선언했다. 한국의 복음주의권은 시간이 흘러 1990년대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러한 정신을 반응하였고 사회선교에 책임을 다하려고 했던 것이다.

복음주의권 교회들 역시 하나님 나라, 교회의 공공성을 보다 예민하게 고민하였다. 물론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 선교신학의 주류는 하나님의 선교를 인정하지만 호켄다이크와 같이 교회의 존재를 소극적으로 보는 견해를 거부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따랐다. 다시 말해서 복음주의권은 성찰성을 더해가면서 이 하나님의 선교 개념을 점차 통전성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예컨대, 2010년 제3차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가 개최되었고, 케이프타운 선언문(2010)에서 주도적 역할을 했던 크리스토퍼 라이트(C. J. H. Wright)는 이 선언문에서 창조세계의 보존을 선교로 정의하였다. 창조세계의 보존을 선교로 이해하려는 관점을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관점을 보여주었다. 이런 통전적 선교는 복음이 피조세계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복음을 살아내려고 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선교신학자와 현장 사역자인 선교사들은 그들이 복음주의자이든 혹은 에큐메니컬주의자이든 선교의 이해와 개념을 통전적 선교의 차원에서 통합하는데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속에서 공공신학적 매개와 다리 놓기

복음주의자들은 복음전도를 강조하지만 교회가 이웃을 사랑하며,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여왔다. 이런 관심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주어진 명령인 사도적 헌신과 봉사적 헌신과의 관계적 갈등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D. J. Bosch, 1993, 225). 사도적 헌신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지상명령(마 28:18-20)과 관련되어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에 봉사적 헌신은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 22:39)는 이웃사랑의 계명과 관련지을 수 있다. 물론 선교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봉사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복음전도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에 선교에는 사회봉사의 차원과 복음전도의 차원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선교의 목표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에 초점에 두면서, 18세기에서 19세기 근대선교 시기의 전통적인 선교에서 복음전도가 핵심적인 사역이고 사회봉사는 보다 부차적 사역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리스도인에게 복음전도와 이웃사랑이 모두 동시적 사명이지만, 그 중 선교의 사명에 보다 가중치가 부여되면서 복음전도가 핵심적인 사명으로 이해되기도 하였다. 20세기 초에도 이런 양상은 지속되어졌다. 하지만 19세기말부터 보다 제국주의가 증대하고 전세계적 식민지의 고통을 직면하면서 점차 봉사적 헌신이 강조되어졌다. 19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오히려 역전의 상황이 벌어지는 양상이 일어났다. 이것에 대하여 보쉬(D. J. Bosch)는 벌코프(H. Berkhof)의 말을 의미있게 인용한다. “... 1950년대에 세계에 대

한 사도적 헌신은 그 후의 세계에 접어들면서 세계에 대한 봉사적 헌신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벌코프의 알은 올랐다는 것이다(D. J. Bosch, 1993: 225). 이러한 언급은 에큐메니칼 선교의 성격과 깊게 관련된다. 즉 에큐메니칼 선교는 1910년의 초창기에는 사도적 헌신,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였지만, 점차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가 약해졌고, 1950년 이후로 세계에 대한 이웃 사랑, 세계에 대한 봉사로 그 초점을 바꾸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런 변화는 부정적인 차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변화의 양상도 있었다. 에큐메니칼 진영에서 오래 선교했지만 복음선포의 열정을 가졌던 레슬리 뉴비긴 역시 이런 맥락을 강조하였다. 그는 복음전도뿐만 아니라 진리를 제대로 증언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삶과 예배를 통해 공동체적으로 그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살아내어야 함을 강조하였다(L. Newbigin, 2011: 104). 대안적 공동체(alternative community)이자 선교적 교회로서 교회는 공적인 삶의 증언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적인 증언은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복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실질적으로 요구하였다(L. Newbigin, 1989, 227). 이런 점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빌리 그래함식의 개인구원 전도를 모방한 결신중심의 집회 전도와 노방 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국 개신교의 경우 산업화·민주화 시대에 개교회주의, 가족, 개인 중심의 사적 신앙이 강화되었다. 심지어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점점 국내 전도와 교회성장의 어려움에 집착하면서 더욱 개교회주의와 교회 성장에 몰입하기도 하였다. 민주화 시대 이후에도 민주화, 평화, 여성, 양극화 해소, 환경 등의 공적 공론장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만 갇혀있는 인습적 사고와 신앙의 사사화를 보여주기도 하였다. 한국 개신교의 교세 확장은 민주화 이전의 성장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의 영적, 사회적 차원을 모두를 포괄하는 이웃사랑과 공동선을 일구는 노력이 미흡하였는데, 이런 부분의 극복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레슬리 뉴비긴이 주창한 선교적 교회 운동은 구도자 교회에서 강조하는바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기 위한 전략이 아니다. 대신에 우리의 지역 공동체라는 콘텍스트를 고려하면서 이웃 속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의하고 거기에 동참하며 증언공동체가 되는데, 헌신한다는 점에서 선교의 지평을 확대시켜 주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C. J. H., Wright)가 강조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윤리적 삶의 실제적 가시성이 없으면 선교적 행위가 제대로 수행될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한다(2010: 478). 그러므로 우리의 선교는 사회적 약자를 사랑하는 이웃사랑과 함께하는 성육신적 선교가 될 필요가 있다. 이런 통전적 선교는 고난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현실과 아픔에 함께 참여하면서, 사회가 당하는 고난을 함께 당하고 공감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선교학적으로 보면 로잔 운동이 기여한 공헌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웃사랑과 함께 수용하면서 복음주의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다. 물론 로잔 운동은 그 이후로 창조명령까지 하나님의 선교에 포괄적으로 받아들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

적 영역에 지체된 선교를 공적 영역까지 확대하면서 공공신학적 전망을 열어주었다.

존 스토틀와 크리스토퍼 라이트에 의하면, 바른 선교적 해석학은 하나님의 선교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는 차원에서 성경 전체를 읽어내고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J. Stott & C. J. H. Wright, 2018: 46). 이런 차원에서 로잔 운동의 선교학적 기여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은 물론 환경문제 등 사회 전반의 컨텍스트를 수용하면서 복음의 영향력을 드러내야 함을 역설한 레슬리 뉴비긴의 사상을 반영한 것이고, 존 스토틀 이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많이 발전시킨 것인데, 일찍이 레슬리 뉴비긴 역시 이렇게 말했다. “교회가 새로운 사회적 실재를 형성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여는 그 자신이 새로운 사회적 질서가 되는 것이다”(L. Newbigin, 2008: 96).

일찍이 종교개혁자 칼뱅(J. Calvin) 역시 신앙과 선교를 사적 영역으로 퇴각시키지 않았다. 대신에 의도적으로 공적 영역에 관한 신학적 논의와 그 선교적 실천에 적극성을 보였다. 칼뱅이 제네바를 중심으로 추진한 종교 개혁은 개혁신앙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는 공적 차원으로 확장하려 했다는 점에서 복음의 공공적 차원을 잘 드러낸 것이었다. 그런데 종교 개혁 이후에도 칼뱅의 전통을 이은 칼뱅주의자들은 공적 영역의 차원을 꾸준히 중시해왔다. 19세기에 이르러 대표적인 칼뱅주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역시 ‘영역 주권(sphere sovereignty)’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인간 삶의 총체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선포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구원의 적용범위를 인간뿐 아니라 창조세계의 전 영역으로 확장하였다. 이렇게 구원의 통전적 변화를 강조한 것은 단지 교회 안이 아니라 인간 삶의 일상적 영역까지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A. Kuyper, 1983: 95-97). 이러한 관점은 공공신학을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되는 신학 사상으로써 그 이후에 스텐리 하우어워스(S. Hauerwas)의 내향적 공공신학과 맥스 스택하우스(M. L. Stackhouse)의 외향적 공공신학을 서로 통합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우어워스의 내향적 사회 참여는 상대적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강조한 것이다. 이것은 솔직히 교회가 사회적으로 모범이 되는 방식을 강조하면서, 스택하우스의 관점과는 차별성을 가진다(S. Hauerwas, 2010: 10-25).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역할을 함으로써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스택하우스의 관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점은 서로 통섭하면서 교역지대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공공신학은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공공신학과는 약간 결을 달리한다.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공공신학은 하나님의 선교신학과 연관되면서 한국의 민중신학과 더불어 교회가 역사 변혁, 정치의 민주화, 경제적 종속으로부터의 해방, 인권을 위해 우선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전위부대가 될 것을 요구하는 공공신학이다. 예컨대 위르겐 몰트만(J. Moltmann)의 정치신학은 에큐메니칼적 선교적 교회론과 친화성을 가지며, 선교적 교회의 방향을 교회 안에 국한시키지 않고 현대 역사에 관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

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공동체를 강조한다. 이런 몰트만식의 공공신학 역시 모두 공공적 성격을 강하게 띤 공적 신학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몰트만식의 공공신학이나 해방신학적 공공신학은 사회의 공적인 일에 관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향한 공공복리나 정의에 대해 보다 방점을 두는 신학이다(U. Moltmann, 2007: 10). 몰트만의 공공신학은 나치 정권에 반대했던 고백교회식 전통을 이어받은 독일교회의 신학이다. 때문에 절제된 공공신학이기 보다는 전후 독일의 상황 속에서 투쟁성과 정치적 참여를 보다 강조하는 정치신학적 성격을 가지며, 해방신학 역시 이런 경향성을 강하게 표출한다(S. Kim, 2011, 23). 이런 면에서 스코틀랜드의 공공신학자 던컨 포레스터(D. B. Forrester)는 공공신학이 정치신학과 해방신학 등으로부터의 영향도 있지만(D. B. Forrester, 2004: 5-9), 몰트만식의 공공신학보다는 보다 아브라함 카이퍼식의 관점에 가깝다고 본다. 이런 차원에서 맥스 스택하우스와 같은 공공신학자의 관점은 몰트만식의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보다는 보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을 더욱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스택하우스는 카이퍼 연구소 소장으로서 카이퍼의 ‘영적 주권론’을 계승하면서도 더욱 발전시킨 신학자이다. 그 역시 복음의 영역을 교회의 울타리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는 복음의 공공성을 강조한다. 스택하우스는 교회의 교회됨 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공공성과 복음의 사회적 본질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스택하우스는 교회의 교회됨 보다는 기독교 신앙이 공공성과 복음의 사회적 본질을 회복할 것을 강조한다. 이런 스택하우스의 공공신학은 교회 외적인 차원의 공공적 책임성과 공동선을 강조하는 외향적·원심적 공공 신학이라고도 볼 수 있다(S. Kim, 2011: 77). 이는 상대적으로 교회됨의 공공신학을 제시한 스텐리 하우어워스의 주장과는 대조를 이룬다. 하우어워스의 공공신학은 교회 내부를 향한 호소가 강하다. 즉 기독교인들이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다할 때 세상이 바로 세워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교회가 덕윤리학적 공동체, 덕의 학교이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S. Hauerwas, 2010: 11), 마틴마티가 말한 공적 교회의 본질적 사회 참여를 제시한다. 이것은 교회 중심적 공공신학이라고 불릴 수 있다. 또는 구심적 공공신학으로도 불릴 수 있다(S. Kim, 2011: 78). 스텐리 하우어워스의 관점은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사회적·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교회의 교회됨을 본질적으로 강조하는 공공신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공신학은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결국 구심적 공공신학을 매개하면서 원심적 공공신학으로 발전해 가는 차원이 있다. 이런 차원을 고려한다면 스텐리 하우어워스나 스택하우스 그리고 몰트만의 관점을 모두 고려하면서 추구되는 공공신학을 고려할 수 있다. 물론 공공신학이 공공영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깊숙이 사회 문제에 개입하고 참여하느냐는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보수적인 공공신학은 정책 수립 등에는 참여할 수 있지만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의 경우처럼 직접적인 정치 참여와 투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S. Kim, 2011: 23). 즉, 정치적 문제들에 대하여 투쟁보다는 대안적 정책의 제안과 정책과정적

대안을 심도깊게 모색 및 소통함으로써 제도 개선을 통한 합의를 이루어내는 방식을 택할 수 있는 것이다. 비록 정치적 질서도 공역 영역의 일부이긴 하지만,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은 보다 직접적 정치 참여를 강조하는 차원이 강하다. 물론 둘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스택하우스식 공공신학이 신학과 정치를 너무 강하게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과 결합하는 방식에서 절제를 추구하는 경향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 그리고 공공신학이 모두 종교를 사적인 영역으로 제한하는 종교의 사사화를 거부하면서 교회의 공공성과 선교적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입장을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도 사회적 약자의 억압이나 사회구조의 왜곡이 심한 상황에서는 공공신학적 차원과 함께 선교적 차원을 가지기에 신학은 사회의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들을 정치적으로 대변해야 한다는 관점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Palmer, 2012: 25). 어쨌든 로잔 운동과 공공신학은 교회가 사회 속에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사회적 소수자로 전락했으며, 케리그마 역시 교회 속의 자폐적 독백에 불과한 상황이 됨을 심각하게 고려한 입장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컬 진영의 몸부림을 잘 반영하면서 선교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날 신자의 구원과 교회의 내적 문제에 집중하면서 교회 밖에 대한 거룩한 영향력을 거의 상실했던 기독교가 공공영역에서 기독교적 책임을 자각하고 공공영역에 대한 참여를 강화하는 공공신학적 참여는 선교에도 도움이 된다. 또한 복음주의 진영의 로잔언약과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이 제시한 방안을 중심으로 서로 소통,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큐메니컬 진영의 공공신학도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의 본질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것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비록 에큐메니컬 진영이 정치신학이나 해방신학과 같은 과격함이 있고, 비교적 절제된 사회참여를 주장하는 복음주의적 공공신학은 다소 소극적인 차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통섭과 교역지대를 확대해 가야 한다. 갈뱅의 절대 주권적 하나님 사상을 확대하여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장한 영역 주권론 등에 신학적 기반을 두면서도 소통과 통섭을 확대해 감으로써 교회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공공신학으로 나아감으로써, 선교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

3. 분열과 진영논리를 넘어서 통섭을 추구하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기

선교의 현장에서 교회의 분열은 상호 협력을 힘들게 한다. 더 나아가 화해의 복음인 진리를 불투명하게 만들어 버린다. 교회의 갈등과 분열은 교회가 사회로부터 비난을 받게 한다. 결국 이를 통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인 선교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 사실 한국교회는 20세기를 통틀어 교회 안에서 분열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의사소통에도 상당한 한계를 보여주었다. 내부적 분열과 외부적 사회와의 불통 속에서 교회성장만을 추구하다가 계도화와 자기애적 자폐증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간 소통과 세상과의 소통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개교회 중심주의적 성장은 지나친 경쟁관계로 갈등을 유발하였다. 이것은 선교지에도 연결되어 교단와 선교계의 분열과 과다경쟁으로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과거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복음주의와 같은 보수신앙 교단이 다소 간 교회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칼 그룹에 비해 자원을 공유하는 네트워크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협력의 사역에서도 한계를 많이 노출하였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보수교단과 에큐메니칼 교단 모두 선교지에서 자기 교파성장과 확장을 몰두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에 걸림돌을 만들기도 하였다. 선교 단체간의 의사소통도 쉽지 않았고 갈등과 경쟁도 만만치 않았다. 한국선교는 선교현장에서도 연합과 네트워크가 되지 않은 비효율적 선교를 많이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중복 투자와 과다 경쟁의 선교도 많았다. 이런 선교는 보편적 차원에서 공동 책임의식을 발전시키기가 어려웠고, 민족과 인종 그리고 언어의 탈경계화를 통해 연합할 수 있는 응집력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런 측면에서 ‘에큐메니칼’ 대 ‘에반젤리칼’이라는 잘못된 도식을 가능한한 최소화하고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에큐메니칼’의 상대어는 ‘에반젤리칼’이 아니어야 한다. ‘에큐메니칼’의 상대어는 ‘섹테리안’(sectarian), 즉 ‘분파주의’라고도 할 수 있다(W. Ariarajah, 2001). 분파주의란 자신의 특정한 신앙체험을 마치 보편적이고 유일하며 최고의 것인 양 주장하는 잘못된 태도를 말한다. 분파주의는 교회의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고 보편적, 사도적 교회를 추구하지 않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대신 복음을 ‘사유화’하는 문제점을 증폭시킨다. 이에 반해 에큐메니칼이란 교파적 ‘신앙고백’의 차원을 인정하고 세계적 지평에서 그리스도를 통한 연합을 이루어가려는 정신, 몸 가운데서 분쟁을 없애고, 여러 지체가 함께하고 돌볼 수 있는 정신(고전 12:25)을 강조한다. 그것은 자기중심적 성장과 실현을 넘어서는 자기초월의 신앙적 결단을 추구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에큐메니칼’이 오히려 진정한 ‘에반젤리칼’이라고 할 수 있다. 에큐메니칼을 에반젤리칼에 반대되는 말로 오해되는 이분법적 도식은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선교신학, 나아가 한국의 전반적인 신학적 경향에서 이 양자의 신학이 서로를 비난하고 폄하해 오던 태도를 지양하고 서로를 인정해 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서로 연합하면서 협력사역을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교회내 성도들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와 국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모든 국민 개개인이 복음을 만나서 변화되고, 교회가 성장하며, 사회가 변화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복음주의 관점에서 총체적 선교를 강조했던 올란도 코스타스(O. Costas)도 지속적인 증거행위로서의 연합과 융합할 수 있는 부분을 강조하였다(O. Costas, 1979: 75). 결국 총체적·통전적 선교를 포괄적

으로 역동적으로 서로 연합·융합하면서 추구하되, 이런 부분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 복음전도와 교회성장, 교회의 교회됨을 이루려는 노력을 다시 꼼꼼하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체적 선교의 실제적 수행은 한 개인이나 교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연대하면서 수행하는 것이기에 총체적 선교를 위해서는 교회 전체가 필요함을 깨닫고, 각 개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하되, 교회들 간의 지속적인 선교적 의사소통과 협력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선교를 위한 분별력

통전적 선교신학은 선교의 목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 즉 ‘복음화’와 ‘인간화’, ‘개인가원’과 ‘사회 구원’ 그리고 ‘인간구원’과 ‘모든 피조물의 구원’ 등을 나누지 않고 모두 다 중요한 것으로 바라보면서 동시에 추구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글로컬(glocal)한 맥락에서 볼 때, 어떤 지역성 또는 로컬에서는 복음화의 과제 하나만 해도 결코 작은 과제가 아닐 수 있다. 특별히 핍박이나 억압을 받는 특별한 로컬적 상황에서 열악한 지역교회들은 복음화마저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교회들도 많다. 사회 전체에 정의와 평가가 이루어지게 하는 사회구원의 문제나, 모든 피조물의 구원, 즉 환경문제를 추구한다는 것은 너무 버거운 주제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과 힘과 자원을 가진 교회가 이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교회의 핵심 사역이 약화될 수도 있다. 스텐리 하우어워스가 강조하는 교회의 교회됨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복음전도도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세상의 문제 해결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진다면, 교회만이 할 수 있는 복음전도를 할 에너지가 약화되고 교회의 교회됨 자체 역시 무너질 수 있는 것이다. 세상 문제 해결은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 역시 힘을 쓰지만, 복음전도는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인데, 이 과제를 수행해야 할 유일한 기구인 교회가 전도를 소홀히 하면 교회는 자연히 약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특별히 복음전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선교의 열의까지 약화될 수 있는데, 광범위한 선교의 포괄성 제시는 그로 인한 선교의 효율성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세계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문제의 해결을 선교의 과제로 삼지만, 역량과 자원이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일을 선교의 사역으로 삼으면, 선교의 효율성이 많이 감소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중요한 사역인 복음전도와 교회의 개척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별히 복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은 공공신학적 적용과 사회, 정치적 대안 제시 등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유념하면서 사역해야 할 것이다. 이미 오래 전에 스텐리 닐(S. Neil)은 지나치게 포괄적인 선교 개념을 우려하면서 “모든 게 선교라면 아무 것도 선교가 아”닐 수 있다고 하였다(S.

Neil, 1959: 81). 이런 점에서 선교자원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분별력을 가지고 우선순위와 핵심 목표를 거부하는 통전적 선교신학이 선교를 매우 비효율적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역해야 할 것이다.

이런 경우 ‘복음전도 패러다임’을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선교 패러다임이 너무 광범위한 선교적 목표를 제시한다는 차원을 고려해야 한다. 이상적으로는 두 패러다임을 동시에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느 하나의 패러다임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필요도 있다. 캔트 헌터 (K. Hunter)는 “교회는 교회가 진짜 잘 할 수 있는 일을 사람들에게 제시할 때 성장한다”고 하였다(P. L. Burger, 2002: 20-23). 이런 차원에서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감각 부족하고 분별력을 잃는다면 선교사역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만약 교회가 다양한 일들에 몰입하고 균형감을 잃는 교회가 된다면 통전적 선교신학은 오히려 한계를 줄 수도 있다. 즉 교회가 꼭 감당해야만 하는 전도를 교회도 할 수 있는 사회참여 문제와 동일시함으로써 결국 교회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서 우선순위를 가지고 분별력있게 선교해야 할 것이다.

IV. 나가면서

지금까지 복음주의권의 선교전략과 에큐메니칼권의 선교전략적 패러다임을 모두 살펴보면서 통섭적 선교전략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이런 통섭적 선교전략의 구현에는 사회참여와 사회봉사를 병행하는 총체적, 통전적 선교가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권의 패러다임의 소통 가능성 및 통섭 가능성이 점점 보여지는 시대에 이런 통섭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또한 진영논리 가운데 분열과 적대화를 그만두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그러면서 만약 사역이 초점을 잃고 효과성을 상실한다면 복음전도와 개교회 성장에 집중하는 분별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총체적 선교나 통전적 선교 자체를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교의 궁극적 목표는 특정 교단이나 선교단체의 성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있다. 그러므로 각각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 두 입장 모두 상대방의 강점을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아가되 통섭적 지향을 지속적으로 추구해갈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선교사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전도와 교회성장, 교회의 교회됨을 추구해가야 한다. 그러므로 21세기 복음주의 선교나 에큐메니칼 선교는 총체적 선교를 추구하되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임을 강조하는 동시에, 타락한 인간이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하는 사역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온전한 사람이란 영적 차원뿐 아니라 정신적·육적·사회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는 선교이다. 그러나 21세기 복음주의교회가 총체적 선교를 실천하되 ‘복음전도의 우선순위’가 총체적 선교 때문에 약화되거나, 인간의 다양한 필요들을 대처하려다가 선명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한다면 분별력을 가진 효율적인 선교가 필요하다. 에큐메니칼 선교도 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되 영혼 구원의 궁극성은 반드시 고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교의 출발점과 종착점은 모두 하나님이 행하시는 선교임을 명심하면서 총체적·통전적 선교를 추구하되, 선교를 분별력있게 효율적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 고 문 헌 >

- 김균진 역. (2007).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Moltmann, U. (1972).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 [Kim, G. J. (2007). *Der gekreuzigte Gott—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Seoul: Korea Theological Institute. Trans. Moltmann, U. (1972). *Der gekreuzigte Gott—Das Kreuz Christi als Grund und Kritik christlicher Theologie*. München/ Chr. Kaiser Verlag.]
- 김덕영·송재룡 역. (2002). **세속화냐? 탈세속화냐?: 종교의 부흥과 정치**, Burger, P. L. (1999).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im, D.Y. & Song, J. Y. (2002). *Is it secularization? Desecularization?: The Rise of Religion and Politics*. Seoul: Korean Christian Book Society. Trans. Burger, P.L.(1999). *The Desecularization of the World: Resurgent Religion and World Politics*, Washington, D.C./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김명희 역. (2018). **선교란 무엇인가?**. Stott, J. & Wright, C. J. H. (2015). 서울: IVP.
- [Kim, M. H. (2018). *What is Missionary Work?*. Seoul: IVP. Trans. Stott, J. & Wright, C. J. H. (2008).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US: Updated, Expanded ed. edition (5 Nov.), Inter-Varsity Press.]
- 김기현 역. (2008). **복음, 공공의 진리를 말하다**. Newbigin, L. (1991). 서울: SFC.
- [Kim, K. H. (2008). *Gospel, speaking the public truth*. Seoul: SFC. Trans. Newbigin, L. (1991). *Truth to Tell: The Gospel as Public Truth*. Newbigin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김찬호 역. (2012). **비통한자들을 위한 정치학: 왜 민주주의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Palmer, P. J. (2011). 경기: 글항아리.
- [Kim, C. H. (2012).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gyeonggi: Writing Jar. Trans. Palmer, P. J. (2011).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The Courage to Create a Politics Worthy of the Human Spirit*. Paperback/ Jossey-Bass.]
- 문시영 역. (2010). **교회됨**, Hauerwas, S. (1981). 서울: 북코리아.
- [Mun, S. Y. (2010).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Seoul: Bookkorea. Trans. Hauerwas, S. (1981). *A Community of Character: Toward a Constructive Christian Social Ethic*. Seoul: Bookkorea. Notre Dame/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이계준 역. (2000). **흘어지는 교회**, Hoekendijk, J. C. (1994).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Lee, G. J. (2000). *The Church Scattered*. Seoul: Korean Christian Book Society. Trans. Hoekendijk, J.C. (1967). *The Church Inside Out*, London: SCM.]
- 이만열 (1996), “한국기독교 사회운동: 역사적 고찰,” 이원규 편저, **한국교회와 사회**, 서울: 도서출판 나단.
- [Lee, M. Y. (1996). *Korean Christian Social Movement: A Historical Study*. edited by Won-Kyu Lee, Korean Church and Society. Seoul: Nathan Book Publishing House.]
- 전재옥 역. (1993). **세계를 향한 증거**, Bosch, D. J. (1980). 서울: 두란노.
- [Jeon, J. O. (1993). *Proof to the world speaking the public truth*. Seoul: Durano. Trans. Bosch, D.J. (1980). *Witness to the World*. London/ Marshall, Morgan & Scott.]
- 정성묵 역. (2011). **기독교를 생각한다**, McLaren, B. A. (2004). 서울: 청림출판.
- [Jeong, S. M. (2011). *Think of Christianity*. Seoul: Cheonglim Publishing. Trans. McLaren, B. A. (2004). *Generous Orthodoxy*, Paperback/Zondervan.]
- 한화룡 역. (2010). **하나님의 선교**, Wright, C. J. H. (2010). 서울: IVP.
- [Jeong, O. B & Han, H. R. (2010). *The Mission of God*. Seoul: IVP. Trans. Wright. C. J. H. (2006). *The Mission of God*. Paperback/ IVP Academic.]
- An, S. O. (2013). “The Target of Mission in Ecumenical Mission Theology: A Critique,” *Currents in Theology and Mission*, 40(3).
- Ariarajah, W. (2001). “Some Basic Theological Assumptions of the Ecumenical Movement,” in *Our Pilgrimage in Hope: Proceedings of the First Three Seminars of the Asian Movement for Christian Unity, CCA and FABC*.
- Bosch, D. J. (1991). *Transforming Mission*, Maryknoll, NY: Orbis Books.
- Costas, O. (1979). *The Integrity of Mission*, San Francisco; Harper & Low.
- Forrester, D. B. (2004). “The Scope of Public Theology,” *Studies in Christian Ethics*, 17(2).
- Kim, S. (2011). *Theology in the Public Sphere*, London: SCM Press, 2011.
- Küng, H. and Tracy, D.(Ed.) (1989). *Paradigm Change in Theology: A Symposium for the Future*. New York: Crossroad.
- Kuyper, A. (1983).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McGavran, D. A. (1998), “The Current Conciliar Theology of Mission,” In Donald A. McGavran and Arthur F. Glasser,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 Neil, S. (1959). *Creative Tension*, London: Edinburgh House.
- Newbigin, L.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London: SPCK.

Ruth, A. & Niel, S. C. (1967). ed. *A History of the Ecumenical Movement*. London: S. P. C. K.

Stanley, B. (2009). *The World Missionary Conference, Edinburgh 1910*, Grand Rapids, Michigan and Cambridge, U. K.: Willia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2009.

Stott, J. (1975), *Christian Mission in the Modern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Stott, J. (1992), *The Contemporary Christian: Applying God's Word to Today's World*, Downers Grove: Inter Varsity Press.

Sundermeier, T. (2005). *Mission-Geschenk der Freiheit*, Frankfurt: Lembeck.

Volf, M. (2011). *A Public Faith: How Followers of Christ Should Serve the Common Good*. Grand Rapids: Brazos Press.

Wright, N.T. (2020). Christianity Offers No Answers About the Coronavirus. It's Not Supposed To. *Time*, 29. <https://time.com/5808495/coronavirus-christianity>.

복음주의와 에큐메니칼 선교의 통섭 및 분별의 선교

Mission of Consolidation and Discernment in Evangelicalism and Ecumenical Missions

최용성 (부산대학교)

강순규 (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최병학 (동아대학교/교신저자)

국문초록

한국교회는 18-19세기의 서양 교회가 필연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감지하지 못했으며, 지금까지도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존의 한국교회에서 주류라고 할 수 있는 복음주의적 선교에 에큐메니칼 선교가 어떤 점에서 통섭적인 공간을 마련할 수 있고, 서로 융합되면서 교역지대를 확보하면서도 각자의 강점의 발현할 수 있는 혼종화의 선교 방향성을 마련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교회의 역사적 현장성을 반추, 성찰함이 필요하고,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속에서 공공신학적 매개와 다리놓기가 요청됨을 제시하였다. 또한 분열과 진영논리를 넘어서 혼종성과 통섭을 추구하되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면서도 효과적인 선교를 위한 분별력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복음주의, 에큐메니칼, 통섭, 선교, 분별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Culture -Focused on the Humanity of Christ-

김 병 재 (ByoungJae Kim)**

ABSTRACT

Meritocracy is deeply ingrained in our lives and social structures. People and education are subconsciously imbued with meritocracy. Meritocracy, which leads to rationalization of results based on individual efforts and abilities, has a negative effect on education. The Christian faith is responsible for Christian analysis of the culture that dominates the present and suggests alternatives.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s the influence of meritocracy and meritocracy, which are important elements of the spirit of the times. Furthermore, it is intended to present an alternative to Christian education by revealing the 'exam culture', 'cognitive learning-centered', 'individualism', 'performanceism', and 'difficulty of class movement through education' that appeared in education due to meritocracy. In particular, starting with the concept of the body centered on the incarnation and humanity of Jesus Christ,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are presented. Next, 'community' and 'work' are dealt with from the perspective of 'career education' and 'curriculum'. Later, 'body' and 'blank' will be dealt with in general within the curriculum. In conclusion, consider the direction and role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meritocracy culture.

Key words: Meritocracy, Incarnation, body, Christian education, work, career education

* 2021년 11월 15일 접수, 2022년 3월 2일 최종 수정, 3월 8일 게재 확정.

본 연구는 2021년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대학원 분과에 발표되었던 내용을 수정, 보충한 것이다.

** 은혜의동산기독교학교(Grace-Garden Christian School) 과학교사,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시장로25번길 58, jupiter8115@gmail.com

I. 들어가는 말

대한민국에서는 자녀문제와 관련하여 심한 곤혹을 치르는 정치인이나 유명인이 종종 있다. 하지만 이 현상은 비단 가족을 중요시 여기는 한국의 문화 때문만으로 볼 수 없다. 미국에서도 2019, 2020년에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 2019년 3월, 예일, 스탠퍼드, UCLA 등 주요 명문대의 부정 입학이 드러나면서 연방수사국(FBI)이 동원되어 수사하는 초유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며(<https://edition.cnn.com/2019/03/12/us/college-admission-cheating-scheme/index.html>. 검색일 2022년 1월 15일), 2020년에는 유명 CEO의 자녀 부정입학도 밝혀졌다(<https://edition.cnn.com/2020/11/16/us/college-admissions-scam-harvard/index.html>. 검색일 2022년 1월 15).

이처럼 비슷한 사건과 관심, 자녀의 입시와 관련된 일이 나라를 초월하여 나타나는 이유는 현상을 뒷받침하는 인식이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인식은 공통적으로 ‘능력주의(Meritocracy)’문화에 기반하고 있는 데 능력주의는 사회는 물론, 특별히 교육에서 그 영향을 단단하게 드러낸다. 이런 흐름은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인해 더욱 강화되는 데, ‘개인의 성과’를 중시하는 문화는 더욱 그렇다.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이러한 개인의 성과중시는 교육의 과정 전반에 있어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입시’라는 구조로 표면화된다.

사실 그동안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은 세속적 관점에서 간헐적으로 다루어져 왔다. 기독교교육은 물론 기독교 내에서도 능력주의 전반 혹은 부분에 대해서 다뤄진 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가 “능력주의”와 “기독교교육”을 주제로 하여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논문은 전무했다(검색일 2022년 2월 27일). 하지만 능력주의가 거대한 문화적 흐름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기독교교육은 이에 대해 차근차근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 연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위와 같은 문제의 근원에 ‘능력주의(Meritocracy)’가 있음을 밝히고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몸 개념을 시작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다음의 몇 가지 중심질문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능력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 둘째, 능력주의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셋째, 기독교교육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다음 장에서는 이 연구의 비판적 대상이 되는 능력주의에 대해 사회모습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능력주의 문화

1. 능력주의

영국의 사회학자였던 마이클 영(Michael D. Young, 1915-2002)은 1958년에 소설 하나를 발표한 다. 이 작품 「능력주의」(The Rise of the Meritocracy, 1958)는 장르상 소설이었지만 사회학자였던 저자의 세밀한 사회분석을 거쳐 저술되었다. 영은 이 책에서 개인의 ‘능력(지능+노력)’이 기준이 되는 세상을 그리면서 ‘능력주의(Meritocracy)’라는 단어를 처음 등장시킨다. 그가 묘사한 2034년의 미래 모습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에서 충격을 가져다준다. 여기서 능력주의와 능력주의 문화의 몇 가지 특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다.

근대사회는 봉건시대의 혈통적 귀족제에 대한 저항으로 계층 이동의 가능성을 열망하게 하였다. 계층간 불평등은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 여기서 기본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필요했다. 모든 개인에게 혈통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기회를 제공하되 그 결과는 철저히 개인의 능력에 맡기는 것이 능력주의다. 요약하자면, 능력주의 문화에서 노력은 개인에게 달렸으며, 결과는 언제나 개인의 책임이고, 실패와 성공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마땅히’ 받아들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생긴다. 계층 간 불평등에 의해 정당하게 제기된 능력주의는 결과인 불평등 또한 정당화하게 된다.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는 빈부격차가 늘어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부자는 능력이 있기에 많은 돈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 예전엔 토지를 통해 계급이 형성되었다면 근대 이후에는 기계를 통해, 업적을 통해 계급을 부여받는 것이다(Young, 유강은 역, 2020: 15). 영 또한 이런 지점을 간파했다. 영은 자신의 저술 이유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혁명이란 없으며, 과거를 변형하면서도 재생산하는 중단 없는 변화가 서서히 누적될 뿐이라는 믿음이다 …중략… 재능 있는 이들은 자기 능력에 부합하는 수준까지 올라갈 기회를 부여받는 한편, 그런 변화에 따라 하층 계급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의 몫이 됐다(Young, 유강은 역, 2020: 27-29).

그렇기 때문에 능력주의를 통해서 불평등이 해소될 수 없다. 능력주의는 계층 간 이동의 가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또 다른 불평등을 야기할 뿐이다.

2. 능력주의가 사회에 끼친 부정적 영향

영이 말한 바와 같이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 실패의 원인은 실패한 개인 자신의 몫이다. 마이클 샌델은 ‘실패한 개인 자신의 몫’을 ‘모욕’, ‘모멸’, ‘업신여김’이라고 표현한다. 성공한 자들로부터 받는 모욕은 능력주의로 인해 합리화 되고 자신은 업신여김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다(Sandel, 함규진 역, 2020: 13). 그렇게 하층계급이 느끼는 모멸, 실패가 엘리트층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다. 미국의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Donald J. Trump)는 이를 잘 이용하였다. 트럼프는 “불만과 증오”를 정치 도구로 삼았고 그의 전략은 통했다. 샌델은 이를 “노동계급의 마음의 상처로 빚어진 현상”으로 본다(Sandel, 함규진 역, 2020: 309-310).

상층계급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받고 느끼는 모멸감을 능력주의가 주장하는 노력으로 대체하려 한다.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하다보면 능력주의 문화가 제시하는 성공을 맞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능력주의는 사람들을 끊임없는 경쟁으로 몰아붙인다. 노력하여 자신의 능력이 상승한다면 이에 따라 부여받은 등급이 달라질 것이다. 더 나아가 현재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는 등급에 따라 보상한다는 능력주의와 서로 상승효과를 이룬다. 현대 사회에서 ‘보상=돈’이라는 수식이 당연하게 여겨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과주의다.

시장경제는 생산성을 그 토대로 한다. 고로 사회 또한 무의식적으로 “생산을 최대화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한병철에 따르면, 현대 사회는 성과주의 사회이며 이는 “할 수 있음”의 사회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25). 그래서 과거 규율사회가 부정성의 사회였던 것과 달리 현대의 성과주의 사회는 ‘할 수 있음’의 과잉긍정의 사회다. 이는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의 이상(理想)과 상통한다. 능력주의는 개인의 노력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말은, 그래서 능력주의 문화의 슬로건이다.

성과주의는 과거 규율적이고 의무적인 일들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긍정적 측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규율과 의무같은 ‘부정성’에서의 과도한 탈출은 주변 사람들 즉, 타자로부터의 자유까지 포함된다. 하지만 과잉긍정과 같이 과잉자유 또한 타자에게서의 자유에서 멈추지 않고 “나르시시즘적 자기 관계”로 나타난다. 이것은 “아예 타자의 차원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이 과잉자기관계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86). 흥미로운 건 이와 같은 개인중심적 관점이 또 다시 능력주의의 개인책임과 맞물린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능력주의, 시장경제, 성과주의는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요인이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능력주의의 특징은 ‘노동의 가치 하락’을 지나 ‘인간의 존엄성 하락’을 야기한

다는 것이다. 사실 능력주의와 노동은 두 가지 의미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는 능력주의가 교육을 이용하여 사람을 선별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교육과 연관이 있기에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다.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고학력자들에게 보상을 많이 하는 능력주의 문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학력이 낮은 노동자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발표한 “사업체 특성별 임금분포 현황”을 봐도 알 수 있다(<http://wage.go.kr/newbbs012/newbbs012list.jsp#>. 검색일 2022년 1월 7일).¹ 여러 가지 변수를 조합한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지만 학력(고졸, 전문대졸, 대졸)에 따른 임금 격차는 확연하다. 사업체 규모 기준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가장 큰 경우, 고졸이 대졸 임금의 59%밖에 되지 않았다(고용노동부, 2020: .569). 학력에 따른 소득불평등은 미국도 마찬가지다. 1980년부터 2012년까지의 남성 노동자들을 조사했던 데이비드 오토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대학을 졸업한 미국의 상근직 남성의 실질적인 시간당 수입은 어디에서나 20-56% 증가했고 ... 중략 ... 고등학교나 그 이하의 교육수준에 있는 남성들의 실질 수입은 상당히 하락했는데, 고등학교 중퇴자의 경우 22%정도가, 고등학교 졸업자들 사이에서는 11%가 떨어졌다(Putnam, 정태식 역, 2016: 58).

능력주의와 노동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다음과 같은 간접적 연관성도 있다. 연구자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능력주의는 시장경제, 성과주의와 상호 강화를 할 정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경제와 성과주의가 불러일으킨 노동의 가치 하락 또한 능력주의가 그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헨리 포드(Henry Ford, 1863-1947)는 양산형 차종인 ‘Ford Model T’를 대량생산하기 위해 1913년, 공장 내에 “어셈블리 라인(Assembly line)”을 설치한다. 이 어셈블리 라인은 생산성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방식이었다. 이를 통해 ‘Ford Model T’가 생산되는 시간이 10배 이상 단축되었으니 그 ‘효율성’은 말할 게 없다.

문제는 어셈블리 라인으로 인해 노동자가 수행하는 노동이 추상적이 됐다는 것이었다. 좀 더 설명하자면, 그동안 육체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만드는 물건의 처음과 끝을 통제했다. 전체 그림 속에서 자신이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알았으며 모든 노동작업은 노동자 자신의 주체성에 의해 이뤄졌다. 즉, 모든 작업은 극히 구체적이었다. 하지만 어셈블리 라인은 그렇지 않았다.

1) 이 자료는 2017-2019년까지 3년간의 임금통계를 2020년 6월 기준 임금수준으로 변환한 결과로 ‘임금직무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작업장에서 정신적 노동은 사라지고 사라져야 했으며 최종산물의 전체 그림은 오직 사업주에게만 그려졌다. 노동자의 “통합적 행위”는 사라졌다(Crawford, 윤영호 역, 2018: 57).

이렇게 어셈블리 라인은 노동자들의 주체적인 사고, 장인(匠人)의 복잡한 인지과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 즉, 육체노동의 물리적 수행과 인지적 측면을 분리하는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Crawford, 윤영호 역, 2018: 46). 장인적 노동에서 작업공정의 일부만을 수행하게 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상품을 파는 게 아닌, 노동 자체를 팔게 되었다. 이들은 일과 인간의 존엄을 잃고 “임금 노예”가 되었다(Chomsky, 구미화 역, 2017: 146-147). 결론적으로 능력주의가 노동에 미친 영향은 전인적 인간의 이분화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능력주의는 기존의 혈통적 귀족에 의한 계급을 뛰어넘지 못했다. 실패의 책임은 개인에게 주어졌다. 시장경제의 생산성 중시는 능력주의를 통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생산의 최전선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 개념을 바꾸어놓았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에 의해 ‘육체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렸다. 여기에 가장 큰 구조로 작용한 것은 ‘학력’이다. 그동안 능력주의는 ‘교육’을 충실한 도구로 삼았다. 다음 장에서는 교육이 능력주의에 의해 어떻게 도구화되었는지, 능력주의는 교육을 통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겠다.

III. 능력주의 문화 속의 교육

3. 시험문화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중시하는 능력주의의 개념은 고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고려의 광종(925-975)은 문벌귀족에게 강력한 충격을 주는 데, 바로 과거시험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혈통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보고 발탁하겠다는 인식은 당시 개혁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 후로 과거시험은 조선을 관통하며 양반들의 삶에 필수적인 수험기간을, 합격을 기원하는 수험문화를 만들었다. 흥미로운 것은 현재의 내신제도와 같은 ‘성균관 우등생 우대’ 제도도 있었으며, 직무 수행 중인 관료에게도 승진시험을 요구하기도 하였다(이경숙, 2018: 25-36).

사실 한국은 유교(儒敎)의 ‘입신양명(立身揚名)’으로 능력주의의 개념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 입신양명은 유교의 최초 경전인 효경(孝經)에서 유래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는 부모에 대한 효를 담고 있다. 다만 원래는 부모를 높이는 효도의 의미로 입신양명을 추구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출세주의만 남은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유교의 입신양명 가치도 시험이라는 유

일한 통로를 통해 그 영향력을 떨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시험은 유교라는 거대한 사상을 양반 및 지도자들에게 주입하는 효과적인 도구였다. 근현대의 대학입학 연합고사(1954년), 국가고사(1962년), 예비고사(1969년), 학력고사(1982년), 수학능력시험(1994-현재)은 이런 한국 역사의 연장선상에 있다.

고로 능력주의에 있어서 시험은 거대한 힘의 공급처 및 도구다. 시험은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분류, 선발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력은 계층 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받아들여지고, 불평등 해소의 방법으로 대학입시에 집중하는 일이 벌어진다. 후에 살펴볼겠지만 대학입시는 불평등 해소로 이어지지 않는다. 미국의 대학입학시험인 SAT(Scholastic Achievement Test)의 탄생배경도 이와 비슷하다. 하버드대학 총장이었던 코넬트는 입학생들의 배경이 아닌 학생의 능력을 기준으로 입학여부를 판단하길 원했다. 소위 명문 출신의 배경을 배제하겠다는 의지였다(Sandel, 함규진 역, 2020: 249-251).

이렇듯 교육의 이름으로 행해진 시험은 능력주의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여기서도 사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점들이 나타난다. 시험의 의도는 불평등이 아니다. 하지만 혈통이 아닌 학습능력을 통해 불평등은 정당화된다. 그래서 사회의 모습과 동일하게, 능력주의는 계층 간 이동성의 가능성 ‘만’을 제시한다. 또한 사회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통해 선별된 수재들에게는 칭송하지만 나머지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실패감과 모멸감을 얻는다(Sandel, 함규진 역, 2020: 255).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시험이 교육 자체를 무시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시험제도와 내용을 보면 ‘학습’이 필요한 것이지 이를 포함하는 교육이 필요한 건 아니다. 시험은 오직 인간의 인지적 면, 그 중에서도 국소적인 부분만을 필요로 한다.

4. 개인주의와 성과주의

시험은 개인의 능력을 측정하는 도구다. 능력주의가 개인의 능력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층 이동의 열망은 학생들을 시험에 집중하게 한다. 앞서 사회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로 인한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의 모습은 교육 안에서도 그 모습을 여실히 보인다.

시험은 학생들을 경쟁의 장에 내놓는다. 경쟁 속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갈 수 없다. 나는 철저한 개인이며 타자는 경쟁의 대상일 뿐이다. 개인은 타자를 도와줄 수 없고, 자신 또한 타자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그건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경쟁이 아니다. 철저하게 독립된 자아실현만이 개인이 추구할 가치가 있다. 이는 사회의 모습에서 언급했던 ‘나르시시즘(narcissism)’의 모습이다. 철저한 개인주의적 가치는 학생을 둘러싼 타자는 물론, 종교, 정치, 역사적인 맥락의 의미를 지워버린다. 자신

을 뛰어넘는 그 어떤 의미도 의식하지 못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 버린다. 이것이 테일러가 말한 현대사회의 불안 요인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삶의 의미 상실”이다(Taylor, 송영배 역, 2013: 13, 21).

개인의 능력 개발에 집중된 능력주의는 학생들이 자신의 삶을 좀 더 의미있는 것과 연결시키는데 방해하는 것을 넘어, 의미를 상실하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학생들에게 있어서 시험 외에는 의미가 없어진다. 만약 이러한 유일한 의미인 시험에서 성적이 낮게 나온다면 학생들의 삶에 남은 의미가 없어진다. 2020년 기준, 지난 8년 동안 한국의 청소년 사망원인 중 1위는 자살이다(<https://news.join.com/article/23763872>, 검색일 2022년 1월 7일). 죽음의 유일한 원인을 시험에 의한 성적비관으로 보는 것은 무리지만, 학생들이 느끼는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삶의 의미 상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힘들다.

성과주의는 학생들의 이러한 우울감과 스트레스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시장경제에서 노동을 생산성에 쏟아 붓는 것과 같이, 교육에서는 학습에 학생의 시간을 쏟아 붓는다. 2020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초등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조사한 평일 여가 시간은 3시간 이하가 65.4%에 이르고, 10명 중 4명은 하루 평균 2시간 미만의 여가시간을 갖는다. 남학생들의 경우 79.4%가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 검색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고등학생 10명 중 5명(45.9%)은 수면시간이 6시간 미만이며, 초등부터 고등까지 4명 중 3명(74.8%)이 사교육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1815, 검색일 2022년 2월 10일).²

학생들은 쉴 시간이 없다. 계속해서 학습을 할 뿐이다. 한병철은 이러한 상태를 활동과잉이라 칭한다. 무엇인가를 하지 않을 힘이 없다면, 계속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면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성찰하는 “돌이켜 생각하기는 불가능”하다(Byung-Chul, 김태환 역, 2014: 53). 학생들에게는 삶의 여백이 없다.

5. 인지적 학습 중심으로 제외된 몸

능력주의는 ‘지능+노력=능력’이라는 도식으로 표현된다. 이 도식이 포함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는데, ‘평가의 목적’과 ‘사라져버린 몸’이다. 먼저 평가의 목적을 보도록 하자.

능력주의에서 시험은 지능 측정(수학 능력)이 그 첫 번째 목표다. 측정을 하는 이유는 선별(select)에 있다. 사실 이 부분은 평가의 오래된 관습 중 하나다. 선별을 위한 평가는 학생들에게 가

2) “2020 청소년 통계”는 통계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다.

르치는 내용의 어떤 개념을 잘 알게 하는 데 있지 않다. 시험을 통해 학생들을 등급으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학생 사이의 서열이 매겨지기 때문이다. 시험은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서, 평가는 학생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거스키(Thomas R. Guskey)는 ‘등급매기기(grading)’를 위한 평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서열화를 위한 시험에서 모든 학생들이 잘 풀이하는 문제는 필요가 없어진다(Guskey, 2011, 17).

이와 같이 선별을 위한 시험의 대부분은 학생의 지적(知的) 능력만을 측정하는 것과 동시에 학생의 육체적 능력은 도외시한다. 그래서 소위 예체능 전공을 제외한 대다수의 학생들을 문제풀이에 집중하며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내는 단순한 유형분석 능력만을 훈련한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교육에서 몸은 어디에 있는가. 교육의 여러 분야에서 통전적, 전인적 교육이라는 말이 많이 사용된다. 이를 위한 여러 가지 교육내용과 방법이 실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시험의 내용에 전인적 교육과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이는 교사와 학생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교육과정 중 하나는 잠재적 교육과정이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무게가 무거운 이유는 교육이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것과 상관없이 교육의 구성원들이 무엇인가를 원하고 사랑하게끔 하기 때문이다. 학교나 교사가 아무리 전인적 교육을 한다고 말을 한들, 교육의 내용이 몸을 포함하지 않고, 나아가 평가에서 몸의 중요성이 떨어지거나 제외된다면 이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전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적 가치는 주요교과라는 말과 끊임없는 시험으로 가치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반면, 육체적 가치는 영 교육과정(null-curriculum)이 되어 즉, 배제된 교육과정이 되어 가치의 중요성에서 멀어진다.

이와 같이 ‘사라진 몸’은 사회적 현상에서 살펴봤던 ‘어셈블리 라인’과 그 구조가 비슷하다. 어셈블리 라인이 노동자의 인지적 능력과 육체적 능력을 분리했던 것처럼, 교육 또한 그렇다. 교육이 이와 같은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학생들은 인간의 몸을 중심으로 한 육체노동에 대한 가치를 배울 기회가 없다. 교육은 잠재적으로 육체노동을 터부시하고 있다.

6.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어려움

더 심각한 문제는 능력주의가 제시한 이상, 계층 간 이동도 녹록치 않다는 데 있다. 학력과 소득에 따른 지역 분리, 학교 분리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최상위 대학이라고 하는 서울대학교의 입학생 분포를 보면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 중 상위 30개교 중 특목고가 15개교(528명), 자사고가 10개교(373명), 일반고가 6개교(124명)다. 상

위 30개교 중 특목고와 자사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80.6%다. 지역 분리 또한 일어난다. 위에 나타난 일반고 6개교 중 서울 강남(3개교: 63명)과 목동(1개교: 17명) 소재가 4개교다. 일반고 합격생 중 강남만 보더라도 50% 이상이 된다(EBS 다큐프라임, “대학입시의 진실: 5부 교육 불평등 연대기”, 2017). 이는 최근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출신 고교별 현황을 봐도 대동소이하다. 서울대 합격자를 20명 이상 배출한 학교는 22개교이다. 이 중 일반고는 3개 뿐이다(<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2&sid2=250&oid=023&aid=0003525505>. 검색일 2022년 1월 7일).

미국도 마찬가지다. 경제력에 따라 이웃을 분리하는 현상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경제력에 따른 이웃 분리는 지역 분리로 이어진다. 이는 응당 “계급에 근거한 학교의 차별”로 전이된다(Putnam, 정태식 역, 2016: 61-63).

이러한 사실은 수치로 접하지 못할 뿐이지 누구나 체감한다. 다만 능력주의의 합리화로 그 불평등의 무게를 개인이 오롯이 감당할 따름이다. 하지만 앞 장에서 다룬 것 같이 소득에 따른 분리는 지역, 학교의 분리로 전이되는 것을 볼 때, 능력주의의 이상, 개인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는 신념은 유지될 수 없다. 왜냐하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개인의 몫이 아닌,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소위 ‘출발선이 다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말하는 부분과 같다.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가정의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가 맺고 있는 사회관계망 또한 소유하게 된다. 부모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자신이 가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수많은 기회와 자원을 맞본다.

요즘처럼 인터넷망이 발달한 환경, 정보가 힘이 되는 시대에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접하게 되는 정보까지도 다르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한 가정의 자녀보다 더 많은 기술, 정보 처리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찾고 처리해야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있다(Putnam, 정태식 역, 2016: 306)

심한 경우, 서두에 언급했던 미국의 입시부정 기사와 같이 특권층 부모들은 자녀를 명문대에 입학시키기 위해 불법을 자행한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미국 유명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해 서울 강남의 유명강사에게 돈을 주고 입학시킨 부모들도 있다. 이들은 서류조사에 의해 조작이 발견되어 입학이 취소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9856_32524.html. 검색일 2022년 1월 8일). 더 나아가 미국과의 시차를 통해 SAT문제를 유출한 강사 또한 적발되었다(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07304_32524.html. 검색일 2022년 1월 8일).

지금까지 교육에 나타나는 문제들, 능력주의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시험, 이에 따르는 개인주의와 성과주의의 폐해, 인지적 교육 중심으로 제외된 몸, 교육을 통한 계층이동의 실제적 어려움을 살

펴보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능력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 중심에는 사람에 대한 이원론적 이해, 특별히 비하된 사람의 몸이 있다. 그렇다면 기독교교육적 대안의 근본적인 시작은 몸이 될 것이다. 다음 장에서는 이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V. 기독교교육적 대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이 장에서는 능력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살펴보겠다. 그 중심내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살핀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골 1:15). 인간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되었기에(창 1:27) 인간이 ‘인간됨’의 기준으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 중 하나도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김홍전, 1986: 220). 물론 이러한 인간상은 오직 중생한 자 안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바빙크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신자 안에 내주하심, 신자를 이끄심을 고려한다면 신자가 “하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하며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인간이 바라봐야 할 인간됨의 기준이자 신자의 정체성 그 자체임을 강조한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337). 이를 중심으로 비판적 관점에서 ‘진학’, ‘개인주의’, ‘노동’을 다루고, 기독교교육과정 내에서의 ‘진로’를 중심으로 ‘몸’과 ‘여백’을 다루도록 하겠다.

7.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간됨과 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 1:14)신 이 사건은 기독교 진리의 중심이다. 구원론과 교회론 등을 비롯하여 특별히 인간론에서도 중심을 차지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신자의 삶의 “맥박”이다(Bavinck, 박태현 역, 2011: 337). 칼케돈 신조는 이 위대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그 동일하신 분(그리스도)은 신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완전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참으로 사람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이성 있는 영혼과 육신으로 되시느니라. 신성에 있어서 아버지와 동일 본질이시며 동일하신 분이 인성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본질이시니 죄 이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와 같으시니라(한철하, 1976: 239).

신조에 명확히 나타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다.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성이 축소되는 것도 아니요, 신성에 의해 사람됨이 변하는 것도 아니다. 기독교의 고백은 두 본성의 혼합도, 분리도 아니다. 변하지 않는 ‘동일하신 분’께서 양성이 연합하여 존재하신다(한철하, 1976: 240-1). 웨스트민스터 문서들도 이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별히 대요리문답은 은혜언약의 중보자를 지칭하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사람이신 그리스도를 탁월하게 설명한다. 대요리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으며,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나 “마리아의 형질”을 가졌다고 답한다(37문답). 39-40문답에서는 그리스도가 왜 사람이셔야 하는지를 다시 강조하며 결론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는 바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피조된 인간이 겪는 육체의 일들을 경험하셨다. 여자의 배에서 태어나셨으며, 나사렛 시골에서 여느 아이와 같이 자라셨다. 예수님은 관념 속에 자리 잡은 한 사람이 아니라 실제했던 유대 문화권에서 태어나 그 민족의 역사에 따라 영향을 받으신 구체적인 인물이다(Wright, 홍종락 역, 2010: 16). 마태는 마태복음 앞부분에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나열한다. 이 계보의 역사는 실제 유대인들의 역사였다.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서 태어나셨다는, 유대인들에게는 혈통적 근거를 확인해주는 계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의 혈통적 전통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혈통적 피와 살은 구약성경 역사의 맥락을 끌어와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 구원의 의미와 근거가 되도록 하신다(Wright, 홍종락 역, 2010: 20-44).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요1:14)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 천지창조를 그 시작으로 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분인 동시에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려준다. 세상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겨났다. 인간의 몸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물이며 예수님이 그런 인간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깊게 관여하길 원하시며 관여하신다(Holwerda, 류호준 역, 2012: 25).

또한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가지신 직업이, 대표적인 육체노동인 목수였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을 통해 기술을 배우고 함께 일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³ 그렇게 예수님은 공생애 전 성인의 삶을 육체노동으로 보내셨다. 현재도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든 목수는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이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며 그 지혜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지칭하는 모습이 이런 시대적 의식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막 6:2-3). ‘목수’(tekton)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무를 다루는 기술인을 나타낸다고보다 예수님 당시 석공이나 건축가를 의미하기도 한다. 당시 이스라엘의 배경을 생각할 때, 석공이나 건축가가 더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목수든, 건축가든 모두 육체노동자임은 변함없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목수

3) 잘 알려졌드시피 로마카톨릭에서는 요셉을 성자(Saint)로 추대하는 데, 그의 상징물 중 하나가 목수의 도구다.

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아 요셉의 직업을 가리킨다는 주장(마태 13:55)도 있다(Bellingham, WA: Lexham Press, 2014).

부활은 예수님의 성육신, 특별히 몸에 대한 완성된 관점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웨스트 민스터 대 요리문답 52는 “고난받으신 바로 그 몸이 본질적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그의 영혼과 실제로 연합되어” 살아나셨다고 말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을 가지시고” 승천하셨으며(53문답), 지금도 부활하신 그 육체 그대로 존재하시며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성육신은 인간의 몸을 부정하지 않는다.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자체였으며, 재림하실 때에 영광스러운 그 육체를 다시 드러내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사유는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몸’의 개념으로 이끈다. 구약에서 ‘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바사르(בשר)’로 인간의 몸 전체를 나타내며, 인간이 “바사르를 가지고 있다(having a body)”라고 보기보다 “인간 자체가 바사르(being a body)”다. 즉, 자신이 몸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자신이 몸이다. ‘루아흐(רוח)’ 또한 인간됨에 관련된 구약의 단어다. 루아흐는 바람, 입김 등의 의미를 갖는 데,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의 전인적 힘이다. 루아흐는 정신이나 영혼만 힘을 얻는 게 아니라 인간의 몸까지 전인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다(최창국, 2008: 147-9). 이처럼 구약의 몸과 인간 존재에 대한 단어들은 통전적이며 전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

신약의 몸 개념은 좀 더 명확하다. 신약은 몸을 ‘소마’(σῶμα, body)와 ‘사르크스’(σαρξ, flesh)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바울이 로마서 8:5-6에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을 설명하며 사용한 단어는 사르크스로 몸 자체가 죄성을 띠고 있는 게 아닌, 죄악된 행위와 결합된 육체(sinful flesh)를 표현할 때 사용하였다. 갈라디아서 5:16, 요한일서 2:16에서도 정욕이나 죄성과 결부된 육체를 말할 때 ‘사르크스’(flesh)를 사용한다(김광연, 2015, 6-7). 바울의 단어 사용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인간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로 인한 터부시되는 몸이 아니라 몸이 죄의 출발점이 아니기 때문에 몸 자체를 죄성과 결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김광연, 2015, 7).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과 다르게 역사적으로 인간은 육체를 터부시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으로써, 역사적으로 고대 그리스의 피타고라스(Pythagoras, AD570-495)는 극단적인 이원론적 사상을 전개했고, 이는 플라톤을 거쳐 신플라톤주의 철학이나 기독교 사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플라톤(Plato, AD428?-348?)은 영혼이 불멸한다고 주장했고, 육체가 영혼의 감옥이라고 표현하면서 인간의 육체성에 부정적이었다. 이와 같이 선재하는 영혼이 인식의 주체가 되는 구도는 훗날 데카르트(René Descartes, 1596-1650)에게 그대로 나타난다(이정우, 2019: 20-21).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사상은 성경적 기독교론을 선포하는 칼케돈 신조를 작성할 시기에도,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다. 인간의 영혼과 육체에 대한 이분법적 구조, 특별히 육체를 비하하는 인식론적 구조는 상당히 강력했다. 그럼에도 칼케돈 신조를 포함한 신앙고백서들이 성자하나님의 완전한 인성을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명백히 밝히는 바요, 여기서 교리들의 유기적 연결성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일은 신자들의 구원을 포함한 삶의 전반에 실존적인 실재이자 의미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인간의 몸 자체와 이것을 포함한 하나님 형상의 근거가 되며, 이를 통해 인간으로서 몸을 중요시하는 교육의 요소들을 고찰할 수 있다.

8. 진로-보냄을 위한 교육

기독교교육은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를 사랑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사명이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과 그 욕심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심 또한 기독교교육이 가장 힘써야 할 과제다. 교육은 정보의 전달을 포함한, 마땅히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중요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교육, 특별히 기독교학교 교육은 학생들의 진로를 중심에 뒀야 한다. 학생들의 진로를 교육과정의 중심에 둔다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進路)’을 생각하는 것이며, 학생들의 삶의 실존인 몸을 중요시하여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보낼 준비’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내 ‘미셔널 처치운동(Missional Church Movement)’이 기독교교육에 주는 통찰이 있다. 이 운동에 의하면, 교회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교회로 세상에 ‘보냄’받는 공동체다. 불가시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바라며, 지역교회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김재영, 2010: 336-337). 보냄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내신 지역이 어디인지, 자신들이 위치한 영역이 어떤 영역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문화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이다. 순수한 복음을 들어 복음은 “문화의 옷”이 필요없다는 주장은 “존재하지 않는” 것을 주장할 뿐이다(Newbigin, 홍병룡 역, 2013: 272). 교회가 보냄을 위해 존재하듯이 학교 또한 보냄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능력주의에 물든 교육은 그동안 학생들의 ‘진로’가 아닌 ‘진학’을 그 중심에 두었다. 나아가 학생들의 진학이 학교교육의 종착지처럼 생각했다. 명문대학에 학생을 진학‘시켰다’면 그것이 학교 역할의 끝이자 열매였다. 이런 학교의 태도는 학생들이 졸업 후 맞이하게 되는 사회의 능력주의 구조 속에 그대로 편입된 모습일 뿐이며, 더 나아가 능력주의 구조를 재생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기독교학교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를 그 중심에 뒀야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정의해야 할 단어가 있다. 연구자는 ‘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것인데, 여기서 ‘일’을 ‘직업’과 동일하게 보진 않는다. 일은 직업을 포함한 더 넓은, 인간이 깨어있는 동안 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동안 교육에서 진로라는 말 자체가 직업을 고른다는 말과 다르지 않게 사용된 것을 생각할 때, 교육 또한 일에 대한 협소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⁴ ‘일’에 대한 논의는 ‘(2) 일을 위한 교육’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학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이 각자 다르다. 하나님께 받은 능력이 각자 다르다는 사실은 이들이 사회에 나가서 가져야 할 생각, 해야 할 ‘일’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학생들은 개개인에 맞는 학습과 활동을 해야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그래서 학생의 다양성을 염두에 둔 교육은 단순히 진보적 교육사관에서 비롯된 방법이 아니라 학생의 보냄을 위한 교육, 진로교육의 일환이다. 흥미로운 것은 능력주의에 의해 강조되는 개개인의 능력이 학생들의 다양성의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능력주의가 추구하는 바, 성공의 통로로서의 대학 입시가 학생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전체주의적인 성격을 나타나게 하는 것으로 볼 때, 능력주의는 그 자체가 가진 구조 때문에 각 개인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한다.

진로교육의 수많은 방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의 가치와 반대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욕심을 위한 기독교교육적 전제를 두고 기독교적 진로교육이 갖춰야 할 가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공동체 - 타자를 위한 교육

앞서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그들의 진로를 염두하여 그들이 하게 될 일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가. 그것은 ‘타자’다. 후에 ‘교육과정’을 다룬 장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인간의 몸은 공간 안에서 타자와 상호작용하는 것을 그 본질 중 하나로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 진로교육은 능력주의로 비롯된 나르시시즘에 의한 자기 폐쇄가 아닌, 이웃, 즉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가치를 그 중심에 두어야 한다. 개인 중심적 태도는 몸을 통한 타자와의 상호작용, 사회의 정치적 시민 의식 또한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이다((Taylor, 송영배 역, 2013: 61). 물론 이것은 주께서 주신 십계명의 중요한 내용으로, 이웃사랑을 위한 기독교교육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 있다. 비엘레(André Biéler)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새로운 인간성 개념을 들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개인적인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삶 같은 그런 것이 있다고 믿는 것

4) ‘진로(進路)’를 그 단어의 뜻 그대로 ‘앞으로 나아갈 길’ 즉, ‘삶’으로 봐야 한다.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삶과 보냄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life)의 큰 맥락에서 다뤄야 한다.

은 속임수이며 사기성 종교의 망상이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만나고 연합함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이 몸의 머리다. 믿음으로 거듭난 각 신자들은 이 몸에 연결된다. 그는 이 몸과 떨어질 수 없는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삶은 보이는 교회의 유기적 특성, 연결되어 있는 것 밖에서는 불가능하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36).

비엘레에 따르면, 교회는 교회의 지체됨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세상 전체와 “하나”로 존재한다. 이는 비가시적 교회의 보편적, 우주적 속성을 근거로 한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37). 이처럼 기독교적 진로교육의 핵심은 남을 위한, 타자를 위한 교육이다. 또한 순수한, 일반적인 학교교육 자체가 그것을 추구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의 본질은 결코 개인적인 배움에 목표를 두지 않으며 그래서 안된다. 만약 개인적인 학습을 목표로 한다면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한곳에 모일 필요가 없다. 교실은 개인의 정체성을 키우되, “개인과 타인을 연결하며 집단의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다(Postman, 2011: 67).

또한 더 나아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에게 개인에게 맡겨진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은 개인의 능력이 자라나는 것과 그 결과가 순수하게 개인의 노력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걸 전제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개인적으로 허락된 자원과 환경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학생 개인을 위한 계획을 통한 은혜이며, 이는 학생 개인이 가져야 할 일종의 ‘책임’이다. 이것은 학생 개개인이 받은 바, 그것이 부모의 능력이든, 환경이든, 학생 개인의 성향이든 간에 자신의 의지로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의식이다. 개인이 누리는 모든 것은 자신의 능력에 기인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거꾸로 보면 자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만약 하나님께서는 왜 서로가 다른 환경에서 있도록 하셨는가를 고민하게 한다면, 웅당 누군가는 돕고, 누군가는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예를 들어, 우리는 부의 편중현상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 부의 편중현상은 재화(財貨)의 재분배로 해결해야 한다. 재분배는 “부자에게서 가난한 자들을 향해 이루어진다.”(Biéler, 박성원 역, 2003: 56).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부자라면 그는 이웃을 도울 수 있는 특권과 더불어 도와야 하는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로부터 독립하고자 했던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를 토대로 이웃과 다른 피조물로부터의 분리도 불러왔다. 이는 능력주의에 의한 개인주의 또한 타락의 결과이며, 이는 기독교교육이 회복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진로를 중심에 둔, 보냄을 위한 교육과정에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공동체, 타자가 위치해야 한다.

(2) 일을 위한 교육

앞서 ‘일’에 대한 정의를 간단히 언급했다. 거기서 연구자는 ‘일’을 직업 즉, 유급노동과 동일시하지 않았다.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시하는 것은 일에 대한 협소한 정의일 뿐만 아니라 왜곡된 정의다. 또한 일은 사람을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육체의 정체성을 가장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한다. 일을 올바른 의미에서 정의하고자 하는 의도는 두 가지다. 하나는 소극적인 이유로, 현 사회의 노동 실태를 비판하는 위치를 갖는다. 적극적인 이유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고민하고자 하는 의도다.

대한민국에는 ‘사계’라는 익숙한 노래가 있다. “미성은 잘도 도네 돌아가네”라는 후렴구로 익숙한 이 노래는 재봉틀을 돌리는 여공들의 이야기다. 사계 즉, 1년 내내 계절이 바뀌는 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반복 노동을 해야 하는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렸다. 계절의 변화를 경쾌하게 노래하지만 후렴의 내용이 말해주는 착잡함이 공존하는 민중가요다.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일의 의미가 없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가 살아가는 세상의 현장성과 상관없이, 일은 삶의 아무런 의미가 되지 않는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경제의 생산성 극대화를 부추긴 능력주의는 노동에 있어서 제품을 생산하는 공정과 결과물의 분리를 가져왔다. 어셈블리 라인과 같이 노동자는 결과물과 상관없다. 단순한 작업은, 예를 들어 볼트만 조인다든지, 재봉틀만 돌리는 데 있어서는 노동자의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아렌트(Hannah Arendt)는 이렇게 전체과정을 통제하는 사람과 단순한 노동만을 하는 사람의 분리를 아니말 라보란스(Animal laborans)와 호모 파베르(Homo faber)라는 개념으로 설명했다. 아니말 라보란스는 “일하는 동물” 즉, 짐승처럼 어떤 일을 되풀이하는 인간이다. 반면 호모 파베르는 아니말 라보란스의 위에 위치하며 “물질적 노동과 행위를 판단”하는 인간이다(Sennett, 김홍식 역, 2016: 21-22). 하지만 이런 분리는 ‘일’의 가치를 제대로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넘어 그 가치를 왜곡하여 폄하시킨다. 인간에 대한 이원론적 접근이기 때문이다. 노동을 기준으로 한 이러한 구분은 ‘일’자체의 가치를 가리고 인간의 노동 자체를 시장에 내놓는 시장경제의 노동시장을 합리화할 뿐이다. 시장에 의한 노동 가치 부여는 많은 돈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며, 적은 돈을 받는 일은 좋지 못한 일이라는 도식 또한 도출한다. 이런 식으로 경제적 보상으로만 본다면 육아노동은 일이 아니다. 쉴레(Dorothee Sölle)는 이를 이데올로기로 표현한다.

노동과 관련해서 우리는 창조가 아니라 돈을 생각한다. 노동이 삶을 유지하고 풍부하게 하고 충만케 한다는 점에서 노동 그 자체를 의미 있는 것으로 보는 대신 노동을 급료와 관련지으며 경제적 소득에 따라 평가한다. 이 이데올로기를 받아들이는 만큼 노동의 의미는 공허해진다. 우리는 노동시장을 떠나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품으로 노동을 축소시킨다(Sölle, 박경미역, 2019: 109).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0장에서 포도원 주인과 그가 고용한 일꾼들에 대해 이야기하신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은…과 같으니”라고 비유하시며 이야기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 속에서 천국 즉,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보여준다(마 20:1).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서의 일의 가치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 포도원 주인이 각각 다른 시간에 고용한 일꾼들에게 샅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 포도원에 찾아온 일꾼은 시간에 따라 오전 일찍(2절), 정오와 오후 중반(3절), 오후 늦게(6절)로 나뉜다. 특별히 오후 늦게 온 일꾼들은 자신들을 일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 오후 늦게까지 고용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일을 잘 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포도원 주인은 하루 일을 마친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품삯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람들의 예상을 뒤집는다. 그것도 마지막에 합류한 일꾼들부터 ‘먼저’ 샅을 지불한다(8절). 당연히 일찍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을 했다(12절). 사실 능력주의 문화 안에 있는 현대인들은 이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 능력주의 문화 안에서는 일한 만큼, 자신의 능력만큼 더 많은 보상을 받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은 보상의 크고 작음으로 증명되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모든 것을 뒤집는다. 이는 천국에 대한 전체적인 주제와 결을 같이 한다(France, 2007: 748). 하나님 나라는 받는 보상으로 일의 가치, 한 개인의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포도원 주인의 논리 또한 반박할 수 없다. 물론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 비유가 노조와 경영자의 분쟁 해결을 위한 원리를 제공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Carson, 1984: 427-428). 우리에게 필요한 성찰은,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이 제시하는 원리를 받아들이더라도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에게 공감하게 되는 것은 현대가 그만큼 능력주의 문화에 잠긴 것을 반증한다는 데 있다.⁵(가스펠서브, 2018: 1190).

그렇다면 일에 대한 교육의 기독교적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여기서 장인(匠人)개념을 그 대안 중 하나로 제시한다. 어떤 물건(물리적인 어떤 것이 아니더라도)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노동자가 처음부터 끝까지의 공정을 알고, 참여한다면 그는 장인정신 아래 있다. 장인은 전인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육체의 인지적, 육체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사용한다. 인간 존재는 아니말 라보란스와 호모 파베르처럼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다. 일을 하는 인간은 ‘왜’(호모 파베르)와 ‘어떻게’(아니말 라보란스)를 함께 질문하며, 해야하는 통합적 존재다. 만약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타자에 의해 목적(왜)이

5) 첨언하자면, 연구자가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제적 보상 자체를 터부시하지는 게 아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의 은화로 통상적으로 노동자의 하루 급료였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눅 10:30-37)에서 사마리아인이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으로 나오는 데, 예레미야스(J. Jeremias)는 당시 숙박비를 1/20 데나리온 정도로 추정한다. 이와 비교했을 때도 앞서 포도원 일꾼들이 받은 데나리온은 부족하지 않은 정당한 금액이었다. 일을 통한 존재의 표현은 노동자가 살아가는 현실, 실존적 문제를 응당 포함해야 한다.

주어진다면 이는 노동자의 행위주체성을 약화하기 때문이다(Crawford, 2018: 282).

인간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다. 로마의 노예로 벽돌을 만들던 벽돌장인, 벽돌공들은 자신이 만든 벽돌에 라틴어로 ‘페키투’(fecit)라고 새겨 넣었다. 이 단어는 “이 일에 내가 있었노라”라는 뜻으로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말이었다(Sennett, 김홍식 역, 2016: 213-221). 장인적 일은 전인적, 존재론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주된 방식이다. 일에 대한 장인적 관점은 일을 하는 사람의 육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인간의 몸을 생각하게 되면 몸을 매개로 하는 노동을 육체적 노동과 정신적 노동으로 나눌 수 없다. 기독교교육은 물론 일반 교육에서도 ‘전인적 교육’이라는 주제는 수없이 나왔었다. 하지만 능력주의가 불러일으킨 노동의 이분화는 사람들에게 내제되어 있던 관념론적 인간관(Hoekema, 이용중 역, 2012: 13)⁶과 결합하여 실존적인 몸 자체를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렇듯 기독교교육은 일과 노동을 하는 육체의 가치를 회복하여 진정한 전인적 교육을 해야 한다. 거대한 진로교육의 흐름 안에 일과 육체의 가치가 기독교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스며들 필요가 있다.

9. 교육과정

보통 학교에서 진로교육이라고 이뤄지는 수업이나 활동은 특별수업이나 강의, 특별활동 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진로교육은 학교의 전체 교육과정과 독립적으로 떨어질 수 없다. 진로교육에서 가치를 두고자 하는 요소들은 반드시 교육과정 안에서도 가치를 두어 교과나 활동에 스며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로교육을 통한 보냄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작은 장에서는 앞서 언급된 ‘몸’의 중요성을 살피고 이를 교육과정의 중요 가치로 제시할 것이다. 몸은 일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의 지점이며, 앞서 언급한 인지 중심 교육에서 잊혀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능력주의에 의한 생산성의 최우선적 목표에 맞서 안식과 쉼을 드러내는 ‘여백’에 대해 살펴보고, 이 또한 중요 가치로 제시한다.

(1) 몸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교육철학의 인식론에 있어서 양대산맥은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다. 합리주의는 형식 논리를 그 내적 지속성으로 갖는 데, 이는 주체가 외부인 현실세계와 단절될 위험성이 있다(Knight, 1993: 39). 경험주의 또한 자연과학적 객관주의에 그 토대를 두었지만 인간 지식의 비독립성, 가치 지향성, 인격성 등에 의해 비판받았다(김병재, 2018: 15-33).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 1908-1961)의 작업도 이와 같았다. 퐁티는 합리론과 경험론 모두를 비판하고 이를 종합하고자 했던 칸트의 철학까지도 비판한다. 역사 속에서 합리론과 경

6) 관념론적 인간론은 인간의 신체를 매우 하등한 것으로 본다. 몸은 질료이며 이는 영혼보다 하위에 위치한다는 것이다. 관념론적 인간론 안에서 몸은 영혼에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본다.

험론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폰티에게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같았다. 양자 모두 “객관 주의적 사유라 부르는 차원”에 머물고 있다. 즉, 이 두 사조는 우리의 사유를 객관화된 대상에게 고정시키기 때문에 객관화되기 전인 “근원적인 삶의 영역”을 놓치게 한다(이남인, 2020: 36-37). 이런 이유로 폰티는 합리론과 경험론도 아닌, 몸에 관심을 둔다. 폰티는 합리론과 경험론처럼 몸을 객관 주의적 관점에서 대상화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의 신체는 끊임없이 지각되기 때문에 ... 종략 ... 나의 신체는 나를 떠나지 않는 대상이다. 그러나 그때부터 그것은 여전히 하나의 대상인가? 대상이 불변적 구조라면 그것은 조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조망의 변화에서 또는 조망의 변화를 통하여 그런 것이다 ... 종략 ... 대상은 멀리 떨어져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나의 시각 장에서 사라질 수 있는 한에서 대상이다. 대상의 현존은 가능한 부재가 으레 따르기 마련인 그런 종류의 것이다. 그런데 고유한 신체의 영속성은 전적으로 다른 종류의 것이다(Ponty, 류의근 역, 2019: 154).

이렇게 신체는 인간 자체로서의 지각이다. 폰티는 이를 “지각적 습관”으로 연결하여 인간의 지식이 암묵적인 형태를 띠는 것으로 말한다. 폰티는 지팡이를 사용하는 시각장애인을 예로 든다. 시각장애인은 지팡이를 통해 다른 사물을 인지하는 데, 이 때 시각장애인에게는 손과 지팡이, 사물이 독립적이거나 어떤 논리적 순서로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암묵적인 덩어리로 지각된다(Ponty, 류의근 역, 2019: 241). 이것이 습관이다.

폰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신체의 운동성과 공간성 개념을 통해 몸이 세계 안에 있고 다른 대상들과 체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몸이 세계를 지각하고 세계가 우리에게 나타난다(Ponty, 류의근 역, 2019: 311-316). 인간은 몸이 아니고서는 어떤 상태나 상황을 상상할 수 없다. 인간은 몸으로 환경, 주변 물질세계에 둘러 싸여 서로 상호작용하는 존재다. 인간이 느끼는 바는 그 상황을 초월한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뤄지지 않으며 자신이 “그 상황 안에 있는 것”으로 감각되어 결정된다. 이는 인간의 몸이 접하는 인간 존재의 우선성 때문이다(Smith, 2016: 77-79). 몸은 이렇게 세상과 소통하는 수단이자 나 자신이다. 이러한 폰티의 몸철학은 1) 몸의 인식 자체로 인간 존재를 드러내고, 2) 몸의 인식이 습관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뤄진다는 것, 그리고 3)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이에 대한 당위성과 적극성을 역설한다.

정리한 세 가지는 기독교교육의 교육과정에도 의미있는 통찰을 준다.

첫째, 폰티의 몸철학은 관념론적 인간론에 반하여 통합적이고 인격적인 인간론을 주창한다. 이를

가장 간단하게 본다면, 소극적인 입장에서 기독교교육이 인지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야 함을 뜻한다. 적극적인 면에서는 직접 감각과 활동이 필요함을 나타낸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각과 활동이 일어나는 장(field)이 학생들의 실존과 연관되어 있어야 한다. ‘세계-에로-존재’(Ponty, 류의근 역, 2019: 691)⁷로서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그 영역과 장소에서 직접적인 감각과 활동이 필요하다. 기독교에서의 신앙은 개인의 실존을 떠나 하늘에 떠다니는 무엇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자신의 영역에서 이뤄내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몸의 습관이 중요하다. 몸의 인식이 자연스럽고 암묵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은 인식하는 사람의 환경, 그를 둘러싼 거대한 흐름(이야기)이 그의 습관을 만들어낸다는 의미다. 기독교교육이 학생들로 하여금 마땅히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면, 기독교교육 공동체는 기독교의 진정한 이야기가 학생들의 환경이 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더 나아가 그러한 환경을 바탕으로 교육을 펼쳐 나가야 한다. 스미스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암묵적 교육은 교훈적이지 않고 운동미학적이다. 우주관은 사상과 신념, 교리의 보급을 통해서가 아니라 몸에서 작동하며 따라서 의식을 우회하는 더 완곡한 방식으로 주입된다. 아이는 똑바로 앉는 법이나 칼을 잡는 법을 배울 때-비록 그를 ‘가르치는 이들’은 자신들이 이것을 전수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더라도-사회적 상승계, 사회적 질서에 대한 이미지, 좋은 삶에 대한 전망을 무의식적으로 흡수한다(Smith, 2016: 174-175).

이런 환경은 학생들로 하여금 명시적이지 않더라도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육화된 교육, 학생들의 습관이 되었을 때, 이는 앞서 언급한 장인(匠人)과 같이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지식 자체를 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셋째, 폰티의 몸철학은 인간이 소통해야 하는 당위성을 밝힌다. 이는 앞서 ‘공동체-타자를 위한 교육’에서 말한 바와 같기에 간단한 언급만 덧붙이겠다. 폰티의 철학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와 타자를 위해 교육을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교육을 해야만 인간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난다는 데 있다.

앞선 내용과 같이,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사람(학생)에 대한 전인적 관점, 몸 인식을 위한 교육 환경의 암묵적인 거대한 이야기, 교육공동체 구성원 간 소통과 협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육공학적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학생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7) “세계-에로-존재(être-au-monde)”는 폰티 특유의 용어다. 이는 세계를 향한 인간의 실존적 초월 운동을 가리킨다. 인간이 세계-에로-존재라는 것은 세계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참여하고 위탁하는 의미를 내포한다.

(2) 여백에 대하여

김덕영은 한국의 성적 위주 스포츠 문화가 쉽없이 훈련하는 선수들을 만드는 것처럼, “한국의 교육은 전 사회적 차원에서 입시만을 위해 쉽 없이 뛰는 조그만 선수들”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김덕영, 2007: 34-35). 능력주의는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입시를 그 종착점으로 만들어냈다. 수학능력시험의 문제 질(質)이 좋다는 평가와 상관없이 정답을 찾아야 하는 시험의 문제는 훈련을 필요로 한다. 그것도 끊임없는 훈련 말이다. 반복을 통해서 한눈에 문제 유형을 구별해야만 주어진 시간에 정해진 답을 도출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청소년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쉴 틈이 없다. 이는 앞서 한병철이 진단한 현대사회의 피로사회, 활동과잉과 동일한 모습이 교육 안에 보이는 것이다. 학생들은 쉬이 필요하다. 학생들의 삶 속에는 물리적이며 정신적인 여백이 모두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인간은 통합적 존재이기 때문에 물리적 여백에 근거하지 않은 정신적 여백이 있을 수 없으며 그 역(逆)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몸은 안식이 필요하도록, 쉬이 필요하도록 창조되었다.

유재봉은 ‘여가를 위한 교육’을 논하며 희랍의 스콜레(scholé)개념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쉬’는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 “총체적 세계를 수용하는 활동인 관조(contemplation)”다. 고대 그리스와 중세 사람들에게 ‘쉬’는 인간다운 삶의 핵심이었다(유재봉, 2019: 151-154). 스콜레의 원형은 성경의 ‘안식’개념으로 볼 수 있다. 안식 또한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개념이 아닌, “천지를 (재)창조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가 (재)창조한 총체적 세계를 관조하고 향유”하는 것이다. 안식을 경험하는 사람은 새롭게 힘을 얻는다(유재봉, 2019: 158). 고대 그리스의 스콜레와 그 원형으로의 안식은 인간에게 있어서 정신적, 물리적 여백의 필수성을 제공하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개념이다. 왜냐하면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신자에게 있어서 예배는 기쁨이며 공급이다.

안식은 십계명을 통해 신자들에게 전해진다. 신명기 5장 14절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모든 일”과 “모든 육축”, “유하는 객”, “네 남종과 네 여종”이 안식하도록 명한다. 안식이 예배와 직결되는 것이라면, 안식일은 남아있는 일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타인에게 일하도록 요구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안식 개념은 앞서 살펴본 능력주의와 더불어 문화 흐름인 생산성과 성과주의에 분명히 반대하는 개념이다. 왜냐하면 능력주의에서 오는 모멸과 수치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학생들의 안식을 지킬 때, 우리는 현대의 문화와 다르게 교육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시대의 가치관으로부터 구별하고 있는 것이다(Dawn, 전의우 역, 2005: 63-87). 이러한 반시대적 가치관은 기독교 공동체

의 참여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희년의 토지 반환 및 분배가 개인이 아닌 이스라엘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한 것처럼 말이다(이숙경, 2021: 599).

여기서 연구자는 더 나아가 좀 더 강한 주장을 하려 한다. 능력주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는 현실적으로 학생들의 삶의 여백을 자율적으로 맡길 수 없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학생들의 여백을 ‘강제’해야 한다고 본다. 기독교의 십계명 중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다. 이 계명에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의미가 담겨있다(이정규, 2017: 47).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Westminster Larger Catechism) 135는 다음과 같이 6계명이 요구하는 바를 말한다.

여섯 번째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세심한 연구와 합법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의 생명이라도 불법하게 취하려는 모든 경향, 사상, 목적에 저항하고, 모든 걱정을 억제하며, 모든 상황, 유혹, 습관을 피하는 것입니다 … 종락 … 곤경에 빠진 자를 위로하고 구제하며 무죄한 자를 보호하고 방어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대요리문답의 136문답은 “합법적이며 필요한 생명 보존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6계명이 금지한다고 말한다. 이렇게 6계명은 그 문자적 의미인 ‘살인’을 금지하는 것에서 확장하여 인간의 생명권에 기반한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강력한 권고를 담고 있으며, 이를 이행할 수 있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장치들을 요구한다.

교육이 전인적이라면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의 건강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줘야 한다. 지금과 같이 입시와 성적 중심으로 내달리고 있는 교육은 학생들의 시간은 물론, 그들의 건강 또한 위협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 기독교교육은 학생들의 배움이 물리적으로 끊임없는 정보 공급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삶의 여백으로 그 배움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세밀한 구성과 더불어 기관의 원칙을 통한 강제 또한 포함된다. 환자를 낮게 하려면 강제로 쉬도록 해야 하는 것처럼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능력주의에 물든 사회, 특히 교육 내에 있는 능력주의적 영향을 밝혀 이를 해결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세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첫째, 능력주의란 무엇이며, 사회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쳤는가. 영국의 사회학자인 마이클 영이 자신의 저서에서

제시한 ‘능력주의’는 혈통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봉건적 계층 구분을 없애려 하였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이 중시되면서 성공과 실패의 결과 또한 능력주의로 인해 정당화되어 버렸다. 즉, 혈통이나 계층을 근본으로 했던 불평등이 이제는 개인의 능력을 그 근본으로 대체하게 된 것이다.

능력주의의 가치가 확산됨에 따라 사회 속에서도 복잡하게 얽힌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개인의 실패는 오롯이 개인의 책임이 되었기에 이에 따라 사람들은 모멸감을 느끼게 된다. 사람들은 개인의 노력을 통해 모멸감을 극복하려 했고, 이는 부정적 의미의 성과주의로 나타난다. 또한 개인적인 성과주의는 시장경제의 생산성 중시와 맞물려 강화되는 모습을 보인다. 능력주의에 의한 실패와 모멸감을 시장경제의 가치인 ‘돈’으로 극복하여야 했기에, 결론적으로 더 높은 임금을 받는 직업이 성공의 표지가 된다. 이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의 도식으로 해석되어 노동의 가치 하락을 야기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몸의 가치 즉, 인간의 가치 하락까지 이어지게 된다. 사회에 나타나는 위와 같은 부정적인 현상들, 그 구조를 유지시키는 데 있어서 교육은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학력’이다.

둘째, 능력주의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능력주의와 교육의 가장 큰 접착점은 ‘시험’이다. 시험이 배움보다 학습을 중심으로 한 선별을 그 목표로 할 때, 능력주의는 시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는다. 사회에서의 성과주의 또한 교육 안에서 잘 드러난다. 시험에서 드러나는 결과는 학생 개인의 노력과 동일하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개인과 개인의 철저한 경쟁, 그 속에서 교육은 개인주의를 조장하며 성과 즉, 시험 결과를 올리기 위해 절대적 시간을 쏟아야 하는 학생들은 수많은 압박에 시달린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육’안에 속하는 수많은 영역들은 배제되고 학습만을 그 기준으로 하기에, 노동에서 몸의 가치가 하락한 것과 같은 모습이 교육 안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된다. 교육이 시험을 통해 선별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 시험이 지금처럼 인지적 영역에만 국한되어 있을 때 교육에서 몸의 가치는 사라진다. 화이트칼라가 인정받는 세상을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후세대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과 다름 아니다. 교육은 잠재적으로 육체노동을 터부시하고 있다. 나아가 능력주의가 실패한 것처럼 교육 또한 계층 간 이동을 극복하지 못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닌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 재력, 학벌이 계층의 근거가 되었고, 이 현상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능력주의가 교육에 끼친 영향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교육적인 대안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 연구자는 교육에서 나타나는 능력주의의 영향이 근본적으로 이원론적 인간론에 있다고 본다. 학습만을 중시하는 시험, 그로 인한 몸의 배제가 그 근원에 있다고 보는 바, 기독교교육이 올바른 인간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부정적 영향들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교육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인간됨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셋째, 기독교교육이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 연구자는 기독교교육적 대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제시하였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가 고백해온 문서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육신, 특별히 몸을 터부시하지 않는다. 대표적인 예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37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참 몸과 이성적인 영혼”을 취하셨고, “마리아의 형질”을 가지셨다고 밝힌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를 성경이 말하는 몸으로 이끈다. 구약성경은 몸을 부정하지 않는다. 구약의 ‘바사르’나 ‘루아흐’를 볼 때, 몸과 인간을 이원론적 존재가 아닌 통전적이며 전인적 존재로 제시한다. 신약성경도 마찬가지다. ‘소마’와 ‘사르크스’를 구분하여 죄악된 행위와 결합된 육체를 특정하는 말을 ‘사르크스’로 사용한다. 중요한 점은 몸 자체를 죄와 결부시켜 터부시하거나 정신과 떨어뜨려 이원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말하는 몸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능력주의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난 기독교교육적 관점을 가질 수 있다.

먼저, 기독교교육적 관점의 하나로 ‘진로’를 볼 수 있다. 능력주의의 영향을 받은 그동안의 교육은 ‘진로’가 아닌 ‘진학’에 그 초점을 두었다. 통전적인 의미의 몸을 생각했을 때,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의 진로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 모든 학생은 각자 다른 인격으로 창조되었고, 그들이 가진 능력 또한 다양하다. 학생 개개인은 각자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으로 교육받아야 한다. 이러한 진로를 위한 교육이 갖춰야 할 두 가지 가치는 ‘공동체’와 ‘일’이다.

능력주의가 조장했던 성과주의와 경쟁은 인간의 공동체성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인간의 몸은 타자와 상호작용하도록 창조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진로교육은 능력주의의 나르시시즘이 아닌, 이웃, 공동체, 사회를 위한 가치를 지녀야 한다. 또한 진로교육은 ‘일’에 대한 가치를 다시금 조정해야 한다. 학력을 위한 교육은 일을 ‘유급노동’과 동일하게 바라보게끔 하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에 있어서 이러한 일에 대한 협소한 이해는 전인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한 장인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장인적 일은 전인적, 존재론적인 인간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진로교육은 인지적 교육만 중시되는 부분에 있어서 몸을 매개로 하는 노동의 의미를 기독교적인 통합적 인간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진로교육은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속한다. 고로 교육과정 또한 연속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가치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계속해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잃어버린 몸’이 다시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풍티가 이야기한 바와 같이 몸은 관념적이지 않고 통합적이며 실존적이다. 이러한 몸은 습관을 만들어내는 데, 이는 공동체의 이야기를 통해 암묵적으로 만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다. 교육공동체의 구성원들 간의 소통 또한 교육과정에서 바라봐야 할 가치로 볼 있다.

교육과정이 중요시해야 할 마지막 가치로 안식과 쉼의 가치인 여백을 제시한다. 능력주의 안에서

의 교육은 학생들을 쉬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인간은 쉬을 갖도록 창조되었다. 성경의 안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직결된다. 쉬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쉬을 통해 학생들에게 정신적, 물리적 여백을 제공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창조된 세계를 잠잠히 향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부족한 점과 더불어 더 자세하고 깊은 연구를 통한 기독교교육의 방향성을 위해 두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한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진로교육이 갖춰야 하는 방향성만을 제시했지 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그동안 이뤄진 진로교육의 흐름과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하여 제시된 가치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좀 더 나은 진로교육 교육과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몸을 중심으로 한 인간론 연구가 좀 더 필요하다. 교육의 영역에서 이뤄진 대부분의 학습 이론들은 인지적 중심 연구였다. 물론 인지적 연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상대적으로 몸과 감각에 집중하여 이뤄진 연구는 유아와 저학년 중심이다. 하지만 인간 본연의 전인적 성격을 생각한다면 고학년과 중등교육에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박태현 역. (2014). **개혁교의학 3**, Bavinck, Johan Herman. (1898). *Gereformeerde dogmatiek*. 서울: 부흥과개혁사.
- [Park, T. H. (2014). *Gereformeerde dogmatiek 3*.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Bavinck, Johan Herman. (1898). *Gereformeerde dogmatiek 3*. Kampen: Zalsman]
- 박성원 역. (2003). **칼빈의 사회적 휴머니즘**. Bieler, Andre.' (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Park, S. W. (2003). *L'humanisme social de Calvi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Trans. Bieler, André. (1961). *L'humanisme social de Calvin*. Genève: Labor et Fides]
- 김태환 역. (2014). **피로사회**. Byung-Chul, Han. (2010). *Müdigkeitsgesellschaft*. 서울: 문학과지성사.
- [Kim, T. H. (2014). *Müdigkeitsgesellschaft*. Seoul: Moonji. Trans. Byung-Chul, Han. (2010). *Müdigkeitsgesellschaft*. Berlin: Matthes & Seitz]
- 구미화 역. (2017).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Chomsky, Noam. (2015).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서울: 와이즈베리.
- [Goo, M. H. (2017).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Seoul: Wiseberry. Trans. Chomsky, Noam. (2015). *What Kind of Creatures Are W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윤영호 역. (2018). **손으로, 생각하기**. Crawford, Matthew B.(2009). *Shop class as Soulcraft: An Inquiry into the Value of Work*. 서울: 사이.
- [Yoon, Y. H. (2018). *Shop class as Soulcraft: An Inquiry into the Value of Work*. Seoul: Sai. Trans. Crawford, Matthew B.(2009). *Shop class as Soulcraft: An Inquiry into the Value of Work*. London: Penguin Publishing Group]
- 이용중 역. (2012). **개혁주의 인간론**.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부흥과개혁사.
- [Lee, Y. J. (2012). *Created in God's Image*.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Hoekema, Anthony A. (1986). *Created in God's Image*. Grand Rapids: Eerdmans]
- 류호준 역. (2012). **요한복음**. Holwerda, David E. (1992). *John*. 서울: CLC.
- [Ryou, H. J. (2012). *John*. Seoul: CLC. Trans. Holwerda, David E. (1992). *John*. Grand Rapids, Mich.: Christian Reformed Church]
- 박영철 역. (2005). **철학과 기독교교육**. Knight, George. R. (1980). *Philosophy and Education*. 대전: 침례신학대학교출판부.
- [Park, Y. C. (2005). *Philosophy and Education*. Daejeon: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

- Trans. Knight, George. R. (1980). *Philosophy and Education*. Berrien Springs, Mich.: Andrews Univ. Press]
- 홍병룡 역. (2013). **다원주의 사회에서의 복음**. Newbiggin, Lesslie.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서울: IVP.
- [Hong, B. Y. (2013).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Seoul: IVP. Trans. Newbiggin, Lesslie. (1989). *The Gospel in a Pluralist Society*. London: SPCK]
- 류의근 역. (2019). **지각의 현상학**. Ponty, Maurice Merleau. (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서울: (주)문학과지성사.
- [Ryu, E. G. (2019). *Phenomenology of Perception*. Seoul: Moonji. Trans. Ponty, Maurice Merleau. (1945). *Phenome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Francia: Gallimard]
- 차동춘 역. (2011). **교육의 종말**. Postman, Neil. (1995). *The End of Education*. 서울: 문예출판사.
- [Cha, D. C. (2011). *The End of Education*. Seoul: Moonye. Trans. Postman, Neil. (1995). *The End of Education*. New York: Knopf]
- 정태식 역. (2016). **우리 아이들**. Putman, Robert 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서울: 페이퍼로드.
- [Jung, T. S. (2016).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Seoul: Paper road. Trans. Putman, Robert D. (2015). *Our Kids: The American Dream in Crisis*. New York: Simon & Schuster]
- 함규진 역. (2020). **공정하다는 착각**. Sandel, Michael J. (2020). *The Tyranny of Merit*. 서울: 와이즈베리.
- [Ham, G. J. (2020). *The Tyranny of Merit*. Seoul: Wiseberry. Trans. Sandel, Michael J. (2020). *The Tyranny of Merit*. New York: Picador]
- 김홍식 역. (2016). **장인**. Sennett, Richard. (2008). *The Craftsman*. 서울: 21세기 북스.
- [Kim, H. S. (2016). *The Craftsman*. Seoul: Book21. Trans. Sennett, Richard. (2008). *The Craftsman*. London: Penguin Books]
- 박세혁 역. (2016).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라**. Smith, James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서울: IVP.
- [Park, S. H. (2016).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Seoul: IVP. Trans. Smith, James K. A. (2009). *Desiring the Kingdom: Worship, Worldview, and Cultural Formation*. Grand Rapids: Baker Academic]
- 박경미 역. (2019). **사랑과 노동**. Sölle, Dorothee. (1999). *Lieben und arbeiten -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서울: 분도출판사.

- [Park, K. M. (2019). *Lieben und arbeiten -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Seoul: Bundo. Trans. Sölle, Dorothee. (1999). *Lieben und arbeiten - Eine Theologie der Schöpfung*. Hamburg: Hoffmann u. Campe]
- 송영배 역. (2013). **불안한 현대 사회**. Taylor, Charles.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서울: (주)이학사.
- [Song, Y. B. (2013). *The Malaise of Modernity*. Seoul: Ehaksa. Trans. Taylor, Charles. (1991). *The Malaise of Modernity*. Toronto: Stoddart Publishing]
- 홍종락 역. (2010). **구약의 빛 아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Wright, Christopher J. H. (1995).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서울: 성서유니온선교회.
- [Hong, J. N. (2010).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Seoul: Scripture union. Trans. Wright, Christopher J. H. (1995). *Knowing Jesus Through the Old Testament*. Illinois: InterVarsity Press]
- 유강은 역. (2020). **능력주의**. Young, Michael. (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서울: 이매진.
- [Yoo, K. E. (2020). *The Rise of the Meritocracy*. Seoul: Imagine Books. Trans. Young, Michael. (1994). *The Rise of the Meritocracy*. London ; New York: Routledge]
- 김광연 (2015). “기독교전통에 나타난 몸신학과 현대적 몸의 재해석,” **한국개혁신학**. 45(-). 44-65.
- [Kim, G. Y. (2015). A View on the Body Theology in Christian Tradition and Its Reinterpretation: Focus on the Meaning of Incarnation and Body in Here and Now. *Korea Reformed Theology*, 45(-). 44-65.]
- 김덕영 (2007). **입시 공화국의 종말**. 서울: 인물과사상사.
- [Kim D. Y. (2007). *The End of the Entrance Exam Republic*. Seoul: Inmul&Sasang.]
- 김재영 (2010). **하나님나라의 자유를 찾다**. 서울: DMI.
- [Kim J. Y. (2010). *Finding Freedom in the Kingdom of God*. Seoul: DMI.]
- 김홍전 (1986). **성탄절 강설**. 서울: 성약출판사.
- [Kim, H. C. (1986). *Christmas Sermons*. Seoul: SungYak]
- 유재봉 (2019). “쉼과 탁월성을 위한 교육의 재해석,” **신앙과 학문**. 24(3). 139-161.
- [Yoo, J. B. (2019). Education for Leisure and Excellence: An Educational Reinterpretation. *Faith & Scholarship*, 24(3). 139-161.]
- 이경숙 (2018). **시험국민의 탄생**. 서울: 푸른역사.
- [Lee, K. S. (2018). *Birth of the Test Citizens*. Seoul: Puleunyeogsa.]
- 이남인 (2020). **후설과 메를로-퐁타: 지각의 현상학**. 파주: 한길사.

-
- [Lee, N. I. (2020). Husserl and Merleau-Ponty, *The Phenomenology of Perception*. Paju: Han-gilsa.]
- 이숙경 (2021). “희년 정신의 기독교교육적 함의: 성취지향적 개인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에서”, **신학과 실천**. 0(73). 589-612.
- [Lee, S. K. (2021). Christian Educational Implications of Jubilee Mind - From a Critical Viewpoint on Meritocratic Individualism of Education. *Theology and praxis*, 0(73). 589-612.]
- 이정우 (2019). **영혼론 입문**. 파주: (주)살림출판사.
- [Lee, J. W. (2019). *Soul Theory*. Seoul: Sallim.]
- 최창국 (2008). “몸과 기독교교육: 통전적 교육을 위한 유기체적 인식”, **성경과 신학**. 45(1). 142-181.
- [Choi, C. K. (2008). Body and Christian Education: Organismic Understanding for a Holistic Education. *Bible & Theology*, 45(1). 142-181.]
- 한철하 (1976). **古代基督教思想**. 서울: 大韓基督教書會.
- [Han, C. H. (1976). *Ancient Christian Thought*.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 Brannan, Rick (2014). *The Lexham Textual Notes on the Bible, Lexham Bible Reference Series*. Bellingham, WA: Lexham Press.
- Carson, D. A. (1984). Matthew. In F. E. Gaebelein (Ed.).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Matthew, Mark, Luke*(Vol.8). Grand Rapids, MI: Zondervan.
- France, R. T. (2007). *The Gospel of Mattew*. Grand Rapids, MI: Eerdmans.
- Guskey, Thomas R. (2011). “Five Obstacles to Grading Reform.” *Jounal of Educational Leadership* 69(4). 16-21.
- <https://docuprime.ebs.co.kr/docuprime/vodReplayView?siteCd=DP&prodId=348&courseId=&stepId=&lectId=10684183>.
- <https://news.join.com/article/23763872>.
-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81815.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39856_32524.html.

능력주의 문화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Christian educational alternatives to Meritocracy Culture -Focused on the Humanity of Christ-

김병재 (은혜의 동산기독교학교)

논문초록

‘능력주의(Meritocracy)’는 우리의 삶과 사회의 구조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능력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사람이 주체가 되는 교육도 마찬가지다. 개인의 노력과 능력을 전제로 결과에 대한 합리화를 이끌어내는 능력주의는 교육에 부정적 영향력을 준다. 기독교신앙은 당대를 지배하는 문화를 기독교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연구는 시대 정신의 중요한 요소인 능력주의와 능력주의가 사회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나아가 교육 영역을 들여다보고 능력주의로 인해 나타난 교육의 ‘시험문화’, ‘인지적 학습 중심’, ‘개인주의’, ‘성과주의’,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의 어려움’을 드러내어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인성을 중심으로 한 몸을 개념을 시작으로 능력주의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대안을 제시한다. ‘진로’교육과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일’을 진로교육으로, ‘몸’과 ‘여백’을 교육과정 안에서 개괄적으로 다룸으로서 능력주의 문화 속에서의 기독교교육의 지향점과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본다.

주제어: 능력주의, 성육신, 몸, 기독교교육, 일, 진로교육

16세기 후반 기독교 세계의 고난과 구원의 상상: 루터파 항해 이미지 분석*

A Study on Imagination of Suffering and Salvation in the Christendom in the
Late 16th Century: Analysis of Lutheran Voyage Images

오종현 (Jonghyun Oh)**

ABSTRACT

Metaphors of ships are frequently used in Christianity. In the Bible, ships are represented as major symbols and roles. Even in the Middle Ages, ships were used as a means of emphasizing communal values, which also appeared in buildings and symbolic expressions. In various illustrations appearing around the 15th century, the ship not only inherits the medieval expression tradition, but also contains anxiety about an unstable society and Catholicism. As the Reformation progressed, this expression appeared more actively, because writers who supported the Lutherans used ships as one of the expressions criticizing Catholicism. However, as the political landscape and religious situation surrounding Lutheran changed, the use of the metaphor for ships began to change. After the defeat of the Schmalkalden League, conflicts over doctrine within the sect provided new concerns for Lutheran supporters. Therefore, it is expressed as a more important task to emphasize their doctrine or values.

Key words: Reformation, image, voyage, symbol, Lutheran, Gerung, Weigel

* 2022년 2월 22일 접수, 3월 9일 게재확정

** 전남대학교(Chonnam National University) 교육문제연구소 학술연구교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교육융합관 109, onix0410@naver.com

I. 서론

15세기에 진행된 인쇄술 발달의 가장 큰 수혜자는 종교개혁가이다. 루터를 위시한 개혁가들의 텍스트는 이전 세대와 달리 빠르게 번역, 인쇄, 복제되었으며 이내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메시지 전달 매체의 변화는 곧 개혁가의 사고 공유영역을 비약적으로 확장하였으며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영향력과 파급력을 만들어냈다. 특히나 주목할 부분은 일종의 ‘공론장’이 확장되었다는 점이다. 중세에서 초기 근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유럽의 지적 공론장은 신학자와 성직자, 인문학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오랜 기간 지적 훈련을 받은 사람들로 비의도적으로 폐쇄적인 지적 공론장을 구성하게 되었다.

인쇄술의 발달과 종교개혁의 진행은 이러한 지적 공론장의 폐쇄성에 금이 가도록 만들었다. 인쇄업자를 위시한 예술가와 장인들을 중심으로 한 비식자층의 자기표현이 인쇄물을 통하여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사고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대중과 공유되는 상징과 자국어 표현을 기반으로 공론장의 영역을 확대하였다. 이는 오늘날 종교개혁이 확산되는 과정을 종교개혁가가 아닌 성도의 측면에서 들여다 볼 수 있는 창을 제공해주고 있다. 종교개혁가가 제공하는 메시지의 수용자이자, 이를 기반으로 한 발화자로서의 특징을 들여다봄으로써 개혁가의 메시지를 수용자가 어떻게 이해하여 재생산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상인들에게 종교개혁은 하나의 기회이기도 하였다. 15세기 중후반부터 성장한 인쇄업은 기술적 진보를 내재하는 신흥경제 분야였다. 기존에 필사에 기반한 인쇄업은 생산량의 한계라는 문제점에 직면하고 있었다. 인쇄물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필사는 적합한 기술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 진보는 생산량에 관한 기존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였다. 그러나 16세기 초입을 전후로 상품화할 수 있는 텍스트의 부족과 수요에 관한 문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종교개혁은 이러한 문제에 타개점을 제공해 주었는데 개혁가를 위시한 다양한 작가들 통해 풍부한 텍스트가 생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인쇄물을 구매하려는 구매층 또한 제공해 준 것이다.

일련의 사회적 배경은 다량의 인쇄물을 남겼고, 연구자들은 오랜 기간 종교개혁가의 텍스트에 주목하였다. 종교개혁가의 텍스트는 연구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연구되며 신학과 역사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종교개혁의 마이너 위치에 있었던 성도들의 시각과 비텍스트적 요소는 연구활동에서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기 어려웠다는 점, 연구소재로서 시각 이미지에 대한 관심이 적었다는 점 등에서 기인한 문제였다.

이러한 가운데 20세기에 들어서야 시각 이미지에 대한 주목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막스 가이스베르크(Max Geisberg)가 1500-1550년을 기준으로 1923-24년 동안 총 4권을 출판하였다. 그의 노력을 바탕으로 종교개혁 전후 시대의 주요한 시각 이미지 자료가 집약되었다(Max Geisberg, 1924). 선별된 이미지에서는 주로 시대의 상황이나 대중의 삶이 반영되어 있으며, 종교개혁과 관련한 다양한 풍자나 사건 이미지, 초상화, 정치행사, 범죄보고서, 문장 등이 수록되어있다. 이는 종교개혁 연구 뿐만 아니라 북부 르네상스 미술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왈터 스트라우스(Walter Strauss)는 목판화의 수집 연대를 확장하여 1975년과 77년에 각각 1550-1600년, 1600-1700년을 대상으로 이미지 모음집을 발간하였다(Walter Strauss, 1975, 1977). 80년대 초에 등장한 로버트 스크립너(Robert Scribner)의 연구는 해당 분야의 전반적인 기틀을 제공하였다(Robert W. Scribner, 1981). 그는 194개의 일러스트를 수집하여 각각의 주제를 분류 및 정리하여 당대 시각 이미지를 심도있게 살필 수 있도록 제공하였다. 미술사가인 키스 목시(Keith Moxey)는 당대의 목판 인쇄물이 예술품의 주류는 아니지만 시각 문화의 중요한 영역을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예술적 가치에 더해 목판 인쇄물에 등장하는 지문이 중산층과 상류계급의 개혁적인 가치관을 전파하는 도구였다고 보고 있다(Keith Moxey, 1989).

국내에서는 전한호는 미술사적관점에서 16세기 전반 프로테스탄트 미술의 특징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황대현은 매체사적 관점에서 전단지지의 가치에 대해 논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당대 사회에서 농민에 대해 가진 시각을 탐구하고 있다(전한호, 2018, 황대현, 2009,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만들어진 시각 이미지에 대한 연구는 많은 손길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일차적으로 방대한 시각 이미지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후 연구를 위해 작가들에 의해 다양하게 사용된 은유와 표현들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즉 중세 동안 전해져온 상징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북유럽 르네상스 문화 속에서 등장하는 암시와 상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정확한 접근과 해석을 위해서는 조악한 형태로 시각 이미지 내외부에 인쇄된 텍스트에 대한 독해가 필요하다. 상징과 표현만으로 시각 이미지를 해석하기에는 부정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성을 염두해 두고 본 논문에서는 16세기에 생산된 시각 이미지에 등장하는 배가 어떠한 메타포를 함유하고 있으며 그 가치가 변경되어 가는지를 논하고자 한다. 미르체아 엘리아데(Mircea Eliade)는 성스러움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스러운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야기하였다(Mircea Eliade, 1996). 이는 세속 공간과 성스러움이 깃든 공간을 구분함으로써 성과 속에 대한 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건축물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배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물을 통하여 일상적인 공간과의 거리를 만들어내며 배에 탑승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구분을 짓도록 해준다. 따라서 종교적 상징표현의 소재로써 배가 지닌 가치는 성스러움의 공간에 대한 것임과 동시에 배에 탑승하고 있는 공동체에 관한 것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16세기 중후반에 인쇄된 시각 이미지를 통하여 루터파 지지자가 지니고 있었던 신앙적 관념에 대한 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종교개혁 이전에 서유럽 기독교 세계에서 배가 지니고 있던 의미와 상징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이 발생하기 직전의 사회적 분위기에 대하여 비식자층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3장에서는 종교개혁 이후 등장하는 시각 이미지 가운데 배를 통하여 루터파 지지자의 세계이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앞서와 마찬가지로 작가들의 시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루터파 지지자로서 종교개혁 진행에 따른 세계인식의 변화를 함축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이다.

II. 기독교 전통과 항해

배는 이동과 운송의 수단이라는 근본적 특성으로 인해 일상의 공간과 사건의 공간을 분리하는 도구로써 종종 사용되었다. 이러한 개념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구약의 경우 노아의 방주, 모세의 갈대 상자, 요나의 일화에서 배가 대표적으로 등장한다. 이중 노아와 모세의 경우에는 모두 피난을 위한 도구이자, 안전한 공간으로써 배가 활용된다. 노아는 방주를 짓는 행위를 시작으로 세상과 자신을 구분 지었으며, 이후 홍수 속에서 안전을 도모하였다. 모세는 방주를 뜻하는 요람을 통하여 파라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남게 된다. 반대로 요나의 경우 명령을 어기기 위한 수단으로 배를 사용한다. 그는 니느웨로 가라는 명령을 배를 통해 위반하려는 것이다. 일련의 모습 속에 그것이 긍정적 의미이든 부정적 의미이든 배는 현재의 공간과 자신을 분리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에서는 더 자주 배가 등장한다. 이는 예수의 사역지가 갈릴리 호 주변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배는 설교공간이 되기도 하였으며, 기적과 체험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기도 하였다. 여기에 더해 예수의 열두 제자 중 5명(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의 본업은 어부로 이들의 삶과 배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였다. 따라서 예수를 만나는 과정이나, 예수가 돌아가신 직후의 일화 속에서 배에 관련한 다양한 일화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성경 속의 다양한 기록들은 중세를 거치는 동안 배가 기독교에서 특정한 관념을 가질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였다. 예를 들어 예수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항해하다가 폭풍우를 만나고, 이를 잠잠하게 만든 일은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마 8:23-27, 막 4:35-41, 눅 8:22-25). 토마스 아퀴나스

(Thomas Aquinas)가 성서의 주석을 모아놓은 『카테나 아우레아』(Catena Aurea)에서는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석을 싣고 있다.

Pseudo-Origen “비유적으로 우리는 모두 거룩한 교회라는 배에 타고, 주님과 함께 이 폭풍우 치는 세상을 항해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고난 받는 동안 자비로운 잠을 주무시고, 악인의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Rabanus, “바다는 세상의 소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타셨던 배는 십자가의 나무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자들은 십자가의 도움으로 세상의 파도를 건넌으며, ... 안전한 해안과 같은 천국에 다닙니다.”

Bede “배는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박해의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이 세상의 바다를 건너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탄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곧 고난에 직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은 신앙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고난을 부여하는 공간이며 배는 예수가 있는 안정된 공간으로 비교된다. 배를 타고 항해에 나서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추종자 무리와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항해 도중에 겪는 일화는 고난과 시험을 통해 신앙을 굳건하게 함을 보여준다. 이는 경험임과 동시에 훈련이기도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배는 ‘인생’이라는 가치를 함유한다. ‘출항-항해-고난-기항’이라는 일련의 서사구조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삶의 목적지인 천국에 다다르기까지 겪는 다양한 고난과 삶의 여정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기독교 문학 장르에서 특히 자주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천로역정』의 서사 구조가 이와 동일하다. 이 과정에서 난파선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시련에 꺾인 사람을 지칭하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 바울의 경우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권하며, 이를 잃은 이들을 파선한 사람으로 비유하였다(딤후 1:19)

중세 초의 다양한 전란 속에서 기독교 세계는 크게 위협받게 된다. 이슬람 세력은 피레네(Pyrenees) 산맥을 넘어 프랑스 지역에 진출하였고, 바이킹으로 상징되는 노르만(Norman) 족은 큰 물길이 있는 곳이라는 해안과 내륙을 가리지 않고 침입해왔다. 여기에 마자르(Mazar) 족으로 대표되는 기마 민족의 침입은 기독교 세계를 더욱 크게 위협하는 상황을 만들었다. 따라서 서유럽 각지의 기독교 문화는 지역적 특성을 내재하는 형태로 형성되었다.

특히 아일랜드 기독교는 지리적 고립과 문화적 독특성으로 인해 자신만의 개성을 드러내게 된다. 특히 기독교 요소를 내포한 문학 장르인 임람(Immram)은 7세기에 이루어진 기독교의 전파와 8세기에 나타나는 바이킹의 침략이라는 상황 속에서 등장하였다. 이는 ‘노 젓기·항해’라는 의미를 가

지고 있으며, 지역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결합된 대표적인 예이다. 주나미에 따르면 임람 문헌은 『브란 항해기(Immram Brain)』, 『말 둔 항해기(Immram Curaig Mail Dúin)』, 『코라후손들의 항해기(Immram curaig Ua Corra)』, 『스네드구스와 막 리어글라 항해기(Immram Snédgusa ocus Maic Riagla)』, 『수도원장 브렌다누스 항해기(Navigatio sancti Brendani abbatis)』로 구분된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점차 내면화되는 기독교적 가치와 상징을 들여다 볼 수 있으며 켈트 문화가 본래 지니고 있던 상징과 가치를 변용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주나미, 2021).

중세 시기 문학뿐 아니라 건축에서도 배의 가치가 함유된 공간을 찾을 수 있다. 성당 내의 공간은 그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각각의 용어로 불렸다. 이 가운데 회중들이 미사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공간을 네이브(nave)로 칭하였는데, 이는 배를 의미하는 라틴어 여성형 명사인 ‘navis’에서 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미사 집전자의 인도를 따라서 회중들은 같은 배를 탄 하나의 종교공동체 구성원으로 표상된다. 이들은 모두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배에 올라탄 형제이자 자매로 규정되는 것이다.

한편으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의 가치를 선전하고 숭앙하는 것에 집중하였다. 베드로는 성경의 일화를 따라 천국 열쇠를 받은 자로 표상되었으며 천국의 문지기로 여겨졌다(마 16:18). 그는 전도 사역을 이어가던 중 로마에서 순교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교황의 권위를 부여하는 기제로 사용되고 있다. 가톨릭에 의해 베드로는 초대 교황으로 규정되었으며 이후 교황은 그의 권위를 이어받은 존재로 표현되었다.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교황의 표장에 등장하는 금과 은으로 된 열쇠나 교황을 상징하는 어부의 반지를 통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베드로가 지닌 특수성을 부각하고, 그 권위를 중대시킴으로써 교황이 누릴 수 있는 권위 또한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부각할 수 있는 다양한 상징을 만들어냈다. 이 가운데 ‘성 베드로의 조각배’(Barque of St. Peter)는 예수가 물 위로 걷는 사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티프이다. 베드로는 일화 속에서 유일하게 호수 위를 잠깐이나마 걷게 되는데 이는 여타 제자들과 차별성을 보여준다. 그의 일화는 종종 미술 작품으로 표현되는데 특히 르네상스 예술의 시작점으로 평가받는 조토(Giotto di Bondone)의 모자이크화가 유명하다. 그는 옛 성 베드로 대성당(Old St. Peter’s Basilica)에 복원한 모자이크에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는 예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조토의 ‘성 베드로의 배’는 일차적으로 공간상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성 베드로 대성당은 가톨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축물로 교황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는 공간이다. 즉 가톨릭을 대표하는 공간으로서 가치를 함유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작품은 건물 외벽에 9.4×13m의 크기로 제작되었는데 이는 철저하게 프로파간다적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 작품에 등장하는 배는 결국 교회를 상징하며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배의 선장으로 안전한 항구인 천국으로 인도하는 존



Figure 1. Sebastian Brant, Das Narrenschiff (Basel: 1494). Hier nach der Ausgabe hg. v. H.A. Junghans, Leipzig: Verlag Philipp Reclam jun.,(1877). 103. Vom Antichrist.

중 일부를 천국의 열쇠로 건져내고 있다. 베드로는 성서를 펼치고서 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성구의 내용은 확인할 수 없으나, 그 내용이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으로 베드로가 성경을 펼쳐 들고 있는 것은 당시 점차 발전하고 있던 성경의 보급 상황과 성경을 중요시 하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토마스 아 캠프스(Thomas à Kempis)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나 북유럽에 나타나고 있던 공동생활형제회의 규율 등에서 성경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사회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던 것이다.

그림의 가장 앞자리에 앉아있는 사람과 끝부분에 앉아있는 두 사람은 양손을 모으고 자신들의 신심을 드러내고 있으며, 배의 하단에는 ‘성 베드로의 배(Sant peters Schifflin)’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다. 베드로는 열쇠를 이용하여 난파된 사람들이 탄 보트를 묶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기존의 표현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특징적인 점 중 하나는 베드로의 왼쪽

재로 표상된다(Eston Adams, 108).

성 베드로의 조각배라는 상징표현은 종교개혁 직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되었다. 다만 독일 작가들이 가톨릭에 대해 호의적이어서 표현방식이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도리어 독일 내의 분위기는 반가톨릭적인 성향이 강하였다. 가톨릭의 부패와 부정은 종교적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혼란 요소로 작용하고 있었으며 황제의 중앙집권적 권위가 약한 독일에서는 그 위험이 더 하였다. 그럼에도 동일한 상징이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기존에 사용되던 상징과 표현 양식의 재생산이라고 볼 수 있다. 특정 사회문화 내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던 상징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회적 불안과 가톨릭에 대한 불만이 높아져가는 상황에서 조차 특정한 상징체계가 쉽사리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제바스티안 브란트(Sebastian Brant)의 『바보배』(Narrenschiff)에 삽입된 삽화에서 뒤러(Albrecht Dürer)는 베드로를 적그리스도에 의해 침몰한 배에서 구원하는 존재로 그려내고 있다(Brant, 1494). 삽화의 근경에서 베드로는 침몰한 배에 탑승한 인원

검지가 가리키고 있는 책이다. 이는 등장인물이 베드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성서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인쇄술의 발전 이후에 대량으로 보급된 당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중세 말에서 근대 초로 넘어오면서 책의 지위는 비약적으로 상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각 이미지 상에서 책의 등장 횟수와 내포 의미가 확장되었다. 뒤러의 그림에서는 베드로의 구조 행위가 개인의 공덕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반하고 있는 것임을 보여준다.

또한 그림의 중앙에는 난파된 배의 모습이 보인다. 난파되어 뒤집어진 배에는 ‘적그리스도’(der Endkrist)가 앉아있다. 그는 악마가 귀에 넣어주는 바람을 통하여 악마의 사주를 받는 존재로 양손에는 돈자루와 채찍을 들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오른쪽에는 방울이 달린 바보고깔이 놓여 있다. 방울이 달린 바보고깔을 쓴 사람들과 점성술사의 모자를 쓴 사람들은 파선한 배에 올라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운명은 물에 빠진 다른 바보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한편 텍스트에서 종교개혁 이전의 불안정한 기독교의 상황을 보여준다. 브란트는 “성 베드로의 나무 돛단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 나는 그것이 바다에 가라앉는 것이 걱정됩니다. / 파도가 사방에 밀려와 / 그것은 혼란과 곤경에 처할 것입니다”(Brant 1494/1964: 388).라고 기술하고 있다. 익히 알려져 있다시피 종교개혁 직전의 대립교황 문제, 종교계의 부패와 사회적 혼란, 민중의 반발은 당대가 지니고 있던 불안정함을 그대로 보여준다. 책의 저자인 브란트와 삽화의 원작자인 뒤러는 『바보배』에서 직접적으로 가톨릭을 공격하지는 않았으나,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모습을 보인다. 예를 들어 책의 13장에 등장하는 삽화에서 한 성직자가 비너스의 올무에 묶인 채 그녀에게 결박당해있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는 육욕에 묶인채 비너스의 노예가 되어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당대 성직자들의 축첩 혹은 성적 문란함을 비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스 쥘스(Hans Süss von Kulmbach)의 <가톨릭 교회의 침몰하는 배>(Das sinkende Schiff der katholischen Kirche)에서는 반가톨릭 관점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 목판화는 조세프 그뤼넵(Joseph Grünpeck)의 『모든 환난과 두려움에 대한 자연적이고 우주적이며 예언적인 규범서』(Ein Spiegel der natürlichen himmlischen vnd prophetischen sehungen aller trübsalen, angst)에 삽입되어 있다. 책은 당대 유행하던 예언집으로 사회적 불안정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책자는 당대에 꽤나 인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508년에는 라틴어 판본과 독일어 판본이 각각 출간되었으며, 1522년에는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독일어 판본이 재차 출간되었다. 책자가 출판된 곳은 뉘른베르크로 삽화의 작가인 쥘스 또한 이 도시에서 활동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뉘른베르크가 종교개혁 시기에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쥘스의 삽화에 등장하는 선박은 『바보배』와 달리 명백히 가톨릭의 배이다. 이 배의 마스트에는



Figure 2. Joseph Grünpeck, Ein spiegel der natürlichen himlischen vnd prophetischen sehungen aller trübsalen, angst, vnd not, die vber alle stende, geschlechter, vnd gemaeynden der Christenheyt, sunderbar so dem Krebsen vnder geworffen sein, vnd in dem sibenden Clima begriffen, in kurzen tagen geen werden, (Nürnberg: 1508), 24 [VD16 G 3642].

전히 부서졌다는 것은 배가 그 방향성 혹은 목적지를 잃은 채 난파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당대 가톨릭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집약되어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의 중앙이자 배의 중앙 및 선미에 해당하는 부분에는 교황을 위시한 성직자가 침몰 중이다.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추기경은 이미 상체까지 물에 잠겨있으며, 뒤편으로는 위협에 빠진 수도사의 모습이 보인다. 교황은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있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변화나 조짐이 없다. 이는 그의 부르짖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이 시기에 생산된 이미지에서 하나님의 가호가 있는 경우 구름 사이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거나, 하나님의 손이 등장하는 형태로 표현된다. 즉 이러한 표현 없이 두 손을 든 채 파선되는 상황은 구원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황 옆에서 자신의 신심을 보이고 있는 주교의 행동 또한 무의미한 믿음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마스트와 십자가 사이의 형태적 유사성에 기인한 것이다. 중세 혹은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선박을 표현함에 있어서 종종 마스트 대신 십자가가 표현되거나 가장 큰 돛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달린 형태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은 항해에 있어 배의 주인 혹은 배의 동력이 예수임을 표현하는 것으로 형태뿐 아니라 역할에서의 유사성 및 가치를 내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에는 성직자와 세속의 군주 및 권세 있는 자들이 탑승하고 있는데 이는 곧 예수의 가호 아래 있는 기독교 세계 전반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속에서 배는 크게 세 조각으로 쪼개졌다. 가장 왼쪽 편에는 세속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으며, 중앙에는 교황과 성직자들이, 오른쪽에는 키가 후미와 함께 파선되어 있다. 키는 배에서 방향을 결정한다는 점 때문에 배를 상징하는 그림 속에서 중요한 상징 도구로 활용된다. 삽화에서처럼 키가 완

선수에는 왕(혹은 황제)을 위시한 귀족들이 침몰하고 있는 가톨릭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왕관과 고급스러운 복장, 할버트와 같은 무기를 든 모습은 교회 권력에 대비되는 세속 권력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아직까지 성직자와 다른 형편을 보여주고 있다. 선수는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이며, 이로 인해 두 배는 각기 다른 배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세속의 인물들이 타고 있는 배와 성직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한 척으로 종국적으로는 같은 운명을 지니고 있다. 이들 가운데 왕의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은 손으로 돛을 붙잡고 있다. 이는 어떻게든 항해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보여주지만, 팽팽하게 돛이 당겨진 상황 속에서 그 운명은 쉽사리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취쓰의 삽화에서 가톨릭의 미래는 절망적이다. 풍랑으로 인한 파선과 오른편에 위치한 절벽은 물에 빠진 이들이 살아날 가망이 없음을 보여준다. 뒤러의 그림에서 안전한 해안에 당도하는 일부 사람과 달리 이들에게는 닿을 수 있는 해안이 없는 것이다. 1522년에 출판된 독일어 판에는 이러한 관점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성 베드로의 돛단배는 몇 년 안에 수많은 위험한 암석에 의해 박살 날 것입니다(das Sankt Peters Schifflein soll zu disen iahren na vil fels der ungefel zerstossen)”라고 기술되어 있다(Stephan Leibfried and Wolfgang Winter, 2014). 1522년은 루터가 바르트부르크(Wartburg)에서 침거를 마치고,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때이자, 독일어로 신약성서가 편찬된 해이다. 즉 종교개혁에 관한 고민과 논의가 강렬하게 진행되고 있던 시기로 성 베드로의 돛단배에 대한 침몰 예언은 곧 루터파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에서 배 혹은 항해에 관련한 이미지는 오랫동안 상징적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구약에서 등장하는 사건에서부터 예수의 사역 모두에서 등장할 뿐만 아니라 중세를 지나오면서는 기독교를 공유하는 집단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동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배를 탄 공동운명체로 상정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베드로 혹은 베드로의 후계자는 승선한 이들을 안전하게 목적지인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존재로 규정되었다. 성 베드로의 조각배는 이러한 흐름을 집약하여 보여주는 관념으로 좁게는 베드로가 겪은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자, 넓게는 가톨릭의 영향력이 닿는 모두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성 베드로의 조각배의 관념과 상징체계는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지만, 종교개혁이 진행되던 시기에는 공격당하거나 변용되기 시작하였다.

III. 고난 대상의 설정과 표현

종교개혁 이후 발행된 다양한 인쇄물에서는 반가톨릭적 가치를 다수 내재하고 있다. 이는 루터파의 가치가 가톨릭에 반하여 등장한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가장 단순

한 방식은 교황을 악마와 동일시하거나 악마의 하수인으로 규정하는 것이었다(오종현, 2018). 선과 악이라는 단순한 대립과 논리는 대중을 이해시키기 쉬운 방식이었으며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루터의 개혁을 선의 위치에 놓고, 가톨릭의 존재 특히 그 대표자인 교황을 악의 위치에 놓음으로써 대상을 악마화하는 모습은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시각 이미지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는 모티프이다.

마티아스 게룽(Matthias Gerung)은 종교개혁을 옹호한 대표적 작가로 1500년 경에 슈바벤 지방의 뇌르트링겐(Nördlingen)에서 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주거지를 뉘른베르크로 옮겼으며 뉘른베르크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한스 사이펠린(Hans Leonhard Schäufelin)의 제자가 되었다. 1540년대에 만들어진 게룽의 두 작품에서는 배를 이용하여 반가톨릭의 가치가 명백하게 표현되고 있다.



Figure 3. Matthias Gerung, Der Papst und der Römische Klerus in einem sinkenden Schiff, (1545), 23.3x16.3cm, Coburg, Kunstsammlungen der Veste Coburg

먼저 1545년에 제작한 <침몰하는 배의 교황과 로마의 성직자>(Der Papst und der Römische Klerus in einem sinkenden Schiff)는 풍랑 속에서 침몰하고 있는 가톨릭의 배를 보여준다. 근경에 그려진 이 배는 강한 파도에 이미 1/3쯤 잠겨있다. 폭풍우 치는 바다의 파도는 이미 갑판을 덮치고 있으며, 마스트는 기울어져 있다. 침몰 위기 속에서 교황을 비롯한 성직자들은 성찬을 진행하고 있으며, 탁자 위에는 이를 입증하듯 포도주가 든 주수병과 성합이 놓여있다. 비록 교황이 성찬을 집전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기독교 신앙에 기인한 것은 아니다. 교황의 위편으로 악마가 내려오고 있으며, 그 입김으로 교황을 이미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의 후미에는 파선이 가까운 상황 속에서 두 명의 추기경이 면벌부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면벌부와 그들 앞에 있는 교황의 천국 열쇠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도리어 가톨릭의 배는 위협 속에서

헛된 존재에 의지하고 있는 형태로 표현되고 있다. 가톨릭의 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원경에 등장하는 두 척의 성직자가 탄 배에도 동시에 적용된다. 원경의 오른쪽에 존재하는 배에는 주교들이 탑승해있는데, 비구름이 배를 쫓아가며 비를 뿌리고 있다. 파도 속에서 배는 선수가 물에 잠겨있으며 돛을 펴지 못한 채 항해를 포기하고 있다. 또 한 척의 작은 배에는 채발을 한 수도사의 모습이 보인다. 그가 타고 있는 배 또한 가톨릭의 배와 같이 기울어져 있으며 위협적인 상황에 처해있다.

삽화의 왼편에는 왕관을 쓴 인물이 홀을 들고 있다. 그가 타고 있는 자리는 고급스러운 햇볕 가리개로 덮여있으나 그의 운명 또한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이다. 마스트는 기울어져 있으며, 배의 한편은 물에 이미 잠겨있다. 그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알고는 있으나 문제를 타개할 수는 없다. 그에 반해 원경에서 물에 도착한 이들은 안전한 곳에 도착하였다. 물의 중앙에 있는 이는 도착한 사람들을 반기고 있으며, 또 다른 편에서는 도시를 가리키며 사람을 인도하고 있다. 이

들이 가고 있는 도시는 천국으로 상정되는 공간이다. 이는 ‘성 베드로의 조각배’가 당도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자, 신앙에 있어서 종착점이라 할 수 있다.

계룡의 또 다른 작품인 <불신자들과 로마 성직자에 의해 위협에 처한 그리스도의 배>(Das Boot Christis, gefährdet von Ungläubigen und dem römischen Klerus)에서는 배의 주인이 예수로 변경되었다. 광휘에 쌓인 예수 주위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이들이 모여 있으며 선수와 선미에는 각각 사도가 지키고 있다. 칼을 들고 있는 바울과 열쇠를 들고 있는 베드로가 위치해 있다. 그리고 다른 두 명의 사도는 괴물로부터 얻어낸 전리품을 들고 있다. 마스트 아래에는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다. 작가의 성향과 작품의 방향성을 볼 때 이는 루터파 혹은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의 교회임을 알 수 있다.

한편 계룡이 제작한 1548년 작품에는 루터파를 위협하는 두 세력이 묘사되어 있다. 원



Figure 4. Matthias Gerung, Das Boot Christis, gefährdet von Ungläubigen und dem römischen Klerus, (1548), 23.3×16.3cm, Braunschweig, Herzog Anton Ulrich Museum

경의 좌우에 위치한 두 척의 배가 그것인데, 각각 술탄과 교황이 그 추종자들과 함께 승선해있다. 두 배의 선미에는 각기 용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들은 루터파의 배를 침몰시키기 위하여 바람을 내뿜고 있다. 그러나 악마의 공격은 배를 지키고 있는 두 명의 천사에 의해 무력화된다. 천사들이 악마의 입김에 맞대응하여 바람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계룡이 루터파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가톨릭과 이슬람 세력을 지목한데는 루터파에 다가온 위협이 이중적이었음을 보여준다. 가톨릭과 루터파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일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오스만투르크 군대의 빈 포위로 상징되는 이슬람 세력의 위협은 루터파에게도 직접적인 위협으로 여겨졌다. 이들의 강맹한 전투력 앞에서 이슬람 세력은 종말 직전에 출현하는 ‘곡과 마곡’(Gog and Magog)으로 인식되었으며, 심지어 반루터파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빈(Wien)을 루터파의 성서에서 성스러운 도시로 표현하도록 만들었다(오종현, 2019). 결국 계룡의 그림에 나타난 두 세력의 위협과 결탁은 루터파에게 다가오는 실재적 위협을 축약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근경에는 침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이미 침몰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 특히 예수가 있는 배의 아래에는 주교와 추기경이 이미 물에 빠져있다. 그 외에 다양한 괴물이 물에 빠져있는데 이는 괴물이 예수가 있는 배를 공격하려다 실패한 존재들이다. 또한 삽화의 가장 아래 부분에는 한 척의 배가 침몰 중이다. 배에 있던 사람들은 혼란과 죽음의 공포에 빠져있다. 이들은 특별한 계급이나 계층을 상징하기보다는 당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종교개혁의 흐름 속에서 가톨릭을 따르는 이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계룡의 두 작품은 루터파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급증하던 시기에 제작되었다. 1531년에 만들어진 슈말칼덴 동맹은 1540년대에 이르면서 변곡점을 겪고 있었다. 방어적인 가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동맹은 반(反) 합스부르크 성향이 강조되면서 결속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1547년에 벌어진 뮐베르크 전투(The Battle of Mühlberg)에서 작센의 선제후이자 슈말칼덴 동맹의 핵심 인물인 요한 프리드리히 1세(Johann Friedrich I)가 붙잡힘으로써 종교개혁 세력에 최대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다. 이는 정치적 위기임과 동시에 루터파 전체에게도 위기였다. 종교개혁의 중심지였던 비텐베르크는 요한의 반대편에 있었던 모리츠에 의해 점령되었고, <95개 조항>이 처음으로 붙었던 성 비텐베르크 교회의 문은 불타올랐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작가에게 가톨릭과 이를 지지하는 세속 군주는 비판의 대상으로 설정되었다.

슈말칼덴 동맹의 위기는 신성로마제국 내 정치 변화 속에서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북부의 도시들은 여전히 황제에게 저항하였으며, 황제 편에 서서 비텐베르크를 점령했던 모리츠(Moritz von Sachsen)가 지지를 철회하면서 제국 내 전쟁은 지루하게 지속되는 양상을 갖게 되었다. 1552년 파사우 조약을 기점으로 전쟁은 종료되었으나 사회적인 불안은 지속되었고,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Augsburger Religionsfrieden)를 기점으로 제국 내에서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게 되었다.

정치적인 흐름과 함께 1546년에 루터가 사망한 이후 루터가 없는 루터파는 키를 잃은 배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었다.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를 잃은 루터파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상황에 밀려 종교 교리에 있어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예를 들어 오늘날 가장 유명한 루터파 지도자인 멜란히톤(Philipp Melanchthon)은 요한 프리드리히에서 모리츠로 선제후가 바뀐 이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 반발을 겪기도 하였다. 16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까지는 서유럽지역의 3대 교파(루터파, 칼뱅파, 가톨릭 교회)가 자기 정체성을 구축 및 강화하는 교파화의 시대라 할 수 있다(박준철, 2016).

작가 한스 바이겔(Hans Weigel der Ä)은 1520년에 암베르크 혹은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며 1549년 2월 13일에 뉘른베르크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다. 그는 목판화가이자, 인쇄업자로 주로 활동하였으며 초상화, 동물화, 종교화, 소식지 등 다양한 주제의 인쇄물을 만들었다. 그의 작품 가운데 교회의 배(Das Schiff der Kirche)는 16세기 1550에서 157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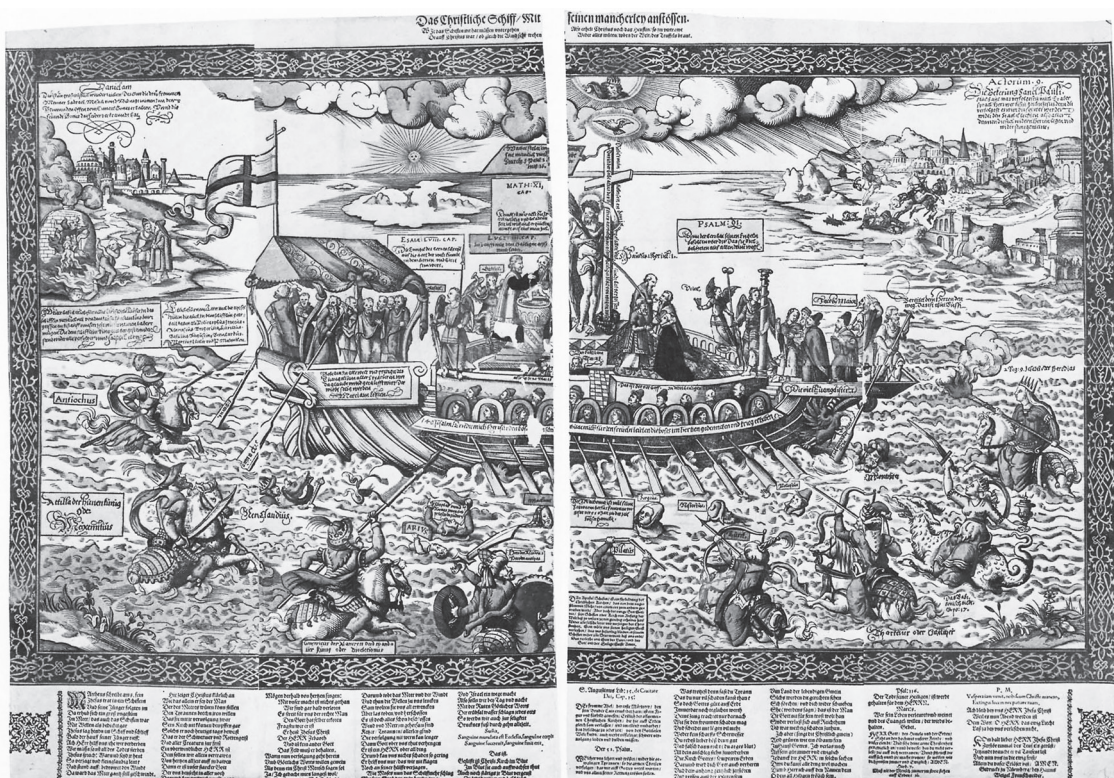


Figure 5. Hans Weigel der Ä, Das Schiff der Kirche(1570?) 69x104cm, London, British Museum

로 추정되는데 이는 마티아스 쥘트(Matthias Zündt)가 채색 형태로 제작한 복제본인 기독교의 배(Das Christliche Schiff)가 1570년에서 1577년 사이에 제작되었기 때문이다.

삽화는 항해하는 배와 이를 공격하는 무리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의 중앙에는 루터파의 배가 노를 저으며 항해하고 있으며 바다 위에는 물에 빠진 사람과 탈 것 위에 탄 자가 배를 포위하고 있다. 배의 중심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Kommst zu mir, alle, die ihr mühselig und beladen seid, ich will euch erquicken, Nehmt auf euch mein Joch und lernt von mir) (마 11:28-29)는 문구와 함께 예수가 십자가를 안고 서 있다. 십자가 옆면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Dies ist mein lieber Sohn, an dem ich Wohlgefallen habe)(마 3:17)”라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데 이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와 구름 뒤의 성부로 연결된다. 이러한 구도는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장면을 재차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삼위에 대한 기존의 표현과 관념을 계승하고 있다.

마스트가 위치한 자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는 악마를 상징하는 뱀을 십자가로 누르고 있으며,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성혈을 내고 있다. 성혈은 예수의 좌우로 흩어지는데 이는 각각 세례와 성찬으로 떨어지고 있다. 이는 세례와 성찬을 강조하는 것으로 루터파 인정한 성례이다. 본래 가톨릭에서는 일곱 가지 성례를 내세우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신자들의 종교적 삶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루터는 이 가운데 세례와 성찬만을 인정함으로써 양자 간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성례가 집전되는 마스트 주변의 공간은 네 천사(가브리엘, 라파엘, 우리엘, 미카엘)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는 루터파의 성례에 대한 가치가 굳건하게 지켜짐을 의미한다. 네 천사는 각각 예수가 겪은 고난을 상징하는 도구와 함께 불 칼과 나팔을 들고 있다. 특히 우리엘의 위편에는 시편 91편의 어구인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Denn er hat seinen Engeln befohlen über dir, daß sie dich behüten auf allen deinen Wegen)(시 91:11)”라는 어구를 삽입함으로써 천사들에 의해 루터파의 성례가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이 가운데 세례를 받는 대상이 유아인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세례의식 중 유아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개혁 세력 내에서 논쟁을 불러일으킨 주제이다. 특히 재세례파는 유아세례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으며, 이들의 활동 중에는 뮌스터(Münster)의 얀 반 라이덴(Jan van Leiden)으로 대표되는 인물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이겔이 유아세례를 삽입하는 것은 루터파가 재세례파와는 확연히 다른 종교적 가치관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배의 선미와 선수에는 각각 예수를 따르는 사도와 성서 속 신약 주요 인물이 그려져 있다. 특히 선수에는 예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와,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세

레 요한이 키를 잡고 있다. 그 옆으로는 네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중 발치에 독수리가 있는 사도 요한만을 구분할 수 있다. 선미에는 사도들과 복음을 전도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가운데 칼을 들고 있는 베드로를 제외하고 다른 인물은 외견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선미와 선수에 존재하는 인물들은 성경을 쓰고 있거나, 성경을 읽고 있다. 이는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루터파의 특징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배의 옆면에는 기독교 세계를 수호하는 세속의 권력자들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이 누구인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작가가 이들에게 부여한 가치는 성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다. 배의 난간을 따라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전하소서(Errette mich, HERR, von den bösen Menschen; behüte mich vor den freveln Leute)”(시 140:1)라는 성구가 새겨져 있기 때문이다.

배를 공격하는 무리는 기독교 세계 전반에 걸쳐 등장한 ‘적’을 표현하고 있다. 안티오쿠스 4세, 아틸라, 네로, 디오클레티아누스 아리우스, 헤롯 대왕, 헤롯 안티파스, 본디오 빌라도, 네스토리우스, 펠라기우스, 아리우스, 세르지오, 무함마드, 바빌론의 음녀, 이세벨 등의 인물이 배의 주변에 빠져있거나, 배를 공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이슬람의 복식 혹은 유럽의 복식을 하고 있으며 창, 칼, 활 등으로 무장하고 있다.

루터파의 배를 공격하는 이들 가운데 교황을 위시한 가톨릭 세력이 등장하지 않는 점은 이례적인 변화이다. 종교개혁 직후부터 루터파를 지지하는 작가들은 교황을 악마화하거나 그 추종자들에 대한 비난을 지속적으로 시각화하였다(오종현, 2012). 이들은 종종 루터를 신성화하였으며, 반대급부에 있는 교황을 악마화하였다. 즉 교황을 악마 그 자체로 표현하거나, 혹은 악마의 조종을 받는 그 하수인으로 표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톨릭의 인물들을 동물로 비하하거나, 비이성적 존재로 규정함으로써 루터파의 가치를 선전하였다.

작품이 제작된 시기가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불안정하나마 신앙의 자유를 얻게 된 시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작품의 메시지는 외부로 향하기보다는 내부를 향하는 것이었다. 즉 가톨릭에 대한 비판과 공격을 통해 자기 정의를 하던 방식이 아닌 내부의 교리 강조와 이를 기반으로 한 미래로 나아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처럼 1550-1570년 사이의 루터파는 내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황제의 군사 행위가 지속되고 있었고, 루터 사후 신학자들은 자신의 논지를 명확하게 내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그림의 원경에 등장하는 두 주제는 당시 루터파가 고난의 시기에 있음을 함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먼저 원경 중 왼편에는 네부카드네자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거센 불길에 집어넣은 사건이 표현되어 있다. 이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을 유지함으로써 보다 숭고한 신앙과 보상을 얻게 된다.

다음으로 원경 중 오른쪽에는 ‘바울의 회심’이 표현되어 있다. 바울은 다메섹을 향하던 길에 하늘에서 내려온 강한 빛을 마주하게 되었고,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울에서 기독교를 전파하는 바울로 회심하였으며 동지중해를 중심으로 다양한 선교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종교개혁 직후 루터파를 지지하던 많은 작가들은 공격적으로 목판 인쇄물 제작에 나선다. 이들은 가톨릭 교회에 대하여 교리, 도덕, 상징, 이상 징후 등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이는 인쇄술을 타고 대량으로 생산 및 유통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 가운데 배 혹은 항해의 이미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를 기반으로 재생산되는 모습을 보인다. 즉 하나의 공동체로 표상되던 가톨릭의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했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새로운 대안인 루터파의 배는 안전하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공동체로 표현된 것이다. 이러한 표현은 루터파를 둘러싼 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점차 변경되는데 슈말칼덴 동맹의 패배와 종파 내 내부 갈등 속에서 대립과 공격의 가치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고난을 극복하고, 내부적인 교리 및 가치를 다지는 형태로 그려지게 된다.

IV. 결론

기독교 문화 속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신앙을 지켜내는 가치와 연관성을 가진다. 이는 배가 지니고 있는 ‘출항-항해-고난-기항’이라는 기본가치에 인간의 삶이 대입되기 때문이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례들은 대다수 항해를 통하여 더 나은 믿음을 얻게 된다. 반대로 항해에 실패한 이들은 자신에게 닥쳐온 시련을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믿음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표현된다. 이러한 가치는 중세를 거치며 더욱 확장되는데 배가 한 사람 혹은 소수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 전체를 상징하는 대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세 초기의 교회 건축물은 혼란하고, 무질서하며, 폭력적인 세상과 분리된 안정적이고, 평온한 ‘배’로 표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수장으로서 교황의 가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전하게 항해하는 ‘선장’의 역할로 규정되었다.

중세 말에 이르러 교회의 부패와 혼란이 증대하자 이러한 시각은 종종 교회가 난파될 수 있다는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사회적 혼란이 증대하거나 종말론과 관련한 이야기가 득세할수록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종교개혁을 지지하던 작가들은 가톨릭 교회라는 배가 침몰하는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 성 베드로의 배는 교황의 권위를 높여주던 상징체계였으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도리어 공격과 비난의 대상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제 교황은 잘못된

선장이자 자신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지켜줄 수 없는 인물로 묘사되었다. 종교개혁 직후 작가들은 예수를 루터파의 편에 두고, 교황을 그 대척점에 두었다. 교황에 대해 악마 자체 혹은 악마의 지배를 받는 자, 또는 적그리스도로 규정된 것이다. 이러한 흐름은 배를 이용한 표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교황이 타고 있는 배는 악마가 이를 지배하고 있기에 파선 위기에 빠져있으며, 루터파의 배는 예수가 주관하고 있으므로 안전한 것이다. 사실, 예수를 내세우는 관념은 종교개혁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계된다. 종교개혁가들은 신과 신자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던 성직자의 가치를 부정하였다. 만인제사장설은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구원은 중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수와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로 변화되어 규정된 것이다.

한편으로 사회적인 환경의 변화는 종교개혁을 찬동하는 사람들에게 이슬람에 대한 반감을 내재시켰다. 이슬람 세력의 유럽진출이 활발해지고, 심지어 합스부르크 왕가의 수도라 할 수 있는 빈이 위협을 받는 경험을 하면서 이슬람 세력에 대한 반감이 더욱 증대되었다. 이는 곧 천국으로 나아가는 항해를 표현함에 있어 장애물로 이슬람 세력을 규정하도록 만든다. 이슬람 세력의 위협은 종교적인 위협이면서도 정치적이고 현실 생활에서의 위협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종종 작가들에게 모순을 불러일으켰다. 반가톨릭 가치를 견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의 패배가 서유럽 기독교 세계 전체에 대한 신의 구원이자 은혜로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루터파를 둘러싼 사회 환경의 변화는 ‘루터파의 배’에 관한 표현을 변화시켰다. 1546년에 루터가 죽고, 그 이듬해에 뮐베르크 전투에 요한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패배하여 포로로 잡혔으며, 황제의 군사 활동이 지속되는 가운데 루터파 신학자들은 명백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비록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를 통해 통치자에 따른 종교적 자유가 허용되었으나 루터파의 내홍은 지속되었고, 1577년에 가서야 『일치신조』(Formula of Concord)를 통해 갈등이 봉합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루터파의 배는 공격적인 개념이 아닌 가치 정의의 개념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비난과 비판의 도구로써 이미지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내부 가치를 선전하고, 규정하며, 천국에 대한 항해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박준철 (2016). 16세기 중후반 독일 루터파의 교리적 정체성 확립, **독일연구**, 33, 한국독일사학회, 5-37.
- [Park, J. C. (2016). The Establishment of Doctrinal Unity of the Lutheran Church during the Late Reformation. *Korean Journal of German Studies - History, Society, Culture*, 33, 5-37.]
- 오종현 (2012). 신성한 루터 만들기 -16~17세기, 루터 백조이미지에 대하여-. **역사학연구**, 45, 호남사학회, 239-266.
- [Oh, J. H. (2012), The making of divine Luther -for the image of Luther's swan in 16~17 century-. *Chonnam Historical Review*, 45, 239-266.]
- 오종현 (2018). 「'루터파' 선전과 교황의 타자화: 시각 인쇄매체를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41, 한국서양중세사학회, 77-103.
- [Oh, J. H. (2012), Lutheran Propaganda and Pope's Otherization: Focusing on Visual Print Media. *Journal of Western Medieval History*, 41, 71-103.]
- 전한호 (2018). 종교개혁과 미술의 변화 : 크라나흐와 뒤러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양중세사연구**, 41, 한국서양중세사학회, 105-141.
- [Jeon, H. H. (2018), The Reformation and the Change in the Visual Arts. *Journal of Western Medieval History*, 41, 105-141.]
- 주나미 (2021). 중세 아일랜드 항해기에 나타난 가치체계의 변화, **서양중세사연구**, 48호, 한국서양중세사학회, 35-95.
- [Ju, N. M. (2021), Change of Value Systems in Medieval Irish 'Immram', *Journal of Western Medieval History*, 48, 35-95.]
- 황대현 (2009). 독일 종교개혁 전단지 -승배대상에서 선전도구로 변화한 시각적 이미지-, **사림**, 34, 수선사학회, 269-295.
- [Hwang, D. H. (2009), The Broadsheets of the German Reformation : The Transition of Visual Images from the Object of Devotion to the Instrument of Propaganda, *SARIM*, 34, 269-295.]
- 황대현 (2010). 종교개혁 초기 전단지에 투영된 농민의 이미지 -뉘른베르크 전단지 작가들의 작품 4편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105, 한국서양사학회, 5-39.
- [Hwang, D. H. (2010), The Images of Peasants Reflected in the Broadsheets in the Early Phase of the Reformation: A Study on the Four Broadsheets from Nuremberg, *The Western History Review*, 105, 5-39.]

- Brant, Sebastian. (1494) *Das Narrenschiff*. Basel, Hier nach der Ausgabe hg. v. H.A. Junghans, Leipzig: Verlag Philipp Reclam jun., 1877.
- Adams, E. D. (2018). *The History and Signification of the Navicella Mosaic at St. Peter's Basilica, Rome*. Electronic Theses and Dissertations, Ph.D. diss., University of Louisville, Louisville, KY, USA.
- Geisberg, M. (1924). *Der deutsche Einblatt-Holzschnitt in der ersten Hälfte des XVI. Jahrhunderts*, München: Hugo Schmidt Verlag Munich.
- Leibfried, S. and Winter, W. (2014) *Ships of Church and State in the Sixteenth-Century Reformation and Counterreformation*, Bremen: European University Institute.
- Moxey, K. (1989). *Peasants, Warriors, and Wives: Popular Imagery in the Reform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ribner, R. W. (1981). *For the Sake of Simple Folk - Popular Propaganda for the German Reform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trauss, W. (1975). *The German Single-leaf Woodcut, 1550-1600, A Pictorial Catalogue*. Norwalk: Abaris Books.
- Strauss, W. (1977). *The German Single-leaf Woodcut, 1600-1700, A Pictorial Catalogue*. Norwalk: Abaris Books.
- Zoepfl, F. (1964). *Stolberg-Wernigerode, Otto zu, Neue deutsche Biographie, Bd.: 6, Gaál-Grasmann* (Berlin: Duncker & Humblot, 1964).
- Catena Aurea retrieved from <https://ccel.org/ccel/aquinas/catenal/catenal.ii.viii.html>
- Deutsche National Bibliothek, retrieved from <https://www.dnb.de/>
- Deutsche Digitale Bibliothek - Kultur und Wissen online retrieved from <https://www.deutsche-digitale-bibliothek.de>
- MDZ Münchener Digitalisierungszentrum Digitale Bibliothek retrieved from <https://www.digital-sammlungen.de/>
- The British Museum retrieved from <https://www.britishmuseum.org>

16세기 후반 기독교 세계의 고난과 구원의 상상: 루터파 항해 이미지 분석*

A Study on Imagination of Suffering and Salvation in the Christendom in the
Late 16th Century: Analysis of Lutheran Voyage Images

오종현 (전남대학교)

ABSTRACT

배와 항해에 대한 메타포는 기독교의 역사에서 자주 사용되었다. 성서에 기록된 내용뿐 아니라 예수의 사역과 제자들의 삶에서 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였다. 중세를 거치는 동안에도 배의 의미는 공동체적인 가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건축물과 상징표현들에서도 등장하게 된다. 15세기를 전후로 등장하는 다양한 배에 관한 삽화들은 중세적 표현 전통을 계승함과 동시에 불안한 사회와 가톨릭에 대한 불안감을 내포하고 있다. 종교개혁이 진행되면서 이러한 표현은 더욱 적극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루터파를 지지하는 작가들이 가톨릭을 비판하는 표현 중 하나로 ‘배/항해’ 이미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루터파를 둘러싼 정치적 지형과 종교적 상황이 변화하면서 기존의 메타포 사용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슈말칼덴 동맹의 패배 이후, 종파 내 교리를 둘러싼 갈등은 루터파 지지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가톨릭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들의 교리나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나게 된다.

주제어: 종교개혁, 이미지, 항해, 상징, 루터파, 게룽, 바이겔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unseling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박안나 (Anna Park)**

김 준 (Jun Kim)(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 research methodology suitable for Christian counseling research that presupposes a Christian worldview.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orldview and research method, which is the basis of the counseling research method, research methodology is worldview-dependent. In addition, the content of the Christian worldview was reviewed in terms of ontology, epistemology, and value theory. From a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an individual's life can be the subject of scientific study as a contextual case in the great story of the kingdom of God. Among the scientific methods of analyzing cases, the philosophical point of view that positivism presupposes does not correspond to the Christian worldview, and constructivism is consistent with the epistemological aspect. Critical realism, which resolves ontological conflicts, is the perspective that narrows the distance from the Christian worldview in terms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Therefore, the case studies emphasized from this point of view are suitable for research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and science and communication are also emphasized. Through this study, it is meaningful in that it awakens the importance of worldview in research and that case studies provide a valid basis for Christian worldview-based research.

Key words: counseling research, research methodology, worldview, Critical Realism, case study

* 2022년 2월 11일 접수, 3월 10일 최종수정, 3월 11일 게재확정

본 논문은 총신대학교 박안나의 박사학위논문(2021년 2월, 지도교수:김준)의 일부를 요약 및 재구성한 논문임

** 헤세드 상담센터(Hessed Counseling Center) 실장,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7길 34-2, annapark236@gmail.com

***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교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학촌로 110, junkim24@gmail.com

1. 여는 글

1949년 미국 Boulder에서 개최된 임상심리학 대학원 교육에 관한 회의(Boulder Conference on Graduate Education in Clinical Psychology)에서 이루어진 심리치료분야의 주요 합의를 “과학자-실무자 모델”이라고 부른다. 모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회의는 심리치료가 사회적인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효과를 입증해 나가야한다는 것을 공식화했다(안현의, 2003).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때 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과학적 방법이란 현상들 간의 관계를 논리와 수리로 표현하는 양적 개념을 의미한다. 실증적 성격의 과학은 근대 이후로 지배적인 사상이 되어 지금까지 학문 영역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기준이 되었고, 심리치료 분야도 ‘사회 과학’으로 분류되었다.

심리상담 영역에 과학의 영향력이 파고들면서 무엇을 ‘과학’적인 것으로 보느냐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다(안현의, 2003). 국내에서는 박성희(1996)가 과학이라는 ‘인정된 관점’과 대비되는 ‘대안적 관점’의 상담 연구 방법론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고, 이장호, 김정옥(1998)은 다양한 패러다임으로의 확장성을 주장하면서도 ‘인정된 관점’의 상담 연구 방법 또한 더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후 상담 연구 주제인 인간 현상을 연구하는 데에는 양적 연구 방법이 한계가 있거나 적절치 못하다고 주장이 등장함에 따라 질적 연구 방법론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이장호, 김정옥, 1998; 안현의, 2003) 질적 연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질적 연구가 상담 연구 방법의 하나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게 되었다(박성희, 1996; 박승민, 2012; 권경인, 양정연, 2013). 그러나 양적 연구는 그 수와 영향력 면에서 여전히 상담 연구 영역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조성호, 2003; 김계원, 정종진, 권희영, 이윤주, 김춘경, 2011).

이러한 상황은 기독교 상담 연구자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상담 연구 주제를 고유하게 탐색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론을 찾기 위해서 상담 과정만의 특성을 내부적인 관점에서 파악하고 접근하는 연구 방법이 상담학 자체 내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박성희, 1996; 이장호, 김정옥, 1998; 안현의, 2003) 기독교 상담 연구자 또한 기독교 상담에 가장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찾아 가야 하는 사명이 있다. 그런데 상담 연구 방법은 결국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라는 인간관, 더 나아가 세계관에 따라 달라지는, 세계관에 의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이장호, 김정옥, 1998) 기독교 세계관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기독교 상담 연구자에게는 보다 엄중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과학은 무엇을 진리로 보느냐와 그 진리를 어떻게 발견하느냐와 관련이 있으며,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 찾고자 하는 진리도, 진리 발견의 과정과 방법도 달라지기 때문이다(안현의, 2003). 진리는 참된 이치, 최고의 이념이며(박은진, 1998),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진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되는 것

이며 성경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김영한, 2006). 따라서 과학적 방법만이 진리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사회 과학 분야에서도 경도된 상황에서(강상우, 2007)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기독교 세계관에 비추어 상담 연구 방법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생산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기독교 상담 연구에 적합한 연구방법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기독교 상담자가 연구자로서 상담 연구 방법론을 정할 때 기초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세계관과 연구 방법론의 관계를 설명하고,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살펴본 후, 기독교 세계관으로부터 연구 방법론이 연결 될 수 있는 지점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연구 방법론, 그 중에서 사례 연구와 연결되는 논리적 근거를 제공해보자고 한다.

II. 펴는 글

1. 패러다임과 연구 방법

앞에서 사용한 패러다임이라는 말은 세계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인식의 체계로, 모든 사람은 인식하건 그렇지 않건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 또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이는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 자신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하게 되기 때문에 연구자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는 연구 문제의 개념화부터 자료의 수집, 분석, 해석에 이르기까지 전 연구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Creswell, 2015). 따라서 연구 방법론의 시작은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철, 2010).

세계관은 연구 영역에서 패러다임이라는 용어로 설명되어 왔다(Greene, 2000). 패러다임은 토마스 쿤(Thomas Kuhn)이 그의 저서 ‘과학 혁명의 구조’에서 과학 연구 모델의 기반이 되는 관점을 지칭한 것으로 과학 연구 방법론의 근간이 되는 ‘철학적 가정’을 의미한다(이영철, 2010). 앞에서 과학에 대해 어떤 관점을 취하는가에 따라 찾고자 하는 진리도 다르고 진리 발견의 과정과 방법도 다르다고 한 것은 이 철학적 가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안현의, 2003).

패러다임의 철학적 가정은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리고 이에 세 가지에 따라 도출되는 방법론까지, 총 네 개의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존재론은 ‘실재의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을 하며, 인식론은 ‘무엇이 지식으로 간주 되는가’에 대하여, 가치론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 가치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이론이며(Creswell, 2015; 이정빈, 2018), 이 네 개의 축들은 존

제론으로부터 시작해 인과의 논리로 인식론과 가치론 순으로 이어지고 여기까지 형성된 전제에 따라 연구 방법론이 형성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역사에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지배한 것은 ‘과학’이라는 패러다임이었다. 이 패러다임은 존재론적으로는 실재를 우리 자신 너머, 저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해 사실상 확실한 실재, 진리는 없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연구자는 실재를 이해하거나 실재에 도달할 수 없고 다만 연구와 통계를 통해 대략적으로만 알 수 있다는 인식론적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런 전제에 따라 연구자의 가치 편향은 통제되어야 하고 연구에 표현되지 않아야 한다는 가치에 대한 역할이 규정되었다. 이러한 논리적 고리에 따라 실증적인 양적 자료로부터 얻어진 인과적인 진술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사조가 주류가 되었고 그 영향은 사회 과학 연구 영역에도 미치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을 탐구하는 사회 과학 영역에서는 수학적 양적 분석 방법이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특히 상담학에서는 인간의 구체적 경험과 주관적 의미를 중시하고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는 질적 연구 방법이 제안되면서 최근 수십 년 사이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들이 개발되었다(박성희, 1996; 이남인, 2014). 새로운 연구 방법이 주장되는 것은 결국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철학적 관점, 즉 기존과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했기 때문이며 결국 다른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에 기인한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은 실재가 우리가 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고(존재론), 따라서 연구자와 피연구자가 함께 만들어가며 알게 되고(인식론), 이에 따라 개인적 가치가 존중되고 지식이 연구자와의 관점과 참여자의 관점 모두 반영하는 방식 때문에 가치가 논의된다고 본다(가치론). 이와 같이 사회 과학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방법을 선택하는 당위성과 연구 단계의 논리적 고리는 철학적 가정인 존재론, 인식론 그리고 가치론에 대한 논의로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방법론에는 연구자의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난다(전미양, 문현경, 2017). 세계관은 본질적으로 세상이 어떠한다고 믿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할 수 있다(신국원, 2005; 주만성, 2011). 연구자가 믿고 있는 것이 그대로 연구에 반영되는 된다고 할 때 기독교 상담자는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진지하게 성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1) 패러다임으로서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전제하는 세계관은 ‘기독교 세계관’이다. 앞에서 패러다임의 축이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방법론이라고 하였는데, 기독교 세계관은 존재론적, 인식론적, 가치론적인 면에서 인본주의 세계관인 계몽주의나 과학기술주의, 무신론적 실존주의 등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고유의 관

점이 있다(김영한, 2006). 기독교 세계관은 성경의 진리에 따라 세상을 보기 때문에 성경이 제공하는 존재 인식과 진리와 지식에 관한 생각, 세계에 대한 기본적 이해, 가치와 규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신국원, 2005). 따라서 성경이 제공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을 차례로 논의해보고자 한다.

(1) 존재론

세계에 실제로 어떤 실재가 존재하는가(이기홍, 2014) 또는 실재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성경은 먼저 창조주의 존재를 분명히 밝히며 답을 한다. 창조주는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과 인간을 자신 ‘밖으로’ 창조하셨다(주만성, 2011). 피조물인 모든 만물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그 존재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행 17: 28; Greene, 2000).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 시간과 공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만 그 존재 ‘목적’을 발견할 수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정한 ‘질서’가 존재한다(이태희, 2016). 이는 ‘목적’과 ‘질서’가 창조주의 존재와 함께 성경적 존재론의 핵심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목적과 질서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존재의 ‘목적’은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신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보고 알 수 있다. 즉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의도에 조화롭게 되었고 그렇기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주만성, 2011).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 그것이 그 목적이며 가장 가치 있다. 이 목적과 가치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결국 세상은 이유 없이 저절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는 장으로 존재하며 모든 역사는 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활동이다(주만성, 2011).

다음으로 ‘질서’를 살펴보자. 창조주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독자적인 실재를 부여하시고 피조물에게 권력을 위임하셔서 통치하시는데, 이것이 ‘질서’이다. 성경은 이런 자연의 질서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시19: 2; 전도서 3장), 하나님의 통치로 만물은 질서를 따라 유지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세계관은 이 세상이 어떤 비인격적인 기계적 원인에 의해 움직여지는 메커니즘, 또는 비인격적인 원칙이 세상에 합리적 질서를 부여한다는 세계관을 거부한다(주만성, 2011).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활동적으로 역사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말씀의 지배하에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로 그가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존재되고 유지되는 방식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존재론이다.

따라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실재하며 그 본질은 존재한다. 그

실재를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는 인식론과 연결되는데, 이를 위해서 인간 창조의 독특성을 존재론에서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은 피조물 중에서도 인간은 신적인 협의에 의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재이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적 존재로서의 삶의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김광열, 2017). 바빙크는 인간이 동물과 달리 ‘위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아 하나님의 숨으로 ‘하나의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인간은 사유하고, 말하고, 이름을 부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되었고 인간의 지식, 언어, 종교성 등은 근대 과학의 세계관이 말하듯 긴 진화의 과정에서 발달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인간에게 깃들어 있는 것이며 인간 존재 자체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이다(조성국, 2017).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져 다양한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위치적으로도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들 사이에 놓인 독특한 존재, 또한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맡아 돌보게 하신 존재다(신국원, 2005). 이러한 위임은 인간이 하나님이 피조계에 부여하신 질서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행동해야하는 책임이 있음을 말한다(주만성, 2011). 즉, ‘앎’과 ‘의지’가 필요하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인간이 알아야 할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하나님이 아신다’ 라고 우리가 말할 때 ‘안다’는 ‘인간이 안다’고 말할 때와 같은 의미를 말하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 인간은 제한된 것만 안다. 피조물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무한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참된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아니다. 다만 우리의 지식의 정도가 하나님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다(Erickson, 2001).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적 특이성은 근본적으로 창조주인 하나님과 피조물의 차이와 관계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에 근거해 인식론으로 연결된다(주만성, 2011).

(2) 인식론

‘지식이란 무엇이며, 우리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이기홍, 2014)라는 인식론적 질문에 대하여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 우리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거나 진리를 보여주시는 행위이다(박형룡, 2002). 예를 들어, ‘인간이 피조물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와 같은 것은 다른 피조물과 의논하거나 비교해서 얻을 수 있는 통찰이 아니며 계시 외에는 답을 얻을 수 없다(신국원, 2005). 계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지식을 전달하신다는 신관(神觀)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그 지식을 알 수 있는 재능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존재론과 연결되어 있다(박

형룡, 2002).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해 바빙크는 ‘하나님은 어떠한 일에 절반만 하시는 분이 아니다. 빛을 지으시면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을 지으셨다’라고 했다(박윤선, 1984). 이는 인간의 능력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인격적이신 성품과 사랑으로 인하여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관념은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라고 한다(박형룡, 2002). 하나님의 특별계시인 성경은 창조 뿐 아니라 인간의 타락과 구속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죄 없는 상태로 지음 받았으나 불신과 교만으로 죄에 물들어 ‘영원한 죽음’이라는 죄 값을 치러야 하는, 구원이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를 회복할 수 없음을 잘 아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과 성화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 구속은 인간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그 길을 알려주고 인도하는 것, 즉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회복하는 것, 본래 창조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길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계시해 주셨으며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해주신 구원의 길을 알게 된다.

결국 성경적 인식론은 존재론과 연결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아는 것, 즉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분에 의해 통치되고 유지되고 있는 이 세상을 아는 것, 그 분의 목적과 질서, 그리고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아는 것이며, 이러한 창조성, 관계성, 인격성은 성경적 존재론과 인식론의 핵심이다.

(3) 가치론

가치론의 질문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가’이다. 가치란 사적 영역에서 개인의 좋음에 대한 표현이며 일반적으로 개인이 의미 있는 삶을 잘 살기 위해 형성된 선(善) 개념이다(이상형, 2015). 가치는 근본적으로 객관적이지만 각 개인들은 다양한 삶을 추구하기에 주관적으로 존재한다. 신본주의 시대에는 가치는 신에 의해서만 그 타당성을 가질 수 있었고 그것이 곧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근대가 시작하며 신이 사라진 곳에서 가치의 영역이 정당성의 원천을 잃어버리면서 가치는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왔고 갈등을 일으켰다(이상형, 2015). 철학사에서 선보인 다양한 사조에서 다양한 유형의 가치론이 주장되어 그동안 등장한 다양한 가치론을 살펴보면 철학자의 수만큼의 다양한 가치론, 아니 철학자의 수보다도 더 많은 가치론이 피력되었다

(이남인, 2017). 단순히 가치의 기준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가치론의 기반인 존재론과 인식론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혼란을 야기하며 최고선의 물음은 여전히 제기 되고 있다.

성경은 인간에게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치의 기준과 지침을 명확히 제공한다. 지금까지 논한 존재론과 인식론의 주어(主語)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성경은 가치 판단의 주권과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며, 절대자이며, 전능자이시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님은 창조하신 세상을 보며 ‘좋다’고 가치 판단을 하셨다. 이는 가치에 대해 두 가치를 가르쳐준다.

첫째, 피조계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옳고 그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어떤 것의 옳고 그름을 결정함에 있어 하나님이 고수하시는 기준은 하나님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본성이다(Erickson, 2001).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이시며, 의로우시기 때문에 가치의 절대 기준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그의 ‘목적’에 합당한 것을 보고 ‘좋다’ 즉, 가치 있다고 하신다. 이 의미는 그 외의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으며, 가치 있는 것이란 하나님의 목적인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인류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적극적으로 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 책임과 자유가 있다. 인간의 가치 평가는 그 기준을 하나님에 두어야 한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신 것을 가치 있게 여겨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가치중립적 태도, 인간 중심적인 도덕적 상대주의적 가치관을 거부한다(김영한, 2006; 정희영, 2014). 이는 하나님이 없다고 보는 존재론, 알 수 없다고 보는 인식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은 상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이거나 불가지론적 태도가 아닌 창조주에 대한 신앙 안에서 세상에 대한 가치론적으로 접근을 한다(김영한, 2006). 즉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김영한, 2006).

이는 결국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세상이 어떤 곳인가에 대한 사실적 시각을 제공할 뿐 아니라 세상이 어떤 곳이어야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Bartholomew & Goheen, 2011).

2)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 연구 방법론

(1) ‘사례’로 연결되는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학 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연구 방법은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과 ‘인식론’의 입장으로부

터 규정된 ‘가치론’이 경험적 자료와 이론적 사유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추론 양식들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세계관 의존적인 개념이다(이기홍, 2014; Lincoln & Denzin, 2014). 세계관 자체가 인식의 틀이며 인식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구에서 세계관이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지금까지 패러다임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의 틀로 살펴보았으며, 이제 이것이 연구 방법론과 어떻게 연결되는가의 고찰이 필요하다. 연구 방법은 해당 분야에 적합해야하므로 먼저 상담 분야의 연구 방법론과 연결하여 논의하고자 한다(박성희, 1996).

관점이며 신념인 세계관을 추상적으로 여기기 쉽고 특히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의 교리처럼 비쳐지곤 하지만 창조, 타락, 구속의 주제들은 역사 속에 실제로 일어났던 구체적인 사건이고 경험이며,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비전으로 품고 그들의 현재를 살았던 실제 이야기가 가득하다(신국원, 2014). 기독교 세계관은 과거 속에 있었던 사건 일 뿐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꿈꾸게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이며 현재에도 경험되어지고 있는, 아직 끝나지 않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세계관을 전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경험을 담고 있는 ‘이야기’이다(신국원, 2005). 이 말은,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의 삶은 저마다의 이야기라는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큰 이야기 안에 작은 이야기로 존재한다(Vanderstelt, 2017).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에 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로 끌어오게 되어있어 전도서 3장 1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에 대한 의식과 갈망, 자신이 어떤 ‘큰 이야기’의 일부라는 관념을 주셔서 그것을 갈망하고 찾게 하셨다(Bartholomew & Goheen, 2011). 인간의 무능력과 부패가 개인의 삶을 개인만의 독립된 이야기로 착각하게 하지만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속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fact)이며, 실재(reality)이다. 그 큰 이야기란 바로 성경이며, 큰 이야기는 작은 이야기들을 구원하고 회복하고 완성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즉 창조, 타락, 구원,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다(Bartholomew & Goheen, 2011; Vanderstelt, 2017).

연구란 과학적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적 탐구활동이며(김성희, 2014) 상담학 연구는 인간의 인지, 정서 및 행동 특성이 가진 양적·질적 상태와 관련된 현상을 설명하고 예언하기 위해 과학적인 탐색을 하는 것이므로 ‘과학적 관찰로서의 연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관찰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황재규, 2014). 연구패러다임으로서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상담학 연구는 연구 대상인 인간의 삶을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로 규정하고 관찰한다. 그런데 과학적 연구는 대체로 분석적이라는 속성이 있어 대상이나 현상의 한 단면으로 시작한다(김계현, 2014). 한 단면을 보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또 다른 단면, 또 다른 단면을 반복해서 관찰하면 어느 정도 그 대상이나 현상 전체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 과학의 방법이며 아주 작은 현상에 대한 단면적 이해로부터 출발하여 조금씩 이해의 각도를 다양화하고 이해의 폭과 깊이를 증가

시켜 나가는 전략이 과학자들의 전략이다. 과학자들은 처음부터 숲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다(김계현, 2014). 이러한 과학 연구의 특성을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로 하는 상담학 연구에 적용하면 숲을 하나님의 큰 이야기로, 나무는 작은 이야기로서 인간의 삶으로 볼 수 있으며 숲이 존재한다는 확실한 전제 아래 나무인 인간 또는 인간의 삶은 상담학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과학 연구에서 어떠한 맥락에 놓여있는 환경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잡한 실체를 ‘사례’라고 하는데(이영철, 2009), 이미 큰 이야기 속에 있는 작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의 맥락이며, 인간의 삶은 그 맥락에 놓여있는 환경 속 실체이기 때문에 사례가 될 수 있다. 과학 연구에서 연구자는 그 실체를 분석하기 위해 어떠한 ‘경계’를 설정하여(Guba & Lincoln, 1981; Merriam, 1988) 분석의 단위(unit of analysis)로 만드는데 사례와 분석의 단위를 결정하는 일은 지금까지 논한 바와 같이 연구자의 철학적 경향에서 의해 영향을 받으며(Merriam, 1988)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는 연구자 또한 연구 대상인 인간의 삶에 대한 경계 설정을 통해 분석의 단위로 삼는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상담학 연구에서는 ‘인간의 삶의 단면’이 하나의 ‘사례’로서 연구 분석의 단위가 되며 상담학 연구는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지금까지 개발된 주요 상담 연구 방법들이 어떠한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사례를 관찰하고 분석했는지 살펴보자.

(2) 사례 분석의 연구 방법 패러다임

근대 역사에서 과학적 방법의 주된 흐름은 ‘실증주의’에서 ‘구성주의’로의 이동이다(Creswell, 2015; Guba & Lincoln, 1994). 실증주의는 현실세계가 실재한다는 존재론적 입장으로 실험과 관찰에 의한 객관주의적 인식론을 취하는데, 양적 연구 방법을 통해 가설이나 인과관계를 검증한 결과를 실재라고 보며 연구의 가치는 중립적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나 ‘실제를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양적 방법론의 조작과 통제, ‘진리는 중립적’이라는 가치론은 특히 인문사회과학의 영역에서 그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 한계란, 인간과 삶을 양적 분석 방법으로 분석하면 양으로 환원될 수 없는 고유한 질적 측면은 파악될 수 없고(이남인, 2014), 인간과 삶이 지니고 있는 그 만의 고유한 속성과 의미는 양으로 환원하면 그 고유한 속성을 잃게 된다는 것이다(이정빈, 2018).

이에 구바와 링컨(Guba & Lincoln)과 같은 학자들은 인간을 탐구하는 방식으로서 인간의 지향성, 자유의지, 결정력 등 인간의 고유한 속성을 반영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고 이에 따라 구성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박성희 1996). 앞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의 기저에는 세계관의 이동이 있다. 구성주의 관점의 존재론은 세상은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세계로부터 기원하여 주관적으로 구성되는 것이며 인식론도 인간의 주관성을 중시하는데, 이러한 관점에 따라 인간의 경험을 주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질적 분석 방법론이 제시되었다

(Creswell, 2015).

구성주의 패러다임에서 질적 연구가 대두된 토대에는 인간 고유의 능력을 강조한 후설(Husserl)의 현상학이 있다(이정빈, 2018). 후설은 인간에게는 지향성, 즉 ‘대상을 향한 의식’이 있으므로 경험을 해석학적으로 기술적 분석(descriptive analyse)을 하여 그 본질을 밝혀내는 것을 연구의 목표로 삼았다(이남인, 2004). 이에 영향을 받은 질적 연구는 인간행동 이면에 감추어진 생각, 느낌, 동기, 신념 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주관적인 의미 세계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다. 따라서 수와 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보다는 개인의 언어로 표현되고 보고되는 주관적 자료를 중시하는데, 연구 대상자 뿐 아니라 연구자의 관찰과 참여경험을 중시해 자료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연구자 또한 가치 있게 여긴다(박성희, 1996). 내적 지각, 반성, 해석 능력은 최첨단 실험장비도 대신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한 능력 때문이다.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방법론들의 근간이 되는 패러다임은 근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기독교 세계관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먼저 실증주의는 존재론과 인식론 측면에서 전체는 부분들의 총합이라는 가정, 탐구의 가치중립성에 대한 가정, 맥락적 상황으로부터 분리된 관찰의 독립성에 대한 가정, 직선적 인과성에 대한 가정 등이 인간을 탐구하는 방식으로서도 옳바르지 않을 뿐 아니라 (박성희, 1996; Guba & Lincoln, 1994)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과도 상치된다. 기독교 세계관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속에 유기체적으로 속한 것이며, 비인격적인 기제가 작동하는 곳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재이므로 인간의 삶이나 인간에 대한 연구는 그 맥락을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강상우(2012)는 양적 연구 방법의 경도는 계량화와 수치화, 탈가치화로 인해 영성이나 가치개입적인 유익한 도구들을 학문의 영역에서 추방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계량화나 수량화가 불가능한 것들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탈가치화를 내세우기 때문에 가치를 지니는 것은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성주의 또한 인식론과 방법론에서 신(神)과 진리의 개념을 배제하여 인간의 주관과 상호작용을 지나치게 가치화해 상대적인 진실을 진리로 결론짓는다는 점에서 기독교 세계관과 어긋난다. 그러나 구성주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맥락에서 인간을 연구 도구 그 자체로 본다는 점, 즉 실재를 아는데 인간의 지성과 통찰력을 인간의 고유한 속성으로 보고 분석에 활용한다는 점은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과 부합하는 면이 있다. 물론 존재론 측면에서는 구성주의도 기독교 세계관과 상치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과학 연구 방법론으로 주목받고 있는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은, 과학이 인간의 이성에만 집중해 이성이 대상으로 삼는 존재의 속성에 대한 측면, 즉 존재론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비판으

로 ‘존재론을 복구하여 사회과학 방법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이영철, 2010) 이에 대해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3) 비판적 실재론으로 연결되는 기독교 세계관과 사례 연구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은 영국의 과학철학자인 로이 바스카(Roy Bhaskar)가 실증주의는 물론 구성주의도 ‘실재는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제시한 과학관, 패러다임이다(이영철, 2010). 과학 개념을 지배한 실증주의는 인간의 능력과 지식에 집중한 나머지 존재론의 논의를 경험주의적 인식론으로 대체해버렸다. 즉, 존재론에서 인식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식론에 기준을 잡고 존재론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바스카는 기존의 과학이 ‘우리의 지식이 가능한가’라는 인식론적인 질문에 빠져있는 것을 꼬집고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과학적 활동이 가능하기 위해서 세계는 어떤 모습이어야만 하는가?”라고 주장하며 존재론이 우선적으로 가정되어야 함을 주장했다(이영철, 2006). 그가 이에 대한 답으로 제안한 것이 비판적 실재론이다.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인 세계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인 입장, 즉 존재론이 필요하다는 것이며(이영철, 2006),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되, 그 대상이 무엇인지를 이성적인 판단을 활용하는 비판적 작업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의미에서 비판적 실재론이라 불렀다(이영철, 2010).

바스카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재를 실재 영역(domain of real)으로 불렀고, 그 안의 일부인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현실 영역(domain of actual)으로, 또 그 안에 경험되는 영역을 경험적 영역(domain of empirical)이라고 불렀다(Bhaskar, 1998). 이 세 개의 영역이 일치하는 것은 조작적 정의가 가능한 실험실밖에는 없으며 바스카는 이것을 인식론이 존재론을 규정하는 것이며 경험적 과학의 한계라고 보았다. 그에게 과학은 실재 영역의 기제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경험적 영역이나 현실 영역의 현상이 실재 영역의 기제를 통해 설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변증을 하는 것이다.

앞에서 실증주의보다는 구성주의가 기독교 세계관과 인식론 면에서 일부 공유하는 점이 있다고 했는데 바스카는 구성주의의 인식론 역시 해석학 중심이어서 사실보다 관찰자의 시각을 중시하여 상대주의가 되기 쉬운 오류가 있음을, 다시 말하면 인식론에 빠져 존재론을 잃은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마치 기독교 세계관의 입장처럼 지적하며 세계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철학적인 입장을 밝혔다(이영철, 2006; 이영철, 2010).

비판적 실재론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며 유신론적 관점은 밝히지 않아 기독교 세계관과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이영철, 2009b). 그러나 존재론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 ‘실재’를 인간이 ‘실재’를 통해 불완전하게나마 개연적으로 파악가능하다는 관점이 기존의 실증주의적 패러다임보다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과 맞닿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분명히 실재하는 것이나 인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만 알 수 있으며, 인간이 밝혀냈든 그렇지 못했든 실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사유 능력을 활용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유가 다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것도, 다 진리와 무관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인간이 알게 되는 지식은 실재(reality)에 가까워지는 것으로 진실(true)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은 인간이 그 실재를 다 안다고 보지 않으며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직관과 통찰, 지각, 사유, 추론 등의 능력을 사용하여 실재를 알아가면서도 죄성으로 인해 그 앎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인식론적 견해와(김영환, 2006) 맥을 같이 해 기존의 다른 패러다임보다 기독교 세계관과의 거리를 좁힌다. 기독교 세계관은 하나님의 존재나 창조된 세계의 실재를 확신하면서도 인간의 인식 능력의 한계를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이다(최태연, 2008).

비판적 실재론은 우리가 가진 세계에 대한 지식은 실험과 관찰을 통하여 확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우리가 가진 지식은 진실(true)이라기보다 실재(reality)에 가까워 질 수 있을 뿐이며, 그 지식 또한 경험 자료에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론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이영철, 2006). 즉 경험 영역과 현실 영역에서 인과관계(casual mechanism)가 실재를 설명한다. 이는 현실 영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나 우리가 연구 대상으로 보는 현상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는지 인과관계를 밝혀 그 기제를 찾고 설명하는 일이며, 사태를 설명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 개념에 가장 적절한 방법론이 제안되는데, 바로 ‘사례 연구’이다. 사례 연구는 현실적인 맥락 속에서 현재적인 현상을 탐구하는 경험적인 탐구로서, 조사 대상의 독특한 성질을 구체적이고 상세 하게 연구하는데 유용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여 전면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특히 인간의 내면생활이나 사회적 욕구, 관심, 동기 또는 한마디로 살아있는 존재, 집합적 행동의 실체를 문화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연구하려고 할 때 유용하다(이영철, 2006 재인용).

이처럼 어떤 관점을 택하느냐는 방법론의 차이를 가져온다. 실증주의가 설정한 과학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보편적 혹은 경험적 일반화가 목적이 되고 이를 위한 과학적 정당화 논리를 찾게 되지만 비판적 실재론의 관점을 취하게 되면 과학 연구의 목적은 경험적 일반화가 아닌 인과법칙을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미 실재가 있기 때문에 실재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설명으로서 찾아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과적 법칙은 사물의 본성, 경향성과 관련된 것으로 그 발생적 메카니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그 때 그 때 밝혀보아야 하는데, 사례 연구는 실재하는 것이 어떻게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밝히는 중요한 작업이며 방법이다(이영철, 2006). 사례 연구는 단순히 현상에 대한 일반화나 예측 가능성을 위한 연구가 아니라 기존의 이론이 밝히지 못한 발생 기제를 밝히는데 유용한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 양적 방법을 모두 포함해 다양하고 종합적인 방법을 사용이 가능하다(이영철, 2006). 또한 현상을 특정맥락과 분리하지 않고 그 과정과 상호작용에서 드러나는 인과적 힘을 밝혀내어 실재하는 대상에 대해 기존의 과학보다 나은 지식을 제공하여 의미 있는 지식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방법이다(이영철, 2009).

수정된 객관주의적 입장인 비판적 실재론은 객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기독교 세계관의 존재론, 인식론 면에서 상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례 연구는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취할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적절한 연구 방법으로 사료된다. 특히 다양한 발생기제가 복합적인 조건 하에서 작용하는 사회현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사례 연구는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도 계량적인 분석방법과 경험적인 일반화의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인간 현상에 대해 존재론적 관점과 인식론적 관점에서 보다 높은 적합성을 제공하기에 그 가치가 크다(이영철, 2006).

4) 성경적 관점의 연구와 과학의 소통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과 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여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 있는 인간의 삶은 상담 연구를 위한 사례가 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인간 삶의 한 단면을 하나의 사례로 보는 관점은 기독교 세계관과 과학을 이어준다.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과 상담 연구 방법론에 대한 논의의 한 이유이다. 상담 연구는 사회학 연구의 한 분야로 사회 과학에 해당된다. 엄밀히 말해 기독교 세계관은 ‘진리’ 그 자체이며 과학 이론 배경에 있는 하나의 패러다임이 아니다. 진리는 인간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방법에 의해 실재로부터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학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김광열,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패러다임 관점에서 논하여 기존의 과학 방법론 적용을 가늠하며 적합한 방법론을 고찰한 것은 바로 과학과의 ‘대화’, 즉 소통을 위해서이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근대의 실증주의를 통해 과학은 현대사에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비록 쿤이 과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상대적인 것임을 지적했으나 이미 주류가 된 과학이 신앙의 영역을 배제해온 것은 사실이다(최태연, 2008). 물론 근대 이전에는 유신론적 과학(theistic science)가 가능했으며 현재에도 과학연구의 실제에서 성립될 수 있으나 역사적으로 과학자들이 과학에서 초자연적 존재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방법론을 발전시키는 동안 과학의 위상과 역할은 높아졌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 신앙은 과학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최태연, 2008).

이것은 연구 영역 뿐 아니라 실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상담 영역이 그러하다. 현대 심리학이 힘이 있는 것은 자격증과 학교 교육의 영향으로 제도화가 된 영향이 큰 것이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Johnson, 2012).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심리상담학 역시 과학의 영역으로 발전되어 왔고 그 위상이 주도적이고 지배적이 되었다. 그러나 쿤이 지적했듯이 특정 패러다임이 지배적이 되는 것은 그 세계관의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패러다임보다 더 나은 설명을 제공하거나 해당 시기에 과학자 공동체가 모종의 합의를 하기 때문이다(이영철, 2010). 주도적인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바른 말이라도 ‘태도’가 중요하다. 우리는 태도의 중요성을, 기독교 상담이 일관되게 성경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함을 주장한 제이 아담스(Jay Adams)로부터 배울 수 있다. 그는 성경적 상담 운동의 초기를 이끌며 상담이 성경 중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주장은 옳은 것이었으나, 인본주의에 기초한 심리학을 경계하는 과정에서 그의 배타적이고 전투적인 태도는 그의 주장 중 ‘옳은 내용’까지 덮어버리며 결국 고립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 후 다음 세대인 데이비드 포울리슨(David Powlison)과 에드워드 웰치(Edward Welch) 등이 다른 패러다임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노력을 통하여 성경적 상담은 다시 주목을 받게 된다(김준, 2016). 따라서 성경을 진리로 믿고 그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을 견지하면서도 과학과의 열린 대화를 추구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과학과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진리에 대한 설명을 ‘과학의 언어’로 하는 것이다. 이는 질적 연구가 이미 연구 방법론 영역에서 주도권을 잡은 양적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의 개념을 빌려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지배적 패러다임의 언어를 따르다가 본질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어떠한 주장이 그들만의 세계에 머물지 않고 ‘사회적으로 공유’되기 위해서는 선점의 우위에 있는 패러다임의 절차를 어느 정도 따를 필요가 있다(조용환, 1999).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하면서도 과학과 소통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과학 연구 방법론을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연구자에게 필요한 자세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으로 인간의 삶을 연구하는 상담 연구에 대하여 고찰하여 사례 연구가 적합하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사례 연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연구 방법으로 사례에 대한 철저하고 상세한 이해를 제공하려는 연구에 용이하며, 연구자의 학문적 성향과 재량에 따라 보다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Creswell, 2015; Yin, 2016). 전략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이야기에 속한 작은 이야기들인 사례의 다양한 현상들을 역동적이고 의미 있는 과정과 특징으로 분석하는 일은 기독교 상담 연구자가 과학과 소통하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III. 닫는 글

상담 영역에서도, 기독 상담 영역에서도 사례 연구는 활발히 활용되는 연구 방법이다. 어쩌면 기독 상담 연구자 또한 개인적으로는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만 연구에 있어서 기독교 세계관과 관련하여 사례 연구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했는지도 모른다. 이미 연구 영역을 지배하고 있는 관점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패러다임, 세계관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쿤이 지적인 바와 같이 패러다임은 절대적이거나 합리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적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 공동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진리를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소통을 통해 인정과 합의를 이끌어가는 방법이 필요하며(최태연, 2008), 기독교의 절대성이나 독특함을 이유로 고립되어서는 안 되는 점도 분명히 하였다. 본질적으로 기독교와 과학은 갈등을 피할 수 없지만 이미 ‘인정된’ 관점으로 자리 잡은 과학과 소통을 해야 과학과 더불어 과학을 넘어가는 일이 가능한 것이다(최태연, 2008).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속해있는 작은 이야기로서의 인간의 삶을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것과, 존재론과 인식론 측면에서 비판적 실재론에서 강조하는 사례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한 연구 방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미 기독 상담 연구 영역에서 사례 연구는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본 연구를 통해 기독 상담 연구자가 세계관의 중요성을 더욱 인식하게 되고, 또 사례 연구 선택의 타당성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기독교 세계관에 부합된 연구 방법론의 선택과 더불어 과학과의 소통도 가능할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이상 사례 연구의 가치와 가능성이 기독 상담의 연구 주제들과 만나 얼마나 선택되고 발휘될 것인가는 기독 상담 연구자의 몫이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에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독교 세계관 기반의 연구에서 사례 연구가 타당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특정 이론이 아닌 신학의 일부분을 근거로 하여 일반화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Archer, M., Bhaskar, R., Collier, A., Lawson, T., Norrie, A. (1998). *Critical Realism: Essential Readings*. Oxon: Routledge.
- Bhaskar, R. (2008). *A Realist Theory of Science*. Oxon: Routledge.
- Guba, E. & Y.S. Lincoln. (1994). *The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 Competing Paradigms in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강상우 (2012). 기독교사회복지 연구방법에 관한 소고. **신앙과 학문**. 17(1). 7-42.
- [Kang, S. W. (2012). Christian Social Welfare Research Methods - based on the theoretical approach -*Faith & Scholarship*, 17(1), 7-42.]
- 권경인·양정연 (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연구**. 14(6). 3871-3893.
- [Kwon, K. I. & Yang, J. Y. (2013). Trend Analysy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Psychology Area(2000~2012).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4, no. 6, 3871-3893.]
- 김광남 역. (2016). **나도 모르는, 나의 세계관**. Anderson, J. N. (2014). What's your worldview. 서울: 이레서원.
- [Kim, K. N. (2016). *What's your worldview*. Seoul: Jireh. Trans. Anderson, J. N. (2014). What's your worldview. IL: Crossway.]
- 김광열 (2017). **장로교 기본교리**.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 [Kim, K. Y. (2017). *Basic Christian Doctrine*. Seoul: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김계원·정종진·권희영·이윤주·김춘경 (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521-542
- [Kim, K. W., Jeong, J. J., Kwon, H. Y., Lee, Y. J. & Kim, C. K. (2011).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0~2009).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3(3). 521-542.]
- 김계현·고홍월·권경인·김성희·김재철·김형수·서영석·이형국·탁진국·황재규 (2014). **한국상담학회 상담학 총서 - 상담 연구 방법론**. 서울: 학지사.
- [Kim, K. H., Ko, H. W., Kwon, K. I., Kim, S. H., Kim, J. C., Kim, H. S., Seo, Y. S., Lee, H. K., Tak, J. K. & Hwang, J. K. (2014).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Series Counseling Research Methodology*. Seoul: Hakjisa.]
- 김영한 (2006). 기독교 세계관의 독특성 - 개혁주의 관점에서 - . **기독교철학**, 3, 9-49.

- [Kim, Y. H. (2006). The Distinctiveness of Christian Worldview. *Christian Philosophy*, 3, 9-49.]
- 김준 (2016). 미국 복음주의 내 성경적 상담의 확장과 '신칼빈주의'. **복음과 상담**, 24(1), 45-72.
- [Kim, J. (2016). The Expansion of Biblical Counseling in American Evangelicalism and 'New Calvinism'.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4(1). 45-72.]
- 김찬영 역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Johnson, E. L. (Ed.), Coe, H. J., Hall, T. W., Myers, D. G., Standton, L. J., Powlison, D. A., Roberts, R. C., Watson, P.J.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im, C. Y. (2012).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Seoul: Revial & Reformation Trans. Johnson, E. L. (Ed.), Coe, H. J., Hall, T. W., Myers, D. G., Standton, L. J., Powlison, D. A., Roberts, R. C., Watson, P. J.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IL: IVP Academic]
- 문현경·김혜진 (2021). 존재론과 인식론이 사회과학 연구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국민연금 제도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비판사회정책**, (70), 167-206.
- [Moon, H. Y. & Kim, H. J. (2021). Exploring the Practical Influence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on Social Science Research: With Focus on Research o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Journal of Critical Social Welfare*, (70), 167-206]
- 박성희(1996). 상담학 연구 방법론의 패러다임과 분석방법.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8(1).201-235.
- [Park, S. H. (1996). The research paradigms and methodology of counseling.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Vol. 8. No.1. 201-235.]
- 박승민 (2012). 상담학 분야의 질적 연구 경향 분석 -국내 학술지 논문을 중심으로 -. **상담학연구**. 13(2). 953-977.
- [Park, S. M. (2012). The Trends of Qualitative Research on Counseling Psychology in Korea.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 2, 953-977.]
- 박은진 (1998). 진리와 과학의 성공, 그리고 과학기술의 문제. **철학**, 55, 261-279.
- [Park, E. J. (1998). Truth, the Success of Science, and the Problems of Techno-Sciences. *Korean Journal of Philosophy*. 55, 261-279.]
- 박형룡 (2002). **교의신학 서론**. 서울: 개혁주의신행협회.
- [Park, H. Y. (2002). *Dogmatic Theology - Introduction*. Seoul: Reformed Faith Association.]
- 신경식·서아영·송민채 역. (2016). **사례연구방법**. Yin, R. K.(2016).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서울: 한경사.
- [Shin, K. S., Seo, A. Y. & Song, M. C.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Seoul:

- Hankyunsa. Trans. Yin, R. K. (2013).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CA: SAGE.]
- 신국원 (2005). **니고데모의 안경 - 쉽게 풀어 쓴 신국원의 기독교 세계관 이야기**. 경기: IVP.
- [Shin. K. W. (2005). *Nicodemus' Glasses - An easy to understand Christian worldview*. Kyungki: IVP.]
- 신국원 (2014). **지금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꿈꾸고 있는가 - 신국원의 꿈, 비전, 세계관 이야기**. 서울: 복있는 사람.
- [Shin. K. W. (2014). *What we are dreaming here and now - dream, vision, worldview*. Seoul: Bessed man.]
- 안현의 (2003). 과학자-실무자 모델의 국내 적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3). 461-475.
- [Ahn, H. N. (2003). A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Applying the Scientist-Practitioner Model in Korea,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3). 461-475.]
- 윤종석 역. (2011). **세계관은 이야기다**. Bartholomew, C. G. & Goheen, M. W.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경기: IVP
- [Yoon, J. S. (2011).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KyungKi: IVP. Trans Bartholomew, C. G. & Goheen, M. W. (2008). *Living at the Crossroads: An Introduction to Christian Worldview*. MI: Baker Academic.]
- 이기홍 (2014). **사회과학의 철학적 기초 - 비판적 실재론의 접근**. 경기: 한울아카데미.
- [Lee. K. H. (2014).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Social Sciences- Critical Realism Approach*. KyungKi: Hanul Academy.]
- 이남인 (2014). **현상학과 질적 연구**. 경기: 한길사
- [Lee, N. I. (2014). *Phenomenology and Qualitative Studies*. KyungKi: Hangilsa.]
- 이남인 (2017). 본능적 지향성과 가치경험의 본성. **철학사상**(63), 63-95
- [Lee, N. I. (2017). Instinctive Intentionality and the Nature of Valuing - Toward the Foundation of the Theory of Value. *Journal of Philosophical Ideas*, (63), 63-95.]
- 이상형 (2015). 가치와 규범, 그 대립과 종합. **사회와 철학**(29), 273-302.
- [Lee, S. H. (2015). Werte und Normen, deren Auseinandersetzung und Synthese. *Korean Society for Social Philosophy*, (29), 273-302.]
- 이영철 (2006). 사회과학에서 사례 연구의 이론적 지위 - 비판적 실재론을 바탕으로. **한국행정학보**, 40(1), 71-90.
- [Lee, Y. C. (2006). Theoretical Status of Case Studies in the Social - Sciences. *Korean Public*

- Administration Review*, 40(1), 71-90.]
- 이영철 (2009). 보다 나은 사례 연구: 논리와 예시. **정부학연구**, 15(1), 189-213.
- [Lee, Y. C. (2009). For the Better Case Study: Logic and an Illustration.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5(1), 189-213.]
- 이영철 (2010). 패러다임에서 실제로: 구성주의 과학관에서 실재론적 과학관으로. **정부학연구**, 16(1), 155-179.
- [Lee, Y. C. (2009). From Paradigm to Reality: From a constructivist view of science to a realist view of science.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16(1), 155-179.]
- 이장호·김정옥 (1998). 상담 연구 방법론의 확장. **심리학의 연구문제**. 5. 193-229.
- [Lee, J. H., Kim, J. W. (1998). Extension of Counseling Research Methodology. *Psychological Issues*. 5. 193-229.]
- 이정빈 (2018). **질적 연구 방법과 상담심리학**. 서울: 학지사.
- [Lee, J. B. (2018).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nd Counseling Psychology*. Seoul: Hakjisa.]
- 장성은 역 (2017). **복음의 언어**. Venderstelt J. (2017). 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서울: 토기장이.
- [Chang, S. E. (2017). *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Trans. Venderstelt J. (2017). *Gospel Fluency: speaking the truths of Jesus into the Everyday stuff of Life*. IL: Crossway.]
- 전미양·문현경 (2017). 사회과학연구에서 존재론과 인식론의 중요성: 주관적 웰빙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정부학연구**, 23(2), 31-57.
- [Jun, M. Y. & Moon, H. K. (2017). The Role of Theoretical Frameworks: Exploring the Application of Ontology and Epistemology in Subjective Well-being Research.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3(2), 31-57.]
- 조성국 (2017). 헤르만 바빙크(H. Bavinck)의 교육을 위한 성경심리학적 인간론. **성경과 신학**, 81, 51 - 82.
- [Joh, S. G. (2017). Herman Bavinck's Biblical Psychology for Education. *Bible and Theology*, 81, 51-82.]
- 조성호 (2003). 상담심리학 연구 동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4), 811-832.
- [Cho, S. H. (2003). Analysis of Research i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1988-2003).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5(4). 811-832.]
- 조용환 (1999).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Cho, Y. H. (1999).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case*. Seoul: Kyoyookbook.]

-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15). **질적 연구 방법론: 다섯 가지 접근**,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서울: 학지사.
- [Cho, H. S., Jeong, S. W., Kim, J. S. & Kwon, J. S. (2015).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 주만성 (2011). 기독교 학문의 패러다임 구축을 위한 참조점으로서의 창조 세계. **창조론오픈포럼**, 5(2), 48-62.
- [Choo. M. S. (2011). Christian World-view as a Biblical Paradigm for Christian Studies. *Open Forum for Creationists*, 5(2). 48-62.]
- 나용화·황규일 역. (2001). **조직신학 개론**, Erickson, M. J. (1992).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서울: CLC.
- [Na. Y. H. & Hwang, K. I. (2001).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Seoul: CLC , Trans. Erickson, M. J. (1992). *Introducing Christian Doctrine*. MI: Baker Academic.]
- 최욱 역. (2014). **질적 연구 핸드북**.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Choi. W. (2014).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Seoul: AcademyPress. Trans. Denzin, N. K. & Lincoln Y. S. (2011). *Handbook of Qualitative Research*. CA: SAGE.]
- 최태연 (2008). 기독교와 과학철학. **창조론오픈포럼**, 2(1), 54-63.
- [Choi, T. Y. (2008). Christianity and Philosophy of Science. *Open Forum for Creationists*, 2(1). 54-63.]
- 허미화 역. (1998). **질적사례연구법**. Merriam, S. (1994).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서울: 양서원.
- [Hur, M. H. (1998).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Trans. Merriam. S. (1994). *Case Study Research in Education: A Qualitative Approach*. CA: Jossey-Bass.]
- 현은자·정희영·황보영란 역. (2000). **알버트 그린 박사의 기독교 세계관으로 가르치기**, Greene, A. E. (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서울: 도서출판CUP.
- [Hyun, E J., Chung, Y. & Hwangbo, Y. R. (2000).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Trans. Seoul: CUP Publications. Trans. Greene, A. E.(1998). *Reclaiming The Future Of Christian Education: A Transforming Vision*. CO: Purposeful Design Publications.]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 기초한 상담 연구 방법에 관한 고찰

A Study on Counseling Research Methods based on the Christian Worldview Perspective

박 안 나 (헤세드 상담센터)

김 준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교신저자)

논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세계관을 전제하는 기독교 상담 연구에 적합한 연구 방법론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먼저 상담 연구 방법의 기초가 되는 세계관과 연구 방법의 관계를 이해하고 기독교 세계관을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개인의 삶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 맥락이 있는 사례로서 과학의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 사례를 분석하는 과학의 방법 중 실증주의가 전제하는 철학적 관점은 기독교 세계관과 부합하지 않으며 구성주의는 인식론적 측면에서는 부합하는 점이 있다. 존재론적인 상충을 해결해주는 비판적 실재론은 존재론과 인식론 측면에서 기독교 세계관과의 거리를 가장 좁히는 관점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강조하는 사례 연구가 기독교 세계관 기반의 연구에 적합함을 주장하며 과학과 소통 또한 강조한다. 본 연구를 통해 연구에서 세계관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기독교 세계관 기반의 연구에서 사례 연구가 타당한 근거를 제공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주제어: 상담 연구, 연구 방법론, 세계관, 비판적 실재론, 사례 연구

교회 상담에서의 정신장애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적용*

Application of Biblical Counseling for Mental Disorder in Church Counseling

박은호 (EunHo Par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troduce biblical counseling based on biblical aspect which is a model of church counseling toward highly increased mental disorder today. The research method is historically based on understanding of mental disorders and interpretation. Secondly, this article introduces the coping method and error that the modern-counseling culture and Psychiatry use and criticism from antipsychiatry toward them. Through this process, the modern Biblical counseling states a question if this matches to essence of church. Therefore, this research states that see mental disorder as a problem of human suffering, and biblical counseling should be used as a tool of ministry to change those who need more than psychiatry counseling and those who need spiritual change. The goal of the study is to convey the idea that biblical counseling is a treatment of spirit than psychological stability or physical treatment through spectrum of mental disorder, and demand awareness of love and promise of Christ through approach to mental disorders using biblical approach.

Key words : Mental Disorder, Church Counseling, Biblical Counseling, Suffer, Heart issue

* 2022년 2월 11일 접수, 3월 12일 최종수정, 3월 14일 게재확정

** 수지피스메이커상담센터(Peacemaker Counseling Center),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ehpark9090@gmail.com

I. 들어가는 말

오늘날 정신장애에 대한 상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정신장애(mental disorder)는 정신병이나 반응의 이상, 성격이상 등 정신의 병적인 상태를 모두 포함하는 용어로 개인적 고통과 기능 저하를 동반하는 증상을 말한다. 국제 정신장애 분류 체계인 ICD에서는 질환이나 질병 대신 장애를 사용한다(대한 신경정신의학회, 2017:98). 최근 정신건강의학과뿐만 아니라 교회 내 상담실을 비롯한 목회상담 현장에서도 정신장애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정신장애를 이해하는 현대의 관점들을 개관하면, 심리치료는 사람들이 느끼는 불편한 감정을 자아 성장, 자아 몰두, 행동 수정 등에 초점을 두어 치료한다. 특히 심리치료 영역에서의 최근의 변화는 신체의 자각에 초점을 둔 티벳의 명상법이 인지 심리치료와 대체의학의 영역으로 자리잡은 것이다(Christopher, 2014:30-31). 20세기 이후 꾸준히 발전해 온 정신의학계의 신경생리학적 접근은 정신장애를 신체 기관의 질병으로 보고 뇌 구조와 신경 체계에 대한 이해를 중심으로 진단과 약물 개발에 급속한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정신장애를 이해하는 사회문화적인 관점은 신체 생물학적인 원인보다는 개인의 생활방식, 가치관, 동기와 욕구 등의 원인을 고려한다. 이와 같은 관점들은 정신장애를 다각적으로 이해하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접근들이다. 그러나 성경적 관점에서는 인간에 대한 영적인 영역에서의 해석이 배제되었다는 중요한 한계를 가진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부재는 인간의 죄의 상태와 죄의 역할에 대해 보지 못하고, 고통 중에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돕지 못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회 상담의 실천을 위한 성경적 이해와 신학적 일치성을 가지는 상담 원리와 방향을 찾고자 한다. 이 글의 목적은 교회의 소명과 일치하는 교회 상담의 실천 모델로 성경적 상담을 제시하고,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을 정신장애라는 스펙트럼에 적용하는 것이다.

II. 정신장애에 대한 시대적 이해와 진단의 발달

기독교 상담 실천에 있어 정신의학에 대한 반발과 영적 접근에 대한 논쟁들이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신체적 원인이 아닌 정신장애는 모두 영적인 문제로 보는 이분법적인 주장들이다. 정신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에 있어서도 시대마다 유사한 해석과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신장애 증가의 원인

1860년대 George Beard는 불안감을 설명하기 위해 ‘신경쇠약’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면서 신경쇠약은 몸의 신경력(nerve force)이 고갈 되어 생기는 일반적인 증상이므로 치료가 필요 없다고 보았다(Beard, 1881:103). 최근 정신장애가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논의를 몇 가지 소개하면 먼저, 1950년대 이후의 ‘의료화’에 대한 의견이다. 의료화는 기존에는 의학적 문제로 여기지 않았던 정서, 도덕적 일탈 행위, 일상적인 인간의 행동들을 의료의 대상에 포함시켜, 인간의 출생과 죽음에 이르는 삶의 모든 과정에 의료적 개입을 확대한 일을 말한다. 예를 들면 성격의 문제였던 수줍음이 사회공포증으로, 급한 성격은 충동조절 장애로, 일을 미루는 일을 지연 행동 장애로 명명하여 병이 되게 한 것 등이다(Frances, 2014:17). 나쁜 것이 아픈 것이 되기도 하고 일상적인 것이 병이 된 경우는 정신장애, 섭식장애, ADHD,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학습장애, 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비만, 제왕절개, 소비자의 필요와 함께 성행하는 성형수술에 이르는 의료화의 논쟁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Riska, 2003:65-68; Conrad, 2007:25-27). 또 정신장애 진단 도구의 개발과 진단명의 세분화로 인해 정신장애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되어 정신장애 환자가 자연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은 사회문화와 경제적인 국면이다. 사소한 감정과 증상에 집착하여 전문가를 찾아 치료받아야 한다는 고객과 자기 성찰 대신에 자신의 불편함을 남에게 이야기함으로 짐을 내려놓고자 하는 나약한 고객의 증가가 정신장애의 증가 원인이 된다(Ayan, 2014:21-31). 또 경제적인 풍요로움에서 비롯한 불만, 위기감, 최상주의를 정신장애 증가 원인으로 들고 있다. 과거에 비해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현대는 불만이 퍼지고, 정신적으로 괴로워하고, 조금만 잘못되어도 위기감을 느낀다. 또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면서 모든 것이 최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타인과의 비교, 성공에 대한 기대는 실수에 집중하게 되거나 실패감에 사로잡혀 완벽주의 성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 이상의 강도와 스트레스 정도의 연관성으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자극적인 환경, 도시화가 그 원인이 된다.

2.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대처의 시대적 변천

정신장애 증가의 원인을 질병모델로서의 의료화와 사회문화, 경제적 측면에서 간략히 소개하였다면, 각 시대 사람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대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류의 정신장애에 대한 시대적 이해와 해결방안은 시대적으로 변화되었고, 그 계보는 크게 퇴마사, 심리학자, 정신의학으로 이어진다(황상민, 2020:158-160; 대한조현병학회, 2019:11-13).

1) 18세기 이전: 정신장애에 대한 원시적 이해

고대 사회에서는 정신장애에 대해 의학보다는 종교적인 초자연 현상으로 신의 계시나 저주, 악령이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영매 역할을 하는 샤먼과 사제들은 춤과 노래에 이르는 다양한 역할로 저주를 풀고, 치료의식을 거행하였다. 샤먼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몸의 악령을 쫓아, 병을 치료하는 정신의학의 수행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기원전 7세기 그리스인들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는 과학적 관찰과 실용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근대과학에 근거한다. 당시 히포크라테스는 신비주의가 아닌 관찰에 근거하여 정신의 문제를 진단하고 처방하려 노력했다. 그는 체형이나 체질에 따라 인간 및 정신이 분류된다고 보고, 거기에 따른 증상들을 조증, 우울증, 착란, 공포증으로 묘사했다. 생물학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이해하고자 했던 히포크라테스의 체액설은 그를 계승한 갈레노스가 더욱 강조함으로 고대의 대표적인 의학이론이 되어 1500년이 넘게 의학을 지배했다.

그리스의 의학은 ‘마귀들림’으로 진단하는 중세의 종교지도자들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중세는 정신장애자들에게는 최악의 시기가 된다. 마귀가 사람에게 씌어서 생각, 감정, 행동을 통제하기 때문에 적어도 십 수가지 증상들이 일어난다고 보았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은 악마와 사통함으로 공동체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기에 화형에 처해서라도 제거해야 했다.

문명과 산업,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빈민 구호소와 같은 곳에서 정신장애자들을 돌보고 치료하기 시작했으며, 16세기 중반부터 정신장애자는 수용소에 수용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배설물에 젖은 이부자리, 악령을 제거하기 위한 매질과 쇠사슬, 간수에 의한 강간, 학대뿐 아니라 이들은 관료를 낸 구경꾼에 의해 전시되는 일까지 있었다. 계몽주의 시대는 피가 전부 빠져나갈 때까지 거머리에게 피를 빨리고 수은과 클로라이드를 강제로 삼키게 하는 치료법들이 고안되었다(Powers, 2019:27; Ehrenreich, 2009:125).

2) 근대 이후: 도덕 치료, 진단 도구, 항정신성 약물 치료, 사회문화적 요소

17C의 프랑스의 내과 의사 Philippe Pinel 은 여러 정신병 증상들을 편리한 범주로 분류함으로 근대 정신의학을 시도하였다. 그는 음식 질의 개선, 침구의 정기적인 교체와 수용자 운동법 등을 만들어 도덕적 치료를 시작한다. 이어 도덕적 치료는 영국의 William Duke, 미국의 Derosia Dixie에게로 확산된다(권석만, 2019:27-29). 18세기 이후 몸에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발견되면서 병의 원인이 신체에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19세기 후반 Sigmund Freud를 비롯한 신경학자들에 의해 정신장애는 심리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반면에 Freud와 같은 해에 태어난 Emil Kraepelin은 1883년《정신의학 개론》에서 정신질환은 뇌의 생

물학적 과정에 결합이 생긴 결과로 정신의학은 의학과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동시대의 Alois Alzheimer를 비롯한 다른 정신의학자들도 정신장애에 대한 생물학적 관점을 제기한다(Powers, 2019:74).

그 후 2차 세계대전으로 정신의학의 경계가 넓어지게 된다. 정신장애는 전쟁 수행에 위협적 요소로 인식되었다. 이에 군대는 두려움에 떨거나 유약하여 다른 군인들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사람을 색출하기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새 진단 분류 체계를 고안하여, 1952년에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 I'이 출간되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정신의학은 전성기를 맞이한다.

현대의 연구는 MRI와 같은 정교한 도구와 신경 기술을 활용해 뇌 이상의 증거를 찾게 된 결과,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물질의 균형과 조절을 통한 항정신성 약물 치료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와 달리 정신장애에 대한 사회문화적 요소를 고려하고자 하는 관점도 증가한다. 미국의 Gretchen Meyer는 정신장애의 원인과 치료에 있어서 심리 생물학적 관점에서의 개인의 성장과 발달, 사회적 관계와 같은 심리 사회적 원인에 관심을 두었다(이동수, 2002:7 재인용). Paul Verhaeghe는 정신장애를 사회화되어가는 문화적 증상으로 보고 사회문화적 접근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Verhaeghe는 증가하는 정신장애에 대한 상담 활동을 반드시 신체적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심사와 행동과 태도, 가치관, 생활양식이 증상을 통해 반응하는 것이라는 관점의 중요성을 주장한다(Verhaeghe, 2020:263-267). Ethan Watters는 정신장애에 대한 문화 인류학적 접근을 통해 문화적 원인과 대처를 제시한다(Watters, 2010:118). 이 같은 의견들은 정신장애는 생물학적인 과정보다는 직접적으로 경험된 고통이 문화와 사회적 영향력에 의해 해석되고 악화된다는 관점이다.

3. 정신장애에 대한 역사적 오류, 논쟁, 유형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대처의 역사에 대해 고찰하였다면, 역사적으로 정신장애를 이해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의 오류와 잘못들을 알아보고, 유행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는 진단명들에 대해 소개한다.

1) 역사적 오류와 논쟁

먼저 우생학이다. 1900년대 등장한 전체주의는 뇌엽절제술을 시행하고, 우생학을 통해 인구의 조절과 원치 않는 존재를 강제 불임화하여 제거하였는데, 범죄자와 병자, 정신질환자, 사회적 낙오자들에게 적용하였다(허경미, 2019:294). 정신질환자를 학대하고 살인한 것은 유럽만이 아니라 미

국에서도 세계대전을 전후해 불임화하는 조치가 번성했는데,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2014년까지 시행되었다 (Powers, 2017:183).

다음은 의료화와 항정신성 약물에 대한 비평과 논쟁이다. 정신의학과 현대 상담문화는 정신의학 초기부터 반정신의학자들과 심리학자들에 의해 ‘정신병 산업’이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판의 핵심은 정신장애의 증가의 원인으로 들고 있는 ‘의료화’이다. 1950년대 신경전달 물질의 발견과 연구의 발전으로 신경전달 물질의 전달 과정과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 항정신성 약물을 생산하게 된다. 사람들은 항정신성 약물의 복용으로 인지능력을 되찾게 되고, 파괴적이고 불합리한 충동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항정신성 약품의 사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항우울증, 수면제, 진통제에 의존하는 사람들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항정신성 약물의 혁명은 많은 논쟁과 비판을 받고 있다. 일상의 정상적이고 일시적인 불안에 염려하는 사람들에게도 불필요한 약을 처방한다는 점이다 (Frances, 2014:17; Ayan, 2014:91-94). 또 제약회사에 대한 비판과 논쟁이다. 현대의 제약산업은 소비자 대상 광고를 이용해 사회의 기대치와 무엇이 정상인지를 규정하는 영향력을 키워, 약물은 대중의 일상 행동, 기분, 학습 능력, 섹슈얼리티를 바꾸는 용도로까지 사용되고 있다 (Conard, 2007:303-305). 항정신성 약물을 공급하는 기업들의 은폐와 거짓, 마케팅을 통한 막대한 이윤, 윤리적 책임의 문제들에 대한 비판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의료화로 인한 정신의학이 비판받는 일 중의 다른 하나는 진단 도구에 대한 것으로, 심리와 행동, 증상의 이상을 분류해 놓은 매뉴얼에 근거하여 같은 원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한다는 지적이다. 인간 행동에 대한 범주표를 중심으로 한 분류와 진단은 논란을 거듭하며 준거 지침으로 개정되고 있다. 정신장애 진단의 지침서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은 개정판이 나올 때마다 추가 항목이 늘어난다. 2판에서는 180개의 항목이, 3판에서는 292개로, 4판에서는 365개로, 5판에서는 500개로 늘어났다 (Verhaeghe, 2015:236).

정신장애 진단의 세부화와 잦은 개정으로 익혀야 할 새로운 이름들이 생겨나는 것 외에도 정신장애 진단은 경계의 모호함, 일관성, 인간 이해의 한계성의 문제가 있다. 첫째, 정신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은 육체적 질병의 진단보다 불분명하다. 즉 정신장애 진단보다는 스캔할 수 있고 촬영할 수 있는 신체적 질병인 심장병의 진단이 쉽고 분명하다. 슬픔과 절망을 항우울제로 치료할 시점은 어디인지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수줍음을 개인적 특성으로 규정할 것인지 사회공포증에 포함할 것인지의 경계도 모호하다 (Kalb, 2019:12-19). 둘째, 이처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는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으며 진단 평가는 환자의 증상이 어떻게 보이는가와 환자의 묘사를 근거로 한 의사의 주관적인 판단이기에 진단의 일관성이 없다 (이동수, 2002:7). 셋째, 정신장애의 원인

을 신경생물학적, 유전적 원인으로 확정하려 했지만, 신경생물학적 과정과 유전적 인과성은 불분명하며, 뇌의 복잡성과 광대함은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결과적으로 정신의학에서도 정신장애의 정확한 원인과 진단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는 아직 요원한 상태이다(권석만, 2019:26).

2) 정신장애 진단과 명명은 시대적 유행병

정신장애의 시대적 이해와 대처, 오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정신장애 명명의 유행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19세기 말에 Freud가 유행시킨 신경증, 히스테리, 노이로제는 사라지고, 현재는 다른 증상을 보이는 정신장애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정신장애 진단의 변천과 새롭게 명명된 증상들을 19세기 후반과 현대의 질환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1)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의 진단명들: 신경쇠약증, 다중인격

19세기 후반에 뇌에 대한 지식이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이전의 철학과 신학이 설명하지 못했던 인간의 행동을 뇌 생물학이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하였다. 당시에 유행하는 불안, 우울, 무기력, 히스테리를 설명하는 병명을 통합하여 신경쇠약증이라 하였고, 19세기 후반의 신경학자들은 이것을 ‘히스테리’, ‘노이로제’로 구분하였다. 신경쇠약과 히스테리는 신경학자들이 정신의학자들로 대체되면서 사라졌다. 신경학자들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모호하고 비정상적인 육체적 증상에 집중하였고, 정신의학자들은 육체적 증상보다는 심리적 증상에 관심을 가지고, 환자와 소통하게 되면서 신경쇠약과 히스테리는 사라지게 된 것이다. 다중인격 장애는 20세기 초 유럽에서 유행했는데, 최면술로 다중인격을 치료하게 되면서 최면술은 의학적 치료법으로 부상하게 된다. 그러나 인격의 증식을 일으키는 분열을 최면으로 치료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분열이 일어나 최면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각성과 보험회사가 다중인격 치료에 보험 지급을 중단하면서 다중인격은 사라지게 되었다(Frances, 2014:195-204).

(2) 현대에 유행하는 진단명들

19세기에 유행하던 모호하고 비정상적인 마비와 같은 육체적 증상의 병들이 사라지고, 현대는 나를 평가하는 사람에 대한 공포, 지체되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짜증, 학습에 필요한 집중력 부족, 소득의 격차로 느껴지는 불평등이 원인이 된 무기력, 분노와 우울, 즐거움을 찾고자 했지만 과도해서 조절이 안 되는 문제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최근의 이와 같은 증상과 진단 중에서 의료화, 항정신성 약물과 진단 도구의 세부화에 관련되어 논의되고 있는 진단명들을 소개한다.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는 20세기 후반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개인적 편차로 여겨졌던 주의력 및 행동 문제를 요즘은 정신장애로 진단한다.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아이들이 도움을 받게 되었다는 의미가 크다. 그러나 정상적이지만 덜 자라서 또래보다 시끄럽고 산만한 아이들을 서둘러 정신장애로 진단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또 ICD(국제 질병 분류)와 DSM은 진단의 기준이 다르다. ICD의 기준은 ADHD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집중력 장애와 과잉 행동을 모두 갖추어야 하지만, DSM의 경우는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안동현, 2018:184). ICD보다 DSM에 의해 ADHD가 더 많이 진단되므로 진단 분류법에 따라 같은 사람이 장애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경우 '주의력 결핍 장애 조기 발견'과 '진료비 지원 사업'의 시행은 ADHD 진단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박건우, 2016:73). Verhaeghe는 ADHD는 아이들을 학교에 적응시키기 위한 진단명이므로 수업의 형태가 바뀌었을 때는 새 명칭이 필요하다고 한다. ADHD는 아이들이 교실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는 방학에는 진단되지 않으며 집중이 필요 없는 SNS, Twitter에서 더 많이 활동하는 현대의 아이들에게는 맞지 않는 진단명이라는 것이다(Verhaeghe, 2015:267). 1990년대는 아동 ADHD뿐 아니라 성인 ADHD 진단도 성행하여 성인 ADHD에 대한 인식이 대중화되었다. 여기에는 전문가들의 글, 미디어와 ADHD 자가진단법이 큰 역할을 했는데, ADHD의 유행에 일조했던 대중매체들에 의해 '의사들의 말이 정말일까?'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ADHD 진단들'과 같은 주제로 다시 반론이 제기되는 일들이 있었다(Today Show, 1995; CNN, 1995).

지난 20년 동안 미국은 80명 중 1명, 한국에서는 38명 중 1명으로 자폐증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자폐 진단의 최초의 계기는 아이들에게 이상한 신호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느끼는 부모들의 공포였다(Frances, 2014:223). 정확하게 진단된 환자들은 진단을 받음으로써 학교와 치료시설에서 더 나은 서비스를 받고, 낙인과 고립감에서 벗어나 인터넷에서 지지를 얻는다. 반면에 잘못 꼬리표가 붙여진 환자들은 사회적 지원과 지지와는 달리 개인적으로 낙인을 감수해야 하고, 자신과 가족의 기대가 낮아지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 주의력 결핍 장애와 같이 자폐증도 제약회사의 마케팅 결과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성급한 진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면 정상적으로 자라났을 아이들이 평생 치료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비판이다.

사회공포증은 서구 사회에서 우울증과 알콜 중독 다음으로 심각한 장애로 분류된다. 사회공포증은 일상적인 수줍음을 타는 사람에게 아픈 사람이므로 치료받지 않으면 실패할 것이라고 믿도록 했다. 수줍음은 보편적인 인간의 특성이다. 사회공포증은 타인에게 평가받거나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일어난다(Ingersoll, Marquis, 2018:184). 신체적인 원인보다는 폭발적인 카메라의 증가,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타인의 평판에 민감한 사회적 분위기가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있을 가능성

이 더 크다는 것이다.

우울증은 인류가 겪는 가장 잔인한 괴로움 중의 하나다. 진단의 준거 틀이 되는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이 개정을 거듭하며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진단에 의한 유용성 때문이다. 그러나 우울증 진단은 체크리스트 중 4개를 만족시키는가? 아니면 5개를 만족시키는가 하는 체크리스트 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허점이 있다. 이것은 경증과 중증의 우울증이 같은 뜻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뜻이며 체크리스트 갯수에 의해 우울증의 진단명을 얻어 약 처방을 강요당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더 불어 오늘의 대중은 신체적으로 뇌의 화학적인 불균형 즉 도파민의 불균형에서 우울증이 비롯한다는 상식과 항우울제의 처방과 복용이라는 대안이 일반화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해 황상민은 현대상담 문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완벽주의와 자존감, 분노에서 비롯한 우울증의 원인은 자신의 이루어지지 않는 기대가 원인인데, 신체적인 문제처럼 약을 오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황상민, 2020:291-294).

마지막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인간의 경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심리 외상으로 사람들이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후 외상 사건이 재연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되고, 고통스러운 기억을 떠올리게 만드는 단서에 대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드러내는 증상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는 베트남 전쟁에서 돌아온 군인들의 증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명명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은 환자의 주관적인 자기 보고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부정확하다. 자기 보고의 부정적인 면은, 개인이 가진 성향과 환경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감정적인 사람일수록 더 격한 반응을 하고, 성격에 따라 경험을 곱씹으며 경험에 대한 감정을 오래 보유한다는 것이다. 또 자신의 경험에 따른 해석은 질문자의 질문에 대해 자기 보고를 다르게 진술하기도 한다(안현의, 한민희, 주혜선, 2013:116-120). 누구나 사건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보고하기는 어렵다. 사람들은 복잡한 심리적 변화로 인해 경험을 축소하기도 하고 과장하기도 하므로 사람의 기억은 자신의 생각처럼 정확하지 않다. 기억의 인출은 접촉한 외부의 정보에 의해 기억이 왜곡되기도 하고, 기억을 재구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속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뿐 아니라 모든 경험된 기억, 경험의 진술에 다 포함된다.

정리하면, 신경정신의학과 심리학이 발전하고 새로운 이론과 진단 도구들이 개발될 때부터 정신장애의 이해와 진단, 대처의 역사 속에서 오류와 과잉 진단과 상업성, 항정신성 약물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 않았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정신의학과 심리학, 약물의 도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창조 능력의 발현이며 지혜의 선물이다. 최근 50년간의 정신의학과 심리학이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고통을 돕고자 한 노력, 연구와 결과들은 괄목할 만하다. 진단 도구의 발달로 조기 진단을 통해 치료에 이르는 바람직한 결과들도 많다. 그러므로 정신의학과 진단, 항정신성 약

물에 대한 비판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신체에 대한 연구의 한계성이라 할 수 있으며, 이에 교회 상담가들은 상담을 위한 정신의학, 항정신성 약물, 일반 심리학적 지식을 구비하여 지혜롭게 균형을 잡아 나가야 한다. 그러나 교회 상담가와 정신의학은 다루는 영역이 서로 구별되어 있으며 분명한 직업적 훈련과 목표의 경계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신장애 치료의 목표는 사회에 복귀하여 직업을 갖고, 타인과 어울려 사회적 활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 상담의 실천의 목표는 인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할 때,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 하나님의 영광에 목표를 둔다.

III. 교회 상담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성경적 상담

1. 교회 상담과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정신학과 현대 심리치료의 진단과 대처, 약물은 유용했고 증상을 완화시켜 주었지만, 성경적 관점에서의 궁극적인 변화에 이르게 할 수 없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했다는 진리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인간론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현대 상담의 주요 주제는 낮은 자존감, 불안, 소통 등이다. 기분장애와 청소년들의 품행장애, 물질 관련 장애, 성격장애 (반사회성, 경계성, 연극성, 자기애성) 섭식장애의 여러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자존감이다. 그러나 자존감의 강조를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지 않았다. Jean Twenge는 현대의 문제는 자신을 너무 많이 생각하고 자신감이 넘쳐서 문제라고 한다(Twenge, 2010:6).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지만 사람에 대한 공포와 회피라는 정신장애와 개인화는 늘어간다. 정신장애 진단명들이 유행병처럼 사라지고 새로 생겨난다. 그렇다면 펜데믹 이후의 새로이 생겨날 미래적인 진단명들과 대처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부작용 없는 새로운 약에 대한 기대만이 우리의 소망일 수는 없을 것이다.

1) 목회적 돌봄으로서의 교회 상담

이와 같은 현실 가운데 교회 상담의 실천 원리와 변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지 고민해 보고자 한다. 교회 상담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행해져 온 목회적 돌봄이 전문화된 사역이다. 그러므로 교회 상담자는 성경적 관점에서의 인간관, 교회론적 관점에서 영혼 돌봄을 이해해야 한다(하재성, 2015:239).

19세기의 의료계와 상담계에서는 일상적인 불행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고통과 불행은 인간 존재의 단면으로 헤쳐나가야 하는 것으로 보았다(Dworkin, 2014:214). 그 당시에는 의사는 몸을, 성직자는 영혼을 치료하였다. 그러나 점차 성직자는 신학보다는 심리학에 의존하고, 영혼 치료와 심리, 정신치료를 동등하게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다. Paul Pruyser는 미국의 목회자들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에 집중하여 신학적 자원들을 가볍게 여긴다고 비판한다(Pruyser, 1976:60-61). Thomas Oden은 저명한 심리학자들의 이론들이 아무 비평 없이 목회적 돌봄의 개념을 대신하고 있다고 지적한다(Oden, 1988:23). 즉 현대의 교회 상담은 소명과 정체성, 자신이 보유한 강점과 자원에 대한 확신 없는 상담실천의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교회 상담가에게는 비성경적 이론에 대한 분별을 통해 성도를 보호해야 할 과제가 주어진다. 현대 정신의학과 심리치료 이론의 유용성에 함몰되어 본질적인 문제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심리학적인 인간 행동을 바탕으로 한 현대 심리치료는 심리적 불편감, 정신적 상처에 대한 치료 방법으로 자아 충족성, 자아 성장, 자기 신뢰 등의 자아 이론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성도는 그리스도를 신뢰함에서 비롯한 건강한 자존감과 자유함을 통해 자기희생의 삶을 배워야 한다. 최근 교회 상담의 실천에서 비성경적 이론의 무분별한 수용의 예는, 정신건강, 스트레스와 긍정적 감정에 종교적 영성이 유익하다는 연구 결과 보고 후, 명상법이 크게 활용되고 있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Brannon, 2019:176).

2) 고통에 대한 성경적 이해

정신장애는 인간 실존의 고통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고통의 우주적 보편성과 성경적 관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Psychopathology”의 어원을 살펴보면, psycho는 심리적 차원을, pathos는 헬라어의 고통 (suffering)에서 왔다. patient(환자)의 어원 또한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뜻의 라틴어 patiens에서 유래했다. 따라서 Psychopathology는 고통에 대한 학문이다. 고대의 철학은 세상은 고통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시작했다.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을 줄이는 일은 수 천년 동안 철학의 목표였으며, 철학에서의 고통에 대한 대처는 ‘좋은 삶’을 이루어 내는 것이다. 에피쿠르스 학파가 추구하던 쾌락조차도 고통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통이 제거됨으로 얻어지는 평안과 쾌락이다. 정신장애는 ‘고통의 문제(철학)’ ‘고통의 신학’으로 접근할 수 있다.

최근 정신장애 진단은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Ronald Miller는 “지난 25년간 주류의 이상심리학, 심리학과 정신의학 교과서를 보면 고통, 괴로움, 슬픔, 육체적 고통 그리고 감성적 통증 같은 단어들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Miller, 2005:305). 이제는 정신 진단편람의 개정과 발전으로 인간의 고통과 슬픔을 체크리스트에 의해 규정하게 되었다고 지

적한다.

성경은 사람의 고통을 결코 최소화시키지 않는다. 고통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성화의 방편으로서의 고통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에 사람을 참여시키려는 특별한 목적으로 고통을 통해 사람을 훈련하신다(히 12: 10-13; Hoekema, 2003:328). 사람은 고통의 상황을 통해 자신의 연약함과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존재임을 알게 된다. 이 같은 목적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고통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다(시 119:67, 롬 8:28-29, 히 12:10-11).

고통의 다른 국면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한 곧 죄의 결과로서의 고통이다. 죄는 인간의 삶이 지니는 보편적이고 슬픈 일로 인류의 공통된 경험이다(Berkhof, 2000:443). 인간은 누구나 죄의 상태에 있다. 정신장애가 죄는 아니지만, 정신장애 또한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인한 고통의 범주 안에 있다. 그러므로 정신장애에 대한 성경적 관점은 일반 학문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이해와 해석, 진단을 전적으로 수용하지는 않는다. 교회 상담가는 죄와 그 영향력이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역동을 이해하고,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도록 도와야 한다.

성경과 교회 상담가는 다른 어떤 이론보다도 죄와 연약함, 고통의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다. 이에 교회 상담가가 보유한 강점과 자원은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고통을 성경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으며, 성경적 해석에 근거하여 현재의 고난을 영원성 속에서 바라보도록 격려하고 인내하도록 이끌 수 있는 점이다.

2. 교회 상담 실천의 모델 : 성경적 상담

교회 상담 실천에서 세상 속에서 고통당하는 정체성과 존재론적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활용하기에 적합한 상담 모델로 성경적 상담학을 제시한다.

1) 성경적 상담의 원리

성경적 상담은 심리학적 상담의 방법과 이론을 도입하기보다는 성경을 토대로 상담이론과 방법을 정립하려는 학파의 상담이론을 말한다. Jay Adams가 기초를 쌓고 후에 John Bettler와 CCEF (Christian Counseling and Educational Center)의 젊은 교수들에 의해 보완되었다(황규명, 2008: 40-42). Adams가 활동을 시작한 시기는 인본주의 심리학이 인간 이해와 해석의 바탕이 되고, 심리학 이론에 대한 기독교적 적용의 위험성과 비판이 강하게 일던 시기였다. Anton Boison과

Leslie Weatherhead가 목회상담에 심리치료 이론을 받아들여 목회신학을 발전시키는 상황 속에서 Adams는 인간의 모든 행동과 판단, 치유의 기준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이와 같은 Adams의 주장 이후 기독교 상담의 범주 안에는 거센 논쟁들이 일게 된다. 그 논쟁의 주요 쟁점은 ‘성경의 충분성 여부’와 ‘심리학을 대하는 태도’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의 충분성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는 Stanton Jones와 Richard Butman의 성경에 대한 입장은 성경을 구원과 믿음에 대한 교리로 제한하여 성경이 상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안내하는 것은 아니며 몇몇 사람에게만 적용 가능하다는 관점이다(Jones; Butman, 2011:27). Jones는 성경은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모든 문제가 제시 되어 있지 않고, 상담에 필요한 실제적인 통찰은 제공하지 못한다고 한다(Jones, 2010: 101-128). 이에 대해 David Powlison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동성은 삶의 어떤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성경의 충분성을 말한다(Powlison, 1993:24-34). 왜냐하면 상담은 좁은 의미의 종교적 교리나 과학의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불안, 절망과 같은 복잡한 인간의 세부적인 경험을 다루기에 성경은 실제 삶의 전 영역에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다고 답한다.(Johnson, 2012:107)

심리학을 대하는 태도는 몇 가지의 관점으로 나누어진다. 성경과 심리학을 통합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Gary Collins, Bruce Narramore와 같은 통합적인 관점의 핵심은 신학과 심리학은 하나님이 진리를 계시하는 다른 경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Robert Roberts, Paul Watson을 대표로 하는 기독교 심리학적 관점은 기독교와 심리학의 통합은 심리학이 주체이므로 기독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진다. Larry Crabb의 경우 통합주의적 관점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신학적이고 교회론적인 방향으로 나아갔다(Johnson, 2012:48-52). 기독교 상담 영역에서는 아직도 성경의 충분성의 여부와 심리학의 수용 태도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성경적 상담의 발전의 역사 가운데 ‘심리학을 대하는 태도’를 소개하면, 김규보는 Adams와 맥을 같이하는 전통적 성경적 상담학자들인 Wayne Mack, John Broger 등은 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추어 상담 신학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으며 근대 심리학 연구의 위험성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심리학이 기독교 상담에 줄 수 있는 공헌까지 극단적으로 부인했다고 평가한다(김규보, 2007:42). Adams의 권면적 상담 이후 Powlison을 대표로 하는 성경적 상담의 2세대로 넘어가면서 2세대는 죄와 고통의 문제를 균형 잡고 마음의 동기 문제를 숙고하는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다.

Stuart Scott를 비롯한 성경적 상담의 3세대는 Adams가 극단적인 분파를 일으켰던 모습과는 달리 다른 복음주의자들과의 대화의 시도, 죄와 타락의 신학을 유지하며 다양한 현실의 문제를 다루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성경은 삶의 어려운 문제를 나침반처럼 관통하게 할 수 있다는 확신 위에 일반 학문의 연구들은 성경의 통찰을 돕는다는 유연성을 취한다.

성경적 상담은 성경의 원리들을 상담에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찾아본다. 성경의 원리를 그대로 정립한 성경적 상담의 인간관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방향 제시 없이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다(황규명, 2008:52). 이 전제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인간을 온전히 아신다는 뜻이 포함된다. 시 139편은 하나님은 사람의 전인격과 모든 행위, 형질을 감찰하시고 아시는 분이라고 한다.

성경적 상담은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라는 원리에 근거한다.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거짓되고 교만한 마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기도 한다. 정신장애를 사회문화적 국면에서 다루고자 하는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은 풍요로움 속에서 나약해지고 더‘좋은 삶’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와 감정이 문제가 된다고 했다. 그러나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선한 욕구를 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욕구와 감정은 죄 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신장애의 고통은 신체적 결함에서 비롯하기도 하지만 자기중심성이 원인이 된 고통이기도 하다. 물질관련장애, 품행, 반항장애에서 보여주는 분노, 변태 성욕장애와 신경성 폭식성에서 충동적으로 나타나는 음란, 불안장애에서 나타나는 공포,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교만, 자기도취, 우울증에서의 자기 연민과 비탄, 용서하지 못함, 편집증에서의 고집스러움, 양심 같은 것들은 자기중심적 성향에서 비롯한 것으로, 생물학적인 신체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인간 본성의 죄 된 마음의 상태가 행동으로 나타난 것뿐이다.

정신장애에 대한 정신분석가와 가족 상담사들의 의견은 죄의 양상을 증명해 준다. 역대의 심리치료를 담당하던 정신분석가들은 죄라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정신장애를 부끄러움, 두려움, 수치심의 문제라고 보았으며, 가족 상담사들은 조정과 위장을 위한 행위로 보았다.

전통적인 정신분석가들의 인간론은 인간은 창조적이고 의사결정을 하는 존재라는 관점이다. 당시의 정신장애인 히스테리, 신경증을 자아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방어기제로 보았는데, Freud는 히스테리가 일어나는 필수조건은‘고의적으로 의식에서 억압’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받아들이 수 없는 부조화를 느끼는 자아를 관념에서 쫓아낼 때 신체적인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사고와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자신을 방어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불편한 동기를 포장하기 위한 신체적 증상이라는 것이다(Nasio, 2001:42-44). 히스테리를 일으키는 기전은 도덕적 비검함에서 비롯한 활동이고 자아가 휘두르는 방어기제이다(Fonagy, 2014:70). 이 모두가 도덕성 결핍의 해소를 위한 창조성의 발휘이므로 그 대안은 직면, 즉 정직해지는 것이다.

Afred Adler의 의견은 열등감과 우월성 사이의 갈등이 곧 정신장애라는 입장으로, 열등한 부분을 감추기 위한 노력이‘장애’라는 것이다(권석만, 2012:134). 정신분석가인 Karen Horney는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 무의식적 환상을 유지하므로 정신장애가 생긴다는 의견이다. 현실 요법의 창시자인

William Glasser도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해 창의성에 의해 ‘우울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Selligman; Reichenberg, 2015:442-443).

1960년대 이후 가족의 정신장애에 대한 대처에 관심을 둔 가족 상담가들도 정신분석가들과 정신장애에 대한 견해는 같다. 초창기 가족 상담가인 Carl Whitaker는 정신분열증에 대해 성장 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이 나름대로 만들어 낸 창조적 해결책이라는 의견이다. 다세대 가족 상담가인 Murray Bowen은 다른 상호작용과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의식적으로 차단하여 자신을 직면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정신장애이며, 신경증은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한 교활한 행위로 어머니로부터 전수된다고도 했다(권석만, 2012:421). 정신분석가들과 가족 상담가들의 의견을 통해 정신장애는 ‘무의식적인 꾀병’이라 할 수 있으며 위장임에도 히스테리의 마비 증상과 같이 신체적 증상을 동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상담의 주제들에서도 위장과 거짓된 마음을 찾아볼 수 있다. 자기 보호를 위한 방어기제로 만들어낸 신체 증상, 자존심을 지키고자 하는 창의력으로서의 신경증은 현대 상담의 주제들에서 열등한 자아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완전하고 ‘잘 기능하는 자기’로의 추구, 공허한 마음을 자기 만족적인 몰두를 동반한 ‘채워진 자아 느낌’으로 대체하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모든 상담의 목표는 변화이다. 비록 상담의 절차가 아니라도 생각, 감정, 의지, 행동의 변화는 여러 영역에서 다양하게 일어날 수 있다. 감옥에서 의무적으로 행하는 지능 검사에서 아이큐가 좋다는 말 한마디에 삶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사람도 있다. 또 든든한 사회적지지 기반, 좋은 관계는 사람을 복원시키는 좋은 자원이 된다. 변화에만 상담의 목표를 둔다면 사람들이 하는 많은 일들이 성공적인 변화를 이루어 낸다. 그러나 교회 상담의 실천은 복음의 핵심이 제거된 상담이어서는 안 된다. 복음은 증상과 감정의 완화가 아닌 죄의 제거이며, 또 이미 죄가 해결되었음을 말한다. 성경적 상담의 원리의 핵심은 구속의 복음이다.

성경적 상담에서의 변화의 원리는 성경의 원리대로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의 변화’(골 1:28), ‘생명 있는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 상담의 목표는 변화이지만 변화는 쉽지 않다. 변화는 어렵지만 창조와 타락과 구속의 관점에서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다. 변화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기만과 혼돈과 공허로 고통당하며 절망하는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셨다. 그 결과, 구속받은 자의 상태는 새것이 된다(고전 5: 17). 새로운 창조가 마음에 새겨진다(렘 31:33-34; 겔 36:24- 28).

2) 성경적 상담에서의 변화의 영역: 마음

성경적 상담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영역으로 마음을 말한다. 정신분석가들과 심리치료사들에 의해 정신장애의 증상 가운데 숨겨진 인간의 죄 성이 잘 묘사되었지만 성경에서 초점을 두고 있는 인간의 죄 된 마음의 작용에 대해서는 간과했다. 그러므로 바른 해결책을 줄 수가 없다. Powlison은 자신의 실수와 손상된 자존심에 직면하지 않는 위장된 본성, 도덕적 무책임을 병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죄가 인간의 심신에 영향을 미치므로 성경적 상담을 통한 변화를 위해서는 위장된 마음, 기만적인 마음에 초점을 두라고 한다(Adams, 1997:37; Powlson, 2009:354-359).

사람은 마음에 품은 것들을 추구하고 동조한다. 문화는 동시대 집단이 추구하고 동조하는 것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다른 증상(유행)을 보이는 정신장애는 그 시대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마음의 욕구, 동기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은 동기와 욕구의 저장소이다. 그러므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동기와 욕구가 변한다.

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아닌 속 사람의 변화 즉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둔다. 마음은 인간 실존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죄는 마음에 거하며 마음 중심에서 나와서 지성, 의지, 감정, 육체를 포함하는 전인에게 영향을 미친다(Berkhof, 2000:449). 그러므로 교회 상담의 실천은 겉으로 드러난 증상(행동)의 진단이나 묘사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와 문화를 통해 정신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정신의학에서도 마음을 치유한다는 점에서 교회 상담가와 공유할 것이 있을 것 같으나 그 분야에서 말하는 마음은 ‘뇌’ ‘신경’과 동일한 언어로서의 마음이다. 몸의 병처럼 마음의 병도 신체의 일부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는 물질적인 마음을 일컫는 것이다.

겉 사람이나 행동이 근본 원인은 될 수 없다. 사람들의 행동은 마음이 결정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부패했다고 기록한다(렘 17:9). 또 마음을 지켜 생명에 이르라고 한다(잠 4:23).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계시는 부분도 마음이다. 마가복음 7:1-23을 그 예로 들어보자. 정결법, 부정한 것에 대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트집을 잡자 예수님은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하시며 세 가지를 말씀하신다. 깨끗하지 못한 행동들로 간음과 부도덕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사고 영역으로 악한 생각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인간의 인지 영역으로 행동과 사고 이외에 다른 영역으로 마음을 말씀하신다. 교만과 질투, 시기 등 구체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마음의 태도이다. 마음의 태도는 행동을 결정한다. 그러므로 겉 사람은 속 사람의 표출이다.

누가복음 6:43-45은 마음과 행동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짙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라 선한 사람은 마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은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나무는 열매로 알 수 있으며, 마음(동기)이 열매(행동)를 결정한다.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표출된다”고 하셨다. 행동과 감정, 생각의 원인은 마음(동기)에 있다. 열매는 뿌리가 결정하듯이 행동과 심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모든 반응의 변화를 위해서는 마음이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 지속적이고 완전한 변화는 마음이 바뀔 때 가능하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동기)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Lane; Tripp, 2009:232-236). 그러므로 교회 상담의 실천은 인간의 욕구와 동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점검해야 한다.

3.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과정

마음의 변화를 위한 성경적 상담 과정은 자신과 정직하게 만나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과정이다.

1) 마음 길어내기

현대인들이 되도록 피하고자 하는 고통과 불행은 신경전달물질만이 원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인 욕구, 자기중심적인 욕구가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패감, 분노로 인한 우울한 감정을 단순히 병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회적 규범을 어긴 위험하고 잔인한 사람들을 정신장애로만 분류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정확하지 않은 진단은 불완전한 치료가 된다. 선을 행할 수 없는 인간이 품은 탐욕된 동기와 욕구에 대해서 약의 처방과 부작용 없는 약에 대한 기대는 인간에 대해 불완전한 진단이며 처방이라 할 수 있다.

정신장애를 위한 현대 상담의 실천은 불확실성으로 인한 두려움(불안장애),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아 생겨난 불만과 허영심(낮은 자존감), 수치와 죄책감, 중독,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상처, 분노, 경쟁심, 시기, 오해(편집증) 등을 다룬다. 나열된 감정과 행동을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 내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동기, 타인을 사랑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마음이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면, 불만과 분노의 증상은 허락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열망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태의 마음을 길어내기 위해서는 먼저, 두려움, 수치와 죄책, 외로움과 같은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서와 감정들이 이해되고 공감될 때, 감정과 연결된 생각과 동기(갈망)를 길어낼 수 있다. 마음을 길어내는 성경적 상담의 과정은 자기 보호적이고, 이상 숭배적인 마음의 욕망, 기만적인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영적인 자각을 위한 것이다. 성령의 도우심과 날 선 검과 같은 말쑥은 자신의 죄를 숨기는 방식, 부인과 부정을 위한 강박행동, 직시하기보다는 회피하기 위해 알코올을 선택한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신다. 마음을 자각할 때 비로소 자신의 행동과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며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 상담에서 마음을 길어내는 과정을 간략하게 강박행동으로 예로 들어보면, 강박행동은 과거나 현재의 힘든 상황에 대응하는 패턴으로, 두려움과 불안, 숨기고 싶은 수치, 죄책들이 생각날 때마다 선택한 행동을 통해 상황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수용과 위로의 소개는 자신의 정서와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용기와 변화에 대한 소망을 제공한다. 용기와 소망은 자신의 감정, 생각, 행동과 연결된 마음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게 돕는다. 만약 나타난 행동 패턴(증상)이 지나친 예배라고 할 때, 강박행동으로 자신의 죄를 대신 치르고자 하는 동기는 없었는지 살펴볼 수 있다. 성공이 동기가 된 완벽주의 성향은 다른 사람이 모르게 섭식장애로, 충동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성경적 상담의 과정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성에 직면하여 심을 주시고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돕는 과정이다(마 11:28-30; 사 55:1).

성경적 상담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정신장애에 대해서도 자신의 마음을 보도록 돕는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원망과 자기연민, 불신과 같은 마음을 살피서 자신의 병을 받아들이고 고통의 상황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신체적인 원인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와 영적으로 접근해야 할 문제를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신체적인 원인이 아닌 것을 질병의 범주로 판단한다면 행동에 대한 책임이 없으므로, 마음의 동기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체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접근한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문제가 된다.

2) 하나님을 신뢰함

마음의 상태가 그리스도 앞에 드러난다는 것은 은혜이다(엡 5:13). 죄 된 마음이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혜는 거짓된 욕망과 동기를 직시할 때마다 이길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한다. 또 은혜는 정신장애에서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고통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은 온갖 질병을 떠맡으시고(마 8:17) 고통받는 자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게 하고,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얻게 한다. 결과적으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점차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 (Welch, 2003:2-3)

우울증을 예로 들어보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적 환경은 행복을 추구하며 타인과의 사회

비교를 통해 행복과 불행의 감정을 느낀다. 사회 비교, 낮은 자존감, 분노에서 비롯한 우울증의 원인은 실제로 생물학적인 원인과 관련이 없다. 현대의 우울증은 대체로 ‘가치의 기준이 누구인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같은 죄 된 욕구와 동기에 따른 권위의 문제이다(Welch, 1997:44-48). 다른 사람의 칭찬과 명예, 존경, 인정, 사랑이 필요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마음의 동기가 되었다면, 그 마음의 주인은 ‘나 자신’이거나 ‘다른 사람’이다. 신체적 원인이 아닌 ‘사람’이 마음의 동기가 된 것이므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경배로의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신체적 증상이 원인인 경우도 우울증이라는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나와 더불어 싸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을 통한 교회 상담의 실천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의 주권적 통치를 인정하고 약속에 대한 소망을 기대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한다.

외상후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같은 적용을 할 수 있다. 극한 위험과 공포로 인해 아드레날린이 치솟고, 위협적인 경험에 대한 기억이 일상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과 공포가 믿음으로 통제될 때 비로소 두려움이 지배하던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영향력과 능력이 발휘된다. 이처럼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에 대해 어느 무엇도 막을 수 없다(롬 8:31-39). 경험된 기억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반복적인 두려움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사소한 일조차 통제할 수 없는 인간은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낀다. 그러나 친히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고통스러운 과거를 마주 대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얻어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시편 기자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다.”고 한다(시 94:19).

3) 성경적 상담 과정에서의 상담의 도구

상담 현장에서 정신장애로 고통당하는 성도에게 주어야 할 기본적인 도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촉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안에서 번창하도록 돕는 것이다.”라고 한다(Lambert, 2017:203). 교회 상담의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고 하나님의 계획안에 머물도록 지혜로운 상담가가 되어 함께 걷는 과정이어야 한다.

교회 상담에서의 성경적 상담의 과정은 지혜(말씀), 성령(기도), 언약(소망)을 상담의 재료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상담가가 가진 자원이며 강점이다. 교회 상담가는 고난을 성경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으며 말씀의 자원을 통해 고난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다.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정신장애에 대한 교회 상담의 실천에서, 말씀의 사용은 신체적 고통 중에도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

게 하여 신체적 고통의 해방을 능가하는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교회 상담에서 말씀이 위로, 소망의 도구로 사용될 때, 말씀은 내담자의 마음속에서 살아 역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장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전인격적인 변화에 이르도록 도울 수 있다(딤후 3:5). 또 말씀이 회개의 도구로 사용될 때, 성도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며 교훈(가르침)과 책망(문제 인식)과 바르게 함(교정)을 얻을 수 있다(딤후 3:16-17).

성령은 육신의 소욕을 보도록 도우시고, 새마음과 새 힘을 주신다. 성령을 따라 행하므로 점차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수 있다(갈 5:16; 롬 8:5-10). 성도는 다른 지식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므로(고전 1:1-25)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역사하는 자들이다. 이에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히 5:14). 바울은“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한다(골 2: 3).

하나님은 새 마음에 그의 법을 새기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실 것을 약속하셨다. 언약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독특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스스로 언약을 성취해 가신다.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지어 죄와 반역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있을 좋은 소식을 보이신 그의 자비와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근거가 된다. 언약은 성도의 영원한 소망이다. 현대상담 이론의 자아 성장과 자기 신뢰가 해결 방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일,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일들이 성도에게는 확실한 안전이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한 소망이 된다.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된 일들에 대한 믿음은 불안과 우울, 자존감, 분노, 죄책 등 현대의 모든 문제를 포괄하는 대안이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의 과정은 혼재되고 무분별한 세속적인 이론에 근거하기보다는 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와 어떤 검토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쫓개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성경의 말씀에서 통찰과 자원을 얻는다.

정리하면, 성경적 상담을 통한 교회 상담의 실천은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 언약적 소망에 근거하여 회개를 동반하는 자기 성찰과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과정이다.

4. 마음의 변화를 통한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변화는 예배자로의 동기의 변화를 통해 생각과 행동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삶으로의 성화적인 변화이다. 자기 인식을 통한 회개와 사죄의 은총을 통한 하나님 신뢰는 지속적인 믿음의 결단과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

1) 평안과 만족

시 131편은 마음의 동기가 변할 때 얻게 되는 평안에 대해 잘 보여준다. 마음의 쉼과 평안이 없는 이유는 마음의 교만함과 높은 눈, 내가 이루기에 어려운 일들을 위해 힘쓰는 일들로 인함이다. 영혼을 고요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교만한 기대와 과욕을 직시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에 어머니 품의 젖뎀 아이처럼 영혼의 고요함을 얻게 된다. Abraham Maslow는 정신장애는 ‘만족의 결여’가 원인이라고 하였다. 안전과 소속, 정체감과 깊은 사랑의 관계, 존경과 명성이 충족되지 않아서 생긴다는 것이다(Maslow, 1968:21). 그러나 성도는 결핍감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를 통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성도는 신의 자녀라는 정체성과 천국 시민이라는 소속감을 가진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 된 성도를 편 팔과 오른팔로 인도하시며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세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시므로 안전하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자들에게 존귀도 주시는 분이시다(삼상2: 30).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만족의 근원이다(고후 3:5). 결핍의 주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손색이 없다.

2) 하나님 뜻에 대한 관심과 순종

일상 가운데 원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은 절망, 자존심을 지켜야 하는 자기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나태와 게으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과 대처는 방어, 회피, 위장, 강박적 행동, 알코올의 선택으로 맺어진다. 이 선택들은 평안을 줄 수가 없다. 마음의 상태를 인식한 자기 직면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될 때 평안과 경건의 감정, 감사가 표출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쓸모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생긴다.

정리하면, 성경적 상담을 통한 궁극적인 열매는 삶의 거룩한 변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마음이 되는 것에 있다. 성경적 상담은 인간에 대해서 정신의학과 심리치료와는 다른 관점, 즉 하나님의 시각으로 인간을 바라봄으로 성도들에게 건강한 자존심과 예배하는 자로의 변화를 도모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의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교회 상담의 모델이 된다.

IV. 나가는 글

정신장애라는 스펙트럼을 통해 교회 상담의 실천의 원리와 방향을 위한 상담 모델로 성경적 상담을 제안하고 성경상담의 원리들을 살펴보았다. 교회 상담은 정신의학이나 심리치료와는 구분되고

고유하게 다루어야 할 영적인 영역과 역할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신장애에 대한 시대적 이해와 해석, 논쟁과 비판을 통해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한계성과 제한성을 고찰하였다. 이에 교회 상담의 실천은 변함없는 진리에 근거하여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돕는 과정이어야 함을 재진하였다. 이 일을 위해 교회 상담가는 상담과 관련된 삶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상담은 교회의 정체성과 부합된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활동이 된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성경적 상담이 가지는 장점과 의의는, 상담의 문제를 창조와 타락, 구속의 세계관에 기초하여 접근하였고, 정신장애는 인간에 대한 기능적인 평가이기 전에,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삶에서 불가피한 고통의 문제로 해석하였다.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교회 상담의 실천에서, 인간의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그리스도의 구속적 사랑과 동행하심에 소망을 둘 수 있는 근거이다.

다음, 성경적 상담은 성화적 변화라는 목표를 가진다. 정신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대처들은 육체적 증상의 완화나 감소를 목표로 하지만 성경적 상담은 일반 학문에서 간과한 영적인 권역에 접근하여 마음의 변화를 통한 감정과 사고 행동의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성경적 상담은 행동이나 증상의 묘사가 아닌 근원적인 마음의 욕망과 동기를 직시하는 것에 적합하다. 이 논문에서는 중독은 ‘즐거움을 찾고자 했으나 과도해서’, 공포증에 대해서는 ‘사람의 평가에 대한 공포’ 등과 같은 묘사를 통해 간략하게 마음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성경적 상담의 원리는 모든 상담의 주제들에 적용할 수 있다. 성경은 질병과 모든 문제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확한 Manual은 아니지만, 성경은 상담의 주제들과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한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강박행동,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의 예는 사람의 문제가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말해준다. 이처럼 성경적 상담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 신학적 적용이 실제적으로 가능하다.

정신장애를 위한 성경적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본 연구가 정신장애에 대한 교회 상담의 후속적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교회 상담가들에게 개인을 변화시켜 영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소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회 상담가 개인의 은사에 따른 정신장애에 대한 성경적 상담의 실제적인 적용, 성경의 활용에 대한 사례연구들이 이어지기를 제언한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석만. (2012). **현대심리치료와 상담이론**. 서울: 학지사
- [Kwan, S. M. (2012). *Contemporary theories of psychotherapy and counseling*. Seoul: hakjisa]
- 권석만. (2019). **이상심리학의 기초**. 서울: 학지사
- [Kwan, S. M. (2019). *Basics of Abnormal Psychology*. Seoul:hakjisa]
- 권수경·이상원 역. (2000). **조직신학**, Berkhof, L. (1941). *Systematic Theology*.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 Kwan, S. K. & Lee, S. W. (2000). *Systematic Theology*. Seoul: Christian Digest. Trans. Berkhof, L. (1941). *Systematic Theology*. Wm B. Eerdmans Publishing Co]
- 김규보. (2017). 트라우마에 대한 현대심리학적 접근의 평가와 기독교 병리학적 제안. **성경과 신학**. vol. 81. 171-205
- [Kim, K. B. (2017). A Proposal for Christian Psychopathology of Trauma. *Bible and Theology*. vol.81. 171-205]
- 김규보. (2019). 한국 성경적 상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제. **복음과 상담**. 27(2). 35-75
- [Kim, K. B. (2019). The Present and Tasks of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in Korea for the Upcoming Wave.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7(2).35-75
- 김명남 역. (2014). **정신병을만드는 사람들**, Frances, A. (2014). *Saving Normal*. 서울: 사이언스북
- [Kim, M. N. (2014). *Saving Normal*. Seoul: ScienceBooks. Trans. Frances, A. (2014). *Saving Normal*. William Morrow Paperbacks]
- 김양순 역. (2008). **논리학, 철학탐구, 반철학적 단장 월드북92**, Wiittgenstein, L.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hilosophische*. 서울: 동서문화사.
- [Kim, Y. S. (2008).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hilosophische*. Seoul: Dongsuhbook. Trans. Wiittgenstein, L. (1921). *Tractatus logico-philosophicus philosophische*. Routledge]
- 김재성 역. (2012). **마음챙김과 심리치료**, Germer, C., Siegel, D., Fulton, P. (2005). *Mind fullness and Psychotherapy First Edition*. 서울: 학지사.
- [Kim, J. S. (2012).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First Edition*. Seoul: Hakjisa. Trans. Germer, C.Siegel, D. Fulton, P. (2005). *Mindfulness and Psychotherapy First Edition*. The Guilford Press]
- 김준수, 다수 역. (2009). **사람은 어떻게 변화되는가**, Lane, T. & Tripp, P. D. (2006). *How people change*. 서울: 생명의 말씀사.
- [Kim, J. S. (2009). *How people change*. Seoul: Word of Life Press. Trans. Lane, T. S & Tripp, P. D

- (2006). *How people change*. New Growth Press]
- 김준 역. (2009). **성경적 관점으로 본 사람과 상담**, Powlison, D. (2003). *Seeing with new eyes*. 서울: 그리심
- [Kim, J. (2009) *Seeing with new eyes*. Seoul: Grisim. Trans. Powlison, D. (2003). *Seeing with new eyes*.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 김준 역. (2015). **성경적 상담의 핵심 개념**, Lambert, H. (2012).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 [Kim, J. (2015).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Seoul: DMI. Trans. Lambert, H. (2012). *The biblical counseling movement after Adams*. Crossway]
- 김준. (2015). 기독교상담과 정신의학: 약물치료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제안. **복음과 상담**. 23(1). 47-72
- [Kim, J. (2015). Christian Counseling and Psychiatry: Some Suggestions for Christian Counselors on the Use of Psychiatric Med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and Gospel*. 23(1). 47-72]
- 김찬영 역. (2012). **심리학과 기독교 어떤 관계인가**. Jonson, E. L. (2010). *Psychokogy & Christianity: five views*. 서울: 부흥과 개혁사.
- [Kim, C. Y. (2012).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Seoul: Revival & Reformation. Trans. Jonson, E. L. (2010). *Psychology & Christianity: five views*. IL. Grove: Inter Varsity Press]
- 대한 신경정신의학회(2017). **신경정신의학**. 서울: 아이엠이즈컴퍼니
- [Korean Nruro Psychiatric Assocation (2017). *Textbook of Neuropsychiatry*. Seoul: imis com-pay]
- 류호준 역. (1998). **개혁주의 인간론**. Hoekema, A. (1994). *Created in God's Image*.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 [Ryou, H. J. (1998). *Created in God's Image*. Seoul: Christian Literature Crusade. Trans. Hoekema, A. (1994). *Created in God's Image*. Eerdmans Publishing Company]
- 박건우. (2016).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 (ADHD)의 진단과 처방양상: 의료화 관점의 해석. **서울대학교보건의학원보건학과**. 73
- [Park, K. W. (2016). Trends in Diagonosis and Perscription of ADHD in Korea: Implications in respect of medicaliz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박한선·이수인 역. (2014). **행복의 역습**. Dworkin, W. (2006). *Artificial Happiness: The Dark Side of the New Happy Class*. 서울: 아로파.
- [Park, H. S. & Lee, S. I. (2014). *Artificial Happiness: The Dark Side of the New Happy Class*. Seoul: Aropa. Trans. Dworkin, W. (2006). *Artificial Happiness: The Dark Side of the New Happy Class*. NY: Basic Books]

- 생명의 친구들 역. (2018). **정신병리의 이해**, Ingersoll, E., Marquis, A. (2014). *Understanding Psychopathology: An integral Exploration*. 서울: 시그마프레스.
- [Friends of Life, (2018). *Understanding Psychopathology: An integral Exploration*. Seoul: Sigma Press. Trans. Ingersoll, E. Marquis, A. (2015). *Understanding Psychopathology: An integral Exploration*. Pearson Education, Inc]
- 손희주 역. (2014). **심리학에 속지마라**, Ayan, S.(2012). *Hilfe, Wir machen uns verrückt!*. 서울: 부키
- [Shon, H, J. (2014). *Hilfe, Wir machan uns verrückt!*. Seoul: bookie. Trans. Ayan, S. (2012). *Hilfe, Wir machan uns verrückt!*. Munchen, Zurich: piper]
- 안동현. (2018). **아동정신병리**. 서울: 학지사
- [Ahan, D. H. (2018). *Child Psychopathology*. Seoul: hakjisa]
- 안현의·한민희·주혜선. (2013)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인지-기억 체계. **한국심리학회**: 25(1). 111-133
- [Ahan, H. Y., Han, M. H. & Joo, H, S. (2013). A Cognitive-Mnemonic System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5(1). 111-133
- 이남석 역. (2010). **나는 왜 나를 사랑하는가**. Twenge, D., Campbell, K. (2009). *The Narcissism Epidemic*. 서울: 옥당.
- [Lee, N. (2010). *The Narcissism Epidemic*. Seoul: Okdang books. Trans. Twenge, D., Campbell, K. (2009). *The Narcissism Epidemic*. New York: Atria Books]
- 이남표. (1994). 현대의 사상: 토마스 자즈의 ‘반정신의학’ “정신의학은 유사과학이다”. **한국논단** 57(0). 158-163
- 이동수. (2002). 정신질환: 마음의 병인가. **신경정신의학**. 41(1)
- [Lee, D. S. (2002). Mental Illnesses: Disease of Mind.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41(1)]
- 이효숙 역. (2014). **정신분석의 이론들: 발달정신병리학적 관점**, Fonagy, P., Target, M. (2003) *Psychoanalytic theories: perspective from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서울: 눈 출판그룹.
- [Lee, H. S. (2014). *Psychoanalytic theories: perspective from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Seoul: Noon Publisher. Trans. Fonagy, P, Target, M. (2003). *Psychoanalytic theories: perspective from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Routledge]
- 장보철 역. (2017). **성경으로 상담하라**, Scott, S., Lambert, H. (2012). *Counseling the hard cases*. 서울: 요단.
- [Jang, B. C. (2017) *Counseling the hard cases*. Seoul: Jordanbook. Trans. Scott, S., Lambert, H. (2012). *Counseling the hard cases*. Nashville, Tennessee: B & R publishing Group]
- 장혜경 역. (2015).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Verhaeghe, P. (2012). *Identiteit*. 서울: 반비.
- [Chang, H. K. (2015). *Identiteit*. Seoul: ScienceBooks. Trans. VerhaegheP. (2012). *Identiteit*. De

Bezige Bij]

전혜진 외 다수역. (2016). **쉽게 배우는 DSM-5**, Morrison, J. (2014). *DSM-5 Made Easy: The Clinician's Guide to Diagnosis*. 서울: 시그마프레스.

[Jeon, H. J. (2016). *Made Easy: The Clinician's Guide to Diagnosis*. Seoul: Sigmappress. Trans. Morrison, J. (2014). *DSM-5 Made Easy: The Clinician's Guide to Diagnosis*. The Guilford Press]

정준호 역. (2018). **어쩌다 우리는 환자가 되었다**. Conrad, P. (2007). *The Medicalization of Society*. 서울: 후마니티스

[Jeong, J. H. (2018). *The Medicalization of Society: On the Transformation of Human Condition into Treatable Disorders*. Seoul: Humanitas. Trans. Conrad, P. (2007). *The Medicalization of Society: On the Transformation of Human Condition into Treatable Disorders*.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지영옥·김은덕 역. (2015). **하나님 대체 어디 계세요: 우울증**, Welch, E. T. (2012). *Depression*. 서울: 그리심.

[Gi, Y. O. & Kim, E. D. (2015). *Depression*. Seoul: Grisim. Trans. Welch, E. T. (2012). *Depression*.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최은실·김호정 역. (2017). **발달정신병리학**, Wilmshurst, L. (2015). *Essenti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2nd edition. 서울: 학지사

[Choi, E. S. & Kim, H. J. (2017). *Essenti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2nd edition. Seoul: Hakjisa. Trans. Wilmshurst, L. (2015). *Essential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opathology*, 2nd edition. John Wiley & Sons, Inc.]

표원경 역. (2001). **히스테리의 정신분석**. Dasio, J. (1990). *L'Hysterie ou l'Enfant Magnifique de la Psaychanalyse*. 서울: 백의

[Pyo, Y. K. S. & Kim, (2001). *L'Hysterie ou l'Enfant Magnifique de la Psaychanalyse*. Seoul: BaegUi. Trans. Dasio, J. (1990). *L'Hysterie ou l'Enfant Magnifique de la Psaychanalyse*. Payot & Rivages]

하재성. (2015). 개혁주의 교회론과 교회상담을 통한 영혼돌봄. **생명과 말씀**. 13(0). 237-265

[Ha, J. S. (2015). Reformed Ecclesiology and Church Counseling as Care of Soul. *Life and Word*. 13(0). 237-265]

한성진 역. (2003). **뇌 책임인가 내 책임인가**, Welch, E. T. (1998). *Blame it on the Brain*. 서울: 기독교 문서선교회.

[Han, S. J. (2003). *Blame it on the Brain*. Seoul: CLCbook. Trans. Welch, E. T. (1998). *Blame it on the Brain*.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 황규명 역. (2007). **치유와 회복의 동반자**, Tripp, P. (2002).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서울: 디모데.
- [Whang, K. M., (2007)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Seoul: Timothy Publishing House. Trans. Tripp, D. P. (2002). *Instruments in the redeemer's hands*. New Jersey: P&R Publishing Company]
- 황규명. (2008). **성경적 상담의 원리와 방법**. 서울: 바이블리더스.
- [Whang, K. (2008). *The principles and Methods of Biblical Counseling*. Seoul: Bible Readers]
- 황상민. (2020).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닐 때 만들어지는 **조현병**. 파주: 들녘
- [Whang, S. (2020). *Schizophrenia*. Paju: Dulnyouk]
- 허경미. (2019). 북유럽의 성범죄와 화학적 거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연구**. 18(1). 291-312
- [Hun, K. M. (2019). A Study on Chemical Castration System of Sexual Offenders in Nordic Europe.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18(1). 291-312]
- Abraham, M. (1968). *Toward Psychology of Being*. new York: Van Nostard.
- Adams, J. E. (1970). *Competent to Counsel*. Grands Rapids: Zondervan.
- Jones, S., Butman, R. (2011). *Modern Psychotherapies*. IVPA cademic: 2nd edition
- Pruyser, P. (1976). *The Minister as Diagnostician*. PA: Philadelphia Press.
- Miller, R. (2005) *Facing Human Suffering: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as Moral Engaement*. Amer. Psychological Assn(1st ed.)
- Watters, E. B. (2010). *Crazy Like Us*. Detroit: FreePress.
- Welch, E. T. (1997). *When people are big and God is Small*. New Jersey: P & R Publishing.
- Riska, E.(2003).“*Gendering the Medicalization Thesis*.” *Advances in Gender Research* 7(summer). 65-68
- Kelleher, S., Wilson, D. *Suddeently sick*. The Seattle Times. (2005/06/26)
- “Doctor Is sued in Death of girl 4” *Boston Globe*, Murphy, S. (April 4, 2008)
- BBC NEWS, Korea. (2021/08/31)

교회 상담에서의 정신장애를 위한 성경적 상담의 적용

Application of Biblical Counseling for Mental Disorder in Church Counseling

박은호 (수지피스메이커상담센터)

논문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 증가하고 있는 정신장애에 대한 교회 상담의 모델로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성경적 상담학을 소개하는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정신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해석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정신장애에 대한 현대상담문화와 정신의학의 대처 방안과 오류, 이들에 대한 반정신의학자들의 비판을 소개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교회 상담은 교회의 본질, 성경의 원리와 일치하는 상담이어야 함을 재진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신장애를 인간의 고통의 문제로 접근할 것과 현대 정신의학과 상담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속사람과 영적인 변화를 위한 마음 변화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이 연구는 교회 상담의 실천은 변함없는 진리에 근거하여 인간의 실존적 상태를 그리스도께 맡기도록 돕는 과정임을 확인하고, 이 일을 위해 교회 상담가는 상담과 관련된 삶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도록 촉구한다. 그렇게 할 때, 교회 상담은 교회의 정체성과 부합된 복음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활동이 된다고 주장한다.

주제어: 정신장애, 교회 상담, 성경적 상담, 고통, 마음의 변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聖地巡禮旅行) 발전방안 모색*

Searching for The Christian Relics of Evangelist Jun-kyung Moon Development plan for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이웅규 (WoongKyu Lee)**

김농오 (NongOh Kim)***

이창훈 (ChangHun Lee)(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ABSTRACT

In connection with the pure spirituality and martyrdom of Eva. Jun-kyung Moon, the 'Pilgrimage Route of the Twelve Apostles', which has recently been attracting attention, was proposed to develop a travel program to pilgrimage Korean historical sites that have been neglected or damaged. The main purpose was to develop a pilgrimage to the Holy Land centered on the martyrdom of Eva. Jun-kyung Moon.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a theoretical study to give meaning to the Christ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Eva. Jun-Kyung Moon. In addition, we devised a plan to develop a pilgrimage program and schedule for Eva. Jun-kyung Moon, which can be easily found, viewed, understood, and remembered by many people. As a result, First, a walking pilgrimage program for the same day, 1 night 2 days, 2 nights 3 days, etc. was presented; Seco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ilgrimage product by Eva. Jun-kyung Moon were maximized; Third, using the 'Mosil Road' that follows the footsteps of martyrdom; Fourth, linkage with Soak Church, and Fifth, the direction of continuous creation of holy sites related to Christian historical sites by Eva. Jun-kyung Moon was suggested. As suggested by this study, one of the most important measures for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Christ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Sinan-gun, Jeollanam-do, which contains

* 2022년 2월 17일 접수, 3월 16일 최종수정, 3월 17일 게재확정

** 백석대학교(Baekseok University) 관광학부 관광경영학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백석대로 1, unikorea@bu.ac.kr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명예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nongoh@hanmail.net

**** 국립목포대학교(Mokpo National University) 공과대학 조경학과 조교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leech4298@mokpo.ac.kr

the precious evangelism and martyrdom history of Eva. Jun-kyung Moon, is that the development of a sustainable pilgrimage program is not human-oriented but natural. It has to be approached from a directional point of view.

Key words : Evangelist Jun-kyung Moon, Pilgrimage to the Holy Land, Christian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12 Apostles pilgrimage

I. 서론

오늘날 종교관광(宗教觀光)이 미치는 사회·경제·문화 분야의 긍정적 영향이 재조명되면서, 관광 산업 및 국제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다(박의서, 2011: 123; 백규리·이계희, 2021: 23-38). 과거 신앙활동에 국한되었던 종교관광은 최근 다양한 매체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일반에게 대중화되고 있으며, 차별화된 다원적인 사회현상 속에서 관광객의 개성을 중시하는 새로운 관광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경험적 측면을 우선시하는 특수목적관광(SIT, Special Interest Tourism)은 종교관광분야에서 선호되고 있으며 최근 주목받는 문화관광콘텐츠로 자리잡고 있다. 세계종교관광협회(The World Religious Travel Association)에 따르면 종교관광은 연간 180억 달러의 수익을 자랑하는 대규모 산업이며, 여행의 역사적 측면에서도 중요성을 지닌다고 평가했다(이일주·고주희·이수호, 2016: 203-222).

최근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관심은 소악교회를 필두로 한국도서(섬)학회와 국립목포대학교 교수신우희 등 여러 단체를 포함한 전라남도과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문준경 전도사의 신앙생활을 조명하고자 하는 연구(박명수, 2016: 150-168; 양정, 2011: 63-86; 이만신, 2014: 84-87; 정태기, 2015: 86-88; 주승민, 2013: 30-34; 2017: 9-52)는 관련 교회와 기관 등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성지순례여행(聖地巡禮旅行)’이라는 이름으로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殉敎)하였던 기독교 유적지를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선행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문준경 전도사 기독교 유적지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성지가 다양한 신앙생활을 위한 성지순례 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일부 장소에는 상업화로 인한 종교 이미지 훼손이 확인되기도 한다(김중기, 2000: 193-206).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전남 신안군 증도면 병풍도 아래 노두길¹⁾로 연결된 4개 섬(대기점도·소기점도·소악도·진섬)에서는 2019년 11월 예수의 열두 제자를 상징하는 작은 예배당과 연결된 순례길이 완성되면서 비대면 시대의 관광콘텐츠로 각광 받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지순례 장소를 찾는 관광객의 기독교에 대한 진정성을 담보를 위한 방안모색의 일환으로, ‘성지순례여행’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문준경 전도사 유적지 현장조사(2019년 7월 20일~21일, 2020년 10월 24일~25일, 2021년 7월 10일~11일, 총3회)를 바탕으로 기독교 종교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에 두었다.

1) 본디 두 섬을 잇기 위해 갯벌 위에 돌을 깔아 왕래하던 길을 뜻하는 ‘노두길’이 문준경 전도사 앞에서는 ‘고무신 행진’을 낳은 복음의 통로로 변모했다.

II. 성지순례여행에 관한 고찰

1. 성지순례여행의 개념

코로나 19로 인한 외부활동을 선호하는 사람이 급증하면서 관광(tourism), 여행(travel), 여가 또는 레저(leisure), 놀이(play), 레크레이션(recreation) 등의 다양한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세계화, 정보화, 자동화, 지식산업 등이 발전하면서 소득의 증가, 여가 시간의 증대, 교통수단의 발전 등으로 인해 관광 관련 산업은 숨 가쁜 경쟁에서 지쳐버린 현대인들에게 Dumazedier(1967; 1985: 183-197; 1990: 143-161)가 지적인 ‘쉽 또는 휴식, 기분전환, 자기 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명시된 성지순례(聖地巡禮)의 개념은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거나 신의 가호와 은총을 구하기 위하여, 성지 또는 본산(本山) 소재지를 차례로 찾아가 참배하는 일’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성지순례여행의 개념은 종교활동의 영역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더불어 관광객들은 과거의 천편일률적인 ‘보는 관광’에서 벗어나 문화유산 답사, 해양레저관광, 테마관광 등 특수목적관광(SIT)을 선호하는 등 즐기거나 ‘체험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처럼 관광 행태가 다양화되면서 최근에는 ‘관광(觀光)’과 ‘여행(旅行)’이 종교 관련 사적지와 연계되어 성지 순례뿐만 아니라 종교유산 관광의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가톨릭신문, 2007; 박의서, 2011: 122; 이일주·고주희·이수호, 2016: 203-222).

관광객(tourist)은 관광지에서 편안하고 쾌적하고 신속하고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데, 여행자(traveller)는 마치 순례길에 오른 순례자(pilgrim)처럼 여행 중에 발생하는 수없이 많은 불편함과 고통, 고생을 감내하며 고민하면서 여행을 한다는 점이다. 이는 여행자와 순례자가 닮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김혼중(2003), 송현동(2019: 47-68), 이병원(2009: 1-20), 이웅규(2006: 39-86) 등의 연구를 참고하여 성지순례여행의 일반적인 개념을 “역사와 유서가 깊은 성지를 믿음으로 방문하는 종교적인 의례 행위를 반드시 동반하는 여행의 속성을 지닌 문화관광의 한 형태”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특히,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하는 성지순례여행은 “일반적인 관광목적의 순례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을 현장에서 익히고, 성지에 관련된 지리, 역사, 문화, 환경, 언어 등의 배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직접 상고하며 은혜스럽게 체험하는 기회의 여행”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김혼중, 2003: 2).

이러한 성지순례여행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이웅규, 2006: 42). 첫째, 성지순례여행은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기도 행위이다. 둘째, 성지순례여행은 세상사를 끊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행자의 길이다. 셋째, 성지순례여행은 죄를 끊고 새 삶을 다짐하는 참회 행

위이다. 넷째, 성지순례여행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다. 다섯째, 성지순례여행은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이다. 여섯째, 성지순례여행은 약속하신 길을 찾아가는 이스라엘의 여정이다. 일곱째, 성지순례여행은 주님과 함께 가는 수난의 십자가의 길이다. 여덟째, 성지순례여행은 형제들과 함께하는 사랑의 잔치길이다. 아홉째, 성지순례여행은 신앙 선조들을 따르는 순교자적 결단 행위이다. 열째, 성지순례여행은 하나님 나라를 찾아 나선 종말론적 행위이다.

2. 성지순례여행의 참여동기

문준경(文俊卿, 1891~1950) 전도사의 성지순례여행의 목적은 문준경 전도사의 삶과 신앙을 더 깊이 느끼고,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에 관한 신앙심을 더욱 공고히 하며 기독교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고 넓게 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성지순례여행과 관련한 선행연구 경향은 대부분이 성지순례의 이론적·종교적 관점으로써의 성지의 종교사적 의의를 고찰하거나, 성지에 대한 종교적 의미를 재 해석하고 성지순례와 여행을 결합하여 성지순례여행 코스를 개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왔다. 그러나 성지순례여행에 대한 이론적, 문헌 검토 중심의 연구는 성지순례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우혜란, 2008: 35-66).

기존의 성지순례여행 참여동기에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기독교 성지순례 여행상품 선호도에 관한 연구에서 성지순례여행 참여동기를 개인적인 신앙심 제고, 성지 여행답사, 종교적 연구, 학문적 연구, 성직자로서의 자질과 전문 향상 등으로 분석하였다. 반면, 설혜심(1998: 207-226)은 중세 유럽의 순례의 대중성 분석에서 성지순례의 동기를 회개를 통한 사회복귀, 기복신앙, 휴가 등으로 분석하였다. 권종현·정익준(2007: 365)은 성지순례여행의 참여동기를 성지에서의 기도와 예배, 신앙의 회복, 깊이 있는 신앙생활, 성전을 직접 보기 위해, 교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기,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기, 가족의 행복과 축복의 소망 등으로 분석하였다. 김정희·박은숙(2013: 35-54)은 성지순례 참가동기와 매력성이 성지순례 만족에 미치는 영향연구를 통해, 오정근(2013: 221-237)은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종교관광의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과 참가자 만족 간 영향관계 연구를 통해, 이양림·김영미(2018: 157-185)는 기독교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통한 성지순례자의 관광동기 연구를 통해 성지순례여행의 동기는 사회적 탐구, 종교 체험, 믿음체험을 위해 성지순례여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그 중 이양림·김영미(2018)는 ‘사회적 탐구’의 동기의 유형으로는 일상탈출, 교육, 신기성을 꼽았으며, 그 외 사회관계 축진을 위한 ‘종교 체험’을 통해 성스러운 분위기 경험을 유도하거나, 다른 문화와의 경험, 영적 위안 등을 위한 ‘믿음 체험’ 혹은 ‘영성 체험’을 위해 참여하는 것이 주요 참여동기로 나타났다.

이에 김정희(2018: 27-37; 2021: 533-545)도 성지순례 관광동기, 매력속성에 기인한 만족도 등을 검증하여 성지순례에 있어 체계적인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관광서비스 상품개발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성지순례는 참여하게 되는 동기에 따라 종교적 만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즉, 환경적 만족과 종교적 만족을 제시했는데, 특히 종교적 만족은 환경적 만족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종교적 체험은 종교적 만족에 영향을 주는데, 이것은 성지순례 참여동기와 마찬가지로 성지순례가 갖는 매력적 속성에서 기초를 두고 있음을 밝혔다. 결론적으로 신뢰성, 확신성, 행동적 비용의 3가지 서비스품질이 충족되었을 때 성지순례에 대한 전체적인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분석하였다.

양승탁·이승곤·유진룡(2018: 195-211)은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연구를 통해 종교관광객들의 의사결정과정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하였다. 그 결과, 종교관광에 관여되는 참여동기는 ① 종교적 호기심, ② 영성, ③ 축원, ④ 일탈, 총 4개 차원으로 제시하였으며, 종교관광 참여동기가 관광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축원 동기가 태도 형성과 관련있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는 종교관광객들의 신앙적 매체에 대한 이해를 위한 영성과 주변인들의 축원 동기를 통해 남양성모성지에 대한 긍정적인 방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종교관광객의 의사결정과정에 있어서 종교에 대한 긍정적인 예기정서, 부정적 예기정서는 종교관광객의 열망을 형성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지각된 행동 통제 열망은 종교관광객들의 행동의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성지순례 참여동기 관련 선행연구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종교적 신앙심 제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건강과 행복 추구, 체험목적의 여행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지순례 참여동기를 실증분석한 최근의 연구들(권종현·정익준, 2007: 363-381; 김정희·박은숙, 2013: 35-54; 박은숙·김귀자, 2014: 79-100)은 참여동기를 단일한 요인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지순례 참여동기와 참여 이후의 행태 분석에 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연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성지순례를 참여하는 동기유형을 구분하고 분석함으로써 순례 참여 이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 성지순례 행태 파악으로 성지순례 활성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결국, 기존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성지순례 참여동기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성지순례여행에 관한 연구는 참여동기를 좀 더 세분화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을 개발하는 방안으로서 참여동기를 세분화한다고 하면, 크게 신앙적 동기와 학습적 동기로 구분할 수 있다. 신앙적 동기는 성지순례 참여동기가 개인적 순수 만족을 위해 스스로 참여하는 것으로서 성지순례여행에 참여하는 개인의 자발적

인 신앙적 신념에 의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적 동기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성지에서의 예배를 통한 즐거움, 신앙심 회복, 회개, 축복을 소망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학습적 동기는 성지순례가 신앙심 고취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성지순례여행에 참여하려는 동기를 의미한다. 즉, 성지순례여행을 통해 성지와 기독교 및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의 발자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좀 더 성숙한 영적 가르침에 부응하고자 함이다. 학습적 동기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성지 탐방을 통해 기독교와 자신의 믿음을 더욱 확고히 하고, 성경 이론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문준경 전도사의 이해와 성지순례여행의 평가와 과제

1) 문준경 전도사 정보오류 사례 고찰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곳 중의 하나가 전라남도 신안군이다. 크고 작은 섬들로만 이루어진 신안군의 복음률은 35%로 전국 평균의 두 배에 이른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증도는 주민의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이다. 마을을 구성하는 주민 2,200여 명의 대부분이 크리스천이고, 작은섬에 위치한 교회만 11개이다. 예로부터 섬사람들은 토속 신앙을 믿으며 살아왔다. 바다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그들로서는 바다의 신, 바람의 신, 태양의 신이 그들을 지켜준다고 믿었다. 이런 오랜 전통으로 인해 섬 지역은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였다. 이런 곳에 개신교가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 전국 복음화율 1위의 섬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문준경 전도사의 영향 때문이었다.

그런데 신안 증도에 위치한 「문준경 순교기념관」 설명문에서 제시된 “소박받고 평생 버림당함으로 살아낸 고난의 세월”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기타 잘못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좋은 며느리였기 때문이다. 사실이 왜곡되어 전해진 이유는 문준경 전도사의 수양딸 같았던 백정희 전도사의 증언을 토대로 한 순교자 문준경에 대해 최초로 다룬 『섬마을의 순교자』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에 기인하고 있다.. 정원영(2019) 목사에 의하면 “백정희 전도사는 문준경 전도사와 1940년에서 1950년 순교 직전까지만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문준경의 초기 결혼생활을 완전히 알고 있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며, 정목사는 “결혼 초기의 정황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던 백정희의 입장으로는 부지불식간에 퇴박당한 것으로 각인되어 실제와 다른 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 외 기성 총회장과 한기총 대표회장을 역임한故이만신 목사는 기성 총회 잡지 『활천』 2014년 3월호에 “문준경 전도사를 그리워하며”라는 기고문을 통해 “문준경 전도사와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이다. 우리 할머니가 문준경 전도사의 손위 시누이가 되고, 어머니는 문준경 전도사의 언니의 딸이니,

아주 가까이 지내며 우리 집에 드나드셨다.”며 “또한 신앙적 입장에서 보아도 최초의 (증동리교회) 주일학생이다. 그분과의 만남은 나에게서 큰 축복이고 감사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준경 전도사의 신혼 초 이야기가 잘못 증언된 부분이 있었기에, 나는 소박당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곤 했다.”며, “잘못된 부분은 연구자들을 통해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김철영, 2020b).

2) 문준경 전도사 관련 성지순례여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와 관련된 성지순례여행을 허명섭(2004)의 분석과 연계하여 살펴 본 결과,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 속에는 한 알의 밀알의 신비와 또 다른 생명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는 아름다운 헌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지순례여행자들에게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자적 정신이 계승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와 신앙을 통해 기독교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성지순례여행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와 신앙에 대한 조명 작업이 기독교계 차원에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이러한 사업은 주로 관련 있는 몇몇 사람이나 혹은 기념사업회, 성결교단 등에 의해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자적 신앙전통이 가족사 혹은 개교회사적 의미로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 특히, 문준경 전도사의 후손들의 사회적 위상에 따라 문준경 전도사에 대한 조명 작업이 한쪽으로 편향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독교계의 상징인 순교자적 신앙의 전통을 제고하기 위해 범 기독교계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 사실 전통적으로 성결교회는 역사를 만드는 데는 여타 교단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를 정리 보존하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는 면에는 매우 취약하다. 따라서 기독교계의 소중한 전통 가운데 하나인 이러한 순교자적 신앙전통의 보존 및 승계를 위해 범 기독교계 차원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문준경 전도사의 신앙을 대중화하는 작업을 통해 기독교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는 사람들,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4세-14세)과 MZ세대는 보고 느끼기를 원한다. 그래서 어린이와 학생들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의 바다를 실 사이 없이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을 감동시킬만한 문준경 전도사 관련 웹툰이나 만화, 영화, 연극이나 뮤지컬 등의 공연 등의 볼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하는 OSMU(One Sources Multi-Use)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는 잘만 계발하여 사용하면 이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무궁무진한 신

양적 자원을 갖고 있다. 문준경 전도사의 생애와 신앙은 그 대표적인 소재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소재들을 웹툰이나 만화, 영화, 연극이나 뮤지컬 등으로 제작하여 널리 보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문준경 전도사 관련 사적지에 대한 보존 및 복구와 성지화 작업을 비롯하여 이를 연계한 성지순례여행상품 발굴 및 개발이 시급하다. 그리고 개교회의 야외활동, 청년 학생들의 수련회를 비롯한 각종 활동과 이들 장소와 상품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한국 천주교 등에서는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진척되고 있다. 우리 기독교계는 이제 역사의 정리와 보존 그리고 승계를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III.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 현황분석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중심으로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이를 위해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 유적지에 대한 자료는 김아영(2020a; 2020b), 전정희(2017a; 2017b; 2021), 정원영(2019)의 연구를 참조하였다.

1.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신안군 증도면 문준경길 234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은 평일에도 관광버스를 대절해서 찾는 순례객의 발길이 이어지는 장소이다. 개교회 중심으로 한 해 10만여명이 찾는 기독교 최대의 성지 중의 하나가 됐다. 2007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전남동지방노회의 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건립 청원으로 시작된 건설사업은 2013년 5월 12일 대지 8418㎡에 본관 1395㎡와 생활관 1084㎡ 각 1동을 지으면서 마무리됐다. 기념관은 불과 400m 거리 해안의 순교지를 바라볼 수 있는 언덕에 자리하고 있다.

2. 전남 목포시 북교동 성결교회

북교동교회는 호남 최초의 교회이자, 문준경 전도사의 첫 신앙 모태가 된 교회이다. 북교동교회(北橋洞教會, 1925~)는 성결교단 소속의 교회이다. 1925년 5월 2일 장석초 전도사를 담임으로 목포시 죽동 132번지에서 시작되었다. 1928년 3월 목포시 북교동 191번지로 이전하고 김응조, 이성봉 목사가 차례로 담임을 맡았으며, 1935년 12월 북교동교회로 개명하였다. 1936년 4월 곽재근 목사가 4대 담임으로 부임하였는데, 그해 성결교단의 분열 사건인 하나님의 교회 사건으로 곽재근 목사

와 그의 추종 신자 다수가 나가 측후동교회를 세웠다. 북교동교회는 이후 김태일, 이우영 전도사가 교회를 이끌었으며, 1943년 12월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해방이후 1945년 10월 김신근 전도사가 7대 교역자로 나서며 교회를 복구하였다. 한국성결교단의 유명한 부흥사를 지낸 이성봉 목사가 1948년 재차 부임하여 담임하였으며, 북교동교회 출신의 문준경 전도사는 1950년에 발발한 한국전쟁기에 신안 증도에서 순교하였다. 북교동교회는 1962년 11대 홍순균 목사가 시무할 때 김일환 성도를 교회 최초로 장로 장립하였다. 1992년 예배당 화재로 인해 새 예배당을 지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 15대 담임으로 부임하여 시무한 김정 목사에 이어 2012년 김주현 목사가 16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2021년 현재 성도들과 함께 예배, 교육, 구제, 봉사, 전도에 힘쓰고 있다(김양호, 2016: 218-219).

3. 전남 신안군 임자도 진리교회

서울 경성성서학원 입학(1931년 5월) 후 이듬해 문준경은 임자도에 진리교회를 1932년 7월에 설립했다. 임자도에는 남편과 소실이 살고 있어 박해가 심했지만, 그들마저 안고 구원의 길로 같이 가고자 했다. 진리교회는 이판일과 그의 아우 이판성이 기둥이 돼 주었다. 1950년 10월 각기 장로와 집사였던 두 사람은 가족 11명, 교인 35명과 함께 48명 전원이 순교했다. 그래서 진리교회 마당에는 48인의 순교자 이름이 비극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²

1950년 6·25전쟁 발발 후인 10월 5일 이판일은 ‘백산 솔밭’에서 무참히 살해됐다. 어머니(당시 78세), 동생 이판성 등과 함께 큰 아들 이인재만 남겨두고 온 가족이 몰살당한 것이다. 그 현장은 비단 그리스도인 이판일 가족만이 아니었다. 지주이거나 배웠거나 예수쟁이면 반동으로 몰려 죽음을 맞이했다. 그 솔밭 구덩이에서는 대창에 찢리고, 총상에 목숨이 붙어 있던 부상자의 신음이 몇 날 며칠 이어졌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 구할 수가 없었다. 산 자들은 귀를 틀어막아야 했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한다. 살아있는 것조차 지옥이었다고 한다. 1950년 9·28수복 이후에도 지방 치안은 좌익세력이 장악한 곳이 많아 이런 만행이 곳곳에서 일어났다. 진리교회가 있었던 임자도도 예외는 아니었다(국민일보, 2017a).

2) 문준경 전도사가 최초로 세운 임자도 진리교회 48인 순교의 내용은 임자진리교회 기둥이셨던 순교자 이판일장로(아들 이인재목사) 일가족(3대) 13인과 교인 35인 전체 48인이 밀실 예배를 드리다가 끌려가 죽음을 맞이한 사건이다. 이판일 장로는 묶인 채로 노모를 등에 업고 5살 어린아이를 함께 끌려가서 창에 찢리며 구덩이를 파고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당당하게 가족들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다. 이때 폭도가 “죽을 놈이 웬 기도냐?”며 비난했지만 이판일 장로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하면서 주님 가신 그 길을 영적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와 함께 같은 날인 1950년 10월 5일 새벽에 거룩하고 고결한 순교의 길을 택했다. 임자진리교회 신자들은 교회 앞마당에 48인 순교기념탑을 세워, 순교신앙을 후세에 전하고 있다.

4.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교회

증동리교회는 전남 신안군 증도면 면소재지인 증동리에 문준경 전도사가 1933년 9월에 세운 교회이다. 처음 문준경 전도사가 이 마을을 전도할 때쯤에는 예배 처소가 없어서 성도들의 집을 오고 가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예배 장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성도들은 예배당을 짓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게 되었고, 문준경 전도사의 시숙 정영범이 먼저 발벗고 나서 옥지에서 중고 건축자재를 구해 증동리 선착장까지 운반하였다. 교인들은 기뻐했으나, 정작 문제는 교회를 지을 터가 없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안타까워하는 가운데, 정영범의 손녀인 옥순이 정영범에게 찾아가 말했다.

“할아버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멀지 않았는데, 우리 집이 먼저 본을 보여서 성전터를 바쳐요. 우리 집의 텃밭이 교회가 세워지는 성전터가 된다면 이런 영광스런 일이 어디 있어요?”

손녀의 뜻밖의 제안에 정영범은 그 의견을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땅을 바치게 된다. 교회를 지을 자재를 구하기 위해 옥지까지 나아가 동분서주했던 그가 이제는 예배당을 위한 터까지 바친 것이다. 터가 생기자, 교회를 짓는 일이 구체적으로 시작되었다. 교인들은 하루 종일 농사일을 하다가도 날이 저물면 선착장에 가서 건축자재들을 나르기 시작했다. 해가 뉘엿뉘엿 지고, 새벽빛이 마을에 비출 때까지 기왓장과 나무들을 나르고 또 날랐다. 여인들은 기왓장을 머리에 이고, 아이들도 손에 나무 한두 점씩 들고 십리길을 걸었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여인들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굳은 살이 박힐 정도였다고 하니, 그야말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한 ‘하나님의 일’이었다(한국기독교공보, 2005).

5. 대초리교회

증도 대초리교회는 1935년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교회이다. 현재 증도와 범종도 권역엔 11개 교회가 있다. 모두 문준경 전도사의 손길이 닿은 회중이다. 대초리교회는 2002년 건축됐다. 낡고 오래된 성전은 바닷모래로 건축되어 철근이 부식되고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경사가 급한 계단은 연세든 노인이 드나들기엔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당시 지영태 목사와 당회원들은 건축을 결정하고 여러 곳의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한다. 평범하게 짓기보다 미래를 내다보고 특색있는 교회를 짓기 위해 당회원들은 담양의 한 교회를 모델로 설계사 사무소와 논의해 새성전 조감도와 설계도를 마련, 건축에 착공했다. 그렇게 8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대초리교회는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완공됐다(한국성결신문, 2009).

6. 방축리 기도처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본보기이신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님의 순교적 신앙을 이어가고자 힘쓰겠습니다.”

2020년 11월 22일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가 세운 방축교회의 임직예식에서 장립을 받은 박금주 신임 장로의 각오다. 증도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이야기를 듣고 자란 박금주 장로는 타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증도에 돌아와 방축교회에서 안수집사로 봉사해왔다. 박금주 장로는 “순교신앙을 계승하여 마지막 때 하나님께 작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 하였도다 칭찬을 듣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는데, 이날 원로장로로 추대된 박문섭 장로도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정신을 이어받아 방축교회를 재설립하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쓴 분이다. 증동리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오던 박문섭 장로는 1983년 방축교회를 재설립하는데 앞장섰다.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후 방축리 기도처가 증동리교회로 합병되었었는데 뜻을 같이 한 성도들과 함께 방축교회를 재설립하는데 앞장선 것이다.

7. 전남 신안군 증도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문준경전도사 순교지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증동리에 있다. 2009년 12월 16일 신안군의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한국 개신교 최초의 여성 순교자이며 섬 선교의 어머니라 불리는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곳이다. 그 순교지는 오늘날 기독교계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관리하고 있다. 문준경 전도사의 시신은 순교 직후 증동리교회 뒷산에 매장됐고 2005년 지금의 순교지로 이장됐다. 1964년 그의 신앙의 제자들은 ‘여기 도서의 영혼을 사랑하시던 문준경 전도사님이 누어 계시다’는 추모석을 세웠다. 추모석 뒷면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다.

‘...빈한 자의 위로되고 병든 자의 의사, 아해 낳은 집의 산파, 문맹퇴치 미신타파의 선봉자, 압해 지도 입자 자은 암태 안좌 등지에 복음 전도, 진리 증등리 대초리 방축리 교회 설립, 모든 것을 섬사람을 위 하였고 자기를 위하여는 아무 것도 취한 것이 없었다. 그대의 이름에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히 깃들기를 우리들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는 죽임을 당한 그 자리에 누워 있다. 순교터에선 문준경 전도사가 개척했던 증동리교회, 그리고 순교자기념관이 보인다. 그 뒤로 증도와 부속 섬들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산정봉이 완만하다. 문준경 전도사는 생전 산정봉 정상에 올라 기도를 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지

속적으로 실현해 나가면서 교단, 기독교적 차원에서 문준경 전도사의 노력을 현대적으로 계승할 수 있는 성지순례여행의 발전 방향, 그 한계에 대해 더 많은 조사와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8. 12사도(使徒) 순례길

전남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11개의 교회 중 8개의 교회는 증도에 있고, 3개의 교회는 병풍도에 있다. 증도에 있는 교회들이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가 직접 개척했거나 기도처로 만들었던 곳이 나중 에 교회로 세워진 반면, 병풍도에 있는 교회들은 문준경 전도사가 순교한 이후에 세워졌다. 병풍도의 어머니 교회로서 병풍교회가 1986년 소악교회를 개척했다(기독교헤럴드, 2020). 문준경 순교기념교회로 병풍교회가 1951년 창립 예배를 드리기 전에 이미 이곳에는 여러 명의 신자가 있었다. 문준경 전도사는 살아생전에 증도대교 아래에 있는 광암나루터나 사옥도나루터에서 풍선(돛단배)을 타고 병풍도로 들어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병풍도의 끝 섬 소악도까지 노두길을 오가며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데, 바로 이 길이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의 길. 사명의 길이다. 이러한 전남 신안군의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탄섬 5개의 섬에 예수의 12제자 이름을 딴 12사도 예배당을 건설했다. 노두길로 연결된 5개의 섬에 위치한 12개의 예배당은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모티브가 되었다. 그래서 이곳을 ‘순례자의 섬’ 또는 ‘한국의 섬티아고’라고 부른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산티아고 순례길은 800km, 섬티아고 순례길은 12km이다.

바다에 떠 있는 모섬인 증도면 병풍도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 등 5개 섬은 노두길로 한 섬처럼 이어져 있다. 밀물 때 섬과 섬을 잇는 노두길이 바다에 잠겨 다시 5개의 섬으로 변하는 곳이다. 오래전 섬과 섬 사이 갯벌에 돌을 쌓아 만든 징검다리 길이 노두길이다. 지금은 시멘트 포장 이 되어 차량 통행도 가능하지만, 하루에 두 번 물이 빠져야만 차마가 다닐 수 있어 ‘기적의 순례길’로도 불린다(국민일보, 2020a). 전라남도가 5년에 걸쳐 40억 원을 지원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공모에 당선되었고, 모티브는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얻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도보여행을 응용하여 ‘문준경 순례길’로 명명하게 되는 것이며,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열두 개의 작은 예배당을 짓고 이제는 “12사도 순례길”로 조성하였다.

IV. 문준경 전도사 기독교 유적지 성지순례여행 발전방안 모색

1. 문준경 전도사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

문준경 전도사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3차례의 답사와 신안 소약도에 거주하는 문준경 전도사 관계자와의 면담조사를 바탕으로 효율적 도보성지순례 동선 계획안을 설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상한 여행코스는 당일 또는 1박 2일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잠재방문객의 수요조사에 따른 후속 연구를 통한 참여자들의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목적 등을 분석하여 자유롭게 계획할 필요가 있다.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물리적으로 효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문준경 전도사의 순례여행코스는 Table 1에서 제시된 일정계획을 기본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내용은 경성성서학원(서울)-12사도 순례길-소약교회-임자진리교회(임자도)-증동리교회-대초리교회-제원리교회-우전리교회-문준경 전도사 순교지-문준경 전도사 순교기념관 등을 추천하고자 한다.

Table 1. Preacher Moon Jun-kyung's walking pilgrimage itinerary plan

Time Schedule	First Day	Second Day
Am 4:00 to Am 5:00 Start	Departure Worship	Morning Prayer and Meditation
Am 8:00 to Am 9:00	Breakfast Upon Arrival	Breakfast
Am 9:00 to Pm 12:00	Before Departure from School, etc. Program 1: (Find Errors in the Contents of Evangelist Jun-kyung Moon)→Start Worship → Holy Land 1 (Martyrs Memorial Hall)	Program 2: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the Drama)
Pm 12:00 to Pm 13:00	Lunch and Rest	Lunch
Pm 13:00 to Pm 18:00	Holy Land 1: (Missionary Moon Joonkyung's martyrdom) Holy Land 2: (The 12 Apostles Pilgrimage) Holy Land 3: (Imjado Christian Experience Center)	Departure from school or place of departure→ Appreciation service after arrival → Disbandment
Pm 18:00 to Pm 19:00	Dinner and Rest	
Pm 19:00 to Pm 21:00	Video viewing of dramas, plays, musicals, etc.	
Pm 21:00 to Pm 22:00	Program 1(Team Members) and Prayer for the Country	
After Pm 22:00	Sleep	

2. 순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실길’ 활용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로 지정된 증도는 42.7km에 이르는 도보 및 자전거 여행코스를 ‘모실길’이라는 이름으로 개발했다. 총 다섯 개의 코스 중 문준경 전도사의 유적들이 밀집된 곳은 제5코스인 ‘보물섬·순교자 발자취길’이다. 약 두 시간에 걸쳐 7km가량 이어지는 이 길을 따라가면 문 전도사의 묘역, 순교기념관, 증동리교회, 방축리교회, 기도바위 등을 두루 돌아볼 수 있다. 또한 증도에 ‘보물섬’이라는 칭호를 안겨준 신안 앞바다 해저유물발굴 기념비와 다도해의 아름다운 풍광도 함께 감상할 수 있는데, 기도바위가 있는 산정봉 정상에 오르면 한반도 지형을 꼭 빼닮은 해송숲의 절경이 한 눈에 보인다.

특히, 제2코스 ‘갯벌공원길’을 걷다 보면 우전리교회, 대초리교회에 이어 유명한 화도노두길이 나타난다. 노두길은 만조 때에 완전히 잠기기 때문에, 물때를 정확히 알아야 안전하게 왕래할 수 있다. 화도로 가면 화도성결교회와 드라마 <고맙습니다> 촬영지 등을 만나게 된다(정재영, 2016). 기점도와 소악도를 비롯한 신안의 섬들은 기독교대한성결교회와 인연이 깊은데, 당시 보따리를 이고 노두길(바닷물이 빠지면 생기는 길)로 작은 섬을 건너다니던 문준경 전도사의 헌신적인 전도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노두길이 있는 ‘갯벌공원길’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문준경 전도사가 한 해 고무신이 아홉 켤레나 닳을 정도로 선교에 앞장서 신안에만 100여곳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건너다녔던 노두길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신안군의 ‘모실길’을 활용하여 도보순례여행길을 개발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12사도 순례길과는 또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이나 코스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3. 소악교회와 연계

전라남도는 2017년 기점도와 소악도를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하고 5년간 4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증도면 주민의 90% 이상이 기독교인으로 구성된 특수성과 한국교회 역사적으로 최초 여성 순교자인 문준경 전도사라는 유일성을 포함한 풍부한 역사문화 유산(Heritage)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제를 ‘순례자의 섬’으로 정했다. 그리고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에 착안해 ‘12사도 순례길’을 조성했다. 삶에 지치거나 위안이 필요한 사람들이 ‘온종일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이 섬을 때로 기도하며 때로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순례하게 하자는 취지다. 대기점도와 소기점도, 소악도, 진섬을 잇는 12km 길에 예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작은 예배당들을 지었다. 12사도의 집은 기독교인의 전유물이 아니다. 종교가 없는 일반인에게는 스스로를 성찰하는 치유의 공간이다. 종교를 떠나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쉼터 역할을 한다. 그래서 12사도 순례길 중앙에 있는 소악교회

의 역할이 크다는 점에서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전남 신안군 증도면 소악도에 위치한 소악교회 임병진 목사는 ‘12사도 순례길’이 단순 관광에 이르지 않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의미 있는 영성 순례를 하도록 지원하는 사역을 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담임목사로 부임한 임병진 목사는 신안군 증도면에 있는 11개 교회 중 8개가 증도에 있고 3개는 병풍도에 있다는 점과 신안군 증도에 있는 교회들이 문준경 전도사가 직접 개척했거나 기도처로 만들었던 곳이 나중에 교회로 세워졌다는 점을 연계하고 있다. 이는 병풍도에 있는 교회들이 문준경 전도사가 6·25전쟁 때 순교한 후 세워졌고, 병풍도의 어머니 교회인 병풍교회를 통해 1986년 소악교회가 개척됐다는 점을 연계하여 문준경 전도사의 영성이 담긴 교회로서의 소명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문준경 전도사가 증도대교 아래에 있는 광암 나루터나 사옥도 나루터에서 병풍도로 들어와 대기점도, 소기점도, 병풍도의 끝 섬인 소악도까지 노두길을 오가며 복음을 전했다는 점에서 12사도 순례길은 바로 문준경 전도사가 전도했던 사명의 길로서의 성지순례여행의 핵심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문준경 전도사 일대기를 그린 책 ‘천국의 섬’, ‘문준경에게 인생의 길을 묻다’ 등을 펴낸 임병진 목사는 2007년부터 문준경 전도사의 삶을 조명하는 1박 2일 코스의 ‘증도 순례’를 100회 이상 이끌었을 정도로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의 핵심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 수가 100여명에 불과한 기점도와 소악도에 식당이나 숙박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소악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 ‘순례자의 집(자랑께)’과 카페(쉬랑께)는 성지순례여행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악교회와 연계하고, 임병진 목사가 이끌어온 증도 순례와 12사도 순례길을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여타 여행사에서 운영하는 성지순례여행과는 차별화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소악교회와 12사도 순례길을 찾는 기독교인에게는 영적 의미와 목적을 찾도록 도우미 역할을 할 것이며, 일반 순례객과 관광객에게도 주님을 섬기듯 환대하는 소악교회 임병진 목사의 문턱을 낮추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V. 결론

성지순례여행이란 성지와 순례, 여행이라는 용어가 결합한 것으로서, 순례자가 종교적 의무를 지키는 범위 내에서 신의 은총을 구하기 위해 성스럽거나 종교적 의미가 있는 장소를 방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성지순례여행은 신앙적 고취나 종교적 경험을 얻기 위한 종교적 의례의 일종에 해당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기독교 130여 년의 역사를 말없이 담고 있는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태도에 대한 재점검과 함께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에 관한 성지순례여행 개발 방안으로 가시적으로 비약하는 교회의 발전과는 달리 궤철 위기에 놓인 기독교 문화유산의 관리와 보존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되었다. 특히, 전남 신안군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 유적지 등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순례여행코스를 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템플스테이의 경우와는 다르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교회 및 교단에서는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이 관리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의해 지정·등록되지 않은 근대문화유산은 도시개발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사라져가는 위기에 처해 있는 현실과 흡사하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신안군이나 소악교회와 같이 개별 기관이나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 유적지 조성사업은 특정 종교 차원도 아니고 경제적 차원도 아닌 역사적 소명 의식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오늘날 해외여행자의 증가와 더불어 해외 성지순례를 떠나는 여행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 문화유산이 갖는 가치를 발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의해 유산(Heritage)이 갖는 중요성은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들어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럽지만 대체로 국내의 성지순례여행보다는 해외 성지순례여행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국내 성지순례여행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어 이런 수요를 국내로 돌려 급감하고 있는 국내 기독교 인구의 증가에 기여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점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12사도 순례길’을 문준경 전도사의 순수 영성과 순교와 연계하여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가고 있는 국내 기독교 문화유산에 대한 책임을 기독교 내부에서 찾고 외부 환경에 부응하는 성지순례여행을 개발하는 방안을 주요 목적으로 정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에 의미를 부여하며 많은 사람이 쉽게 찾고,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성지순례여행’과 연결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당일, 1박 2일, 2박 3일 등의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제시,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상품의 특징 극대화, 순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실길’ 활용, 소악교회와 연계,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 관련 성지의 지속적인 조성의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결국, 본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소중한 전도 및 순교 역사를 담고 있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결국 지

속 가능한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이 인간지향적이 아닌 자연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연 지향적인 개발의 방향은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주체의 영리 추구 여부에 따라 여행사와 같은 여행전문기획자와 개인 혹은 기독교 단체의 개발과정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지만, 이와는 별도로 모두가 전남 신안군의 해양생태환경을 고려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역사문화유산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과제는 자료의 수집·정리에 관해서 명확한 사실을 근거로 한 기록물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곡되고 그릇된 자료와 영상, 기사 등을 활용하는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자료나 해설사는 지양해야 하고 관련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나서 수정하고 보완해야 하는 문제와 문준경 전도사 관련 기독교 유적지에 대한 역사문화유산 전문 해설사 및 안내자의 확보 문제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유적지에 대한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인문 콘텐츠적 내용을 바탕으로 구상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문가 설문 및 방문 욕구도 파악 등 정량적 분석을 통한 구체적 모형설정은 추후 연구로 남기고자 한다. 향후 연구를 바탕으로 문준경 전도사의 전도와 순교 영성을 좀 더 실제로 구체화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등이 개발되어 한국기독교의 영성회복과 성장을 견인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 고 문 헌

- 권중현·정익준 (2007). 기독교 성지순례 참가동기, 성지 매력속성, 성지순례 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계연구. **관광레저연구**, 19(4), 363-381.
- [Kwon, J. H. & Chung I. J. (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Motive Participating in the Christian Pilgrimage, Attraction Attribution of the Holy Places, Satisfac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Journal of Tourism and Leisure Research*, 19(4), 363-381.]
- 김상원 (1992). **기독교 성지순례 여행상품 선호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S. W. (1992). "A Empirical Study on Christian Pilgrimage Tour package". Masters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Seoul, Korea.]
- 김양호 (2016). **목포 기독교 이야기**. 서울: 세움북스.
- [Kim, Y. H. (2016). *Christian Story of Mokpo*. Seoul: seumbooks.]
- 김정훈. (2010). 국내 기독교 문화유산 답사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연구. **한국기독교와 역사**, 33, 193-213.
- [Kim, J. H. (2010). How to Develop and Use the Field Trip Programs of Christian Cultural Heritage. *The Institute of The History of Christianity in Korea*, 33, 193-213.]
- 김정희 (2018). 성지순례상품의 서비스품질과 만족도 관계. **서비스마케팅저널**, 11(2), 27-37.
- [Kim, J. H.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Satisfaction of Pilgrimage Program. *Services Marketing Association*, 11(2), 27-38.]
- 김정희 (2021). 기독교인 성지순례관광의 참가동기, 성지 매력속성, 서비스품질, 전체적인 만족도와 로열티(재방문, 추천) 관계 연구-서비스품질(SERVQUAL과 SERV-PERVAL)을 중심으로-. **2021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 학술대회**, pp. 533-545.
- [Kim, J. H. (2021).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Christian pilgrimage tours, attraction attributes, service quality, overall satisfaction, and loyalty (revisit, recommendation) - Focusing on service quality - *2021 Korea Association for Christian Scholarship Spring Conference*, pp. 533-545.]
- 김정희·박은숙 (2013). 성지순례 참가동기와 매력성이 성지순례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산업학회**, 38(3), 35-54.
- [Kim, J. H. & Park, E. S. (2013). An influence to satisfaction of participation motive and attractiveness in pilgrimage. *Korean Tourism Industry Research Association*, 38(3), 35-54.]
- 김중기 (2000). 새 천년을 위한 영성 연구의 방향. **신학논단**, 28, 193-206.

- [Kim, J. K. (2000). A Study of Spirituality from the New Millennium Perspective. *Theological Forum* 28, 193-206.]
- 김혼중 (2003). **새천년 성지순례의 실제**. 경기: 청담북스.
- [Kim, H. J. (2003). *The reality of the new millennium pilgrimage*. Gyeonggi: chungdambooks.
- 박명수 (2016). 문준경전도사와 한국 근대 역사. **성결교회와 신학** 35권, 150-168.
- [Park, M. S. (2016). Pastor Jun-kyung Moon and the modern history of Korea. *The Study of Modern Christianity*, 35, 150-168.]
- 박은숙·김귀자 (2014). 인센티브 관광을 통한 참가동기가 매력성, 만족에 미치는 영향-성지순례관광을 중심으로. **MICE 관광연구**, 36, 79-100.
- [Park, E. S. & Kim, G. J. (2014). Influence on Attractiveness and Satisfac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in an Incentive travels -Focused on the Pilgrimage-. *Journal of Mice & Tourism Research(JMTR)*, 36, 79-100.]
- 박의서 (2011). 한국 종교관광의 정책 방향과 성공 사례. **관광연구저널**, 25(5), 121-137.
- [Park, E. S. (2011). Policy Direction and Successful Cases of Korean Religious Tourism.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25(5), 121-137.
- 백규리·이계희 (2021). 종교관광 경험이 여행자의 만족과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연구저널**, 35(6), 23-38.
- [Baek, K. R. & Lee G. H. (2021). The effect of religious tourism experience on travelers' satisfaction and subjective quality of life: A case study of Christian pilgrimage. *Korea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5(6), 23-38.
- 설혜심 (1998). 16·17세기 영국 관상학의 사회적 기능과 변천. **역사민속학**, 7, 207-226.
- [Sul, H. S. (1998). The social function and change of British contemplation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 Journal of Korean Historical-forklife*, 7, 207-226.]
- 송현동 (2019). 성지순례의 관광사적 의미 고찰. **종교문화연구**, 32, 47-68.
- [Song, H. D. (2019). A study on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pilgrimage to the Holy Land. *Journal of Religion and Culture*, (32), 47-68.]
- 양승탁·이승곤·유진룡(2018).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형을 이용한 종교관광객 동기와 행동구조 분석. **관광연구저널**, 32(12), 195-211.
- [Yang, S. T., Lee, S. K. & Yoo, J. R. (2018). Analysis of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eligious tourists' motivation and behavior. *International Journal of Tourism and Hospitality Research*, 32(12), 195-211.]
- 양정 (2011). 존 웨슬리의 영성에서 본 고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영성. **신학과 선교**, 39, 63-86.

- [Yang, J. (2011). A Study of Joon Kyung Moon looking through John Wesley's spirituality. *Christian Theology Institute Center*, 39, 63-86.]
- 오정근 (2013). 종교관광의 참가동기 및 매력속성과 참가자만족 간 영향관계-기독교 성지순례를 중심으로. *관광경영연구*, 17(1), 221-237.
- [Oh, J. K. (2013).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Attraction Attributes of Religious Tourism on Satisfaction -Focusing on Christian Pilgrimage. *Journal of Tourism Management Research*, 17(1), 221-237.]
- 우혜란 (2008). 동시대의 “순례”와 “성지”에 대한 고찰. *종교학연구*, 27, 35-66.
- [Woo, H. R. (2008). Discussion on Contemporary “Pilgrimage” and “Sacred Place”. *Religious Studies*, 27, 35-66.]
- 이만신 (2014). 문준경 조명: 문준경 전도사를 그리워하며. *활천*, 724(3), 84-87.
- [Lee, M. S. (2014). Missing Pastor Junkyung Moon, *The Liveing Water*, 724(3), 84-87.]
- 이병원 (2009). 성지순례관광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7(2), 1-20.
- [Lee, B. W. (2009). A Study of Pilgrimage tourism in Korea. *The Korean Association Of Logos Management*, 7(2), 1-20.]
- 이양림·김영미 (2018). 구성주의적 근거이론을 통한 성지순례자의 관광동기-기독교 성지순례자를 대상으로. *관광학연구*, 42(2), 157-185.
- [Lee, Y. L. & Kim, Y. M. (2018). Pilgrimage Motivations through Constructivism Grounded Theory: Focused on Christian Pilgrimages. *The Tourism Sciences Society of Korea*, 42(2), 157-185.]
- 이용규 (2006). 유관순열사 기독교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의 개발방안. *유관순 연구*, 11, 39-86.
- [Lee, W. K. (2006). The Ways of Development on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of Christian Historic Relics for YuGwanSoon's Experiences. *YuGwanSun Research*, 11, 39-86.]
- 이일주·고주희·이수호 (2016). 관광활동 특성에 따른 여행산업의 종교관광 상품개발 기본 연구. *관광연구*, 31(2), 203-222.
- [Lee, I. J., Ko, J. H. & Lee, S. H. (2016). A Basic Study on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Tourism Product of Travel Industry Based on Tourism Activity Characteristics. *Korea Academic Society of tourism Management*, 31(2), 203-222.]
- 정원영 (2019). 영원한 전도자, 하나님의 사람 문준경-다시 보는 섬마을의 순교자. *CESI 한국전도학연구소*.
- [Jung, W. Y. (2019). *Eternal Evangelist, Man of God Jun-kyung Moon - A Martyr of the Island Village Seen Again*. CESI.]

- 정태기 (2015). 문준경 조명: 바른 역사적 평가를 바라며. **활천**, 742(9), 86-88.
- [Chung, T. K. (2019). Jun-Kyung Moon Illumination: Hoping for a Correct Historical Evaluation. *The Living Water*, 742(9), 86-88.]
- 주승민 (2013). 특집-문준경기념관 들여다보기; 역사적 의미를 채우라. **활천**, 719(10), 30-34.
- [Chu, S. M. (2013). Special Features - A look at the Moon Jun-kyung Memorial Hall; Fill in historical significance. *The Living Water*, 719(10), 30-34.]
- 주승민 (2017). 한국전쟁과 한국 성결교회 그리고 순교자 문준경. **신학과 선교**, 50, 9-52.
- [Chu, S. M. (2017). Korean war and Korean Evangelical Holiness Church —Depending on Martyrdom of intern Pastor Jun-Kyoung Moon. *Theology & Mission*, 50, 9-52.]
- 허명섭 (2004). 순교자 문준경; 3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에 대한 성결교회사적 평가와 과제. **활천**, 607(6), 42-45.
- [Heo, M. S. (2004). Martyr Moon, Jun-Kyung; 3 Holiness Church historical evaluation and tasks for the martyrdom of Rev. Jun-kyung Moon. *The Living Water*, 607(6), 42-45.]
- Dumazedier, J. (1967). *Toward a society of leisure*. London: Collier 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Dumazedier, J. (1985). Technical progress, culture and leisure time. *Spettacolo*, 35(3), 183-197.
- Dumazedier, J. (1990). France: leisure sociology in the 1980s. *France: leisure sociology in the 1980s*, 143-161.
- 가톨릭신문 2007. 2. 25일자. “[방주의 창] 문화유산관광과 성지순례.”
https://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158912. (2021.9.14)
- [“(The Window of the Ark) Cultural Heritage Tourism and Pilgrimage”. Catholic Times(2007.2.25.).Retrieved from https://catholictimes.org/mobile/article_view.php?aid=158912 (2021.9.14.)]
- 국민일보 2017a. 5. 19일자. “[한국기독교역사여행] 공산당 죽창에 스러진 ‘믿음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480109>. (2021.9.16)]
- [“[Korea Christian History Tour] Preacher Jun-kyung Moon, the ‘Mother of Faith’ who fell into the bamboo spear of the Communist Party”, KUkmIN Il-Bo (2017.5.19.).Retrieved from <http://m.kmib.co.kr/view.asp?arcid=0011480109> (2021.9.16.)]
- 국민일보 2017b. 5. 20일자. “[한국기독교역사여행] “내 영혼 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어머니 죽창에 여기 스러지다-전남 신안 증도와 순교자 문준경(1891~1950).”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750063>. (2021.9.16)
- [“[Korea Christian History Tour] “Please accept my soul” The mother of faith collapsed here in

a bamboo spear - Jeungdo, Jeungdo, and martyr Jun-kyung Moon (1891-1950) in Sinan, Jeollanam-do”, KUkmIN Il-Bo (2017. 5. 20.).Retrieved from <http://m.kmib.co.kr/view.asp?arcid=0923750063> (2021.9.16.)]

국민일보 2020a. 3. 5일자 33면. “문준경 전도사 흔적 따라 ‘12사도 순례길’... “영성의 요람 만들 것.”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206&code=23111671&cp=nv>. (2021.9.19)

[“The 12 apostles’ pilgrimage following in the footsteps of Pastor Jun-kyung Moon... “Creating a cradle of spirituality”, KUkmIN Il-Bo (2020.3.5.).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26206&code=23111671&cp=nv>(2021.9.19.)]

국민일보 2020b. 10. 4일자. “[단독]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소박맞은 여인 아닌 남편 지원으로 섬 사역 일귀.”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72682&code=61221111&cp=nv>. (2021.9.19)

[“Martyr Jun-kyung Moon, missionary to the island by supporting her husband, not a simple woman”, KUkmIN Il-Bo (2020.10.4.).

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072682&code=61221111&cp=nv>(2021.9.19.)]

국민일보 2021. 4. 9일자. “[한국기독교역사여행] 아버지 순교지에 돌아온 아들, 원수를 사랑으로 갚다-신안 임자도와 순교자 이판일 장로.”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887&code=23111654&cp=nv>. (2021.9.16).

[“[Korea Christian History Tour] A son who returned to his father’s martyrdom, avenges his enemies with love - Sinan Lim Jado and Martyr Lee Pan-il Elder”, KUkmIN Il-Bo (2021. 4. 9.).Retrieved from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85887&code=23111654&cp=nv> (2021.9.16.)]

기독교헤럴드 2020. 2. 12일자. “순교자 문준경 전도사 사명의 길, 노두길!”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0>. (2021.9.8)

[“Martyr Jun-kyung Moon, the path of missionary mission, Nodu-gil, cherald (2020. 02. 12.).

Retrieved from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450>. (2021.9.8.)]

김철영 2020. 10. 26일자. “순교자 문준경은 효부(孝婦)였다-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으로 알려진 것은 백정희 전도사의 증언에만 의존했기 때문.” 뉴스파워.

<http://www.newspower.co.kr/47600>. (2020.10.26.)

[“Martyr Jun-kyung Moon was a filial piety - she was known as a woman abandoned by her husband because she relied solely on the testimony of preacher Baek Jeong-hee.”, News Power (2020.10.26.). Retrieved from <http://www.newspower.co.kr/47600>. (2020.10.26.)]

한국기독교공보 2005. 9. 7일자. “믿음으로 떠나는 여행(23)-섬 교회의 어머니 문준경 전도사를 찾아서(1).”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2985350184>. (2021.9.14)

[“A Journey by Faith (23)-Finding Pastor Jun-Kyung Moon, the mother of the island church (1)”. Korea Christian Gongbo(2005. 9. 7.).Retrieved from <https://pckworld.com/article.php?aid=2985350184> (2021.9.14.)]

한국성결신문2009년 3. 7일자. “아름다운 성결교회 11-대초리교회.”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 (2021.9.12)

[“Beautiful Holiness Church 11-Daechori Church. kehcnews (2009. 3. 7).

Retrieved from <https://www.keh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47> (2021.9.12.)]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유적지의 성지순례여행(聖地巡禮旅行) 발전방안 모색

Searching for The Christian Relics of Evangelist Jun-kyung Moon
Development plan for the pilgrimage to the Holy Land

이웅규 (백석대학교)

김농오 (국립목포대학교)

이창훈 (국립목포대학교/교신저자)

ABSTRACT

최근 주목받고 있는 ‘12사도 순례길’을 문준경 전도사의 순수 영성과 순교와 연계하여 방치되거나 훼손되어 가고 있는 국내 기독교 역사 유적지를 순례하는 여행프로그램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준경 전도사의 순교지를 중심으로 한 성지순례여행을 개발하는 방안을 주요 목적으로 정했다.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본 연구는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에 의미를 부여하고자 이론 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이 쉽게 찾고, 보고, 이해하고, 그리고 기억할 수 있는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과 일정을 개발하는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첫째, 당일, 1박2일, 2박3일 등의 도보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 제시, 둘째,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상품의 특징 극대화, 셋째, 순교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실 길’ 활용, 넷째, 소악교회와 연계, 다섯째, 문준경 전도사의 기독교 역사 유적지 관련 성지의 지속적인 조성의 방향 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가 제안한 것처럼 문준경 전도사의 소중한 전도 및 순교역사를 담고 있는 전남 신안군의 기독교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지속 가능한 성지순례여행 프로그램의 개발이 인간지향적이 아닌 자연 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제어: 문준경 전도사, 성지순례여행, 기독교 역사 문화유산, 12사도 순례길

편집위원회 규정

2001년 1월 28일 제정
 2004년 1월 1일 개정
 2007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1년 8월 19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 본 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기독교학문연구회 회칙 제6장에 의거하여 설치된다.

제3조 편집위원회가 관장하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은 다음과 같은 지침 하에 발행된다.

- (1)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년 4회 발행한다.
- (2) 원고마감은 발행 약 50일 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발간호	발간일	원고투고 마감일
1호	3월 31일	2월 10일
2호	6월 30일	5월 10일
3호	9월 30일	8월 10일
4호	12월 31일	11월 10일

- (3) 『신앙과 학문』의 투고,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편집위원 구성

제4조 편집위원회는 전공과 지역을 고려하여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질병이나 장기 해외출타 등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교체할 수 있다.

제6조 편집위원장은 전공과 기독교 학문에 식견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회

장이 선임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기독교학문연구회에 5년 이상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
- (3)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의 편집위원 경험이 있는 자
- (4) 최근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20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7조 편집위원장은 학회지 발간과 관련된 모든 업무, 즉 편집위원의 위촉, 학회지 논문의 심사, 편집 및 출판에 대한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

제8조 편집위원은 회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학회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1) 4년제 대학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혹은 해당분야에 있어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2) 최근 5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후보) 학술지에 5편(SCI급 논문은 3편으로 환산)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실적이 있는 자

제 3 장 기 능

제9조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신앙과 학문』의 체제, 발간 부수, 분량 및 투고규정 등 학회지 발행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

제10조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논문의 심사위원을 선정·의뢰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이나 투고자와 관련된 연구윤리규정을 지켜야 하며, 투고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투고자의 정당한 이익제기가 있을 때는 편집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제12조 위 제9조에 제시된 사항 이외에 편집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은 이사회의 인준을 거친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 4 장 편집회의

제13조 편집회의는 학회지 발간시기와 필요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4조 편집회의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 5 장 논문심사 기준 및 절차

제16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7조 논문의 심사는 개별항목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루어진다.

제18조 논문심사에 적용되는 개별 항목은 다음과 같다.

- | | |
|--------------------------------|----------------------|
|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
|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
|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
| (7) 각주·인용·참고문헌·국문 및 영문 초록의 정확성 | |

제19조 종합 평가는 개별항목 평가를 근거로 심사자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평가한다.

제20조 논문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이루어진다.

- (1) 접수: 논문게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칙상 기독교학문연구회의 정회원이어야 한다. 원고의 게재순서는 논문게재 확정 순서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심사의뢰: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을 세부전공별로 분류한 후 각각의 논문에 대해 3명 이상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심사의뢰서와 함께 심사를 요청한다. 이때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은 심사위원이 알 수 없도록 삭제하여 보낸다.
- (3) 심사: 각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하고 그 판정의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하며, 소정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4등급으로 종합판정을 내린다. 특히, 수정을 요하는 논문은 수정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고 논문심사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의뢰를 받은 후 기한 내에 논문심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있다.
 - 가. 게재가: 수정 사항이 없거나 아주 사소한 수정 후에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나. 수정 후 게재가: 표현, 어휘의 선택, 제시순서 등의 핵심내용과는 무관하거나 부분적인 수정을 하면 게재할 수 있는 논문.
 - 다. 수정 후 재심사: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반드시 수정이 요구되고, 그것의 수정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논문.
 - 라. 게재불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논문.
- (4) 1차 편집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수합된 후 심사위원장은 1차 편집회의를 소집하고 심사내용을 검토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 투고자에게 최종 교정을

의뢰한다. <수정 후 게재>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위원의 논평을 첨부하여 논문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2명 이상의 심사자로부터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를 불허한다.

(5) 2차 편집회의: 편집위원장은 수정을 마친 논문들을 수합하여 2차 편집회의를 소집한다.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 해당 심사자에게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편집위원장은 수정된 논문의 최종 심사결과를 투고자에게 <게재가>와 <게재불가>로 나누어 통보해준다. 이 시점부터 투고자가 원할 시 논문게재 예정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있다.

(6) 심사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부록#1<심사규정 세칙>에 따른다.

제 6 장 부칙

제21조 본 규정은 이사회에서 통과된 날(2001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2조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에 따른다.

제23조 본 8차 개정된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4조 부록 #1: 「신앙과 학문」 학술지 논문 심사규정. 끝.

「신앙과 학문」 논문 심사규정

제 1 조 (목적)

이 세칙은 학회지 발간규정 제3조 및 제 19조에 의거하여 『신앙과 학문』 학술지 투고논문 심사 규정세칙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심사판정 기준 및 결과의 처리)

(1)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여 최종 게재여부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제 1 심사자	제 2 심사자	제 3 심사자	종합 판정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능
2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가능 (수정요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5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6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7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8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9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재심사 후 편집위원회 게재결정)
10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11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2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3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4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15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16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8	수정 후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 “게재가능” 판정을 받은 논문도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심사자의 수정보완 요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편집위원회의 확인을 거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4)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지시하는 재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5) “수정 후 게재가” 혹은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후 수정 논문을 최종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게재불가” 처리한다. 단 투고자의 요청과 편집위원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수정논문 제출을 다음 호로 연기할 수 있다.
- (6)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인터넷 전자메일을 이용한 투표로 할 수 있다.

제 3 조 (심사위원단)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의 책임성과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 분야 학자로 심사위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 4 조 (개인정보보호)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논문제출자와 심사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된다.

제 5 조 (저작권 및 판권)

- (1) 『신앙과 학문』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 판권은 기독교학문연구회가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투고시 “저작권양도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 6 조 (심사를 위한 서식)

- (1)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서 : 서식 가
- (2) 『신앙과 학문』 제()권()호 논문심사료 신청서 : 서식 나

제7조(개정된 논문심사규정)

개정된『신앙과 학문』 논문심사규정은 201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앙과 학문』 논문심사의견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 부문별 평가: 다음 칸에 각 항목 배점에 기준으로 심사 점수를 기재해 주세요.
- 최종평가: 총점에 따라 논문 평가 등급 칸에 표기(√ 또는 O)해 주세요.

평가항목		배점	심사 점수	
1) 주제의 명확성과 참신성		20		
2) 목적과 내용의 합치도·적절성		20		
3)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논리의 정합성		20		
4) 결과의 학문적·사회적 기여도		10		
5) 연구결론 및 제언의 합리성		10		
6) 문장기술·용어 사용의 명료성		10		
7) 각주·인용·참고문헌·논문초록의 정확성		10		
총점		100		
최종평가 (심사위원 논문 평가 등급)	게재가 (90점 이상)	수정후 게재가 (80점~89점)	수정후 재심사 (70점~79점)	게재불가 (69점 이하)

※ 심사의견서 (수정보완 요구서 또는 게재불가 사유서)는 다음의 별도 페이지를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심사의견서:

* 저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의견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심사의견을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지시사항의 경우 논문내 구체적인 페이지와 함께 이유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게재불가의 경우는 왜 게재가 불가한지를 상세하게 서술하여 주시고, 저자로 하여금 건설적인 수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참고문헌을 제시하여 주세요.

❖ 논문주요내용:

❖ 수정지시사항 (게재불가 이유 포함):

논문심사료 신청서

- 논문번호:

- 논문제목:

『신앙과 학문』에 투고된 상기 논문심사에 대한 심사료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심사위원	성명	(인)	소속	
	Email		휴대전화	
	심사일			
은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20 년 월 일

『신앙과 학문』 편집위원장 귀하

「신앙과 학문」 투고 규정

2003년	1월	1일	제정
2008년	1월	1일	개정
2010년	2월	1일	개정
2012년	4월	6일	개정
2014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2019년	4월	1일	개정
2020년	3월	1일	개정
2020년	6월	1일	개정
2021년	7월	1일	개정

1. 논문의 투고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정회원에게 한한다.
 2. 저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하여 원고를 작성하여야 한다.
 - 1) 투고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투고일 현재 타 학술지에 게재 신청 중인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 2) 논문은 본 학술지 심사규정을 고려하여 작성하되, 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학술적 가치와 학문적 깊이가 있는 창의성 있는 논문이어야 한다.
 - 3) 타인의 저작물 표절 혹은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것, 즉 타인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도용하는 행위,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연구내용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행위, 그리고 자신이 발표한 저술의 내용을 인용 혹은 각주 등 명백한 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금한다. 학위논문의 축약본이나 일부를 투고할 경우에도 그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 4) 위조 혹은 변조에 해당하는 것, 즉 존재하지 않은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어 내거나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누락시키는 등 연구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한다.
 - 5) 참고문헌과 각주에 대한 본 투고규정을 필히 준수하여야 한다.
- [예 : 본문 인용 시 APA방식 사용 - 투고규정 7~9 참조, 각주는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단순히 자료출처를 밝히는 것은 금한다.]

3. 논문 저자의 표기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투고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반드시 제1저자(또는 교신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앞에 기재된 저자를 제1저자, 뒤에 기재된 저자는 공저자로 간주한다. 단, 교신저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교신저자를 표기한다.
- 2)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는 연구책임자, 연구의 핵심 아이디어를 제공한 자, 연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자여야 하며, 공저자는 연구에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직접 기여한 자여야 한다. 연구에 직접 기여하지 않은 자가 주저자 혹은 공저자가 되는 것을 금한다.
- 3) 논문 제출자는 JAMS에 주저자 및 공저자의 정보를 모두 입력하여야 하며, 표기 방법은 아래의 <표>와 같다. 단 논문의 저자명과 저자정보는 삭제하여야 하며, “게재기” 판정을 받은 최종논문에만 기재하여 제출한다.

<소속 및 직위별 표시방법>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전임/비전임)	성명(O O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O O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O O대학, ★★과정, ★★수료, 박사, 석사 등)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O O 대학,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O O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O O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별도제출

4. 편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투고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거나 인명, 지명의 경우 처음 표기는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명기하며, 그 이후에는 한글로 표기한다.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투고할 수 있다.

6. 논문 제출 시 원칙상 영문으로 된 ‘ABSTRACT’와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을 포함해야 하며, ‘ABSTRACT’를 논문의 맨 앞에,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제시한다.

- ① ‘ABSTRACT’는 논문제목과 저자명(영문) 밑에 200단어 내외로 작성한다.

‘ABSTRACT’에는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 투고자의 이름과 소속, 연구내용, Key Words를 포함해야 한다. 제목의 첫 단어와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고(예, The Educational Meaning of Love), ‘Key Words’는 고유명사 외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alternative education, Christian worldview). 투고자의 이름은 유재봉(Jae-Bong Yoo)으로, 소속은 각주 내 성균관대학교 교수 (Sungkyunkwan University)로 표시한다. 각주에는 소속기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를 첨부한다.

- ② ‘국문초록’은 참고문헌 다음에 500자 내외로 작성하며, 5단어 내외의 ‘주제어’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③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도 국문으로 된 논문초록과 ABSTRACT를 제출하여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는 편집위원회가 저자의 위임을 받아 ABSTRACT를 국문으로 번역할 수 있다.

7.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1) 용지종류 및 여백설정: 용지설정 A4, 여백은 왼쪽 33, 오른쪽 33, 위쪽 33, 아래쪽 33, 머리말 12, 꼬리말 12
- 2) 논문제목: 휴먼고딕, 글자크기 15, 진하게 가운데 정렬
- 3) 연구자 및 소속: 신명조, 글자크기 11, 가운데 정렬
- 4) 요약: 제목은 휴먼고딕, 글자크기 9, 줄 간격 150, 가운데정렬
요약본문: 신명조, 크기 9, 줄간격 150, 들여쓰기 10
- 5) 본문 글꼴 설정: 신명조 10,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장평 95%, 자간 -10%
- 6) 각주: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왼쪽여백 4, 내어쓰기 3, 줄 간격 150
- 7) 긴 인용: 신명조, 글자크기 9, 장평 95%, 자간-4%, 줄 간격 150, 들여쓰기 10,
여백주기 오른쪽 5, 왼쪽 5
- 8) 참고문헌: 휴먼고딕, 글자크기 12, 진하게, 가운데 정렬
목록내용: 신명조, 글자크기 10, 장평 95%, 자간-4%, 여백주기: 왼쪽 8, 내어쓰기 7,
줄 간격 130

8. 제출 원고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작성한다.

1) 본문 소제목: 본문의 구분은 장(章), 절(節), 항(項) 순으로 배열한다.

장은 ‘I, II, III, …’의 순으로, 절은 ‘1, 2, 3, …’의 순으로, 항은 ‘(1), (2), (3), …’의 순으로 번호를 매긴 후, 제목을 표기한다. 세분화를 지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세분화된 제목은 ‘①, ②, ③, …’, ‘i), ii), iii), …’을 따른다.

2) 논문 작성 시 참고한 내용이나 아이디어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① 본문 내 직접인용일 경우 큰따옴표(“ ”)를 사용하며, 본문의 인용은 APA 방식으로 한다.

예) 화이트헤드(Whitehead, 1932: 23)에 의하면,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 하다.” 혹은 “현대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Whitehead, 1932: 23).”

② 간접인용이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참조하였을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출처를 밝힌다.
…(Parshall, 2003: 23)

③ 3줄이 넘는 긴 인용 시 인용문 앞뒤에 한 줄씩 띄워 큰따옴표 없이 왼쪽 들여쓰기로 별도의 문단 다음과 구성한다.

④ 두 자료 이상을 참고 하였을 때는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김철수, 2007: 12; 박명순, 2009: 217)

⑤ 강조문은 따옴표(‘ ’)를 사용한다.

⑥ 성경 인용의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 1).”, 혹은 (창 1:1)

⑦ 2인의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희계·이희계, 2009: 217-218; Kim and Lee, 2008: 20)

⑧ 3인 이상 공동저술 인용의 경우: (김철학 외, 2010: 12; Smith et al., 2005: 50)

⑨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 저술 인용의 경우: (이윤리, 2007a: 18; 2007b: 27)

3) 각주는 설명하거나 보충하는 내용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단순한 자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은 각주에 표기하지 않고 본문에 넣는다.

4) 그림과 표 제시: 모든 그림(사진)과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1) 그림(사진) 제시 방법

① 그림을 일련번호를 붙이되,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Figure 1.1, Figur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그림 제목은 하단 중간에 제시한다. 그림은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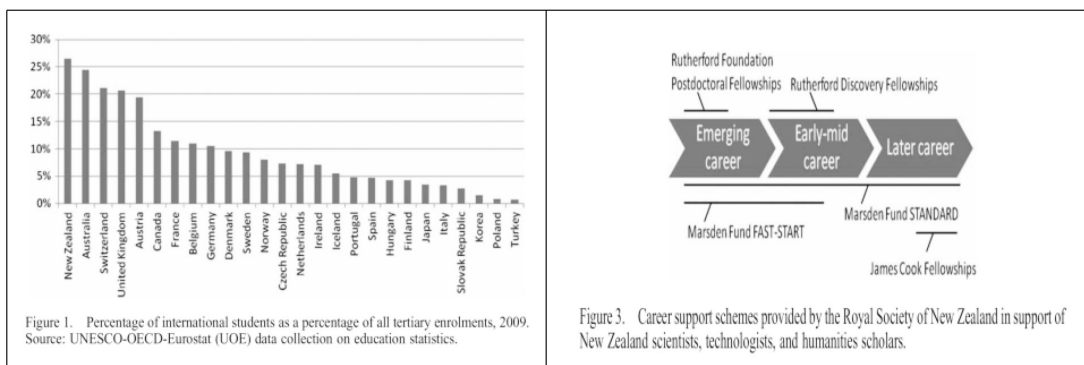
얕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Figure 1. Percentage of international students as a percentage of all tertiary enrolments, 2009. Source: UNESCO-OECD-Eurostat (UOE) data collection on education statistics.

(예) Figure 3. Career support schemes provided by the Royal Society of New Zealand in support of New Zealand scientists, technologists, and humanities scholars.

② 제시한 그림의 출처가 있는 경우 그림 아래에 그 출처를 아래 그림과 같이 표시한다.

③ 그림(사진)을 본문에 인용할 때는 Figure 1, Figure 2, Figure 3...로 표시한다.



(2) 표 제시방법

① 표의 제목과 설명은 영문으로 한다. 표의 번호는 Table 1, Table 2 등의 일련번호를 붙이고, 번호를 Table 1.1, Table 1.2 등으로 세분하지 않도록 한다. 표 제목은 상단 왼쪽에 제시한다. 표는 원본 그대로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만들어 제출하며,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결, 명확하게 표기한다.

(예)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예)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② 표를 본문에 인용할 때는 Table 1 으로 표시한다.

③ Table의 크기가 한 면보다 클 경우 각각 별도의 쪽에 작성하며, 가급적 인쇄 후 한 쪽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Table이 다른 쪽이나 다른 Table로 이어지는 경우는 끝에 “continued”를 표기한다.

- ④ Table 밑에 각주(footnote)를 달 때는 Table 내용 중 설명하려는 단어 또는 문장 끝에 아라비아 숫자 1), 2), 3)으로 나타낸다. *, **, *** 표시는 통계분석의 유의확률이 $p < 0.05$ 나 $p < 0.01$, $p < 0.001$ 을 나타낼 때만 사용하며, p 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다중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표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다.

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in the two studies and in the two groups of Study 2, and statistical comparisons

	Study 1 N = 152	Study 2		Statistical comparisons	
		Intervention N = 58	Control N = 58	Study 2 Intervention-control	Study 1 – Study 2
Age range of children in months (M-SD)	48–96 (74.32–12.65)	44–94 (68.18–11.72)	40–96 (71.71–13.50)	$t(114) = 1.50, p > .01$	$t(266) = 2.82, p < .01$
Age range of mothers in years (M-SD)	24–51 (35.95–5.55)	24–45 (34.86–4.17)	27–48 (36.92–5.38)	$t(114) = 2.30, p > .01$	$t(266) = .09, p > .01$
Age range of fathers in years (M-SD)	25–57 (38.02–6.26)	27–47 (36.87–4.46)	26–53 (39.21–6.97)	$t(114) = 2.12, p > .01$	$t(266) = -.01, p > .01$
Gender (% boys)	52	32.2	40.4	$\chi^2(1) = .83, p > .01$	$\chi^2(1) = 7.15, p < .01$
Mo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57 (.72)	2.75 (.68)	2.66 (.69)	$t(114) = -.72, p > .01$	$t(266) = -1.52, p > .01$
Fathers' mean educational level (SD)	2.39 (.85)	2.57 (.73)	2.36 (.82)	$t(114) = -1.46, p > .01$	$t(266) = -.79, p > .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s bivariate correlations, and effect sizes for Study 1

	Pre-test M (SD)	Post-test M (SD)	$t(151)$	r	d
<i>Mothers' report</i>					
Support	4.22 (.34)	4.26 (.34)	-2.05*	.69	.15
Control	2.34 (.40)	2.28 (.39)	2.91**	.82	.25
Self-efficacy	4.12 (.36)	4.10 (.38)	1.14	.78	
<i>Fathers' report</i>					
Support	3.97 (.45)	3.96 (.43)	-.35	.76	
Control	2.34 (.35)	2.29 (.37)	2.28*	.65	.17
Self-efficacy	3.99 (.41)	4.03 (.39)	-1.94*	.80	.16
<i>Children's report</i>					
Support	3.69 (.49)	3.79 (.57)	-2.58**	.63	.22
Control	2.65 (.60)	2.49 (.62)	4.45***	.74	.36

* $p < .05$; ** $p < .01$

9. 참고문헌의 출처는 반드시 본문의 출처와 일치해야 하며, 참고문헌 작성은 원전, 한국문헌, 중국문헌, 일본문헌, 서양문헌, 인터넷 등 기타문헌 순으로 하며, 가나다/ABC순으로 정렬한다. 책이나 잡지명 영어의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글 제목은 진하게 표기한다.

1) 영문 참고문헌의 경우

① 단행본:

Marsden, G. E. (1997). *The Outrageous Idea of Christian Scholarship*.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② 번역서:

Meargham, P. (1984). *Wit: Its Meaning*. Trans. George Playe. Boston: Smith.

③ 정기간행물:

Todd, S. and G. Haydon (2001). Guilt, suffering and responsibility.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5(4), 597-614.

④ 편저:

Bloom, B. S. (Ed.) (1956). *Taxonomy of Educational Objectives*. New York: David McKay.

Oakeshott, M. (1989). A place of learning. in Fuller, T. (Ed.) (1989). *The Voice of Liberal Learning*.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⑤ 2판 이상의 문헌:

Weimer, D. and A. Vining (1992). *Policy Analysis: Concepts and Practice*. (2nd ed.). Englewood Cliffs: Prentice Hall.

⑥ 석·박사 학위논문: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⑦ 연구보고서: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⑧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⑨ 판례: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⑩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10(1), 231-256.

2) 영문 외 참고문헌은 해당 언어와 영문을 병기한다.

① 단행본:

손봉호 (1994). **고통받는 인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Sohn, B. H. (1994). *Human in Pain*.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② 정기간행물:

유재봉 (2016). 학교 인성교육의 문제점과 방향. **교육철학연구**, 38(3), 99-119.

[Yoo, J. B. (2016). School education for humanity: problems and directions. *The Journal of Philosophy of Education*, 38(3), 99-119.]

③ 편저:

박준언. (2005). 이중 언어이론과 영어 교육. 황적륜 (편저). **현대 영어 교육의 이해와 전망** (pp. 270-295).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Park, J. U. (2005). Bi-Lingual Language and English Education. In Hwang, J. L., Acock, K. R. & Park, J. U. (Eds.). *Source Book of Family Theory and Research* (pp. 270-295).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④ 석·박사 학위논문:

이광희 (2008). **대학생의 애착, 정서지능, 진로 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결정간의 구조적 관계**. 박

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Lee, G. H. (2008).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Attachment,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Decision Making in University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or Masters Dissert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⑤ 연구보고서:

이혜영 외 (2008). **미래학교 모형 탐색연구**. 한국교육개발원.

[Lee, H. Y. et al. (2008). *Search for a Future School Model*.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⑥ 인터넷 자료 및 신문기사:

00일보 2010. 3. 3일자 5면. “기사제목.”

<http://www.dfes.gov.uk/achievementsuccess>. (검색일 2005.11.11)

[“Title”, 00Il-Bo (2010.3.3.). Retrieved from <http://...> (2005.11.11.)]

⑦ 판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101425 Decided April 7, 2017.]

⑧ 같은 연도에 발행한 동일 저자의 문헌을 2개 이상 참고한 경우:

손병덕 (2012a).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학지사.

[Sohn, B. D. (2012a). *Social Welfare Policy*. Seoul: Hakjisa.]

손병덕 (2012b). 아동의 권리침해현황. **한국범죄학**, 6(2), 157-184.

[Sohn, B. D. (2012b). The Current Situation of Children's Rights Infringements. *Korean Crime*, 6(2), 157-184.]

⑨ 번역서:

조흥식·정선옥·김진숙·권지성 역. (2005). **질적연구방법론**, Creswell, J. W.(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서울 : 학지사.

[Cho, H. S., Jung, S. W., Kim, J. S. & Kwon, J. S. (2005).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Seoul: Hakjisa. Trans. Creswell, J. W. (1994).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LA/London/New Dehl/Singapore/ Washington DC: SAGE]

10. 게재료 납부 : ‘게재가능’으로 통보받은 투고자는 게재료 40만원(연구비 지원의 경우는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제1저자가 전일제 대학원생이고, 연구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 게재료를 25만원으로 한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38720101-145158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기학연)>
11. 원고량은 편집 규격에 따른 편집된 매수로 원칙상 20쪽 이내로 하되, 최종 편집된 논문의 페이지를 기준으로 20쪽 이상의 초과한 경우에는 추가 조판비(한쪽당 1만원)를 부담해야 한다.
12. 원고 제출처 :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 <http://fs.jams.or.kr>
문의전화: 02-3272-4967 (사무실)
기독교학문연구회 편집위원장 이메일: faithscholar@naver.com
13. 학회지는 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4차례 발간하며, 투고자는 발간 약 50일 전, 각호 투고 마감일(2월 10일 5월 10일, 8월 10일, 11월 10일)까지 한글이나 MS 워드로 작성하여 직접 온라인투고심사시스템 홈페이지(<http://fs.jams.or.kr>)를 통해 신청접수 한다.
14. 논문의 본문 끝에는 두 줄을 띄워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이라고 표기한다.
15. 논문 투고 시 “논문투고 신청서”와 “저작권 양도 동의서”를 작성하고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와 함께 첨부파일 난에 첨부한다.
16.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연구윤리 규정

2007년 7월 1일 제정

2016년 4월 1일 개정

2017년 7월 1일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항. 이 규정은 기독교학문연구회(이하 학회)의 모든 회원이 학술과 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학자로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학회와 기독교학자의 윤리의식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항. 이 규정은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항들을 수행한다.

제1항.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제2항. 연구부정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

제3항. 제보자와 피조사자 보호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제4항. 조사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제5항.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제1항. 위원회는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5-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2항. 당연직인 위원장은 연구부회장이, 부위원장은 학술부회장과 편집위원장이 맡는다. 위원은 편집위원과 해당 연구윤리 심사에 적합한 학회 내외 인사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 대표하며, 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과 상의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3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편집위원을 포함한 학회 임원들 중에서 지명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 제4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도의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5항. 조사대상 연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은 위원으로 구성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5조(조사 및 회의)

- 제1항. 조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된다. 단, 위원장은 조사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제2항. 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에 조사와 관련한 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3항.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조사 외, 별도의 회의를 열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
- 제4항. 조사와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 제1항.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제2항.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제3항.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4항.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해야 한다.

제3장 연구윤리 위반 조사

제7조(부정행위 제보, 접수, 조사)

- 제1항.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방문, 전화, 서면, 이메일 등으로 부정행위 의심자와 그 관련 내용과 증거를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한 경우라도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서면과 이메일로 제보할 수 있다.
- 제2항. 논문과 함께 제출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검사(<https://check.kci.go.kr/>)에서 10% 이상 유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포괄적인 유사도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학회 사무국에 부정행위 제보가 들어오거나 포괄적인 유사도검증 결과 부정행위가 의심 될 경우, 사무국은 편집위원장과 연구윤리위원장에게 그 관련 사항을 <부정행위 제보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보고하고,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들에게 부정행위와 관련한 내용과 증거 자료를 원본 또는 사본으로 제출한다.

제4항. 해당 부정행위 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여부는 사무국의 보고가 있는 지 15일 이내 편집위원장이 주관하는 편집위원회를 개최하여 편집위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반에 따라 결정한다. 편집위원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편집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을 요청하며, 연구윤리위원장은 회장에게 보고한 후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한다. 편집위원 과반 미만이 찬성하면 제보는 반려되고 반려 이유를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 제보자에게 전달한다.

제5항.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특정인 및 연구 집단을 연구부정행위 대상으로 제보한 경우, 학회는 제보자에게 회원자격 박탈, 정지, 제한 또는 명예훼손죄를 비롯한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8조(용어)

제1항. “연구부정행위”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행한 것을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7조 2항부터 8항까지를 말한다.

제2항. “위조”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항. “변조”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항.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한 것을 말한다. 또한 자신이 이미 게재한 연구를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자기표절). 그리고 자신이 이전에 게재한 연구를 다른 학술지에 다시 게재한 경우를 말한다(이중게재).

제5항. “부당한 저자 표시”란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논문에 학술적 참여 또는 공헌을 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저자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6항. “저자 표시 누락”이란 논문에 논문저자 자격이 있음에도 누락시킨 행위를 말한다.

제7항. “이중 투고”란 동일한 연구를 우리 학회를 포함한 두 개 이상의 학회지에 투고하여 두 학회지 이상에서 게재 판정을 받고 우리 학회지에 게재를 포기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항. “기타 연구부정행위”란 제8조 제2항부터 제7항 외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9항. 학회 연구부정행위 규정 외에 더욱 세부적인 규정은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5. 11. 3)” 및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윤리 평가규정 및 사례(2015. 5월)”를 참조하고 따를 수 있다.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게 위원회에서 진술하기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해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 보전을 위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얻어 해당 연구 자료를 압수, 보관할 수 있다.

제10조(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제1항. 위원회는 제보자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거나 노출해서는 안 된다.

제2항.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공표하기 전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제3항. 위원회가 진행하는 조사의 일체 사항은 비밀이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자들은 조사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기피, 제척)

제1항. 제보자 및 피조사자는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에게 검증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그 이유를 밝히고 해당 위원에 대한 검증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회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기피신청을 인정할 경우 해당 위원은 검증 과정에서 배제된다.

제2항. 위원장이 조사 과정 중에 위원 중 해당 조사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위원의

위원 자격이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 보장)

제1항. 위원회는 검증 과정에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13조(판정)

제1항. 위원회는 조사 내용과 피조사자의 이의 제기 또는 소명 내용을 종합하여 판정을 내린다.

제2항.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4장 후속 조치

제14조(제재)

제1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 ① 해당 논문에 대해서 게재를 불허한다.
- ② 기 게재 논문의 경우 게재를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공지한다.
- ③ 학회 회원 및 본 학회와 관련한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 ④ 경중에 따라 회원 자격을 1년에서 5년까지 정지, 영구적 박탈, 민형사상 법적 조치한다.
- ⑤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단, 경미하거나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 또는 기타 부적절한 행위는 주의, 경고, 공개사과 조치를 취한다.

제15조(결과 통지)

제1항.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6조(재조사)

제1항.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명예회복)

제1항.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제1항. 검증과 관련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2항. 판정 결과는 학회 상임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19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독교학문연구회

학 회 장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 집 위 원 장	황혜원 (청주대학교)
연구부학회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편 집 위 원	권오병 (경희대학교)
학술부학회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경민 (전남대학교)
기획부학회장	김철수 (조선대학교)		김대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감 사	류현모 (서울대학교)		김성원 (서울신학대학교)
	이명헌 (인천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총 무	오민용 (서울대 법학연구소)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학 회 이 사	강영안 (Calvin College, 미국)		신응철 (동아대학교)
	김홍섭 (인천대학교)		염동한 (부산대학교)
	문석윤 (경희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박신현 (고신대학교)		이은실 (한동대학교)
	박영주 (미드웨스턴신학교)		임춘택 (제주대학교)
	서성록 (안동대학교)		조은주 (고신대학교)
	손병덕 (총신대학교)		허계형 (총신대학교)
	양성만 (우석대학교)		현창기 (한동대학교)
	유재봉 (성균관대학교)		Paul Lim (Vanderbilt University, 미국)
	윤완철 (카이스트대학교)		
	이경직 (백석대학교)		
	장수영 (포항공과대학교)		
	조무성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조성표 (경북대학교)		
	최태연 (백석대학교)		
연구윤리위원장	고세일 (충남대학교)		
부연구윤리위원장	김지원 (백석대학교)		
	김철수 (조선대학교)		

신앙과 학문

제27권 제1호 (통권 90호), 2022년 3월호

발행일 2022년 3월 31일

발행처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행인 박문식 (한남대학교)

편집인 황혜원 (청주대학교)

디자인 이지은

인쇄 (주) 에스제이피앤비

등록 141-81-36939

주소 06367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56길 8-13, 910호

기독교학문연구회

전화 02-3272-4967

팩스 0303-0272-4967

전자우편 gihakyun@daum.net

홈페이지 <http://www.worldview.or.kr>

<http://fs.jams.or.kr>

ISSN 1226-9425

정가 15,000원